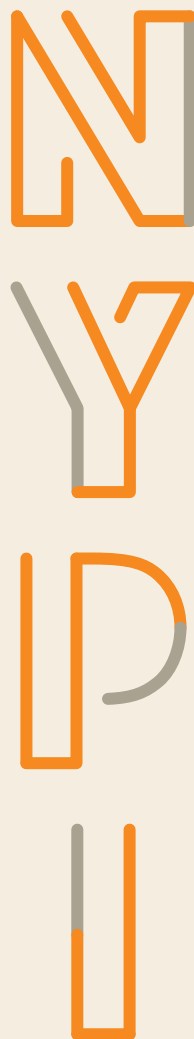


연구보고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황여정 이정민



연구보고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저 자 황여정, 이정민

연 구 진 연구책임자_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이정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_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국문초록

이 연구는 청소년 보호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자의 실태를 보여주는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부재했던 ‘위기청소년’ 분야의 정책 통계 환경 개선을 위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 2차 자료 분석, 행정통계자료 검토, 기존 조사 내용 분석, 전문가 대상 FGI 및 온라인 의견조사, 위기청소년 당사자 대상 예비조사(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포함)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설계는 크게 조사대상 설계, 조사내용 설계, 실사 추진 방안 설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조사대상 설계를 위해 정책 목표 집단으로서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설정하고, 관련 법령과 자료를 검토하여 귀납적 방법으로 위기청소년의 유형과 범주를 설정하였다. 위기청소년의 범주는 가족적 위기, 교육적 위기, 개인적 위기, 사회적 위기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범주에 빈곤, 가출, 가정폭력·학대,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가피해, 유해 약물 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도박 중독, 범죄 가피해, 심리·정서적 위기청소년이 세부 유형으로 포함되었다. 조사내용 설계는 기존에 수행된 유관 실태조사 29종에 대한 설문지 내용 분석과 전문가 FGI, 정부 부처 의견 수렴, 위기청소년 당사자 검토 및 연구진의 반복적인 검토를 거쳐 총 6개 대영역 14개 세부주제에 대해 123개의 조사항목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조사내용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영역과 주제에 대해 적절성과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위기청소년 당사자 62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유효표본 565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표의 난이도, 내용의 적절성 등은 양호하게 평가되었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표 수정·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표 수정 방안을 제시하여 최종 조사내용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조사 명칭, 조사 목적, 목표 모집단 및 조사 모집단, 조사 목표 인원과 조사 유형, 조사 방법, 조사 주기 등을 포함한 실사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정책활용도 높은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타 실태조사와의 법적 근거 정비, 정부의 주요 정책계획과의 연계, 효과적인 조사 거버넌스 구축, 기존 실태조사와의 중복 방지를 위해 기존 조사 흡수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위기청소년 실태조사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칭)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조사결과를 연계 활용하고,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성과 지표로 활용하며,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로 경계선 지능 장애 청소년에 대한 정책연구의 필요성과 장기적 관점에서 실태조사 자료와 행정통계 자료와의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 현황, 위기청소년 유형, 실태조사,
위기의 보호요인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 보호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자의 실태를 보여주는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부재했던 ‘위기청소년’ 분야의 정책 통계 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추진 예정인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조사대상 설계를 위해 정책 목표 집단으로서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설정하고, 유형과 범주를 구분하여 규모를 추정하고자 하였음. 또한 조사내용(안)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정·보완 사항을 확인하여 최종 조사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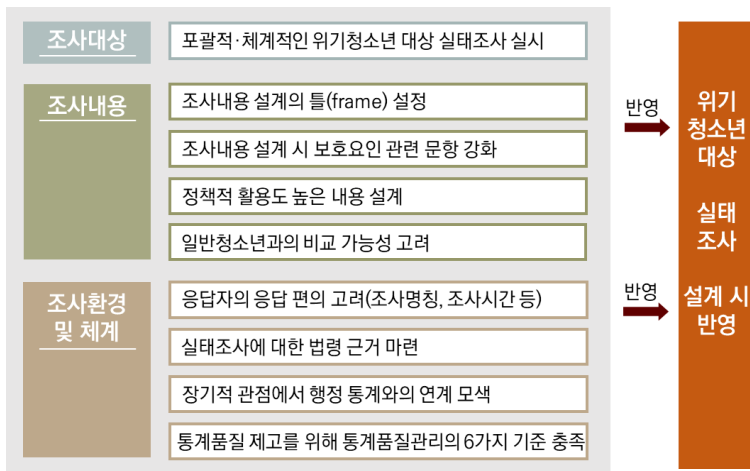
- 위기청소년의 개념 및 유형과 범주 설정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조사대상인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 설정 및 유형과 범주를 도출하였음.
- 위기청소년 규모 추정
 - 위기청소년 개념 및 유형 설정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2016-2018)」에 대한 2차 자료 분석을 비롯해 다양한 행정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위기청소년 유형별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 분포와 특성을 확인하였음.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내용 설계를 위한 기존 조사 내용 분석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내용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문헌연구 방법으로 위기청소년 혹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와 관련하여 그간 실시된 유관 실태조사 총 29종을 분석하였음.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내용설계 방안(초안) 도출 및 예비조사 실시
 - 위기청소년 관련 실무 및 연구경력을 갖춘 전문가 대상 1단계 및 2단계 FGI(총 7회), 유관부처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위기청소년 당사자 검토, 전문가 대상 내용타당도 및 중요도 평가를 위한 웹 설문조사 등 다양한 검증 과정을 거쳐 총 6개 영역 14개 세부주제 123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내용(안)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조사표(안)을 도출함.
 - 이를 토대로 위기청소년 총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의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10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 방식의 예비조사를 병행 실시함.
- 예비조사 결과 분석 및 이를 반영한 최종 조사 설계 방안 도출
 - 예비조사는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음. 먼저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조사내용의 타당성과 적절성, 문항 로직의 오류, 선택지 수정·보완 사항들을 점검하였음. 또한 설문지 전반에 대한 평가 문항을 별도로 수록하여, 위기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예비조사를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조사내용을 확정하고, 표본설계전문가의 참여로 비례할당추출법을 통해 표본설계를 진행하였음.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제언
 - 정책활용도 높은 실태조사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방안을 검토하였음. 정책방안은 조사의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과 조사결과의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그리고 향후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3. 주요 결과

1) 위기청소년 개념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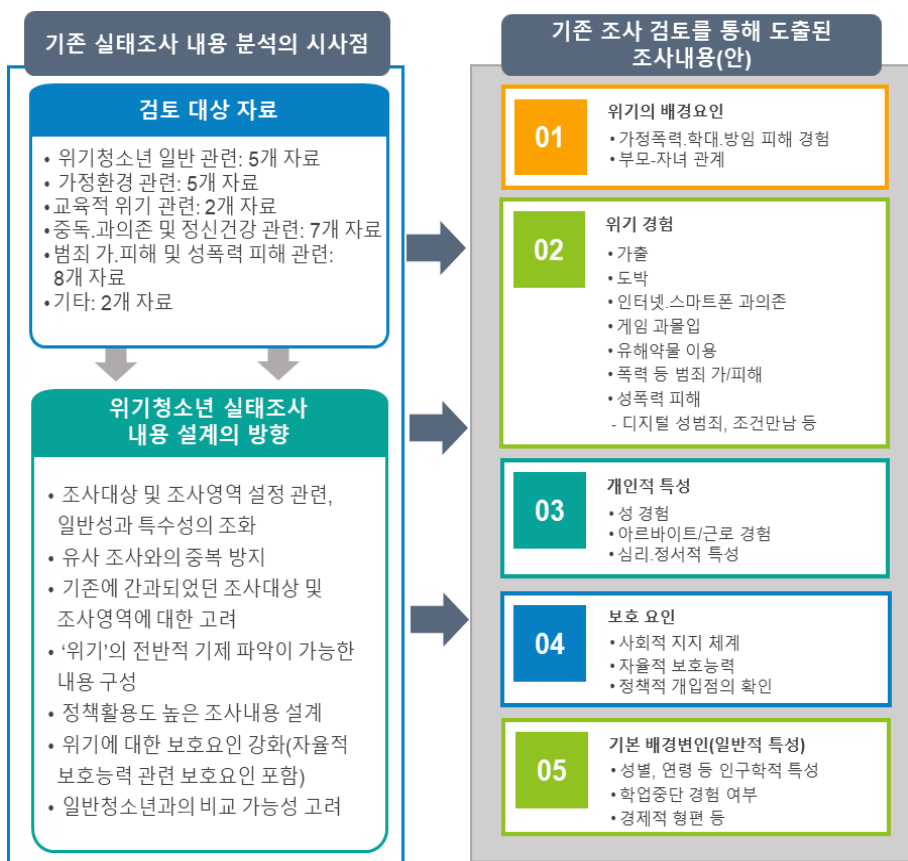
- 위기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조사대상의 측면에서, 기존 실태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적 위기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실시의 필요성을 확인함.
 - 조사내용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실태조사 내용 설계를 위해 조사내용 설계의 틀을 사전에 설정하고, 위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보호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 반영되어야 하며,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 조사환경의 측면에서는, 위기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명칭 선정 등이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 통계와의 연계가 모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음.



[선행연구 검토 결과 및 주요 시사점]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기존 조사 내용 분석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내용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위기청소년 혹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와 관련하여 그 동안 실시된 각종 실태조사 총 29종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에 맞춰 조사항목을 배치분석하였음. 기존 조사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기존 실태조사 내용분석의 시사점 및 도출된 조사내용(안)]

3) 조사 내용 설계(안) 도출 및 예비조사 실시

- 선행연구 검토, 기존 조사 내용 분석, 전문가 FGI, 정부 부처 의견 수렴, 위기청소년 당사자 검토 및 반복적인 연구진 검토를 거쳐 6개 영역으로 구성된 다음과 같은 조사 내용 설계(안)을 도출하였음.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예비조사 조사표의 대영역 및 세부주제 구성]

대영역	세부주제	조사항목 수(개)
1.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1-1. 가정 내 경험	8
	1-2. 가정 밖(가출) 경험	15
	소계	23
2. 일상생활 경험	2-1. 유해약물 이용 경험	5
	2-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4
	2-3.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9
	2-4. 성 경험	3
	2-5. 아르바이트 경험	12
	소계	33
3. (성)폭력 피해 경험	8. 폭력 피해 경험	6
	9. 성폭력 피해 경험	7
	10. 조건만남 경험	11
	11.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6
	소계	30
4.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12. 심리·정서적 특성	10
	13. 자해 경험	7
	14. 자살 시도 경험	7
	소계	24
5. 정책적 수요		3
6. 일반적 특성		10
총계		123

- 예비조사 조사표를 토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수정 사항을 도출하였음.
 -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내용 및 조사표의 주요 수정 방안으로, ①문항이동 로직의 수정·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②응답 방식(단수응답/복수응답)의 변경, ③일반청소년과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문항 수정, ④‘기타’ 응답으로 제시된 선택지 반영 여부 및 응답 빈도가 낮은 선택지 통합 등

선택지 수정, ⑤문항의 의미 명료화 및 세부 문항 추가, ⑥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영역 및 문항 확인 등 6가지 범주로 조사표 수정 방향을 도출하고, 조사표를 수정하여 최종 조사내용 도출함.

4)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최종 설계방안의 도출

- 예비조사 수정 방안을 반영하여 조사내용을 확정하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입소자수를 조사모집단으로 삼아 비례할당추출법을 통해 표본설계를 진행하였음. 연구의 전(全)과정을 거쳐 도출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최종 설계방안은 다음과 같음.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조사 설계안]

구분	내용
조사 명칭	• (가칭)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조사 목적	• 위기청소년의 종합적 실태 파악 및 정책활용도 높은 기초 자료의 산출
목표 모집단	• 개인적·가족적·교육적·사회적 원인 등 다양한 위기로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
조사 모집단	• 위기청소년 대상 주요 지원기관에 입소 경험이 있는 청소년
조사 대상 연령	• 만 12세 이상~만 19세 미만 (※ 조사내용을 고려해 중학교 취학연령을 조사 대상 연령의 하한으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상한으로 설정)
조사 대상 표집	• 전국 위기청소년 5,000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서비스 이용 청소년 700명 -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 청소년 1,500명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이용 청소년 1,120명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국립청소년디딤센터 이용 청소년 150명 - 아동보호치료시설(6호처분 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150명 - 소년원 입원 청소년 400명 - 보호관찰소 청소년 800명 - 해바라기센터 지원 대상 청소년 180명 (※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5,000명으로 산출, 추후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변경 가능)
조사 유형	• 횡단조사
조사 방법	• 대면조사 원칙 (※ 비대면 시, 우편조사로 대체하되 온라인조사는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특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적용하지 않음)
조사 주기	• 2년 주기
조사 내용	• 5개 영역 14개 세부주제 123개 항목

구분	내용
	- [가정 안팎의 생활경험] 영역: '가정 내 경험'(8개), '가정 밖(가출) 경험'(15개) 등 2개 세부주제 총 23개 항목 - [일상생활 경험] 영역: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4개), '아르바이트 경험'(12개), '유해약물 이용 경험'(5개),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9개), '성 경험'(3개) 등 5개 세부주제 총 33개 항목 - [(성)폭력 피해 경험] 영역: '폭력 피해 경험'(6개), '성폭력 피해 경험'(7개), '조간만남 경험'(11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6개) 등 4개 세부주제 총 30개 항목 -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영역: '심리·정서적 특성'(10개), '자해 경험'(7개), '자살 시도 경험'(7개) 등 3개 세부주제 총 24개 항목 - [정책적 수요] 영역: 총 3개 항목 - [일반적 특성] 영역 : 총 10개 항목

4. 정책제언

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가 안정적·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제안하였음. 이를 위해 기존 실태조사와 혼재되어 있는 법적 근거 체계 정비를 위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실태조사 자료의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해 주요 정부시책과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제안하고, 효과적인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조사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였음. 아울러 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조사와의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음.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정책적 활용 방안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종합대책과 실태조사를 연계하여 근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음.

- 그 밖의 활용 방안으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와의 연계 방안, 지원기관별·유형별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개발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연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3)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의 이질성 문제로 인해 담지 못하였으나,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향후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에 대한 별도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사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현실에서 다양한 위기가 중복해서 나타나는 위기청소년 집단이지만 설문조사로는 접근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 장애 청소년에 대한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실태조사 자료와 행정통계 자료와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음.

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제언]

- 1-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타 실태조사와의 법적 근거 정비
- 1-2. 청소년 분야 주요 정책계획과의 연계 강화 시스템 구축
- 1-3. 효과적인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조사 거버넌스 구축
- 1-4. 기존 실태조사와의 중복 방지를 위한 기존 조사 흡수·통합
- 1-5. 의미 있는 결과 산출을 위한 표본 크기 유지 및 예산 확보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정책적 활용 방안]

- 2-1. 「(가칭)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의 수립·제정
- 2-2.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정책 성과 지표로 활용
- 2-3. 지원기관별·유형별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개발 근거로 활용
- 2-4.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연계 활용
- 2-5.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3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 3-1. 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에 대한 별도의 조사연구 추진 방안 검토
- 3-2. 경계선 지능 장애 청소년에 대한 정책연구 필요
- 3-3.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통계 자료와의 연계 추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성공적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연구보고 20-R24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 내용 6
 - 1) 위기청소년 개념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 6
 - 2) 위기청소년 유형 설정 및 규모 추정 7
 - 3)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기존 조사 내용 분석
..... 7
 - 4) 조사 내용 설계(안) 도출 및 예비조사 실시 8
 - 5)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최종 설계방안 도출 8
 - 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방안 제언
..... 9
- 3. 연구방법 9
 - 1) 문헌연구 9
 - 2) 전문가 자문 9
 - 3) 전문가 의견조사 10
 - 4) 양적연구: 예비조사(Pilot survey) 10
 - 5) 질적연구: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위기

청소년 면담조사	11
6) 기타 연구방법	12
4. 연구 추진절차	13

II.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배경의 목적과 개요	17
2. 청소년 '위기'와 위기청소년의 개념	19
1) 청소년 '위기'의 개념	19
2) 위기청소년의 개념	21
3. 청소년 위기의 속성	26
1) 청소년 위기의 연속성과 수준	26
2) 청소년 위기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30
4. 기존 실태조사의 성과와 한계	34
1)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35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6
3)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조사	38
4) 「학교폭력 실태조사」	40
5)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조사(2017)」	41
6) 「아동종합실태조사」	43
7)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45
8)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47
5. 소결 및 시사점	47
1) 위기청소년 개념의 설정	48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시사점	50

III. 위기청소년의 유형 및 범주와 규모

1. 위기청소년 유형 및 범주 설정과 규모 추정의 개요 ..	59
2. 위기청소년의 유형과 범주	61
1) 법령에 규정된 위기청소년의 세부 유형	61
2) 정책대상으로서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	69
3. 위기청소년의 연령 범위	79

4. 위기청소년의 규모	82
1) 개요	82
2) 가족적 위기상황 유형별 위기청소년 규모	84
3) 교육적 위기상황 유형별 위기청소년 규모	92
4) 개인적 위기상황 유형별 위기청소년 규모	95
5) 사회적 위기상황 유형별 위기청소년 규모	107
5. 소결 및 시사점	112

IV.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기존 조사 내용 분석

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기존 조사 내용 분석의 개요	117
1) 목적 및 분석자료	117
2) 분석의 틀(frame)	121
2. 위기청소년에 관한 기존 조사 내용분석의 실제	122
1) 위기청소년 전반에 관한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	122
2) 가정환경 관련 위기(가정폭력·학대·방임 및 가출)에 관한 기존 실태조사 내용분석	127
3) 교육적 위기(학업중단, 학교폭력 등)에 관한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	131
4) 중독과 의존(약물,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도박 등) 및 정신 건강에 관한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	135
5) (성)폭력 등 범죄 가피해에 관한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 ..	139
6) 기타 청소년 일반에 관한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 ..	143
3. 소결 및 시사점	146
1) 조사대상 및 조사영역 설정 관련	146
2) '위기'의 전반적 기제 파악이 가능한 내용 구성 ..	149
3) 정책활용도 높은 실태조사 설계	150
4) 위기에 대한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 관련 조사내용 강화	151
5)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염두에 둔 조사항목 설계 ..	152
6) 기존 실태조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조사영역(안) ..	152

V. 조사내용 설계

1. 조사내용 설계의 개요	157
1) 조사내용 설계의 목적	157
2) 조사내용 설계의 쟁점	158
3) 조사내용 설계의 기준	161
4) 조사내용 설계 절차	166
2. 1단계 전문가 FGI 결과 및 반영 방안	169
3.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안)의 도출	175
1) 가정 안팎 생활경험 영역 구성	175
2) 일상 생활 경험 영역 구성	176
3) (성)폭력 피해 영역 구성	179
4) 심라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조사항목 구성(안) ..	180
5) 정책적 수요 및 일반적 특성 구성	182
4. 2단계 전문가 FGI 결과 및 반영 방안	182
5. 전문가 대상 내용타당도 및 중요도 평가	186
1) 내용타당도 평가	186
2) 중요도 및 우선순위 평가: 계층화분석법(AHP)	202
6. 조사전문가 검토	210
7. 기타: 관계부처 및 청소년 당사자 검토	214
8. 조사내용 설계(안)의 도출	217

VI.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예비조사 결과분석

1. 예비조사의 개요	231
1) 설문조사	231
2) 면담조사	237
3) 기타 : 연구윤리의 준수	238
2. 예비조사 설문조사 결과	238
1) 기관 유형별 예비조사 표집 결과	238
2) 설문지 전반에 대한 평가	242
3) 예비조사 조사표 검토 의견	250
4) 예비조사 주요 문항 응답 결과 분석	252
3. 면담조사 결과	291

4. 소결	294
1) 설문지 전반에 대한 주요 평가 결과 요약	295
2) 예비조사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요약	297
3) 조사내용 및 조사표 주요 수정 방향	299

Ⅶ.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최종 설계방안

1. 최종 설계방안의 도출 과정	303
2. 조사 대상 설계	305
1) 모집단 분석	305
2) 표본 크기	308
3) 층화	309
4) 표본 배분	310
5) 가중치	314
6) 모수 추정	315
3. 최종 조사내용의 도출	317
1) 조사영역 및 세부주제의 확정	318
2) 최종 조사항목 및 조사문항의 도출	320
3) 최종 조사내용 설계안의 특징	333
4) 조사 명칭	340
4. 실사 추진 방안	340
1) 조사 유형	339
2) 조사 방법 및 조사 관리	341
3) 조사 주기	341
5. 소결	343

Ⅷ.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정책 활용 방안

1. 정책 활용 방안의 개요	347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	348
1) 제안 배경	348
2) 제안 내용	348
3.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정책적 활용 방안	360
1) 제안 배경	360

2) 제안 내용	360
4.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369
1) 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에 대한 별도의 조사연구 검토	369
2) 경계선 지능 장애 청소년에 대한 정책연구 필요 ..	370
3)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통계 자료와의 연계 추진 ..	371
참고문헌	375
부 록	391
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조사표(안)	393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예비조사(안) 전문가 의견조사서(웹설문) ..	433
ABSTRACT	457

표 목차

표 I-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 방안(안) 주요 내용	8
표 I-2 전문가 자문 내용	10
표 I-3 양적연구: 예비조사(Pilot survey) 실시 개요	11
표 I-4 질적 연구1: 현장전문가 및 대상 FGI 실시 개요	11
표 I-5 관계부처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개요	12
표 II-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위기청소년 개념	24
표 II-2 법령에 명시된 위기청소년 개념	26
표 II-3 위기 단계별 특성	27
표 II-4 청소년의 위기수준 4분류	29
표 II-5 위기청소년의 위험요인	31
표 II-6 한국의 청소년의 위험요인	32
표 II-7 위기상황 영역별 구성	32
표 II-8 청소년의 보호요인	33
표 II-9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내용(2016년)	35
표 II-10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조사 내용(2018년)	37
표 II-11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조사항목	39
표 II-12 「학교폭력 실태조사」 조사항목	41
표 II-13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조사」 주요 조사 내용	42
표 II-14 제3차 「아동종합실태조사」 응답자별 조사 영역	44
표 II-15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개요	46
표 III-1 위기청소년 관련 법령 규정: 여성가족부 소관	62
표 III-2 위기청소년 관련 법령 규정: 보건복지부 소관	64
표 III-3 위기청소년 관련 법령 규정: 교육부 소관	66
표 III-4 위기청소년 관련 법령 규정: 법무부 소관	67
표 III-5 위기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도출된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	68

표 Ⅲ-6 유관부처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및 지원 대상: (1) 여성가족부	71
표 Ⅲ-7 유관부처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및 지원 대상: (2) 보건복지부	74
표 Ⅲ-8 유관부처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및 지원 대상: (3) 교육부	75
표 Ⅲ-9 유관부처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및 지원 대상: (4) 법무부	76
표 Ⅲ-10 유관부처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및 지원 대상: (5) 기타	77
표 Ⅲ-11 청소년 관계 법령의 연령기준	80
표 Ⅲ-12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별 규모 추정 및 특성 분석을 위한 검토 자료	82
표 Ⅲ-13 기준 중위소득 추이	85
표 Ⅲ-14 연도별 빈곤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수 및 비율: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86
표 Ⅲ-15 연도별 빈곤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규모와 비율: 모집단 추정치	87
표 Ⅲ-16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2016-2018)	88
표 Ⅲ-17 학대 피해 아동 연령(2018)	88
표 Ⅲ-18 보호대상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89
표 Ⅲ-19 보호대상아동 보호 현황	90
표 Ⅲ-20 경찰청 실종·가출인 신고접수 현황(9-24세)	91
표 Ⅲ-21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인원	91
표 Ⅲ-22 2차 자료를 활용한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 청소년 규모 추정	92
표 Ⅲ-23 연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현황	93
표 Ⅲ-24 학교 밖 청소년 규모(부분집합 방식 적용)	94
표 Ⅲ-25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규모	95
표 Ⅲ-26 흡연 중·고등학생 규모 추정치	96
표 Ⅲ-27 음주 중·고등학생 규모 추정치	97
표 Ⅲ-28 약물 경험 중·고등학생 규모 추정치	98
표 Ⅲ-29 청소년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주의사용자군 구분(2018-2020년)	100
표 Ⅲ-30 청소년 스마트폰 위험사용자군·주의사용자군 구분(2018-2020년)	101
표 Ⅲ-3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유형별 과의존 현황	102
표 Ⅲ-32 게임 과몰입 청소년 규모 추산	103

표 III-33 재학 중 청소년 전체 도박문제 수준	105
표 III-34 심리정서적 위기(우울, 자살 등) 유형 청소년 규모 추정치 ..	106
표 III-35 청소년 범죄 유형별 현황(2016-2018)	107
표 III-36 범죄 피해 청소년(13-20세 이하, 2018년)	109
표 III-37 다문화가족 자녀수 연령별 현황(2016-2018)	111
표 III-38 연도별 유형별 다문화 학생 현황(2012-2019)	112
표 IV-1 기존 실태조사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자료 목록	119
표 IV-2 위기청소년 전반에 관한 기존 설문내용 분석	124
표 IV-3 가정폭력·학대·방임 및 가출에 관한 기존 설문내용 분석 ..	129
표 IV-4 교육적 위기(학업중단, 학교폭력 등)에 관한 기존 설문내용 분석	133
표 IV-5 중독·과의존 및 정신건강에 관한 기존 설문내용 분석	137
표 IV-6 (성)폭력 등 범죄 가피해에 관한 기존 설문내용 분석	141
표 IV-7 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설문내용 분석	144
표 V-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 시 일반성과 특수성의 적용	159
표 V-2 통계품질진단 기준	165
표 V-3 전문가 FGI 운영	167
표 V-4 전문가 대상 내용타당도 및 중요도 조사 참가자	168
표 V-5 관계부처 및 위기청소년 당사자 의견수렴 개요	169
표 V-6 1단계전문가 FGI 주요 결과 및 반영 방안	171
표 V-7 가정 안팎의 생활경험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176
표 V-8 일상 생활 경험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178
표 V-9 폭력 피해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180
표 V-10 심리정서적 행동 및 관련 행동 조사항목 구성(안)	181
표 V-11 정책적 수요 및 일반적 특성 조사항목 구성(안)	182
표 V-12 2단계 전문가 FGI 주요 결과 및 반영 방안	183
표 V-13 가정 내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188
표 V-14 가정 밖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189
표 V-15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190
표 V-16 아르바이트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191
표 V-17 유해약물 이용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192
표 V-18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193
표 V-19 성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194
표 V-20 폭력 피해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195

표 V-21 성폭력 피해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195
표 V-22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	196
표 V-23 조건만남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197
표 V-24 심리·정서적 특성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198
표 V-25 자해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199
표 V-26 자살 시도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200
표 V-27 정책 수요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201
표 V-28 일반적 특성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202
표 V-29 대분류 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203
표 V-30 가정 내 경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204
표 V-31 가정 밖 경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205
표 V-32 일상생활 경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205
표 V-33 폭력 피해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206
표 V-34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206
표 V-35 정책적 수요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207
표 V-3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	209
표 V-37 조사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한 조사표 영역 재배치	211
표 V-38 조사전문가 검토 의견 및 반영 방안	211
표 V-39 관계부처 검토 의견 및 반영 방안	214
표 V-40 위기청소년 당사자 검토의견 및 반영 방안	215
표 V-41 조사내용 설계(안)의 구성, 문항번호 및 작성 출처	218
표 V-42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 틀에 따른 조사항목 분포	226
표 VI-1 예비조사 표본설계(안)	232
표 VI-2 예비조사 설문지의 구성	235
표 VI-3 위기청소년 대상 FGI	238
표 VI-4 표집기관 유형별 실사 결과	239
표 VI-5 최종 분석 대상 누락 사유	240
표 VI-6 예비조사 응답자 기본 특성	241
표 VI-7 조사내용에 대한 불편도	242
표 VI-8 문항 이동 로직의 난이도	244
표 VI-9 문항표현의 난이도	244
표 VI-10 설문지 구조의 복잡성	245
표 VI-11 설문 응답 소요 시간	246
표 VI-12 설문 집중도 및 응답의 곤란도	247

표 VI-13 문항 과다로 인한 집중도 저하	248
표 VI-14 설문 응답을 도와주는 사람의 필요성	249
표 VI-15 예비조사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문항 주요 개선 의견	251
표 VI-16 집을 나오게 된 이유(복수응답)	254
표 VI-17 '헬퍼'와의 접촉 경험	257
표 VI-18 조건만남 관련 경험	266
표 VI-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율	269
표 VI-20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중복응답)	275
표 VI-21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 수요	276
표 VI-22 일반적 특성 문항 응답 결과	278
표 VI-23 다른 조사와의 비교: 가정 내 언어폭력 피해 경험	280
표 VI-24 다른 조사와의 비교: 가출 경험	280
표 VI-25 다른 조사와의 비교: 아르바이트 경험	281
표 VI-26 다른 조사와의 비교: 약물 이용 경험	282
표 VI-27 다른 조사와의 비교: 폭력 피해 경험	283
표 VI-28 다른 조사와의 비교: 성폭력 피해 경험	283
표 VI-29 다른 조사와의 비교: 건강검진 수검율	284
표 VI-30 예비조사 검토 결과: 문항 이동 로직의 수정·보완	285
표 VI-31 예비조사 검토 결과: 응답 방식의 변경	286
표 VI-32 예비조사 검토 결과: 비교가능성을 고려한 문항 수정	287
표 VI-33 예비조사 검토 결과: 응답 편의 제고 및 현실을 반영한 선택지 수정·보완	287
표 VI-34 예비조사 검토 결과: 부연 설명 및 지시문 추가	289
표 VI-35 예비조사 검토 결과: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영역 및 문항의 확인	290
표 VI-36 위기청소년 대상 면담 예비조사 결과: 종합적 의견	291
표 VI-37 위기청소년 대상 면담 예비조사 결과: 영역별 의견	293
표 VI-38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사내용 및 조사표 주요 수정 방향	300
표 VII-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별 연간 이용(입소)자수	307
표 VII-2 상대표준오차 산출을 위한 기준 문항	311
표 VII-3 위기청소년 지원기관별 조정된 표본 배분	312
표 VII-4 지원기관별 표본 배분(안)	313
표 VII-5 최종 조사표 도출을 위한 문항 수정 방안	321
표 VII-6 기존 유관 조사와의 조사내용 중복 방지 계획	334

표 VII-7 세부주제별 핵심-부가 구분 및 부가 항목(안)	335
표 VII-8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사내용 설계 방안	337
표 VII-9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가능 항목	338
표 VII-10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 명칭	340
표 VII-11 아동·청소년 분야 주요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	342
표 VII-1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조사 설계안	343
표 VIII-1 현행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체계	349
표 VIII-2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352
표 VIII-3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353
표 VIII-4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353
표 VIII-5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조사설계 수정안 ..	358
표 VIII-6 유관 조사 예산 규모(예시)	359
표 VIII-7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법적 근거	363
표 VIII-8 「(가칭)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법제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방안	363
표 VIII-9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지표 중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지표	364
표 VIII-10 지원기관별·위기유형별 지원 서비스 개발 시 활용 가능 정보(예시)	366
표 VIII-11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시 실태조사 결과 활용(예시)	368
표 VIII-12 정책활용 방안 종합	372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 추진 절차	13
그림 Ⅱ-1 선행연구 검토의 주요 내용 및 실태조사 설계와의 연계 방안	19
그림 Ⅱ-2 위기의 연속선	27
그림 Ⅱ-3 위기의 진행과정	29
그림 Ⅱ-4 위기청소년 개념의 핵심요소	50
그림 Ⅱ-5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 틀(안)	52
그림 Ⅱ-6 선행연구 검토 결과 및 주요 시사점	55
그림 Ⅲ-1 제Ⅲ장의 주요 연구내용 및 개요	60
그림 Ⅲ-2 시행계획 정책 지원 대상으로 제시된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	79
그림 Ⅲ-3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대상자 연령 구분	81
그림 Ⅲ-4 위기청소년 범주 및 유형 개념도	113
그림 Ⅳ-1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틀	121
그림 Ⅳ-2 기존 실태조사 내용분석의 시사점 및 도출된 조사내용(안)	153
그림 Ⅴ-1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 틀	163
그림 Ⅴ-2 조사도구 개발 절차	166
그림 Ⅵ-1 대체 표본 선정 기준	233
그림 Ⅵ-2 예비조사 실사 단계 및 방법	234
그림 Ⅵ-3 예비조사 설문지의 구성 예시: 조사 안내 및 동의서	236
그림 Ⅵ-4 예비조사 설문지의 구성 예시: 설문지 평가 문항	237
그림 Ⅵ-5 가정 불화 및 가정폭력 피해 경험(단위: %)	253
그림 Ⅵ-6 가출 생애 경험 및 최근 1년간 경험률(단위: %)	254
그림 Ⅵ-7 가출 후 지낸 장소(중복응답)	255
그림 Ⅵ-8 가출 중 어렵고 힘들었던 점(중복응답)	256
그림 Ⅵ-9 가출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	257

그림 VI-10 ‘헬퍼’ 관련 접촉 경험	259
그림 VI-11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단위: %)	260
그림 VI-12 게임 과몰입 가능성군 비율(단위: %)	261
그림 VI-13 도박(돈내기 게임) 관련 경험(단위: %)	262
그림 VI-14 올해(2020년) 아르바이트 경험률(단위: %)	263
그림 VI-15 폭력 유형별 경험률(단위: %)	264
그림 VI-16 성폭력 유형별 경험률(단위: %)	265
그림 VI-17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 n=30)(단위: %) ..	266
그림 VI-18 조건만남 경로(복수응답, n=31)(단위: %)	267
그림 VI-19 조건만남 관련 보호요인(단위: %)	268
그림 VI-20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경로(복수응답, n=114)(단위: %)	270
그림 VI-21 심리·정서적 특성	270
그림 VI-22 자해 시도 경험 및 빈도(단위: %)	272
그림 VI-23 자살 시도 경험 및 자살을 생각한 이유(단위: %)	273
그림 VI-24 자해 시도 및 자살 시도에 대한 보호요인(단위: %)	274
그림 VI-25 지원서비스 수요도: 영역별 및 상위 7개 항목별(단위: 점, %)	277
그림 VI-26 예비조사의 구성과 목적	295
그림 VI-27 설문지 전반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균 점수	296
그림 VII-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 방안 도출 과정	304
그림 VII-2 위기청소년 유형별 주요 지원기관	306
그림 VII-3 조사내용 설계의 목적, 방향과 기준	318
그림 VII-4 최종 조사영역 및 세부주제의 구성과 영역별 배치	319
그림 VIII-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정책활용 방안 개요도	347
그림 VIII-2 청소년분야 실태조사와 해당 법적 근거 정비 방안	351
그림 VIII-3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주기와 주요 정책계획 반영 시기(안)	354
그림 VIII-4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추진 체계	356
그림 VIII-5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거버넌스 구축(안)	357
그림 VIII-6 근거에 기반한 위기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안)	361
그림 VIII-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가칭)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반영 계획(안)	362
그림 VIII-8 부산 사하구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문지(예시)	367

○ — 제 I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내용
- 3. 연구방법
- 4. 연구 추진절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최근 발생하는 위기청소년 문제가 학교폭력·자살·자해·가출 등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교육부·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5.16.) 이전에 비해 그 심각성이 대두된다. 아울러 정책적으로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 해 개최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중요한 의제로 논의하고,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2020년 청소년분야 정책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가출·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제시(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2.27.)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가 올해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방향」에서 청소년정책의 4대 전략 중 하나로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 기회 보장’을 강조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천명(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5.11.)한 것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반영한다.

실제로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은 청소년정책 중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25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추진한 청소년분야 정책과제를 분석한

1) 이 장은 황여정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바에 따르면, 청소년 분야 전체 정책과제 282개 가운데 보호·복지 영역인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영역에서 총 97개 사업이 추진되어 34.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여성가족부, 2019b: 13). 특히 이 가운데 위기청소년을 직접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과 ‘대상별 맞춤형 지원’ 해당 과제가 74개로 26.2%를 차지했고,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그 비중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사업 전체 예산 가운데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89.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여성가족부, 2019b: 13).

이처럼 청소년 분야 정책에서 보호·복지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중에서도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집중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자인 위기청소년의 실태를 보여주는 체계적인 통계자료는 구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인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떠한 정책적 수요를 내포하는지를 비롯해서, 그에 따라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이루어진 정책의 효과는 어떠한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지경, 황여정, 유홍식, 정윤미(2016: 3)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목표(target) 집단의 규모와 정책대상자의 지원 욕구, 정책적 개입점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통계가 정책수립과 평가의 환류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초자료임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통계 자료는 충분하지 못했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데이터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봉주, 김동일, 정익중(2008: 3)은 한국의 위기청소년 정책은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정책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정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될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목표 집단으로서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위기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명시된 법률적 개념²⁾이지만, 구체적인 범주가 불분명한 탓에 정책 대상자 집단을 특정하거나 규모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³⁾.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 대상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그 기초 작업으로 조사 대상인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 및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목표 집단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존 조사 연구들과 조사 목적을 차별화하여,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처한 실태와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는 데 충실한 정책 기초자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위기청소년 혹은 청소년의 위기 실태 파악을 위해 수행된 조사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 수준을 ‘진단’하거나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 연구들이며, 다른 하나는 위기청소년 하위 범주별로 수행된 실태조사 연구들이 그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조사 연구로는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부가조사가 대표적이며, 후자에 속하는 연구로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각기 나름대로 위기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위기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자는 주된 조사 대상을 일반청소년으로 상정함으로써 위기청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4호는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4.21.인출).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황순길 외, 2016)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대상인 고위험군, 위험군,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의 합계가 약 7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바 있으나, 각 위험군별 비율 정보 외에는 구체적으로 해당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며,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지 등에 관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소년들이 처한 실태나 정책적 욕구를 적실하게 드러내는 데 미흡했고, 후자는 특정 집단에만 주목함으로써 ‘위기청소년’에 관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 수준을 진단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실태를 적실하게 드러내는 데 충실한 조사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정책 활용도 높은 통계 자료를 산출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조사목적에 비롯해 조사내용 설계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책활용도 높은 통계자료의 산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조사를 설계하였다. 정책활용도 높은 통계가 생산되어야 이를 근거로 위기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정책이 입안될 수 있으며, 그것이 정책대상자들에게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술한 연구목적에 의거하여 추진된 연구의 결과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조사대상의 설계와 내용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차년도에 실시 예정인 본 조사를 대비하여 성공적인 실사 추진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신뢰도·활용도 높은 정책 기초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내용

1) 위기청소년 개념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 ‘위기’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조사 대상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조사대상 설계를 위한 모집단 정의를 비롯하여 표본 집단 설정, 표집계획 수립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조사 내용도 명료하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설정하고,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위기청소년 유형 설정 및 규모 추정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 설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의 유형과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규모를 추정하였다. 위기청소년 하위 유형을 확인하고 규모를 추정하는 목적은 가용 범위 안에서 최대한 모집단의 특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위기청소년 특성 상, 엄밀한 모집단 규모 추정과 특성 확인에는 한계가 있지만, 표집계획 수립을 위해 가용 범위에서 규모를 추정하고 집단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위기청소년의 유형과 범주는 학술적으로 논의된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 기초자료를 지향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기존 법령과 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3)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기존 조사 내용 분석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내용 설계를 위해 기존에 실시된 관련 조사연구의 내용을 분석했다. 내용 분석은 ‘위기 실태 파악’, ‘기존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신규 정책 수요 파악’, ‘대응 능력(보호요인) 파악’의 4개 요소로 구성된 일관된 분석틀을 적용하여 실시되었다. 기존 유관 실태조사의 조사항목과 문항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내용 설계를 위한 방향과 설계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사 항목 등을 도출하였다.

4) 조사 내용 설계(안) 도출 및 예비조사 실시

기존 조사 내용 분석과 현장 전문가, 정책 담당자 및 위기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사내용이 집약된 조사표(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예비조사(Pilot survey)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의 확보 가능성, 문항의 적절성, 조사표 오류 등을 점검했다. 특히 예비조사 단계이지만, 문항 내용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표본크기를 확보함으로써, 시범적으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문항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환류 가능성도 점검하였다.

5)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최종 설계방안 도출

예비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사점과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위기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의 최종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 설계 방안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 방안(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의 목적과 기준	• 조사 목적 • 조사 설계의 방향과 기준
② 조사 대상 설계 방안(안)	• 목표 모집단 및 조사 모집단 제시 • 표본 설계 방안 제시
③ 조사 내용 설계 방안(안)	•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 틀 • 조사 영역, 조사 항목 및 구체적인 조사 문항 제시
④ 실사 추진 방안(안)	• 조사 주기 • 자료 수집 및 자료 관리 방법 • 조사 결과 활용 • 통계 품질 관리 방안 등 제시

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방안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방안 제언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과 실태조사의 활용방안, 그리고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위기청소년 개념 및 범주 고찰, 위기청소년 대상 기존 실태조사 내용 검토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위기청소년 규모 추정 과정에서도 일부 하위 유형의 경우에는 규모 추정과 실태 파악을 위해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문헌연구 결과는 실태조사 설계의 기본 방향과 설계 기준을 설정하는 데도 반영되었다.

2) 전문가 자문

위기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설정, 실태조사의 방향과 기준 설정, 조사 계획 수립, 조사 항목 및 문항 개발 등 연구 전반에 걸쳐 각 단계별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 자문단은 위기청소년 지원 시설에 근무하는 현장 종사자, 관련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할 유관부처 공무원 및 실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1-2 전문가 자문 내용

횟수	자문영역	자문진
1	연구 방향 설정	• 현장전문가(위기청소년 하위유형별 지원기관 종사자 등) • 학계(유관 분야 연구경험자, 연구기관, 대학교수 등) • 정부부처 공무원
2	위기청소년 개념 및 범주 설정	
3	위기청소년이 직면한 현실 문제 파악	
4	조사 대상 설계(표본 설계)	
5	조사 내용 개발(영역, 항목 및 문항)	
6	조사표 검토	
7	정책적 활용 방안 논의	

3) 전문가 의견조사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내용설계를 위해, 조사 항목 및 문항 개발 단계에서 현장전문가 및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의견조사에서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내용 구성의 타당도와 중요도 평가가 실시되었다.

4) 양적연구: 예비조사(Pilot survey)

예비적으로 도출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조사표(안)의 타당성 전반을 점검하고, 문항 수정·보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양적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적 예비조사의 조사내용은 제시된 조사표(안)에 대해 응답하는 것과 더불어, 조사표 전반에 대한 평가 의견에 대해서도 답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는 표본설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조사대상을 표집하고, 위기청소년 총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 1 -3 양적연구: 예비조사(Pilot survey) 실시 개요

주요 요소	내용
조사 모집단	• 본 연구를 통해 조작적으로 정의된 위기청소년
표본 수	• 목표표본 600명 (확보표본 627명, 분석에 투입된 사례수 565명)
표집방법	• 할당 표집(quota sampling)
조사 내용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조사표(안) 문항 (6개 영역 123개 항목)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조사표(안) 전반에 대한 평가 의견
조사 시기	• 2020년 10월 초-11월 초

5) 질적연구: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위기청소년 면담조사

위기청소년이 직면한 문제를 적실성 있게 포착하고, 정책적 개입점과 수요,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태조사 문항을 설계하기 위해, 현장전문가 20인 및 위기청소년 당사자 14인을 대상으로 FGI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전문가 FGI는 내용 설계 과정에서 위기청소년 대상 지원기관에 종사하는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장전문가 FGI에는 위기청소년이 직면한 문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문항 등에 대해 광범하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위기청소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조사에서는 개발된 예비조사 조사표(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수렴하고, 개인별 위기 경험을 토대로 한 문항 개선 의견,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수요, 경험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광범하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1 -4 질적 연구1: 현장전문가 및 대상 FGI 실시 개요

주요 요소	내용
참여자 대상 및 인원 (총 34인)	• 현장전문가: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종사자(총 5개 분야, 20인 대상) •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종사자를 통한 섭외(1단계 4인, 2단계 10인 등 총 14인)

주요 요소	내용
FGI 방식 및 내용	• 현장전문가: 반구조화 된 집단면담방식 (위기청소년이 처한 실태, 정책적 욕구 관련) • 위기청소년: 예비조사표를 검토하고 조사표 문항별로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해당 조사내용에 대한 개인 경험을 토대로 한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광범한 의견 수렴
진행 시간 및 횟수	• 1회 당 120분 내외, 집단별 1회
인터뷰 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현장기록 및 연구참여자 동의를 거친 녹취
면담자	• 연구진

6) 기타 연구방법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의 정책활용도 및 연계성 제고를 위해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였다. 협의의 목적은 연구 초반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조사 설계에 반영하는 데 있었으며, 연구의 중반에는 개발된 조사표(안)에 대한 검토 의견 수렴과 실사 협조 요청, 그리고 연구의 후반부에는 도출된 연구결과의 공유를 위해 실시되었다.

표 | -5 관계부처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개요

차수	주요내용	개최시기
1차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관련 정책적 수요 및 기존 실태조사 활용의 한계점 파악	1월
2차	• 위기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관련 유관부처 의견 수렴	6월
3차	• 위기청소년 조사내용 설계(안)에 관한 유관부처 의견 수렴	8월
4차	• 예비조사 실사 추진 관련 협조 방안 논의	9월
5차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예비조사 결과 검토 및 수정 방안 공유	12월

4. 연구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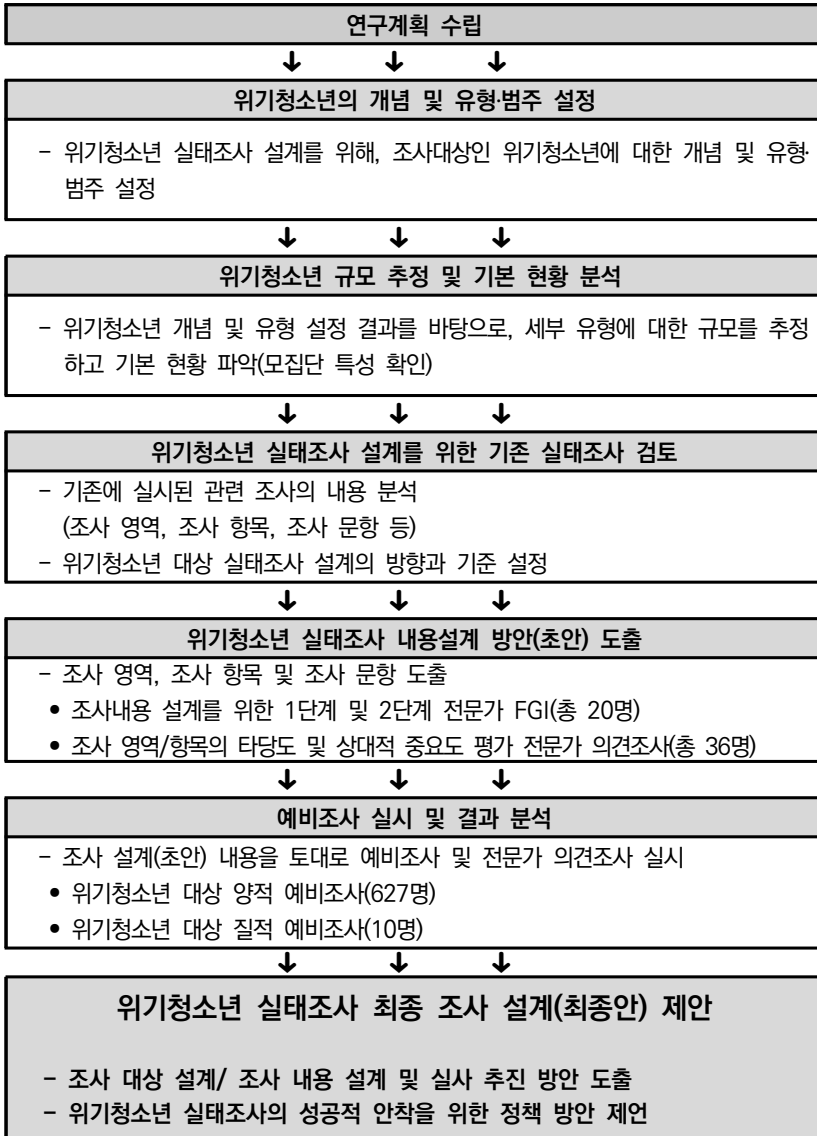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제II장 이론적 배경

- 1. 이론적 배경의 목적과 개요
- 2. 청소년 '위기'와 위기청소년의 개념
- 3. 청소년 위기의 속성
- 4. 기존 실태조사의 성과와 한계
- 5. 소결 및 시사점

1. 이론적 배경의 목적과 개요

여기에서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체계적인 설계를 위해 조사대상,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장에서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인 위기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자, ①청소년 ‘위기’와 위기청소년 개념 및 ②청소년 위기의 속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①위기청소년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여타 연구에서 위기청소년을 어떻게 개념 정의했는지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위기청소년에 관한 개념 정의에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인식했으며 그 흐름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또 위기청소년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왔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관점을 설정하는 데 참고하였다.

②청소년 위기의 속성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위기의 연속성과 위기의 수준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위기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해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검토한 내용은 위기청소년 개념설정의 기준과 고려해야 할 요소를 추출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특히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관련 내용은 조사내용 설계

4) 이 장의 1절, 2절, 3절, 5절은 황여정 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4절은 이정민 부연구위원이 초고를 작성하고 황여정 연구위원이 수정·보완하였다.

에 연계하여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③기존 실태조사의 성과와 한계에서는 국내외에서 그간 실시된 위기 청소년 혹은 청소년의 위기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들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신규 조사 설계 시 참고해야 할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검토 대상은 국내 조사 가운데 ‘전국 청소년 위기실태조사(황순길 외, 2016)’,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김언주,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조사(김지경 외, 2018b),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교육부 보도자료, 2019.8.27.)’,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조사 2017(전영실, 유진, 노성훈, 2018)’,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9)’, ‘2020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2020.1)’, ‘2020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8.25)’ 등 8개 조사를 포함하였다.⁵⁾ 기존 실태조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설계에 반영하였다.

④소결 및 시사점에서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기청소년 개념 설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요소들을 추출한 후,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용할 위기청소년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환경 구축 측면에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 시 반영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5) 기존 실태조사 분석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조사별로 조사대상, 조사영역, 조사방법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그로부터 주요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사항목과 조사내용의 경우에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는 바, 이에 관해서는 제Ⅳ장에서 별도로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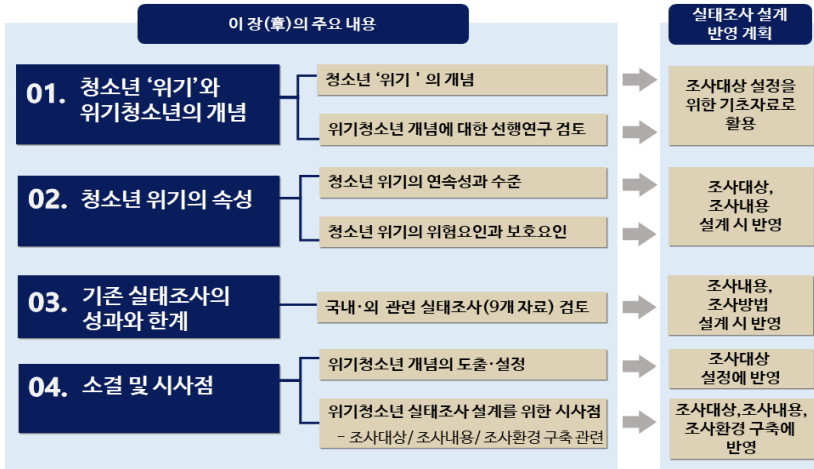


그림 II-1 선행연구 검토의 주요 내용 및 실태조사 설계와의 연계 방안

2. 청소년 '위기'와 위기청소년의 개념

1) 청소년 '위기'의 개념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요인을 '위기'라는 개념으로 통칭하고, 다양한 어려움(빈곤, 학대, 부모의 사망과 학업중단, 십대 임신, 청소년비행 등)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기청소년'으로 개념화하고 있지만, 이들 개념은 전반적인 합의나 동의 없이 때로는 다양하게, 또 때로는 모호하게 사용되어 왔다(윤철경, 조흥식, 김향초, 이규미, 우정자, 2006: 19).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 같은 개념적 모호성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예방과 개입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도 일정 부분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윤철경 외, 2006: 19). 예를 들어, '위기청소년' 개념에 포섭되는 청소년의 범주가 워낙 다양하고 그 스펙트럼이 넓다보니 연구자들과 현장의 실무자들 사이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해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서비스 수혜 대상 확정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윤철경 외, 2006: 19). 이러한 연유로 위기청소년 관련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위기’의 사전적 의미는 위협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상태로서,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상황에 직면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용용, 2016). 이와 관련하여, Gilliland & James (1997)는 개인이 현재 지니고 있는 대처기제와 자원으로 해결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또는 상황을 지각하거나 경험하는 것이 ‘위기’라고 정의하였다(김춘경 외, 2016에서 재인용).

이처럼 개념적으로 위기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사용해오던 대처전략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을 지칭한다(황순길 외, 2016: 4). 따라서 일반적으로 위기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 간주되기 쉽지만, 이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사건을 해결하는 새로운 대처방법을 찾아낸다면 스스로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황순길 외, 2016: 4). 이러한 연유로 박재연(2010)은 ‘위기’란 역경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한다면 원만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어진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후퇴해 버리는 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황순길 외, 2016: 4에서 재인용).

이 같은 ‘위기’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위기청소년 연구에서 사용되는 ‘위기’의 개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기청소년 연구에서 ‘위기(at-risk)’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나타나지 않지만 적절하게 개입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 광범하게 사용된다(McWhirter et al., 2004: 6; 윤철경 외, 2005: 12에서 재인용).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면, 흡연은 음주의 위기가 될 수 있고, 음주는 마약 복용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으며, 어린 시절 행동장애, 공격성, 학습부진 등의 징후를 나타낸 학생은 나중에 반사회적 행동과 비행을 범할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McWhirter et al., 2004: 6; 윤철경 외, 2005: 12에서 재인용).

2) 위기청소년의 개념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진, 김지연, 이승현, 류지웅(2018: 15)는 “위기청소년은 특별한 집단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빈곤, 건강, 가족 특성, 또래 집단, 학교에서의 성취와 적응 등 다면적 요인을 고려하여, 사회적 환경과 맥락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개념 정의가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드러나는 청소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위기청소년에 대해 나름대로 개념을 정의해왔다. 여기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해 그간 선행연구들이 정리한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 위기청소년의 개념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위기의 본질: 과업의 불이행→환경의 영향

OECD(1995)는 위기청소년을 ‘학교에서 실패하고,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으로 정의한 바 있다(이봉주 외, 2008: 8에서 재인용). 이러한 정의는 OECD 국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이후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기관에서의 이탈, 실직 상태에 있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는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이봉주 외, 2008: 8). 이러한 개념 정의 방식은 위기청소년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위기’의 주된 내용이 청소년기에 수행해야 할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데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개념은 점차 확장되어, 보다 최근에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불안정성과 그로 인해 청소년들이 처한 위험한 현실을 위기의 핵심 요인으로 보는 관점이 광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OECD의 최근 문헌에서는 위기청소년을

“빈곤, 부모의 양육 및 지도감독 부재, 가출 및 노숙,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있는 청소년, 학대 및 방임, HIV/AIDS 등 보건 및 건강상의 문제, 장애를 포함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al needs)가 있는 청소년” 등 사회적·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정의한 바 있다(OECD, 2007; 김현진 외, 2018: 15에서 재인용). 국내의 경우, 황순길 외(2016)의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을 “개인적, 가족적, 교육적,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 지칭했는데, 이러한 관점도 위기청소년을 정의내릴 때 위기청소년이 처한 상황(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2) 위기청소년의 범위: 위기 ‘가능성’ vs. 위기의 ‘경험’

위기청소년 개념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면, 위기청소년의 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기청소년을 광의의 의미로 정의할 것인지, 아니면 좁은 의미로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개념과 범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위기청소년은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을 이미 ‘경험’한 청소년을 의미하고, 광의의 위기청소년은 위기적 상황을 경험한 청소년은 물론, 그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윤철경 외, 2006).

앞서 살펴본 개념 가운데, “학교에서 실패하고,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에 충분히 기여할 가능성이 낮은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규정한 과거 OECD(1995)의 정의(이봉주 외, 2008:8에서 재인용)는 ‘학업중단’,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 실패’를 경험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협의의 관점에 속한다. 또한 “빈곤, 부모의 양육 및 지도감독 부재, 가출 및 노숙,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있는 청소년, 학대 및 방임, HIV/AIDS 등

보건 및 건강상의 문제, 장애를 포함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al needs)가 있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보는 입장(e.g. OECD, 2007)도 특정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폐쇄된(closed) 관점을 적용한 협의의 정의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위기청소년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하는 관점도 존재한다. 윤철경 외(2005: 24)의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의 여러 개념정의를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위기청소년이란 넓은 의미로 보면 구체적인 위기 행동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언제라도 위기행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성격이나 기질 면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가정에서 언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크며, 부모로부터 효과적이지 못한 감독과 훈련기술을 제공받고, 학교의 무단결석과 기타 학교문제로 인한 실패, 그리고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 빈곤 상태에서의 삶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윤철경 외, 2005).

한편 구본용 외(2005)의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일련의 개인적·환경적 위협에 노출되어, 행동적·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가출, 학업중단 및 실업, 폭력, 성매매, 약물 오남용 등의 비행 및 범죄는 물론, 불안·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 위험이 높은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구본용 외, 2005). 같은 맥락에서 이창호(2007) 역시 위기청소년은 어떤 특별한 집단이 아니라, 위기의 유형, 발달단계, 위기수준에 따라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 집단이 위기청소년이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심리사회적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집단이라고 규정하였다(서미 외, 2018: 4에서 재인용).

보다 최근의 논의로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 수준을 판별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황순길 외(2016: 6)의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 정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위기청소년을 “개인적·가족적·교육적·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은 물론 학교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위기청소년은 가출, 비행 및 범죄, 학교부적응과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폭력, 약물, 성매매 및 성폭력, 자살, 직업훈련기관이나 직장 부적응 등의 행동을 나타낼 위험이 높다고 보았다(황순길 외, 2016: 6). 이러한 개념 정의 방식은 개인의 발달 과업 실패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고,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까지 폭넓게 인정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봉주 외(2008)의 연구는 위기청소년 개념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확률적 접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하는 문제요인으로 잠재요인과 발현요인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잠재요인은 개인요인, 또래요인, 가정요인, 지역사회요인 등이 포함되며, 발현요인에는 인터넷 중독, 학업중단, 성매매, 가출, 자살 등이 포함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요인을 중복해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위기에 처할 가능성, 즉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이봉주 외, 2008).

〈표 II-1〉에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위기청소년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다.

표 II-1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위기청소년 개념

구분	위기청소년 개념
OECD (2007) ¹⁾	빈곤, 부모의 양육 및 지도감독 부재, 가출 및 노숙, 소년원 등 구금시설에 있는 청소년, 학대 및 방임, HIV/AIDS 등 보건 및 건강상의 문제, 장애를 포함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special educational needs)가 있는 청소년 등 사회적·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
윤철경 외 (2006) ²⁾	위기청소년이란 넓은 의미로 보면 구체적인 위기 행동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구본용 외	일련의 개인적·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적·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구분	위기청소년 개념
(2005) ³⁾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
이창호 외 (2005) ⁴⁾	• 위기청소년은 어느 특별한 집단이 아니고 위기의 유형, 발달단계, 위기수준에 따라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 집단이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심리사회적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집단이라고 규정
황순길 외 (2016) ⁵⁾	• 개인적·가족적·교육적·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은 물론 학교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청소년으로 정의
김현진 외 (2018) ⁶⁾	• 위기청소년은 특별한 집단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빈곤, 건강, 가족 특성, 또래 집단, 학교에서의 성취와 적응 등 다면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사회적 환경과 맥락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다고 설명

* 출처: 1) OECD(2007). 김현진 외(2018: 15)에서 재인용.
2) 윤철경 외(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3) 구본용 외(2005).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4) 이창호 외(2005).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운영방안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5) 황순길 외(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 김현진 외(2018).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방안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 법령에 규정된 위기청소년 개념

앞서 주로 학술적 관점에서 논의된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살펴보았다면, 이와는 별도로 현실에서 적용되는 위기청소년의 개념은 법령에 명시된 정의(定意)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령에서 위기청소년의 개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 복지법)」(법률 제15988호, 2018.12.18. 일부개정)에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복지 법」에서 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2조).

이 같은 법적 정의를 앞서 살펴본 기준(청소년 위기의 본질 및 위기청소년의 범위)을 적용해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조항의 전단(前段)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규정은 위기청소년

년의 본질로 과업의 불이행(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환경적 요인(가정 문제)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요인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해당 조항의 후단(後段)인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의 규정은 위기청소년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미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위기행동을 나타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위기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행 법적 규정은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지만, 위기의 소재(locus), 위기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소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완의 소지가 있다.

표 II-2 법령에 명시된 위기청소년 개념

구분	위기청소년 관련 규정
「청소년복지법」 제2조(정의)	•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 2020.04.21.인출.

3. 청소년 위기의 속성

1) 청소년 위기의 연속성과 수준

위기는 연속선상에 있는 발달적이고 단계적인 개념이다(윤철경 외, 2005: 12). 이와 관련하여 McWhirter et al.(2004)은 위기를 최저위기(mininal risk), 저위기(remote risk), 고위기(high risk), 위기행동 입문(imminent risk), 위기행동(at-risk category activity) 등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다섯 단계의 스펙트럼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윤철경 외, 2005: 13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위기요인이 중첩적·복합적으로 나타날수록 위기수준은 높아지며, 가장 심각한 위기수준에서는 약물남용, 학업중단, 위험한 성행동, 비행 등의 행동이 표출된다(윤철경 외, 2005: 13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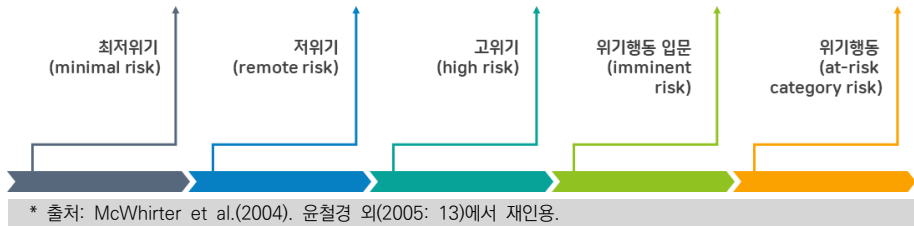


그림 II-2 위기의 연속선

표 II-3 위기 단계별 특성

위기 구분	내용
최저위기 (minimal risk)	양호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가정환경·사회관계가 긍정적이고, 심리적·환경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거의 없는 상태
저위기 (remote risk)	최저위기에 비해 다소 부족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학교·가정환경·사회관계가 다소 미흡하고, 일부 스트레스 요인을 보유한 상태
고위기 (high risk)	부정적인 학교·가정환경·사회관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요인이 많음. 부정적 태도나 감정 등 개인 차원에서 표출되는 위기 징후로 발전되는 단계
위기행동 입문 (imminent risk)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시작하는 단계
위기행동 (at-risk category activity)	이전 단계(위기행동 입문, imminent risk)에서 표출된 행동이 다른 범주의 위기행동으로 확대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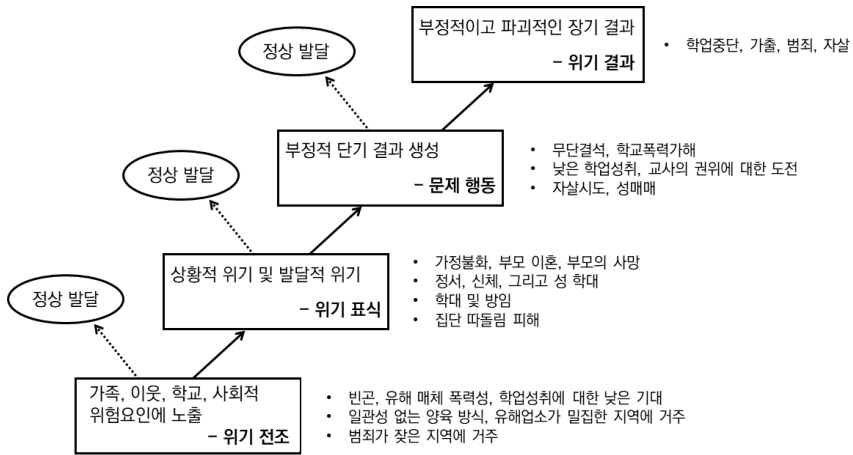
* 출처: McWhirter et al.(2004: 6-9). 윤철경 외(2005: 13)의 본문 내용을 재인용하여 표로 재구성.

위기청소년의 위기수준을 설명할 때 Burt, Resnick & Matheson(1992)이 제시한 위기수준 분류도 많이 언급된다. Burt et al.(1992)은 학업중단, 알코올과 같은 약물사용, 범죄 행동 등 고위험 수준의 경험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법과 지원 서비스 증대를 위해, 위기에 대한 개념적 틀을 다음의 4가지 위기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구본용 외, 2005; 배주미, 김동민, 정슬기, 강태

훈, 박현진, 2010; 황순길 외, 2016: 10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①위기 전조(risk antecedents)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향후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환경 요소들을 의미하는데, 빈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웃 환경 등이 포함된다. ②위기 표식(risk markers)은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적·맥락적 요인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불화가 심한 가정환경, 가정 폭력 및 학대, 부모의 이혼, 자연 재해, 정체성의 위기, 고용주의 착취 및 임금체불, 친구들과의 불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위기 행동(risk behaviors)은 이전 단계, 즉 위기 전조 또는 위기 표식의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정적 행동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심리적·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행동들이다. 성매매, 흡연 및 음주, 자살충동 및 시도, 비행친구들과의 교류, 잦은 무단결석, 폭력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④위기 결과(risk outcomes)는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대표되는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하여, 명백하게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가출, 범죄, 학업중단, 정신적 장애 및 자살 등의 행동이 여기에 해당된다(황순길 외, 2016: 10).

이상의 논의가 [그림 II-3]에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Burt et al.(1992)는 위기수준은 낮은 수준인 위기 전조 단계에서부터 가장 심각한 위기 수준인 위기 결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각 단계마다 위기를 극복하면 정상발달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황순길 외, 2016: 11).



* 출처: Burt et al.(1992). 황순길 외(2016: 11), [그림 2]에서 재인용.

그림 II-3 위기의 진행과정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 중에서는 지승희, 양미진, 이자영, 김태성(2006)의 연구에서 위기수준을 정상군, 잠재적 위험군, 위험군, 고위험군의 4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위기 수준별 특징을 위험성, 문제행동, 환경, 정신건강의 측면으로 나눠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표 II-4〉 참조).

표 II-4 청소년의 위기수준 4분류

위기 구분	내용
1수준 (고위험군)	위험성 •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파괴적인 위기상황이 나타나는 단계
	문제행동 • 자살시도, 집단폭행, 반 전체의 왕따, 성매매, 은둔형 외톨이, 게임중독의 문제행동
	환경 • 부모의 학대, 유기, 경제적 빈곤 등 열악한 가정환경
	정신건강 •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정신건강 문제

위기 구분	내용	
2수준 (위험군)	위험성	• 파괴적이지는 않지만 위기상황이 나타나는 단계
	문제행동	• 자살에 대한 잦은 생각, 친구들의 왕따, 도박, 가출경험, 무단결석 등
	환경	• 부모와의 갈등, 의사소통 결여
	정신건강	• 심리적 문제를 개인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
3수준 (잠재적 위험군)	위험성	• 위기상황이 나타날 잠재적 조건을 갖춘 경우
	문제행동	• 흡연 및 음주
	환경	• 비행친구들과의 어울림, 교사와의 갈등, 유해환경 노출 등
	정신건강	•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
4수준 (정상군)	위험성	• 문제 및 잠재적 조건을 보이지 않는 경우
	문제행동	
	환경	
	정신건강	

* 출처: 지승희 외(2006). 황순길 외(2016: 12)에 재인용된 본문 내용을 표로 재구성.

2) 청소년 위기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⁶⁾

(1) 위험요인(risk factor)

청소년들이 위기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위험요인(risk factor)과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은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위험요인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발달상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평균적으로 높은 특성이나 변인을 지칭한다(Pollard, Hawkins & Arthur, 1999; 유영준, 오윤수, 2013; 황순길 외, 2016: 7에서 재인용). 위험요인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Horowitz(1987)는 인간의 타고난 특성이 환경적 질과 독특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발달모형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특성뿐만

6) 청소년 위기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황순길 외(2016) 6-10쪽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다른 문헌을 함께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황순길 외, 2016: 7에서 재인용).

생태학적 이론을 주창한 Bronfenbrenner(1979) 역시 인간 발달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생태학적 이론을 통해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환경요인이 상호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청소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황순길 외, 2016: 7에서 재인용). 이 같은 관점의 영향을 받아 Johnson(1997)은 청소년의 위험 요인을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II-5 위기청소년의 위험요인

구분	내용
개인 위험요인	• 청소년의 개인적 행동으로 성적 행동, 약물사용 및 남용, 학교에의 잦은 지각과 중퇴, 범죄활동 및 비행행동 등을 포함
가족 위험요인	• 부모나 형제의 약물남용, 부모의 감독 결여, 부모의 교육적 지지와 개입 결여, 부모의 범죄 연루, 학업을 중단한 형제자매, 부모의 무능, 방임, 정서적·신체적 학대, 이혼, 사회복지 수혜자, 부모의 낮은 학력 수준(고졸 미만), 빈곤 경계선 이하의 경제수준, 부모의 잦은 실업 등
지역사회 위험요인	• 가용 일자리의 질과 양, 임금, 제공 가능한 직업훈련 등
학교 위험요인	• 교원의 역량, 학생의 발달에 대한 교사의 낮은 기대, 교육과정 부족, 개별화된 교육의 부족,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학교폭력, 적절하지 못한 지도 등

* 출처: Johnson, 1997; 윤철경 외, 2006: 24에서 재인용한 본문 내용을 표로 구성.

한편, 윤철경 외(2005)의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II-6 한국의 청소년의 위기요인

구분	내용
가족적 위기	• 빈곤, 이혼 자녀, 소년소녀가장, 학대아동, 북한이탈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자녀
교육적 위기	• 학습부진, 학업중단
사회적 위기	• 폭력피해, 범죄/성범죄 피해, 실업
개인적 위기	• 범죄, 가출, 성경험, 폭력가해, 흡연

* 출처: 윤철경 외(2005). 위기청소년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정책연구.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또한 지승희 외(2006)의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해, 청소년의 위기요인을 ‘문제행동 영역’, ‘환경 영역’, ‘정신건강 영역’ 등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각 영역별 구체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표 II-7 위기상황 영역별 구성

구분	내용
문제행동 영역	• 가출경험, 무단결석, 폭력(가해/피해), 가정폭력(가해/피해), 집단따돌림, 괴롭힘, 자살시도, 인터넷 중독 및 게임 과다, 성매매, 성폭력, 습관적인 음주·흡연, 약물 등 유해물질 사용 등
환경 영역	• 경제적 수준, 유기 및 방임, 부모와의 갈등, 주변의 유해환경 노출, 교사와의 갈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친구들과의 교류 등
정신건강 영역	• 부정적 자존감, 불안, 우울, 공격성 등

* 출처: 지승희 외(2006: 22). <표 5>.

(2)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

위기청소년에게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위험요인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황순길 외: 2016: 8). 문제행동을 억제하고 위기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도록 돕는 보호요인도 작동한다(황순길 외: 2016: 8). 보호요인은 부정적 결과가 예측되는 위기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을 이끄는 요인으로서,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립변인인 동시에 위험요인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조절변인으로 기능하여,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킨다(권재환, 이은희, 2006; 한상철, 2008; 황순길 외, 2016: 8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황순길 외(2016: 8-9)에서는 보호요인을 개인, 가족, 또래·학교, 지역사회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II-8 청소년의 보호요인

구분	내용
개인차원의 보호요인	• 위기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서, 심리적 요인과 유능감 등 비행을 유발하는 충동과 불안 상황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 • 높은 자아존중감, 적극적인 대처전략, 자기효능감 등
가족차원의 보호요인	•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정서적지지, 부모와의 유대감, 가족 유대, 가족구조, 형제 간의 친밀감 등
또래·학교 보호요인	•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지역사회 보호요인	• 종교, 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 참여 등

* 출처: 황순길 외(2016: 8-9)의 본문 내용을 표로 재구성

보호요인은 위기청소년이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거나, 상황적·발달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서 완충 역할과 조절변인으로 기능함으로써 위기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다(황순길 외, 2016: 9).

또는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이 문제행동이나 위기결과로 이어지지 않게끔 처음부터 독립적인 강한 힘을 발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황순길 외, 2016: 10).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호요인을 중요한 정책 전략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황순길 외, 2016: 10).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도출된 것으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들 수 있다. 객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속해 있더라도 위기에 처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에 대처하는 다양한 능력과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 자본, 즉 자신을 둘러싼 유의미한 타자(significant others)와 맺고 있는 관계라는 것이다(윤철경 외, 2005). 구체적으로는 가까운 또래 친구들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의 종교인, 선배, 청소년기관 실무자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윤철경 외, 2005: 17). 학교 선생님도 청소년들이 접하는 대표적인 사회자본이다. 이 같은 네트워크는 일반청소년에게는 정서적 지지와 격려, 조언을 제공해주고, 위기청소년에게는 생존과 성공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윤철경 외, 2005: 17). 또한 이처럼 위기를 잘 극복하는 청소년들은 개인적으로 사회성, 내적 통제력, 긍정적인 태도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철경 외, 2005: 17).

4. 기존 실태조사의 성과와 한계

이 절(節)에서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존에 실시되었던 실태조사의 목적과 대상, 규모, 개략적인 조사내용, 그리고 그 성과와 한계를 간략히 개괄함으로써, 새로운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검토의 대상은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대상 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조사(전국범죄 피해조사)」등이다.

1)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⁷⁾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2005년 처음 시작한 이래, 2009년과 2010년 전국 단위로 실시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5년 기초연구를 거쳐 2016년에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황순길 외, 2016). 조사 대상은 ①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일반학생과, ②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시설,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소년원 등 청소년 보호관찰 시설에 해당하는 위기·취약 계층 청소년이며,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6년 조사에서는 일반청소년은 지역별·학교별·학년별로 층화 추출하여 총 83,353명을 조사하였고, 위기 및 취약 계층 청소년은 유관기관에 등록된 6,46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황순길 외, 2016).

조사 도구는 초·고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위기 및 취약 청소년용의 3가지로 구분하여 개발되었다. 조사내용으로는 위험요인(46문항), 위기결과(43문항), 보호요인(15문항), 기초자료(16문항) 등이 포함되었다(황순길 외, 2016). 조사내용의 구체적인 구성은 <표 II-9>와 같다.

표 II-9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내용(2016년)

조사항목	세부항목
위험요인	• 우울 및 불안/공격성, 충동성, 부주의/가정폭력/부모와의 갈등관계, 방임/부모간의 갈등/문제가족원/비행친구/학교생활부적응/지역사회 유해환경
위기결과	• 인터넷, 스마트폰중독/약물/학교폭력/비행/자살/성문제/가출/학업중단/ 직장생활부적응
보호요인	•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
기초자료	•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및 기관 이용여부, 헬프콜 인지 및 이용여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및 이용여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인지 및 이용여부, 청소년쉼터 인지 및 이용여부

* 출처: 황순길 외 (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pp.28~29 최종 문항 구성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하여 표로 재구성하였음.

7)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은 ‘황순길 외(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작성하였다.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는 응답 결과를 근거로 분할점수 산출방법(Angoff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 대상 청소년을 ①고위험군과 위험군, ②잠재적 위험군과 일반군⁸⁾ 등 2개 집단으로 구분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다만 주요 조사대상이 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청소년이며, 조사의 목적 또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점검하기보다는, 광범한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 여부를 ‘진단’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2009년, 2010년, 2016년에 걸쳐 반복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부정기적 조사에 머물렀고, 2016년 이후에는 조사가 중단된 상태라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체계적으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⁹⁾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 제6조 제1항에 법적 근거를 둔 법정 조사로서, 2015년 첫 조사가 이루어진 이래, 3년 주기로 반복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 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학교밖청소년법, 제6조 제1항).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총 8개 유형의 기관(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내일이룸학교(취업사관학교), 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동 쉼터, 미인가 대안학교, 검정고시 접수장)을 이용하는 만9세~24세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삼고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8년 조사에서는 전국 196개 관련 기관에서 3,213

8) 여기에서 ①고위험군은 전문상담 서비스 3개월 이상, 긴급과 복합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청소년을 의미하며, 위험군은 전문상담 서비스 3개월 이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또한 ②잠재적 위험군은 일반적 상담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3개월 미만)을, 그리고 일반군은 심리검사, 진로상담 등 5회기 미만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청소년을 지칭한다(황순길 외, 2016).

9)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은 ‘윤철경 외(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조사하였다(윤철경 외, 2018: 9).

조사내용은 크게 학업중단 관련 경험과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에 관한 내용들로 대별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원인,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실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경제 상태, 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윤철경 외, 2018: 12-13). 개괄적인 조사내용은 <표 II-10>과 같다.

표 II-10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조사 내용(2018년)

조사항목	세부항목
학업중단 관련 일반 사항	중단 시기, 중단 후 기간, 중단 시 의논 상대, 중단 이유, 중단 시 받은 정보,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율 및 개인정보 연계, 중단 전 학교생활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생활실태	중단에 대한 후회, 중단 후 경험 실태, 친구 관계, 중단 후 주거 장소, 불이익 경험, 최근 한달 간 가장 많이 했던 일, 중단 후 아르바이트 경험, 진로에 대한 태도, 심리·정서, 신체 활동, 비행경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학교를 그만 둔 후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학교 밖 지원사업의 인지 여부/이용 경험/도움 정도
배경요인	가족구성, 가정경제수준, 부모직업,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 소재지

* 출처: 윤철경 외(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12~13 조사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하여 표로 재구성.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관련 법령에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기초자료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조사의 목적 상, 조사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실태를 폭넓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법정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승인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볼 수 있다.

3)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조사¹⁰⁾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과거 각각 별도로 실시되었던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를 통합한 것으로, 2016년 1차 조사가 실시된 이래 2년 주기로 반복 조사가 이루어지는 국가승인 통계(제167001호)다. 이 조사는 본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매체 이용과 유해환경 접촉, 청소년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위기청소년 대상 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해당 조사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 2천명에 대해 별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내용에 유해환경 접촉, 유해행위, 유해약물 이용 등 위기요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다. 단, 위기청소년 대상 조사는 통계 공표 제외 대상이다.

2018년 실시된 제2차 조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위기청소년은 크게 ‘범죄·비행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유의 표집 방법을 적용해서 조사 당시 소년원에 재소 중인 범죄 연루 청소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비행 청소년, 청소년 쉼터에 등록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2018년 조사에서 위기청소년 대상 조사는 총 2,002명이 응답하였다(김지경 외, 2018b: 3-5).

조사내용은 크게 매체, 행위, 약물, 업소, 근로보호 등 5개 영역과 사회인구학적 배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지경 외, 2018b: 6). 이 가운데 위기청소년의 위기요인이나 위기전조, 위기행동 등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로는 매체영역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성인용 영상물·간행물 이용, 신·변종 유해 매체(데이트 앱

1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검토 내용은 ‘김지경 외(2018b).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보고서를 기초로 정리하였다.

등)이용 등을 눈여겨 볼 수 있다. 또한 행위 영역에서는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물영역에서는 음주, 흡연 등 전통적인 문항 외에 최근 증가하는 전자담배 이용 경험이나 신종·유사 약물 이용 경험에 관한 문항들이 의미 있다. 그 밖에 업소영역에서는 청소년 출입 제한/금지 업소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김지경 외, 2018b: 6-9).

표 II-11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조사항목

조사항목	세부항목
매체영역	매체이용실태, 성인용 영상물, 성인용 간행물, 신·변종 유해 매체물 이용 경험,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심야시간 온라인/인터넷 게임 이용 경험, 인터넷 게임 이용 시 타인의 정보 도용 경험
행위영역	청소년폭력 피해 경험, 청소년 성폭력 피해 실태,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 및 도움경험을 조사, 성행동, 가출, 조건만남
약물영역	고카페인 음료, 피우는 비타민 및 정서저해식품이용, 음주경험, 흡연경험, 전자담배 이용경험, 환각성 물질경험, 유해약물에 대한 접촉 환경
업소영역	청소년 출입 제한적 허용업소 이용 실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이용 실태, 업소 이용 방법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청소년 생활환경 내 유해업소 분포, 가출경험 및 찜질방 이용 경험률, 가출경험, 조건만남 경험, 성관계 경험 및 숙박업소 이용 경험률
근로 보호	아르바이트 경험 및 아르바이트 이유, 아르바이트 업종, 아르바이트 정보 획득 경로, 아르바이트 근로 여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권익교육 경험, 부당행위 및 처우 경험, 근로인식 및 직업윤리
생활일반	사회적 관계, 자율적 통제능력

* 출처: 김지경 외(2018b).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pp.6-9 조사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재구성.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본래 이 조사의 주요 목적과 조사 대상이 위기청소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기청소년에 집중한 실태조사

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 가운데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부가조사는 약 2천명 내외의 위기청소년 표본크기를 유지하면서 2년 주기로 자료가 수집되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위기청소년과 대표성 있게 수집된 전국 수준의 일반청소년에 대해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기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응답 결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위기청소년의 범주와 유형이 범죄청소년과 가출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어서 여타 범주에 속하는 위기청소년을 포괄하지 못하며, 조사내용이 ‘매제이용’과 ‘유해환경 접촉’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기전조, 위기요인, 보호요인 등 위기청소년에 적합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제한점이다.

4) 「학교폭력 실태조사」¹¹⁾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에 근거를 두고 실시되는 학교폭력에 관한 대규모 실태조사로, 조사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의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08.27.: 1). 조사 방식은 온라인 조사로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피해유형별·가해자 유형별 피해 장소, 피해시간,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들, 가해경험, 학교 폭력에 대한 목격 여부와 목격 후 대응 행동, 예방교육 참여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08.27.). 개괄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1)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교육부 보도자료, 2019.08.27.)’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표 II-12 「학교폭력 실태조사」 조사항목

조사항목	세부항목
피해유형	•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폭행, 사이버괴롭힘, 금품갈취, 성추행/성폭행, 강제심부름
가해자유형	• 동 학교 같은 반, 동 학교 동 학년, 동 학교 타 학년, 타학교 학생, 모름 등
피해장소	• 학교안(교실안, 복도, 운동장, 급식실/매점, 화장실, 특별실, 기숙사), 학교밖(놀이터, 사이버공간, 학원주변, 학교밖체험, 집, pc방/노래방)
피해시간	• 쉬는시간, 점심시간, 하교이후, 수업시간, 하교시간, 학교밖 체험, 등교 시간, 방과후 기타
피해사실을 알린 사람	• 가족/보호자, 선생님, 친구/선배, 다른 사람(기관) 117 신고센터/ 경찰관/미신고
가해경험	• 가해이유, 가해방법(단독, 집단)
목격경험	• 목격경험유무, 목격 후 행동
예방교육	•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행동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19.08.27.)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표로 재구성.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초4~고3 재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매년 2차례 실시되는 조사라는 점에서, 표본조사가 아닌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미 조사가 시행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통계자료라는 의의도 있다. 다만 조사 방식과 그로 인한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표본의 크기가 방대한 대신 조사내용은 심층적이지 못한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5)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조사(2017)」¹²⁾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국내 만 14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범죄피해조사」의 아동·청소년용 실태조사로서,

12)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조사」 검토 내용은 ‘전영실, 유진, 노성훈(2018). 전국 범죄피해조사(VIII)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초4~고2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며, 일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전영실, 유진, 노성훈, 2018: 1). 일반 학생 표집은 여타 실태조사들과 유사한 방식을 준용하여 지역별·학교별·학년별 층화표집 방법을 적용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은 현실적인 조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동형 쉼터와 단기쉼터, 보호관찰소 등 유관 기관을 중심으로 거점 표집방식을 적용하였다(전영실, 유진, 노성훈: 2018: 1). 그 결과 2017년 조사에서는 일반 학생 10,338명, 학교 밖 청소년 총 44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전영실, 유진, 노성훈: 2018: 1).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II-13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조사」 주요 조사 내용

조사항목	세부항목
피해유형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범죄(중·고등학생에 한정), 가족 내 학대·괴롭힘 피해, 사이버폭력피해
피해에 대한 두려움	일반적 두려움, 유형별 두려움
범죄예방 조치	호신 도구 소지, 동행 여부, 위험장소 회피
개인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자기통제력, 일상생활, 비행, 가족 특성, 친구특성, 학교특성, 동네 및 등하교길 특성
사건조사표	피해 발생 일시와 장소, 피해 내용과 결과, 피해 상황 및 피해자의 대응, 가해자 특성, 피해의 영향, 사후대응
학교 밖 청소년 실태 파악 관련	학업중단횟수 및 기간, 학업중단 사유, 학업중단 시 처리 상태, 학업중단 후 현재 하는 일, 범죄 피해 관련 경험 등

* 출처: 전영실, 유진, 노성훈(2018) 전국범죄피해조사(VIII)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정리하여 표로 재구성하였음.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조사」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먼저, 응답자가 솔직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이다. 이 조사는 설문 진행 시, 특별히 피해 경험이 없는 응답자

는 설문을 빨리 끝내게 되고, 상대적으로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오래 설문을 하게 됨으로써, 표면적으로 범죄 피해 경험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해가 없는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는 일종의 가짜 질문들을 추가하여,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설문 시간의 유사하게 진행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조사 명칭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조사」라는 이름 대신 조사지에는 「아동·청소년 생활 안전 실태조사」라는 제목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같은 조사 명칭의 문제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조사설계 시에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보인다.

6) 「아동종합실태조사」¹³⁾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실시조항에 법적 근거를 둔 법정 조사로, 2012년부터 법제화 되어 시행되고 있다(류정희 외, 2019: 4). 동 조사는 법령에 근거하여 매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8년, 2013년에 이어 가장 최근에는 2018년에 제3차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제3차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의 양육, 생활환경, 정서·인지·신체적 건강 및 발달, 아동학대 및 아동안전에 비롯한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에 대한 객관적 실태 파악을 토대로, 2020-2024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증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류정희 외, 2019: 4).

조사대상 모집단은 전국의 만 18세 미만 아동 가구이며, 제3차 조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목표 표본은 총 4,000가구(일반가구 2,500가구, 저소득층 가구 1,500가구)로 설정되었다(류정희 외, 2019: 요약3). 저소득층 가구의 목표모집단은 조사 시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에서 만0세~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이며,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저소득층 가구에 가중치를

1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은 '류정희 외(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두어 표본을 설계하였다(류정희 외, 2019: 요약2-3). 조사표 응답은 아동의 경우 만0~8세는 보호자가 대리응답 하고, 만9~18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이 직접 응답 하도록 되어 있다(류정희 외, 2019: 요약2-3). 제3차 조사 기준, 아동종합실태조사
 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14 제3차 「아동종합실태조사」 응답자별 조사 영역

부모용(2018년)	아동용(2018년)
I. 가구일반사항	I. 아동일반사항
II. 건강	II. 건강 (‘13년 기준 건강 및 안전, 사회성 및 정서의 일부 포함)
III. 발달 및 교육 (‘13년 기준 인지 및 언어생활, 사회성 및 정서, 가정생활, 사교육 및 특별활동의 일부 포함)	III. 발달 및 교육 (‘13년 기준 사회성 및 정서, 학교생활, 진로 및 아르바이트, 언어생활의 일부 포함)
IV. 관계 (‘13년 기준 가정생활, 사회성 및 정서의 일부 포함)	IV. 관계 (‘13년 사회성 및 정서, 가정생활, 학교생활의 일부 포함)
V. 양육 및 돌봄 (‘13년 기준 가정생활, 사교육 및 특별활동, 방과후 생활의 일부 포함)	V. 여가 및 활동 (‘13년 기준 방과후 생활, 진로 및 아르바이트의 일부 포함)
VI. 여가 및 활동 (‘13년 기준 가정생활, 건강 및 안전, 방과후 생활의 일부 포함)	VI. 안전 및 위험행동 (‘13년 기준 건강 및 안전, 학교생활의 일부 포함)
VII. 안전 및 위험행동 (‘13년 기준 건강 및 안전)	VII. 지역사회환경 (‘13년 기준 건강 및 안전의 일부)
VIII. 지역사회환경 (‘13년 기준 주거 및 지역 환경, 가정생활의 일부 포함)	VIII. 물질적 환경 (‘13년 기준 가정생활, 건강 및 안전의 일부)
IX. 물질적 환경 (‘13년 기준 지출 및 소득, 주거 및 지역 환경, 가정생활의 일부 포함)	IX. 주관적 웰빙 (‘13년 기준 사회성 및 정서 일부)

* 출처: 류정희 외(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62쪽 <표 3-2>를 재구성.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5년 주기로 반복 실시되는 대규모 실태조사로서, 아동의 성장·발달에 관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가 아동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빈곤아동실태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빈곤아동가구가 전체아동가구에서 갖는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여 근거기반의 빈곤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빈곤아동 가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류정희 외, 2019: 요약1-2). 정책추진의 우선순위와 정책적 필요를 고려하여, 표적 집단(target group)에 대해 가중 설계를 하는 방식은 의미 있는 접근으로 생각된다. 반면 조사 주기가 5년 단위로 비교적 긴 편이라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자료 수집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볼 수 있다.

7)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¹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교육기본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폭넓게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학교건강검사규칙」제4조의3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학생의 정서적 특성과 행동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이다(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2020.01: 10). 동 조사는 학생의 성격특성과 긍정적 자원을 파악하고, 학생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학습부진 문제를 보정하며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관리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2020.01: 10).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학령전 환기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설계 방식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매 3년 주기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조사대상이 되고, 초·중·고

14)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관한 내용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2020.01). 2020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대상 검사(CPSQ-II)는 학부모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며, 중·고등학생용 검사(AMPQ-III)는 학생 설문조사와 담임교사 조사로 구성된다(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2020.01: 10).

표 II-15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개요

검사대상	• 초(공민) 1·4학년, 중(고등공민) 1학년,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1학년, 특수학교, 각종학교
검사절차	• 2단계 검사(학교 1차, 전문기관 2차)
검사방법	• 온라인 검사/ 서면검사
검사도구	• 학교급별 1종 사용(초등: CPSQ-II / 중등: AMPQ-III)
신뢰도 문항	• 면담 및 재검사 참고자료로 활용
자살시도력	• 신뢰도문항 연계, 자살위험학생 선별 기준으로 활용
평가영역	• 정서·행동문제/ 성격특성
사후관리	• 위험수준별(우선관리·일반관리) 관리체계 구축

* 출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2020.01: 12). <요약: 2020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제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 조사는 아니지만, 정서·행동 측면에서 위기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발견하고 예방·개입하기 위한 진단검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조사는 초1, 초4, 중1, 고1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이며, 매 3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정서·행동특성에 관한 자료를 누적 관리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또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심군(일반관리군, 우선관리군)을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의뢰하는 등 체계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8)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¹⁵⁾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저연령화되고 과의존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청소년들의 학업 성적 및 사회성 저하, 가정불화, 수면부족 등 건강악화, 각종 사이버 범죄 노출 등과 결부되어 청소년문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2020.02: 1),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조사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25만여명에 달한다(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2020.02: 2). 조사도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K-척도(인터넷 과의존) 15문항, S-척도(스마트폰 과의존) 15문항 등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방법은 온라인 조사로 실시되고, 진단조사 결과 위험군으로 판명된 청소년 및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치료 지원, 기숙치유 프로그램, 집단상담,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프로그램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치유서비스가 지원된다(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2020.02: 3).

5.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기초 정지(整地) 작업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정리하고, 청소년 ‘위기’의 본질과

15)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관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2020.02).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계획’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범위 등 주요 속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위기청소년 관련 기존 조사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유용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청소년 개념의 설정

이 장에서 검토한 선행연구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 개념 설정 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로, ①위기의 본질, ②위기의 범위, ③위기의 소재, 그리고 ④개입의 필요성 등 4가지를 설정하였다.

‘①위기의 본질’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기청소년이 처한 ‘위기(risk)’를 청소년기에 수행해야 할 과업의 불이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경의 영향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국내·외에서 그간 위기청소년에 대해 이루어진 다양한 개념 정의들은 역설적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 방향 혹은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개념에 차이가 있었음(이봉주 외, 2008: 1)을 방증한다. 여기에는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 청소년기에 수행해야 할 과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적 한계’에 주목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한계를 유발한 상황이나 ‘환경’에 주목할 것인지가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동향은 대체로 전자에서 후자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여, 위기청소년이 처한 ‘위기’의 본질은 ‘과업의 불이행’이라기보다는 ‘환경의 영향’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면, 학업중단과 같은 과업의 불이행은 그것이 위기청소년을 규정하는 본질이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불안정한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유발되는 결과, 즉 위기행동에 해당된다. 이 같은 관점은 정책적 개입점을 확인하는 데도 좀 더 유리하다. 위기청소년을 규정하는 핵심이 ‘과업의 불이행’에 있다고 보는 입장은 위기의 귀인(歸因)을 개인에게서 찾게 되지만, ‘환경의 영향’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환경에 개입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하게 하는 개인(청소년)과 환경 간의 접촉 지점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②위기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위기의 연속성을 강조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윤철경 외(2005)의 논의를 준용하여 ‘위기행동을 경험하고 있거나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은 물론,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까지 포함하고자 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여 McWhirter et al.(2004)이 제시한 위기단계 분류 중 ‘최저위기(minimal risk)’처럼,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해 별다른 문제나 스트레스 요인이 없고 학업과 진로상담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 연구에서 고려하는 위기청소년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위기의 소재’와 관련해서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준용하여, 개인, 가정, 또래학교, (지역)사회적 요인을 포괄한다. 이러한 관점은 위기청소년의 위험요인(risk factor)을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로 분류한 Johnson(1997)의 연구와 한국 청소년의 위기로인을 개인적, 가족적, 교육적, 사회적 위기로 구분한 윤철경 외(2005)의 연구와 입장을 같이 한다. 또한 황순길 외(2016)에서는 청소년의 보호요인을 개인 차원, 가족 차원, 또래·학교 차원, 지역사회 차원으로 구분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분류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위기청소년의 개념으로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으로 표현한 현행 청소년복지법 제2조(정의)의 규정은 다소 제한된 예시로 보이며, 따라서 체계적인 법적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좀 더 균형감 있게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④개입의 필요성’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반영한다. 위기청소년 개념의 요소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위기청소년으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개입과 보호요인의 작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 발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핵심요소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이란 개인적, 가족적, 교육적(또래·학교), 사회적으로 위기상황에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정상적인 발달과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개입을 요구하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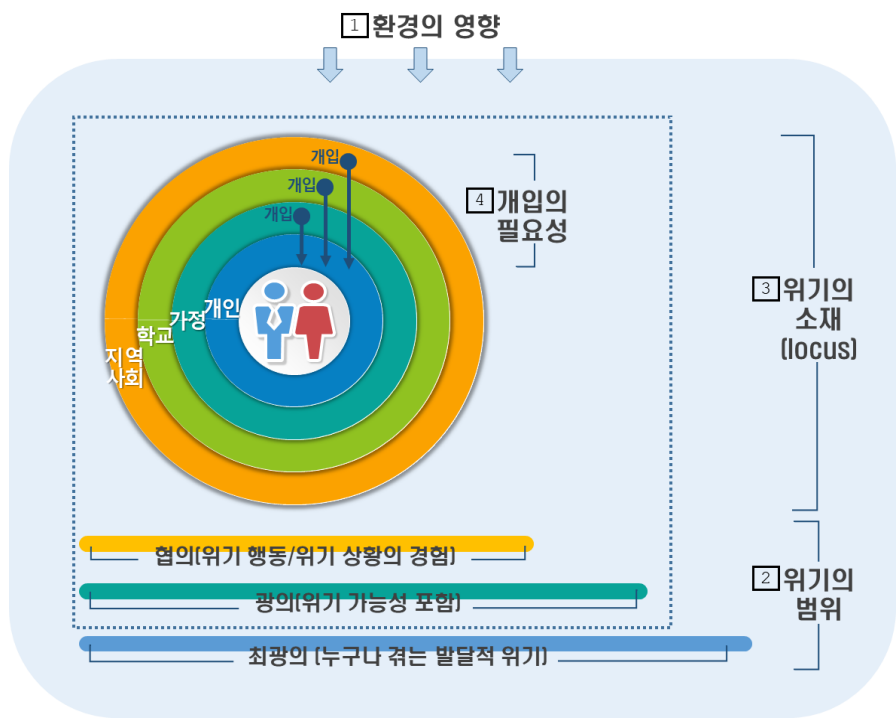


그림 II-4 위기청소년 개념의 핵심요소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시사점

다음으로,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의 측면 : 위기청소년 대상 체계적 조사의 부재

먼저, 조사대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기청소년을 광범하게 아우르는 체계적인 조사가 부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 ‘가능’ 청소년을 진단·발굴하는 조사로는 여성가족부·교육부가 함께 실시하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진단조사», 교육부가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학교 폭력 실태조사」 등이 있다. 이들 조사는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서·행동 문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위기 행동을 보이거나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하게 개입하는 일종의 진단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이들 조사는 표본조사가 아니라, 학령전환기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로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 ‘가능성’을 진단하는 조사는 제한적이지만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는 데 비해, 이미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유일해 보인다. 물론 위기청소년 대상 조사는 일반청소년 대상 조사에 비해 모집단 확정, 표집, 조사대상 확보 등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들이야말로 정확한 현실 진단과 실태 파악을 통해 적절하고 집중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정책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개입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실태조사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2) 조사내용의 측면

조사내용 설계와 관련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조사내용 설계를 위해, 조사목적이 적절하게 반영된 내용설계 틀(frame)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기청소년 문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토대로 확인된 ‘위기요인’과 ‘보호요인’ 개념이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실태조사 자료가 근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수립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자료의 정책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조사설계의 주요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조사목적을 고려하면, 김지경 외(2016)에서 정책 근거자료로서 실태조사 설계 시 고려 사항으로 제시했던 ‘정책적 개입점 확인’도 중요한 내용설계의 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조사내용 설계 시, ①위기청소년 실태파악(위기요인 확인), ②보호요인의 작동, ③정책적 개입점 확인(기존 정책의 작동 실태 점검/ 신규 정책 수요 파악) 등이 주요 틀(frame)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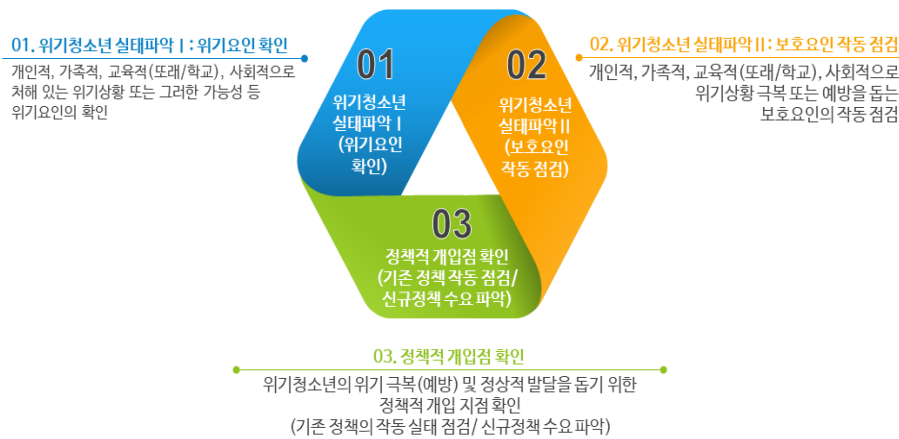


그림 II-5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 틀(안)

둘째, 조사내용 구성 시, 보호요인을 조사내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위기청소년들이 처한 실태를 확인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실태 파악 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성인기로 이행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렇게 본다면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혹은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보호요인’을 확인하는 데 기존 실태조사보다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보호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조사결과의 정책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요인의 하나로 ‘자율적 통제능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자율적 통제능력은 제2차 및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서 강조되는 요소로서, 청소년 보호의 핵심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환경을 고려해보면, 실태조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항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조사내용 설계 시 일부 문항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일반청소년과 응답결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안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위기청소년이 처한 상황이나 경험하는 문제의 수준을 판단하는 데는 상대적 비교가 용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 검토한 기존 실태조사 연구 가운데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경우, 주된 조사가 일반청소년 대상 조사이고, 위기청소년 대상 조사가 일종의 부가조사로 이루어지며, 두 집단이 거의 동일한 조사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요 문항에 대해 위기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비교가 가능하다. 이 같은 방식을 준용하여, 본 연구에서도 일부 문항의 경우에는 비교를 염두에 두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비교 문항들은 연구기관들이 생산하는 각종 패널데이터를 비롯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 자료 가운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기타 조사환경 구축 관련

선행연구와 기존 실태조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조사환경 구축 관련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청소년 실태조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위기청소년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는 정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에 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 결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등 법적 근거를 가진 조사들은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데이터가 수집·관리되는 데 비해, 위기청소년 관련 조사는 그 근거가 미비하여 2009년, 2010년, 2016년 등 비정기적으로 조사가 추진되다가 중단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향후 위기청소년 관련 데이터의 안정적인 수집·축적·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자료와 행정통계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위기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기의 전조와 징표들을 확인하며, 이를 토대로 조기발견과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이 위기청소년의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부모의 범죄 연루 여부, 이혼, 저소득 가정 여부, 사회복지수혜 여부, 부모의 잦은 실업 등은 설문조사와 같은 연성 자료(soft data)보다는 행정통계와 같은 경성자료(hard data)를 통해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행정통계 자료와의 연계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비롯해, 부처 간 전산시스템 연계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행정통계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설계할 때는 조사명칭과 응답자의 조사시간 배분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고려가 요구된다. 본 장에서 검토한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조사」는 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오래 설문에 응하게 됨으로써 응답 시간 차이로 인해 범죄 피해 경험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가 없는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는 가짜 설문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또한 조사명칭에서도 응답자들이 심리적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역시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응답자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 설계 전반에 걸쳐 세심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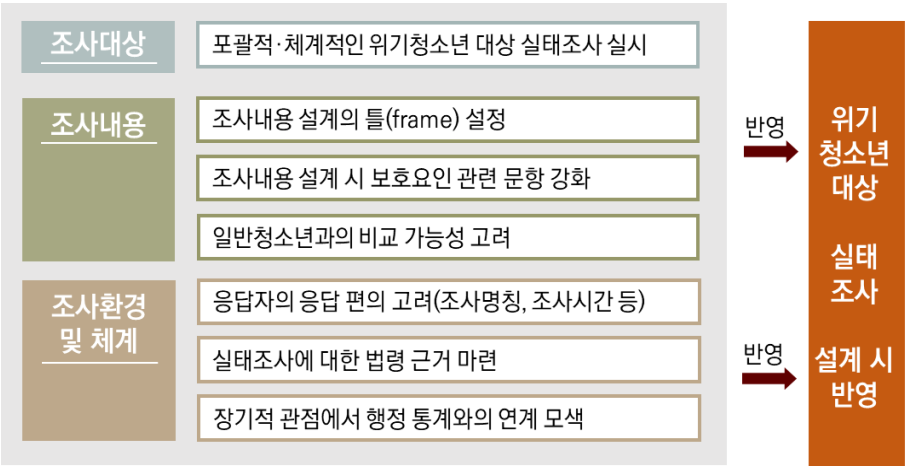


그림 II-6 선행연구 검토 결과 및 주요 시사점

○ — 제Ⅲ장 위기청소년의 유형 및 범주와 규모

- 1. 위기청소년 유형 및 범주
설정과 규모 추정의 개요
- 2. 위기청소년의 유형과 범주
- 3. 위기청소년의 연령 범위
- 4. 위기청소년의 규모
- 5. 소결 및 시사점

1. 위기청소년 유형 및 범주 설정과 규모 추정 개요

이 장에서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설계를 위해, 위기청소년의 유형 및 범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그 규모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위기청소년 유형 및 범주를 확인하는 것은 조사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위기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고 기본 현황을 살펴보는 작업은 조사대상의 모집단 특성과 분포를 확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위기’는 그 수준과 층위가 매우 다양하며, 위기청소년이 포괄하는 범위도 대단히 넓다. 그러므로 무엇을 ‘위기’로 간주하고, 누구를 ‘위기청소년’으로 볼 것인지는 사회적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김현진 외, 2018: 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서 대단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위기청소년을 구체화하고 세부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원 정책의 대상을 검토하는 귀납적 방식을 취하였다.

관련 법령 및 지원정책 대상을 검토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의 유형과 범주를 확인하는 방법은 정책활용도 높은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데 유리하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집단을 위기청소년으로 간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 타겟 집단은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책적

16) 이 장의 1절, 2절, 3절, 5절은 황여정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4절(위기청소년의 규모) 내용 중 ‘(1)빈곤 청소년’의 규모 추정은 손상학 대표가 집필하였고, 4절의 나머지 내용은 황여정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제공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형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 데이터가 없다면, 조사대상 설정 시 이들 집단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표집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관 법령 및 정책 사업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위기청소년의 세부 유형과 범주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령의 경우, 위기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청소년 분야, 교육 분야, 복지 분야 및 소년사법 분야의 법령을 검토하고, 해당 법령에서 언급 또는 규정하는 위기청소년의 세부 유형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련 정책의 경우, 「2020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여성가족부, 2020a)」에 수록된 전(全) 부처의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을 모두 검토하고,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위기청소년의 세부 유형에 대해, 가용 데이터 범위 안에서 각각 그 규모를 추정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실태조사 설계 시,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사대상 설계와 표본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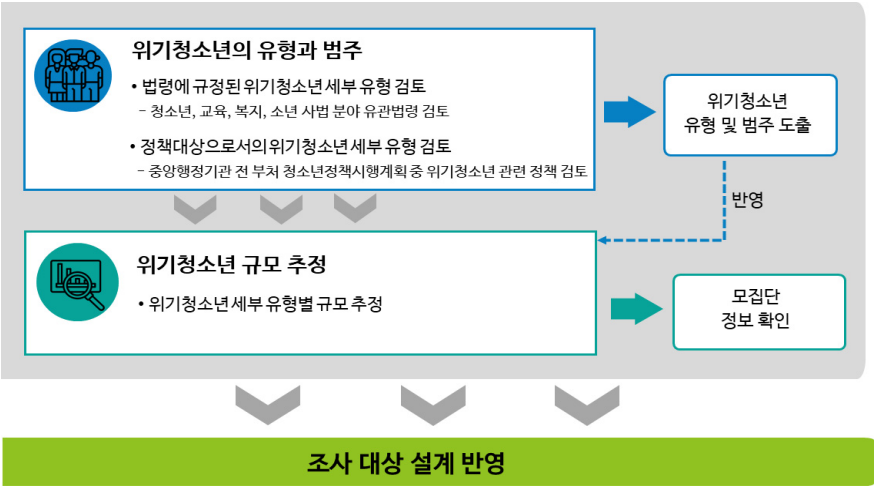


그림 Ⅲ-1 제Ⅲ장의 주요 연구내용 및 개요

2. 위기청소년의 유형과 범주

이 절에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기청소년의 세부 유형들을 수집·정리하고, 정책대상으로서 구체적인 위기청소년 집단을 확인하기 위해, 법령과 각종 정책사업에서 지원 대상으로 언급된 위기청소년 유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가 아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1) 법령에 규정된 위기청소년의 세부 유형

(1) 청소년 분야 법령

법령에 규정된 위기청소년의 구체적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소관 법령을 검토하였다. 먼저, <표 III-1>에는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분야 법령에 언급된 위기청소년 관련 규정과 그와 관련된 위기청소년의 세부 유형이 정리되어 있다.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률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시되어 있고(동법 제2조 참조), 가출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밝힘으로써, 법령에서 어떠한 집단을 위기청소년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기청소년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법 제27조),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법 제34조의2) 등이 포함된다. 시행령 제32조(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사업)에서는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과 약물중독 청소년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자)을,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는 24세 이하의 모(母) 또는 부(父)를 일컫는 청소년한부모를, 그리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18세 미만인 자)에게 취학지원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표 III-1 위기청소년 관련 법령 규정: 여성가족부 소관

구분	위기청소년 관련 규정	세부 유형
청소년복지 지원법¹⁾ 및 동법 시행령²⁾		
제2조 (정의)	•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시행령 제8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기준)	• [공통 요건]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 -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미만인 청소년 • [내용적 요건] - 보호지원 대상자 중 <u>비행·일탈</u>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동 시행령 제7조 1항 5호에 의거,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	• 빈곤 • 비행/일탈 • 학교밖 청소년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가정폭력/학대 경험
제16조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정부가 보호·지원할 의무가 있는 대상으로 <u>가출 청소년</u> 명시	• 가출
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정부가 사회적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대상으로, <u>이주배경청소년</u>(「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및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명시	• 이주배경
제19조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 정부가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제공할 대상으로, <u>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또는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u> 명시	• 비행·일탈 • 일상생활 부적응
시행령 제3조의2 (보건위생)	• 지원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u>차상위계층</u>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 빈곤 • 청소년 한부모

구분	위기청소년 관련 규정	세부 유형
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u>청소년한부모</u> (24세 이하)	
시행령 제4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 중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 대상 지원 기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19세 미만의 <u>성매매피해자</u> 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부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	- 성매매 피해자 - 비행 - 학교밖 청소년
청소년보호법³⁾ 및 동법 시행령⁴⁾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인터넷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정부의 재량 명시	인터넷게임 중독자
제34조의2 (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환각물질 중독자로 판명된 청소년에 대해 치료 및 재활을 제공할 정부의 재량 명시	환각물질 중독자
시행령 제32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사업)	- 청소년 보호·재활 센터 사업 내용 규정 -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 및 치료·재활 지원 - 약물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보호·상담 및 치료·재활 지원 등	- 학습·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청소년 - 약물/인터넷 중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⁵⁾		
제2조 (정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만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법⁶⁾		
제4조 (정의)	청소년한부모 (24세 이하의 부 또는 모)	청소년 한부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⁷⁾		
제2조 (정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 2020.04.21. 인출.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에서 2020.04.21. 인출.
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 에서 2020.04.21.인출.
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시행령> 에서 2020.04.21. 인출.
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 2020.04.21. 인출.
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2020.04.21. 인출.
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 2020.04.21.인출.

(2) 복지 분야 법령

〈표 Ⅲ-2〉에는 복지 분야 법령을 대상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보호·지원이 제공되는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을 정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복지 분야 법령 가운데 위기청소년 관련 내용은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서는 ①사회적·경제적·정서적 측면에서 기초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동(지원대상아동), ②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보호대상아동), ③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비롯하여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등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아동학대)피해아동)을 아동복지법에 의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5조(보호조치)에서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유형으로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제시하였다.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소득층(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 아동 등이 포함된다.

표 Ⅲ-2 위기청소년 관련 법령 규정: 보건복지부 소관

구분	위기청소년 관련 규정	세부 유형
아동복지법¹⁾ 및 동법 시행령²⁾		
제3조 (정의)	• 지원대상아동: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u>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u> •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u>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u>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대 피해자

구분	위기청소년 관련 규정	세부 유형
아동복지법¹⁾ 및 동법 시행령²⁾		
	• (아동학대) 피해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지칭	
제15조 (보호조치)	• 보호조치 대상자 - 보호대상 아동 -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약물/알콜 중독 • 정서·행동·발달 장애 • 성폭력 피해자 • 학대 피해자
시행령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 등)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³⁾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지원서비스: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동법 제37조)	• 빈곤 • 학대 피해자 • 성폭력 피해자

*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 에서 2020.04.13. 인출.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시행령> 에서 2020.04.13. 인출.
3) 보건복지부 복지포털(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WellInfoDetail.do?wellInfSno=301>에서 2020.04.13.인출.

(3) 교육 분야 법령

교육 분야 법령 중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위기청소년 또는 청소년 위기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과 장애학생의 피해에 대해 명시하고, 특히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표 Ⅲ-3 위기청소년 관련 법령 규정: 교육부 소관

구분	위기청소년 관련 규정	세부 유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¹⁾		
제2조 (정의)	• (학교폭력)가해학생: 가해자 중에서 <u>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u> • (학교폭력)피해학생: <u>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u> ※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지칭 • 장애학생: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법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 학교폭력 가해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 장애학생
제16조의2 (장애 학생의 보호)	•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u>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u>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	•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

*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2020.4.13.인출.

(4) 소년사법 분야 법령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 또는 청소년 위기 문제와 관련하여, 비행 청소년을 규정한 「소년법」이 있다. 소년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이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임을 명시하였고,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서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죄를 범한 소년, 촉법소년을 비롯하여,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촉하는 습관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을 상정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표 III-4 위기청소년 관련 법령 규정: 법무부 소관

구분	위기청소년 관련 규정	세부 유형
소년법 ¹⁾		
제1조 (목적)	• 적용 대상: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지칭)	• 반사회적 청소년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범죄 청소년 • 우범 청소년 • 가출 • 음주 소란 • 유해환경 접촉 성향

*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소년법> 에서 2020.04.13.인출.

(5) 소결

이상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①청소년 분야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의 세부 유형으로는 빈곤, 가출, 비행·일탈, 학교 밖 청소년, 요보호, 가정폭력·학대 피해, 이주배경, 일상생활 부적응, 청소년 한부모, 성매매/성폭력 피해, 인터넷 게임 중독, 약물 중독, 환각물질 중독, 학습정서·행동 장애 청소년 등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②복지 분야 법령에서는 빈곤, 요보호아동(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아동), 아동학대 피해자, 약물·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 피해자 등이 도출되었고, ③교육 분야 법령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과 장애학생이 특별히 언급되었다. ④소년법에서는 범죄·비행 관련 청소년에 대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으로 표현하고, 소년법의 취급 범위에 범죄촉법·우범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가출, 음주 소란, 유해환경 접촉 성향을 가진 청소년 등을 명시하였다. 각각의 법령을 검토하여 도출된 위기청소년의 세부 유형은 윤철경 외(2005)에서 제시한 범주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III-5 위기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도출된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

구분	세부 유형	범주화 ¹⁾
청소년 분야 법령	• 빈곤 청소년 • 비행·일탈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가정폭력·학대 피해 청소년 • 가출 청소년 • 이주배경 청소년 • 일상생활 부적응 청소년 • 청소년 한부모 •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 • 약물(환각물질 포함) 중독 청소년 • 학습·정서·행동·장애를 가진 청소년	①가족적 요인 • 빈곤 청소년 • 가정폭력·학대 피해 청소년 • 가출 청소년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청소년 (한)부모 ②교육적(또래·학교) 요인 • 학업중단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
복지 분야 법령	• 빈곤 청소년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대 피해 청소년 • 약물·알콜 중독 청소년 • 정서·행동·발달 장애 청소년 • 성폭력 피해 청소년	③개인적 요인 [중독 성향] • 약물·알콜·환각물질 중독 청소년 • 인터넷 게임 중독 [기타] • 학습·정서·행동·발달 장애 • 장애학생 • 일상생활 부적응 • 유해환경 접촉 성향
교육 분야 법령	•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 장애학생(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	• 학습·정서·행동·발달 장애 • 장애학생 • 일상생활 부적응 • 유해환경 접촉 성향
소년사법 분야 법령	• 반사회적 청소년 •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촉법소년 포함) • 다음의 사유가 있는 우범 청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향이 있는 청소년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청소년 - 음주 소란/ 유해환경 접촉 성향이 있는 청소년	④사회적 요인 • 범죄(비행·일탈) 청소년 • (성)범죄 피해 청소년 • 이주배경 청소년

* 주: 1) 범주화의 구분은 윤철경 외(2005)에서 제시한 위기요인의 분류들을 준용하여 범주화하였음.
2) 관련 법령에 따른 세부 유형은 법령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자 작성.

2) 정책대상으로서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

앞서 법령 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유형과 범주를 개괄했다면, 여기에서는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검토함으로써, 정책 대상 집단으로서 위기청소년의 세부 유형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주요 정책 대상이 어떤 집단인지, 또 다양한 위기청소년 집단 가운데 정책적으로는 주로 어떤 집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조사대상 설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상술한 목적에서 위기청소년 지원사업과 그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 자료는 「2020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여성가족부, 2020a)이다. 「청소년기본법」¹⁷⁾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자료에는 각 부처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총망라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용 자료 가운데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여성가족부, 2020a) 자료를 검토하였다.

특히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정책사업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6)」의 분류체계를 준용하여 사업별로 고유의 숫자를 부여하고 있다. 이 분류체계를 따르면,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위기청소년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정책사업 중에서 해당 영역으로 분류된 사업

17) 청소년기본법은 2018.12.18. 일부개정된 법률 제15986호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령/청소년기본법)에서 2020.4.13.인출하였다.

을 선별하고, 시행계획 자료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표기하였다.

먼저 <표 III-6>에는 「2020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자료 가운데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과 해당 사업의 세부 지원 대상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검토 결과,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에 주로 포함되는 위기청소년의 세부 유형은 빈곤 청소년, 성폭력·성매매 등 성적 피해자, 한부모가정/조손가정/청소년 (한)부모, 가출 청소년, 가정폭력·학대·방임 등 가정의 기능 상실로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학교부적응 등 학교 밖 청소년, 비행·범죄 청소년 등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에 이주배경 청소년, 인터넷 중독, 약물 중독, 학교폭력, 정서·행동 문제 및 자살·자해 청소년을 위한 정책사업도 각각 3-4개씩 편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빈곤, 구조적·기능적 결손 가정, 가출 청소년 등 전통적인 위기 상황과 더불어,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성적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와 최근에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인터넷 과의존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 -6 유관부처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및 지원 대상: (1) 여성가족부

사업명	정책 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													
	빈곤	가정 기능 상실 (가정 폭력/ 학대/ 병입)	가출	학교 밖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악물 중독	인터넷 과의존	비행· 범죄	이주 배경	정서· 행동 문제/ 자살· 자해	성폭력 피해 (성폭력/ 성매매 등)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	비전학 미취업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㉑ 출중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	●	●	●	●	●	●	●	●	●	●			
㉒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 현장 아웃리치 활성화 - 위기청소년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 제공 - 후기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	●	●	●	●	●	●	●	●	●	●			●
㉓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	●	●	●	●	●	●	●	●	●	●			
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차악·위기가족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	●							●				●	
㉕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강화)										●				
㉖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				
㉗ 가해·피해 청소년 보호 지원 확대 및 부모를 위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상담 치료교육 및 보호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실시 -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및 보호·지원 사업의 단계적 확대 추진											●			
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㉙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			●											
㉚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						
㉛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다제다능 프로그램)														

사업명	정책 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													
	빈곤	가정 기능 상실 (가정 폭력/ 학대/ 범인)	가출	학교 밖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악물 중독	인터넷 과의존	비행· 범죄	이주 배경	정서· 행동 문제/ 자살· 자해	성폭력 피해 (성폭력/ 성매매 등)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	비전학 미취업
12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					
13 청소년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	
14 청소년 한부모 자립기반 지원													●	
15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강화													●	
16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	●	●	●	●				●					●	
17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강화 (취약계층 돌봄 공백 해소 지원 강화)	●												●	
18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							

* 자료: 여성가족부(2020a). 「2020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자료 중 여성가족부 추진 과제를 검토하여 연구자가 분류·작성

* 자료: 여성가족부(2020a). 「2020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자료 중 여성가족부 추진 과제를 검토하여 연구자가 분류·작성

다음으로, <표 III-7>~<표 III-9>에는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기청소년 정책 유관부처인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의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청소년의 세부 유형을 분류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정책은 주로 빈곤 청소년과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을 경험한 요보호아동·청소년, 그리고 비행·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출, 학교 밖 청소년, 약물 중독, 이주배경청소년, 장애 및 결손가정 청소년도 포함하고 있다.

그에 비해 교육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위기청소년의 세부 유형은 학업중단이나 학교 부적응, 학교폭력 같은 교육적 이슈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외에는 빈곤청소년과 이주배경 청소년, 정서·행동 발달이나 자살·자해 문제가 있는 청소년, 그리고 구조적 결손가정 청소년 등도 정책적 관심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법무부가 대상으로 하는 위기청소년의 세부 유형은 비행·범죄, 학교폭력, 가정폭력·학대·방임 등 사법적 개입이 요구되는 경우가 주종을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표 III-10>에는 그 밖에 여타 부처에서 시행 중인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과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이 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 중독(과의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다는 점이다. 그 외에는 가출 또는 실종, 빈곤, 학교 밖 청소년, 비행·범죄, 이주배경 청소년이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7 유관부처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및 지원 대상: (2) 보건복지부

지원사업명	정책 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													
	빈곤 빈곤	가정 기능 상실 (가정폭력/ 학대/병인)	가출	학교 밖· 학교 부작용	학교 폭력	악물 중독	인터넷 과의존	비행· 범죄	이주 배경	정서· 행동문제 /자살· 자해	성폭력 피해 (성폭력/ 성매매 등)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비진학, 미취업
①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안전 강화 -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 아동·청소년 실종예방 및 홍보 강화		● (실종)												
②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취약·위기가족 맞춤형 서비스 확대)	●	●							●			●	●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연계	●			●										
④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						
⑤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 강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	●													
⑥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흡연 및 음주 예방						●		●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자료 중 보건복지부 추진 과제를 검토하여 연구자가 분류작성

표 III -8 유관부처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및 지원 대상: (3) 교육부

정책 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														
지원사업명	빈곤	가정 기능 상실 (가정폭력 /학대/ 방임)	가정 기능 상실 (가정폭력 /학대/ 방임)	학교 박·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악물 중독	인터넷 과의존	비행· 범죄	이주 배경	정서· 행동 문제/ 자살· 자해	성폭력 피해 (성폭력/ 성매매 등)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비전학, 미취업
	①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 제공			●	●					●				
	②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예방교육 체계화				●									
	③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한 학업 중단 예방			●										
	④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연계(학교·위기청소년지원센터 연계 강화)			●										
	⑤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학업·취업·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미취학·학업중단학생의 학습 및 학력인정 지원)			●										
	⑥ 학교에서의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					
	⑦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및 사회 적응 지원								●					
	⑧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	
	⑨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대상 각종 교육비 지원 확대	●												
⑩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자료 중 교육부 추진 과제를 검토하여 연구자가 분류·작성

표 III -9 유관부처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및 지원 대상: (4) 법무부

지원사업명	정책 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													
	빈곤	가정 기능 상실 (가정폭력/ 학대/방임)	가출	학교 박·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약물 중독	인터넷 과 의존	비행· 범죄	이주 배경	정서· 행동 문제/ 자살· 자해	성폭력 피해 (성폭력/ 성매매 등)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비전학, 미취업
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청소년기 자녀와의 소통 및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			●						
②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연계)	●	●		●				●					●	
④ 비행 청소년 제범 예방 및 회복 지원					●			●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자료 중 법무부 추진 과제를 검토하여 연구자가 분류·작성

표 III -10 유관부처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및 지원 대상: (5) 기타

지원사업명		정책 지원 대상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										
		빈곤	가정 기능 상실 (가정폭력 /학대/ 병임)	기출	학교 박·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악물 중독	인터넷 과의존	비행· 범죄	이주 배경	정서· 행동 문제/ 자살· 자해 (성폭력/성매매 등)	취약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 통일부												
1]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												
1]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 경찰청												
1] SPO 활용,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2] 아동·청소년 실종예방 및 홍보 강화												
3] 경찰단계 범죄·비행 청소년 조기 선도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1]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1]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자료 중 해당부처의 각 과정을 검토하여 연구자가 분류작성.

* 출처: 여성가족부(2020a). 「2020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자료 중 해당부처의 각 과제를 검토하여 연구자가 분류·작성.

[그림 III-2]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별로 정책 지원 대상으로 표기된 빈도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각 정책사업별 예산규모 등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 사업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위기청소년 집단이 정책적으로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괄적인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집단이 지원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지 혹은 누락되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는 일정 부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 지원 대상으로서 위기청소년의 하위 유형으로는 ‘빈곤청소년’이 가장 높은 빈도로 파악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학교부적응’, ‘비행·범죄’, ‘가정폭력·학대·방임 등 기능적 결손 가정’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등 구조적 결손가정’ 청소년도 정책적으로 비중을 두는 위기청소년의 세부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가출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청소년’과 ‘성폭력·성매매 등 성적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확인되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 청소년이나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낮은 편이었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정책활용도 높은 실태조사를 설계하기 위해, 추후 조사 대상 설계 시 어떠한 집단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집 할 것인지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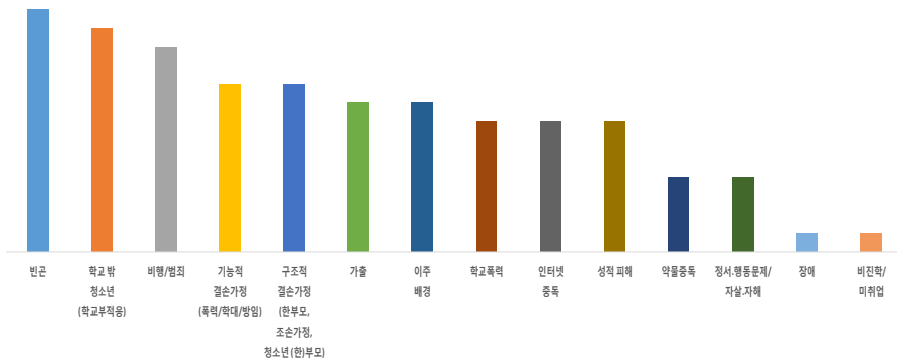


그림 III-2 시행계획 정책 지원 대상으로 제시된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

3. 위기청소년의 연령 범위

위기청소년의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대상을 설계하고 표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이 되는 위기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청소년 관련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각각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어,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라도 정책 대상의 범위는 가변적이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9세 이상~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청소년보호법」과 「민법」등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혹은 미성년자)로 정의하며,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김현진 외, 2018: 16).

실제로 이처럼 상이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는 정책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유해업소 출입, 약물 사용, 유해 매체물 접촉 등을 금지하는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설정하였고, 노동관계법에서도 연소자의 근로보호 범위를 19세 미만으로 두고 있다. 그에 비해 「소년법」에서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을 20세 미만으로 설정하

고 있다. 한편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주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법」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자격을 9세 이상~18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표 Ⅲ-11 청소년 관계 법령의 연령기준

구분	내용	연령	근거
청소년의 일반 연령 ¹⁾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의 연령 범위	9세 이상~ 24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증 발급 자격 ¹⁾	청소년증 발급 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 보호	유해업소 출입, 약물 사용, 유해 매체물 접촉 등 - 비디오 감상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행위영업, 전화통화 매개영업 - 술, 담배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행위	소년	20세 미만	소년법
	보호처분의 결정	20세 미만	소년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형법
	선서무능력자	16세 미만	형사소송법
	행위무능력자	20세 미만	민법
성 보호	의제 강간	만 13세	형법
	성폭력의 피해자	19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고용· 근로	성 관련 물건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법
	음악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조장물건 등	19세 미만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	19세 미만	
	식품접객 영업소에서의 유흥행위 금지	19세 미만	식품위생법
	도덕·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 사용 금지	여자, 18세 미만	근로 기준법
	연소자 증명서	18세 미만	
	선원사용 금지	16세 미만	선원법

* 출처: 이정민, 이수정(2019: 18). <표 Ⅱ-2> 청소년관련법의 보호연령기준.
주: 1) 연구자 추가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율된 다양한 연령 기준을 검토해 보면, 법적으로 가장 광의의 청소년 연령 범위는 9세~24세이나, 청소년 보호·복지와 관련해서는 ‘18세

이하’ 또는 ‘19세 미만’이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III-3]에는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적용 대상을 연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9세~24세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으나,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다수의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들이 18세 또는 19세까지 지원하는 데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3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대상자 연령 구분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패널 데이터 설계를 위해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검토한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2017: 43)는 청소년 대상 조사 설계 시, 청소년기 특성을 고려한 연령 구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청소년기에는 짧은 시간 동안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정책도 크게 전기 청소년(9~12세), 중기청소년(13~18세), 그리고 후기 청소년(19~24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구분되는 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특성 상 청소년의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하형석, 정은진, 최승주, 2017: 43).

따라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을 설계할 때는, 앞서 언급한 위기청소년 연령 범위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의와 기존 청소년 보호·복지 관계 법령에 규율된 연령 범위, 그리고 위기청소년에 대해 관습적으로 받아들이는 연령과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목적 및 정책적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가출, 음주, 흡연, 학대·방임 등 위기로인으로 간주되는 주요 요인들이 연령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면, 위기청소년의 연령범위는 성인을 제외한 19세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4. 위기청소년의 규모

1) 개요

이 절에서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설계를 위해 모집단 정보를 확인하고, 동시에 위기청소년의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가용 범위 안에서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별로 규모를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각 유형별로 활용한 자료는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별 규모 추정 및 특성 분석을 위한 검토 자료

위기상황	검토 자료
가족적 위기 관련	
빈곤 청소년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2018 각 년도 ¹⁾
가정폭력·학대·피해 및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 「2019 청소년백서」 ²⁾ •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³⁾ •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⁴⁾
가출 청소년	• 「경찰청 실종·가출인 신고접수 현황(9-24세)」 ⁵⁾ •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⁶⁾

위기상황	검토 자료
교육적 위기 관련	
학교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	「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통계편」⁷⁾ 「학교 밖에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을까?」⁸⁾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⁹⁾
개인적 위기 관련	
약물 이용 및 중독 청소년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¹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도박 경험 청소년	「2020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¹¹⁾ 「2019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¹²⁾ 「2018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¹³⁾
심라·정서문제 경험 (우울, 자살, 자해) 청소년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¹⁰⁾
사회적 위기 관련	
범죄(바행·일탈) 가해 청소년	「2019 청소년백서」²⁾
범죄 피해 청소년 (성폭력 피해 포함)	「경찰청범죄통계 피해자 특성(성별·연령별) 통계」¹⁴⁾
이주배경 청소년	「2019 청소년백서」²⁾ 「2019 간추린 교육통계」¹⁵⁾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2019: 총괄보고서」¹⁶⁾

*출처: 1)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raw data) 제공처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2) 여성가족부(2019a). 2019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2020.08.07.).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5)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내부자료(2020.06.24.). 위기청소년 모집단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통계.

6) 김지경 외(2018b).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서울: 여성가족부.

7)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8) 하형석(2020.9).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Vol.5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 교육부 보도자료(2019.8.27.).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1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8.25.). 2020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12) 김소아, 전인식, 장유진, 안우림, 이두리(2020). 2019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전남: 한국콘텐츠진흥원.

1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2018.12).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서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4) 국가통계포털 경찰청범죄통계 피해자특성(성별·연령별).

15)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c). 2019 간추린 교육통계.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16) 양계민, 장윤선, 정유미(2019).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2019: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가족적 위기상황 유형별 위기청소년 규모

(1) 빈곤 청소년¹⁸⁾

빈곤은 가장 대표적인 위기로인한다. 빈곤은 그 자체로도 독립적·직접적인 위기로인하지만, 빈곤이 기저 원인이 되어 파생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가족해체, 가정폭력·학대·방임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별 규모 파악의 첫 번째 단계로 빈곤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해보았다. 빈곤 청소년 규모 추정을 위한 빈곤의 정의와 통계생산 방법은 빈곤 통계에 관한 기존의 신뢰할만한 국가수준 통계에서 사용한 정의와 데이터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2019)이 발간한 「2019년 빈곤 통계연보」의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사용한 데이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¹⁹⁾ 2016~2018년 자료이다.

빈곤의 정의는 상대적 빈곤율을 적용하여, 시장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30% 미만인 가구(최저생계급여 선정기준²⁰⁾과 동일)를 ‘빈곤’ 가구로 규정하고, 중위소득 30% 이상~50% 미만인 가구를 ‘차상위 계층’²¹⁾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시장소득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의되었다.

18) 빈곤 청소년 규모 추정에 관한 내용은 손상학 대표(고려대학교 박사수료)가 작성하였다.

19)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자산부채소득지출 등을 통해 미시적인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 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집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30001호) 자료로, 2019년 제8차 표본조사(응답 가구수 18,406가구)까지 완료되었으며, 모집단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조사구를 사도, 읍·면·동 및 주택 유형(일반, 아파트, 대형아파트)에 따라 68개로 층화하였고, 표본규모는 전국의 약 20,000가구, 표집은 각 층별 가구수에 비례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통계청 보도자료, 2019.12.17.).

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서는 최저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시장소득이 중위소득의 30%미만인 가구로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45715&page=1 에서 2020.05.01. 인출.)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는 “법 제2조 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에서 2020.05.01. 인출.).

$$\text{시장소득}^{22)} = \text{근로소득} + \text{사업소득} + \text{재산소득} + (\text{사적이전소득} - \text{사적이전지출})$$

중위소득은 가계금융조사의 통계값을 활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고시(제 2018-144호)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Ⅲ-13 기준 중위소득 추이

(기준: 월,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6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20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20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분석 원자료: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년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웹사이트.
 * 주: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2) 7인 가구의 경우 6인 가구에서 5인 가구를 차감한 값을 6인 가구에 합산한 수준으로 중위소득설정.

빈곤 가구율은 전체 가구수 대비 빈곤 가구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빈곤 청소년 비율은 빈곤 가구에 속한 청소년수를 전체 청소년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만약 청소년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가 빈곤율이 높다면, 가구 빈곤율보다 빈곤청소년 비율이 높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정의는 법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바, 9세~24세 미만의 범위와 9~19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상의 방법과 기준을 적용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각 년도 데이터를 토대로 빈곤 청소년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수와 비율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Ⅲ-14>에는 표본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에서 추출한 빈곤 청소년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의 수와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9-24세 연령 구분을

22) 시장소득이 음수값인 경우에는 0의 값으로 대체하였다.

기준으로 살펴보면, 빈곤 청소년 비율은 2016년 6.9%에서 2018년 5.3%로 감소하였고,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 청소년 비율도 2016년 15.3%에서 2018년 12.1%로 감소하였다.

표 III-14 연도별 빈곤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수 및 비율: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단위: 명, %)

연도	청소년수		빈곤 청소년 수(비율)		차상위계층 청소년 수(비율)	
	9-24세	9-19세 미만	9-24세	9-19세 미만	9-24세	9-19세 미만
2016	8,238	5,351	567(6.9)	415(7.8)	691(8.4)	483(9.0)
2017	7,801	5,147	458(5.9)	317(6.2)	598(7.7)	419(8.1)
2018	7,194	4,711	380(5.3)	263(5.6)	490(6.8)	333(7.1)

* 원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웹사이트.

상술한 비율 산출에 사용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201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모집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출된 비율에 연도별 청소년 전체 인구수를 적용하여 빈곤 청소년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수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결과가 아래 <표 III-15>에 제시되어 있다.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 연령 기준인 9~24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18년 기준 빈곤(중위소득 기준 30% 미만) 가구에 속한 청소년은 총 437,426명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 기준 30%이상~50% 미만) 가구에 속한 청소년은 총 564,050명으로 산출되었고, 빈곤 가구와 차상위계층을 합한 저소득 가구 청소년은 총 1,001,476명으로, 동일 연령대 전체 청소년 인구의 약 12.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인 9~19세 미만으로 연령범위를 한정해서 살펴보면, 빈곤 가구에 속한 청소년은 276,907명(5.6%), 차상위계층 청소년은 350,608명(7.1%)로 추정되었다. 이를 합산한 저소득(빈곤+차상위계층) 가구 청소년은 총

627,515명으로 해당 연령대 전체 청소년 인구의 12.7%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었다. 빈곤이 곧 위기를 유발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인 위험요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빈곤으로 인한 위기가능성을 내포한 청소년의 규모가 상당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II -15 연도별 빈곤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규모와 비율: 모집단 추정치

(단위: 명)

연도	청소년수 ¹⁾		빈곤 청소년 수		차상위계층 청소년 수	
	9-24세	9-19세 미만	9-24세	9-19세 미만	9-24세	9-19세 미만
2016	8,793,276	5,305,637	605,218	411,482	737,576	478,905
2017	8,549,974	5,133,851	501,973	316,190	655,414	417,930
2018	8,281,169	4,960,105	437,426	276,907	564,050	350,608

* 자료: 1) 해당 연령의 청소년 인구수 자료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시스템 내 연령별 인구현황 (<http://2701.213.4/>)에서 2020.05.03. 인출.

(2) 가정폭력·학대 피해 및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가정환경과 관련한 위기 유형 가운데 빈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가정폭력·학대 피해 청소년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a: 280). 이와 관련하여,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으로 파악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a: 282).

표 III-16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2016-2018)

(단위: 건, %)

구분	계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	중복학대
2016	18,700 (100.0)	2,715 (14.5)	3,588 (19.2)	493 (2.6)	2,924 (15.6)	8,980 (48.0)
2017	22,367 (100.0)	3,285 (14.7)	4,728 (21.1)	692 (3.1)	2,787 (12.5)	10,875 (48.6)
2018	24,604 (100.0)	3,436 (14.0)	5,862 (23.8)	910 (3.7)	2,604 (10.6)	11,792 (47.9)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82). <표 6-1-9>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다만,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를 통칭하는 바, 연령의 하한이 9세인 청소년기본법 상의 청소년 연령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가용 자료로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9세~18세 미만으로 연령 범위를 조정하여 다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9세-17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가운데 학대 피해 청소년은 13,532명으로 파악된다.

표 III-17 학대 피해 아동 연령(2018)

(단위: 건, 명)

연령	건수(비율)		명수(비율)	
9세	1,552	9.6%	1,293	9.6%
10세	1,797	11.1%	1,438	10.6%
11세	1,807	11.2%	1,481	10.9%
12세	1,846	11.4%	1,547	11.4%
13세	1,913	11.8%	1,580	11.7%
14세	2,265	14.0%	1,921	14.2%
15세	1,894	11.7%	1,589	11.7%
16세	1,634	10.1%	1,405	10.4%
17세	1,479	9.1%	1,278	9.4%
소 계	16,187	100.0%	13,532	100.0%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19-20쪽, <표 1-3-2>를 일부 재구성.

주: 아동학대사실에 동일한 아동이 한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이거나 혹은 동일한 아동이 한번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아동 특성값의 건수와 명수는 일치하지 않음.

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 가운데,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은 아동의 규모는 보호대상아동 현황을 통해 개괄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19a: 180). 보호대상 아동의 수는 2017년 4,850명, 2018년 4,538명, 2019년 4,612명으로 파악되는데, 가용 자료 가운데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규발생 보호대상아동 4,612명 가운데 565명명은 귀가 및 연고자에게 인도되었고, 4,047명이 보호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2020.08.07).

표 III-18 보호대상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단위: 명)

연도	총 아동 발생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계	유기	미혼모/부 아동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 빈곤/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2017	4,850	725	4,125	261	847	12	227	1,442	223	279	87	747
2018	4,538	620	3,918	320	623	18	231	1,415	198	284	92	737
2019	4,612	565	4,047	237	464	8	473	1,484	265	297	83	736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2020.08.07.).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54749 에서 2020.9.14. 인출.

이를 다시 보호조치 내용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시설입소자는 2,739명으로 파악되고, 가정보호는 1,308명으로 나타나,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의 총 수는 4,047명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 자료는 연령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 연령의 하한선인 9세 이상을 별도로 분리하기 어렵다.

표 III-19 보호대상아동 보호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시설 입소					가정 보호				
		소계	양육 시설 등	일시 보호 시설	장애 아동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소계	소년 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입양 전 위탁
2017	4,125	2,421	1,467	310	19	625	1,704	2	285	994	423
2018	3,918	2,449	1,300	494	7	648	1,469	1	174	937	357
2019	4,047	2,739	1,707	401	6	625	1,308	4	104	1,003	196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2020.08.07.).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54749 에서 2020.9.14. 인출.

(3) 가출 청소년

위기청소년의 주요 유형으로 가출청소년이 있다. 가출청소년의 규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산이 무척 어렵다. 첫째, 가출청소년들은 자신의 거주환경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규모 파악이 쉽지 않고, 둘째, 이들의 지위가 매우 변동적이다(김희진 외, 2018: 29). 가정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이탈-복귀를 반복하는데, 그 주기와 횟수가 개인마다 매우 상이하므로 이 같은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규모를 추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김희진 외, 2018: 29).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가용 자료를 토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가출 청소년의 규모를 추산해보고자 한다. 먼저 행정통계 자료로 경찰청의 실종·가출인 신고자료와 청소년쉼터 이용자수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2차 자료를 활용해서 가출 청소년 규모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먼저, 경찰청에 접수된 신고·가출인 현황에서 청소년에 해당하는 9-24세 연령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총 32,584명이 신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20세 이상은 8,801명이며, 19세 이하는 23,783명으로 파악된다. 9-19세 가운데 남자 청소년은 9,646명, 여자 청소년은 14,137명으로 파악된다.

표 III-20 경찰청 실종·가출인 신고접수 현황(9-24세)

(2019년 기준, 단위: 명)

9-17세 (실종아동법 상 아동)			18-19세 (가출인)			20-24세 (가출인)			합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7,965	11,045	19,010	1,681	3,092	4,773	3,285	5,516	8,801	12,931	19,653	32,584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내부자료(2020.06.24). 위기청소년 모집단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통계.

다음으로, 가출청소년 대상 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이용 인원의 경우, 2019년 기준 쉼터 이용 인원은 총 32,402명, 자립지원관 이용 인원은 220명으로 파악되었다. 쉼터의 경우, 동일한 청소년이 여러 개의 쉼터를 이용했을 때 각각 이용자로 집계된다는 점에서 실제 이용자보다 확대 산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전체 가출청소년 가운데 쉼터나 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출청소년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 III-21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인원

(2019.12.31.기준, 단위: 명)

구 분	쉼터					자립지원관
	계	일시		단기	중장기	
		이동형	고정형			
정원	1,170	-	-	828	342	181
실인원	32,402	24,256		7,279	867	220
연인원	385,862	62,910		227,975	94,977	27,843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내부자료(2020.06.24). 위기청소년 모집단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통계.

다음으로, 2차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보는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승인통계인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포함된 가출 경험 문항을 참고할 수 있다. 가용 자료 가운데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조사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가출 경험률이 2.6%(초등학생 1.3%, 중학생 3.4%, 고등학생

3.1%)로 파악되었다(김지경 외, 2018a: 128). 이 결과를 2017년 교육통계연보의 전국 초·중·고등학생 현황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생은 112,378명으로 추산된다(김지경 외, 2018a: 128).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60,344명, 여자청소년이 52,035명으로 추정되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16,322명, 중학생 45,842명, 고등학생 50,214명으로 추정된다(김지경 외, 2018a: 128). 개별 자료가 가출청소년 규모 파악에 충분치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근거를 토대로 최근 1년 간 가출을 경험한 초·중고 청소년은 약 11만 2천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표 Ⅲ-22 2차 자료를 활용한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 청소년 규모 추정

(단위: %, 명)

구분	학교급			전체
	초	중	고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	1.3	3.4	3.1	2.6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청소년 수	16,322	45,842	50,214	112,378

* 출처: 김지경 외(2018a).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128쪽 내용을 표로 재구성.

3) 교육적 위기상황 유형별 위기청소년 규모

(1) 학교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

학교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학업중단자수를 통해 개괄적으로 파악하거나, 가용자료를 활용해서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학업중단자는 의무교육의 범주에 들지 않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 퇴학(품행), 제적, 유예, 면제의 사유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지칭하며,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단계에서는 유예(질병,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와 면제(질병, 해외출국)가 해당된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9b:

58).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수는 2016년 47,663명, 2017년 50,057명, 2018년 52,539명으로 파악된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9b: 59).

표 Ⅲ-23 연도별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유예 및 면제자	중학교 유예 및 면제자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합계
2016	14,998	8,924	23,741	47,663
2017	16,422	9,129	24,506	50,057
2018	17,797	9,764	24,978	52,539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b). 59쪽 <표 Ⅱ-6-1>, <표 Ⅱ-6-2> 및 60쪽 <표 Ⅱ-6-3>을 재구성.

다만 위에서 살펴본 학업중단자 현황은 기준년도에 발생한 학업중단자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누적적으로 존재하는 학교 밖 청소년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현황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하형석 (2020.09)은 가용 자료를 활용한 간접추정 방식 중에서 청소년 인구수에서 학생수를 제외하는 부분집합 방식(하형석, 2020.09: 7)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추정한 바 있다. 주민등록인구와 장래인구추계(연앙인구)를 토대로 부분집합 방식으로 실제 추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청소년 인구 6-17세, 초1-고3 전체 학생 기준)는 2019년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적용했을 때, 244,191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III-24 학교 밖 청소년 규모(부분집합 방식 적용)

(단위: 명)

연도	청소년 인구(6-17세)		학생 수 교육기본통계 (4.1.기준 학생수, 연령은 전년 12.31기준) C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주민등록 인구현황 (전년 12월 31일) A	외국인 순입국 (전년 12월) B		학교 밖 청소년규모 (A+B-C) D	내국인 순출국 (전년12월 기준) E	국내 학교 밖 청소년규모 D-E
2017	6,055,614	41,870	5,691,694	406,139	161,522	244,617
2018	5,909,963	46,401	5,542,543	415,789	163,793	251,996
2019	5,760,644	51,061	5,407,971	404,076	159,885	244,191

* 출처: 하형석(2020.09: 11). <표 5> 학교 밖 청소년 규모(간접추정방법: 부분집합 방식).

교육기본통계의 학업중단자수, 그리고 간접 추정한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먼저, 교육기본통계의 학업중단자수는 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학교급에 등록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이 통계로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진학률은 100%에 미치지 못하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 통계에 포섭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분집합법을 적용해서 간접추정하는 방식 역시 어떠한 자료를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추정 인원이 크게 달라진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두 자료 모두 원론적으로 학업중단자 및 학교 밖 청소년이 곧 위기청소년은 아니라는 점에서 개념상의 괴리가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활용할 때는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상술한 한계를 고려하되, 하형석(2020.09)이 적용한 부분집합 방식의 간접추정법으로 추산한 2019년 기준 244,191명으로 추정하기로 한다.

(2)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 규모는 교육부가 발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개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가능한 최근 자료인 ‘2019년 1차 학교폭

력 실태조사'의 경우, 초4~고3 재학생 전체(약 410만명)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조사참여율 90.7%로 약 372만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8.27.). 전수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은 약 6만 명, 가해 학생은 2만2천여 명으로 파악되었다.

표 Ⅲ-25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규모

(‘19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전체	초	중	고
피해 경험	비율	1.6	3.6	0.8	0.4
	인원수(명)	60천	45.5천	10.1천	4.5천
가해 경험	비율	0.6	1.4	0.3	0.1
	인원수(명)	22천	17.8천	3.3천	0.9천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9.8.27.).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6~7쪽.

이 조사는 초4~고3까지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라는 장점이 있지만, 학교에서 실시되는 온라인 조사라는 점에서 가피해 결과가 축소 보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피해 학생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파악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규모는 약 8만 2천 명으로 파악된다.

4) 개인적 위기상황 유형별 위기청소년 규모

(1) 약물 이용 및 중독 청소년

다음은 위기 유발 요인이자 위기징후의 하나인 흡연, 음주, 약물 이용 청소년 규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흡연과 음주는 담배와 술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음주는 음주 상태에서 폭력·성폭력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관련 실태를 살펴보았다.

흡연, 음주, 약물 이용 청소년의 규모는 교육부·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중 1~고3까지 학생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입학 이전 연령대의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한계를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흡연, 음주, 약물 이용에 관한 가용 자료 가운데 가장 신뢰할만한 자료이므로, 이 자료를 토대로 개략적인 규모를 추정해보기로 한다.

아래 표에는 현재 흡연율과 월 20일 이상 흡연율, 매일 흡연율이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의 위기요인 및 위기징후로서의 흡연 경험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현재 흡연율은 제외하고, 월 20일 이상 흡연율과 매일 흡연율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학년별로 조사된 월 20일 이상 흡연율을 각 학년별 재학생수(모집단수)에 적용해 보면, 월 20일 이상 흡연하는 청소년 규모는 약 10만 1천여명으로 파악된다. 같은 방식으로 매일 흡연 규모를 추산하면 8만 4천여명으로 추정된다.

표 III-26 흡연 중·고등학생 규모 추정치

(단위: %, 명)

구분	재학생 수 ¹⁾	현재 흡연 ²⁾		월 20일 이상 흡연 ²⁾		매일 흡연 ²⁾	
		비율 (%)	인원수(명)	비율 (%)	인원수(명)	비율 (%)	인원수 (명)
중1	427,863	1.0	4,279	0.2	856	0.1	428
중2	411,734	3.5	14,411	1.3	5,353	0.9	3,706
중3	444,502	5.0	22,225	2.2	9,779	1.7	7,557
고1	460,132	8.3	38,191	4.3	19,786	3.6	16,565
고2	441,629	10.0	44,163	5.9	26,056	5.0	22,081
고3	497,562	11.4	56,722	7.9	39,307	6.8	33,834
합계/평균	2,683,422	6.7	179,990	3.7	101,136	3.2	84,170

* 주: 1) 재학생수 자료는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a), 교육통계연보 2019(기준일은 2019.4.1.).
 2) 흡연율 자료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조사 시기는 2019.6월).

아래 표에는 같은 방식으로 음주 관련 규모를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위험음주율과 만취경험율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위험음주율의 경우, 중1은 0.7에 불과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고3은 15.4%에 달한다. 학년별 재학생수에 해당 경험율을 고려하여 추산한 규모를 살펴보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청소년 가운데 위험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 수는 약 21만 명으로 추정되며, 최근 30일 간 만취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규모는 약 5만 9천명으로 추산된다.

표 III-27 음주 중·고등학생 규모 추정치

(단위: %, 명)

구분	재학생 수	현재 음주 경험		위험음주율		만취경험율	
		비율 (%)	인원수 (명)	비율 (%)	인원수(명)	비율 (%)	인원수 (명)
중1	427,863	3.9	16,687	0.7	2,995	0.3	1,284
중2	411,734	7.4	30,468	2.5	10,293	1.3	5,353
중3	444,502	11.2	49,784	4.7	20,892	1.9	8,446
고1	460,132	17.1	78,683	9.2	42,332	2.7	12,424
고2	441,629	22.8	100,691	12.9	56,970	3.5	15,457
고3	497,562	25.3	125,883	15.4	76,625	3.2	15,922
합계/평균	2,683,422	15.0	402,196	7.8	210,107	2.2	58,884

* 주: 1) 재학생수 자료는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a). 교육통계연보 2019(기준일은 2019.4.1.)
 2) 현재 음주 경험 자료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조사 시기는 2019.6월)
 3) 위험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4) 만취경험률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정신을 잃거나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다음으로, 유해약물의 경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유해약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중·고등학생 청소년 비율은 0.5%로 해당 학년의 모집단 인구수를 고려하면 13,417명으로 추산되었다.

표 III-28 약물 경험 중·고등학생 규모 추정치

(단위: %, 명)

구분	재학생 수	평생 약물 경험률	인원수(추정)
수치	2,683,422	0.5%	13,417명

- * 주: 1) 재학생수 자료는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a). 교육통계연보 2019(기준일은 2019.4.1.)
 2) 평생 약물 경험률 자료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조사 시기는 2019.6월)
 3) 평생 약물 경험률은 평생 동안 기분의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 빼기 등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본드를 비롯하여 각성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 양의 기침 가래약, 신경안정제 등을 먹거나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은 최근 부각되는 위기청소년 관련 위기요인이자 징후로 볼 수 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로는 여성가족부가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가 대표적이다. 이 진단조사는 전국의 학령 전환기(초등 4학년, 중1, 고1)에 해당하는 연령대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삼아 전수 조사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33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8.25.:1).

조사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여부는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보고된다. 먼저, 위험사용자군은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을 의미하고, 주의사용자군은 사용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단계를 지칭하며, 과의존 위험군은 이 둘의 합계(위험사용자군+주의사용자군)에서 중복위험군을 제외한 집단을 뜻한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8.25.:1).

이 자료를 토대로 인터넷·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규모를 가늠하는 데는 다음의 한계가 있다. 이 자료는 학령 전환기(초4, 중1, 고1)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수 조사이므로,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

존 실태는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조사 대상 학년(초4, 중1, 고1)을 제외한 여타 학년에 속하는 청소년의 실태는 함께 보고되지 않는다.

상술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신뢰할만한 공식 통계 자료이므로 여기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규모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조사대상이 매년 학령전환기로 제한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접근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조사 인원 대비 위험사용자군, 주의사용자군, 과의존위험군 비율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타 학년(초5-6, 중2-3, 고2-3) 학생수에 대비하여 인원수를 추산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은 모든 학교급·학년에 과의존 비율을 동률로 적용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학교급·학년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가 달라질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학교급과 학년이 높아지면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면, 동률 적용하는 이 방법은 실제보다 과소추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학년이 높아지면서 과의존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동률 적용 방법은 현실보다 과대추정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최근 3년 간의 조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조사대상이었던 초4, 중1, 고1은 2020년 기준 초6, 중3, 고3이 되었을 것이며, 2019년 조사대상은 2020년 기준 초5, 중2, 고2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2018-2020년까지 최근 3년 간 자료를 합산하면 현재 초4~고3까지의 학생에 대한 조사결과를 모두 포함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 방법은 과거 과의존위험군이었던 학생이 지금도 과의존위험군일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취사선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한다. 과거 조사에서 과의존위험군에 속했던 응답자가 현재에도 과의존위험군일 것으로 전제하는 데는 분명 오차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응답한 조사결과를 활용한다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저연령

대에서 과의존 실태가 가장 크게 증가한다는 최근의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동일 학교급 내에서는 동일 비율로 과의존이 발생할 것으로 전제하는 데서 비롯되는 오차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 표에는 2018-2020까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 위험사용자군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살펴보면,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은 2018년 13,440명(1.0%), 2019년 14,790명(1.1%), 2020년 14,770명(1.1%)로 파악되었고, 스마트폰 위험사용자군은 2018년 14,324명(1.1%), 2019년 14,456명(1.1%), 2020년 13,901명(1.0%)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모집단 규모의 약 1% 정도가 각각 인터넷/스마트폰 위험사용자군으로 판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9 청소년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주의사용자군 구분(2018-2020년)

(단위: 명)

연도	구분	재학생 수	인터넷 과의존 현황(명)			
			조사 인원	위험 사용자군	주의 사용자군	소계
'18	초4(현재 초6)	447,294	441,819	5,537	37,701	43,238
	중1(현재 중3)	415,153	410,279	4,818	49,743	54,561
	고1(현재 고3)	454,115	439,448	3,085	39,537	42,622
	합계	1,316,562	1,291,546	13,440	126,981	140,421
'19	초4(현재 초5)	427,116	420,563	5,665	38,914	44,579
	중1(현재 중2)	428,355	422,788	5,503	54,811	60,314
	고1(현재 고2)	455,944	443,216	3,622	45,892	49,514
	합계	1,311,415	1,286,567	14,790	139,617	154,407
'20	초4	453,363	438,416	5,700	47,413	53,113
	중1	471,470	464,074	5,355	62,410	67,765
	고1	441,719	428,951	3,715	50,903	54,618
	합계	1,366,552	1,331,441	14,770	160,726	175,496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8.25.).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초등4학년 가장 크게 증가', 6쪽.

표 Ⅲ-30 청소년 스마트폰 위험사용자군·주의사용자군 구분(2018-2020년)

(단위: 명)

연도	구분	재학생 수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명)			
			조사 인원	위험 사용자군	주의 사용자군	소계
‘18	초4(현재 초6)	447,294	406,736	4,265	24,672	28,937
	중1(현재 중3)	415,153	403,526	5,071	37,387	42,458
	고1(현재 고3)	454,115	430,307	4,988	44,457	49,445
	합계	1,316,562	1,240,569	14,324	106,516	120,840
‘19	초4(현재 초5)	427,116	393,611	4,154	24,544	28,698
	중1(현재 중2)	428,355	417,248	5,297	38,886	44,183
	고1(현재 고2)	455,944	435,722	5,005	45,721	50,726
	합계	1,311,415	1,246,581	14,456	109,151	123,607
‘20	초4	453,363	421,103	3,942	29,762	33,704
	중1	471,470	460,327	5,066	42,737	47,803
	고1	441,719	424,959	4,893	50,138	55,031
	합계	1,366,552	1,306,389	13,901	122,637	136,538

*주: 1)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와 전체 조사인원수가 동일하지 않음.
2)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8.25.),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초등4학년 가장 크게 증가', 6쪽.

〈표 Ⅲ-31〉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간 인터넷·스마트폰 조사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산출한 과의존 사용자군 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위험사용자군의 경우, 2018년 27,764명, 2019년 29,246명, 2020년 28,671명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조사결과를 합산하면 85,681명으로 파악된다. 최근 3년간 조사 인원이 약 399만 여명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전체 모집단 인원의 약 2.1%가 인터넷·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하여 위험사용자군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표 III-3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유형별 과의존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과의존위험군(A+B+C)	196,337	206,102	228,120
위험사용자군(A)	27,764	29,246	28,671
주의사용자군(B)	233,497	248,768	283,363
중복위험군(C)	64,924	71,912	83,914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8.25.).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초등4학년 가장 크게 증가', 2쪽.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파악해보면, 초4~고3에 해당하는 연령대 청소년 가운데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은 폭넓게 파악할 경우(=과의존위험군) 630,559명으로 파악되며, 좁게 파악할 경우(=위험사용자군) 85,681명 규모로 추산된다.

(3) 게임 과몰입

다음으로 게임 과몰입 청소년 규모를 파악해보았다. 게임 과몰입과 관련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김소아, 전인식, 장유진, 안우림, 이두리, 2020)」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초4~고3까지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4~6학년) 58,418명, 중학생(1~3학년) 56,885명, 고등학생(1~3학년) 67,543명 등 총 182,846명을 목표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여기에 초등 저학년(1~3학년) 8,864명이 추가 표집되었다(김소아 외, 2020: 55). 이 가운데 실제 조사 인원은 161,149명(초4-고3 153,480명, 초2-3 7,669명)이다(김소아 외, 2020: 61-62).

이 조사에서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게임 이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을 과몰입군, 과몰입위험군, 게임선용군, 일반사용자군, 비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그룹은 과몰입군과 과몰입위험군이다. 과몰입군은 “게임의 긍정적 효과는 거의 없고 게임 이용에 문제가 많이 발견되는 고위험 집단으로, 게임

과몰입 해소 및 생활 적응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을 일컫는다(김소아 외, 2020: 9). 과몰입위험군은 “게임의 긍정적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게임 이용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되는 집단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집단”을 지칭한다(김소아 외, 2020: 9).

이러한 개념 정의를 염두에 두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 규모를 추산해보면, 먼저 과몰입군은 초4~고3 조사대상자의 0.4%로 나타나, 해당년도 재학생수에 이 비율을 반영하면 총 18,705명으로 파악된다. 과몰입위험군은 1.8%로 파악되어 94,079명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게임 과몰입 측면에서 개입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은 18,705명, 위기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은 94,079명 규모로 추산해볼 수 있다.

표 III-32 게임 과몰입 청소년 규모 추산

(단위: 명, %)

구분	재학생 수	과몰입군		과몰입위험군	
		비율(%)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초4	427,161	0.4	1,709	2.0%	8,543
초5	446,048	0.4	1,784	2.6%	11,597
초6	470,747	0.4	1,883	2.9%	13,652
중1	427,863	0.4	1,711	2.2%	9,413
중2	411,734	0.6	2,470	2.9%	11,940
중3	444,502	0.6	2,667	3.2%	14,224
고1	460,132	0.4	1,841	1.6%	7,362
고2	441,629	0.6	2,650	1.9%	8,391
고3	497,562	0.4	1,990	1.8%	8,956
합계/평균	4,027,378	0.4	18,705	1.80%	94,079

* 주: 1) 재학생수 자료는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a). 교육통계연보 2019(기준일은 2019.4.1.)
 2) 게임 과몰입 및 과몰입위험군 결과는 김소아 외(2020: 70). <표 II-4>.

(4) 도박 문제

〈표 III-33〉에는 위기청소년 유형 가운데 도박 중독 청소년 규모를 정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도박 중독 청소년 규모를 살펴보는 데 활용한 자료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8년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자료다. 이 조사는 2015년 1차 조사, 2018년 2차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목표 모집단은 국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법률적으로는 9~24세 연령에 해당하나, 효율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을 고려하여 실제 조사 모집단은 중·고등학교 연령의 재학 중 청소년과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성되었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8.12: 13).

조사 결과는 청소년들의 도박행동 및 도박문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CAGI(Canadian Adolescent Gambling Inventory) 중 핵심 9문항에 해당하는 GPSS(Gambling Problem Severity Subscale)을 활용하여 측정한 후, 이를 비문제군(green), 위험군(yellow), 문제군(red)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8.12: 4). 그리고 위험군 또는 문제군으로 분류된 두 집단을 합하여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명명한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8.12: 4). 구체적으로, 위험군(yellow)은 지난 3개월 간 도박 경험이 있으면서 경미한 수준에서 중증도(moderate) 수준의 조절실패와 그로 인한 심리·사회·경제적 피해 등이 발생한 상태로, 문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8.12: 6). 문제군(red)은 지난 3개월 간 반복적인 도박 경험이 있으며, 심각한 수준의 조절실패와 그로 인한 심리·사회·경제적 피해가 진행된 상태로, 도박 중독 위험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8.12: 6).

이 자료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비확률표집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모수추정이 불가능하며, 조사결과를 활용한 모수추정은 중1~고2에 재학 중인 학생 청소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 같은 한계를 염두에 두고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청소년 가운데 도박 문제

위험군은 1.5%로 34,393명으로 추정되었고, 위험군은 4.9%로 110,557명으로 추정되었다. 이 둘을 합한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조사 대상 청소년의 6.4%로 144,950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Ⅲ-33 재학 중 청소년 전체 도박문제 수준

(단위: %, 명)

구분			비문제군 (green)	위험군 (yellow)	문제군 (red)	계
학생 청소년	전체 (%)	2015	94.9	4.0	1.1	100.0
		2018	93.6	4.9	1.5	100.0
	모수 추정값 (명)	2015	2,791,820	118,090	31,658	2,941,568
		2018	2,102,039	110,557	34,393	2,246,989
학교 밖	청소년	2018	79.0	12.5	8.5	100.0

* 출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2018.12). 29쪽 <그림 Ⅲ-1> 하단 표 및 161쪽 <표 IV-1>의 주요 결과를 재구성함.

(5) 우울·자해·자살 시도 청소년

다음은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거나 자살 시도 등 고위기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의 규모를 추산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이를 위해 검토한 자료는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다. 이 자료는 건강과 관련한 광범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신뢰할만한 데이터라는 강점이 있으나, 초등학생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초기 청소년의 결과값을 알기 어렵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 시도율에 관한 공식 통계이므로 해당 자료를 활용하기로 한다.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2019년 실시된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우울감’을 토로한 청소년의 비율이 28.2%로 파악되었다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센터, 2019: 206-209). 이를 조사대상 모집단(중1~고3)에 적용해보면, 최근 1년 동안 우울감을 느낀 중고생의 수는 755,800명으로 추정된다.

같은 방식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비율은 13.1%이며(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센터, 2019: 211), 이는 모집단에 적용하면 351,528명으로 파악된다.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비율은 4.0%이며(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센터, 2019: 215), 이를 전체 중1~고3 재학생수에 적용하면 107,026명이 이 같은 경험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이며(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센터, 2019: 219), 이는 해당 연령 학생 중 79,289명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표 III-34 심리·정서적 위기(우울, 자살 등) 유형 청소년 규모 추정치

(단위: %, 명)

구분	재학생 수	우울감		자살 생각을		자살 계획을		자살 시도를	
		비율	인원수 (추정)	비율	인원수 (추정)	비율	인원수 (추정)	비율	인원수 (추정)
중1	427,863	23.3	99,692	12.4	53,055	4.0	17,115	3.3	14,119
중2	411,734	27.7	114,050	14.0	57,643	4.4	18,116	3.6	14,822
중3	444,502	29.5	131,128	15.9	70,676	5.3	23,559	3.9	17,336
고1	460,132	28.0	128,837	12.2	56,136	3.7	17,025	2.6	11,963
고2	441,629	29.4	129,839	12.8	56,529	3.8	16,782	2.4	10,599
고3	497,562	30.6	152,254	11.6	57,717	2.9	14,429	2.1	10,449
합계/평균	2,683,422	28.2	755,800	13.1	351,528	4.0	107,026	3.0	79,289

* 자료: 1) 재학생수 자료는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a). 교육통계연보 2019(기준일은 2019.4.1.)
 2) 우울감, 자살생각률, 자살계획률 및 자살시도율 자료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조사 시기는 2019.6월)

5) 사회적 위기상황 유형별 위기청소년 규모

(1) 비행·일탈 청소년

여기에서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비행·일탈 청소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 가해 청소년 현황을 검토하였다. 먼저 아래 표에는 가해 청소년 실태와 관련하여, 최근 3년 간 청소년 범죄자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청소년 범죄자 수는 감소세를 나타내, 2018년 기준 66,142명으로 파악되었다(여성가족부, 2019a: 452). 범죄 유형별로는 재산범죄 26,497명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세부 유형별로는 절도(25.6%), 사기(10.5%) 등으로 파악되었고, 그 외에는 폭력범죄 19,742명으로 29.8%를 차지했는데, 폭행·상해 등으로 처벌된 청소년이 17,951명(27.1%)로 파악되었다(여성가족부, 2019a: 452). 강력범죄는 3,509명으로 5.3%를 차지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3,173명(4.8%), 흉악범죄 336명(0.5%) 등으로 파악되었다(여성가족부, 2019a: 452).

표 III-35 청소년 범죄 유형별 현황(2016-2018)

(단위: 명)

구분(죄종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76,000	72,759	66,142
강력범죄	소계	3,343	3,463	3,509
	흉악범죄	483	380	336
	성폭력	2,860	3,083	3,173
폭력범죄	소계	19,476	21,043	19,742
	공갈	1,499	1,597	1,791
	폭행·상해 등	17,977	19,446	17,951
재산범죄	소계	33,088	29,056	26,497
	절도	22,534	20,008	16,904
	횡령 등	2,481	2,380	2,335
	장물	591	443	290

구분(죄종별)		2016년	2017년	2018년
	사기	7,482	6,225	6,968
교통사범		9,259	9,239	7,276
저작권법 위반		146	128	37
기타		10,688	9,830	9,081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452). <표 9-1-2>에서 재구성.

주: 1) 흉악범: 살인, 강도, 방화

2) 폭행상해 등: 폭행상해의 죄+폭력행위 등 처벌법(공갈죄 제외)+기타

3) 횡령 등: 횡령, 배임 손괴

4) 교통사범: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2) 범죄 피해 청소년

다음으로, 위기청소년 중 범죄 피해 청소년 현황은 경찰청범죄통계 피해자 특성(성별·연령별) 통계를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다만 공개된 통계자료에는 연령범위를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등 구간별로 제시하고 있어,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 연령(9~24세)에 해당하는 정확한 범죄 피해자 규모를 알기는 어렵다. 해당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는 13세~20세 이하 연령의 범죄 피해자 규모인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아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용 자료 가운데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 기준, 13세~20세 이하의 범죄 피해 청소년은 총 82,323명으로 파악되었고, 이 가운데는 폭력 범죄 피해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폭행(14,850명), 상해(3,193명) 등으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 경찰청범죄통계 피해자특성(성별·연령별), 2020.9.22.인출). 다음으로는 지능범죄 피해자도 21,317명으로 높게 파악되었는데, 이 중에는 사기 피해자가 16,020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횡령 피해자도 5,011명에 달했다(국가통계포털 경찰청범죄통계 피해자특성(성별·연령별), 2020.9.22.인출). 절도범죄 피해자는 11,529명으로 파악되었고, 강력범죄 피해자는 5,85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강간 피해자 1,457명, 강제추행 피해자 3,879명 등으로 파악되었다(국가통계포털 경찰청범죄통계 피해자특성(성별·연령별), 2020.9.22.인출).

표 III -36 범죄 피해 청소년(13-20세 이하, 2018년)

(단위: 명)

구분(죄종별)		남자(명)	여자(명)	합계(명)
합계		49,012	33,311	82,323
강력범죄	소계	456	5,396	5,852
	살인기수	2	4	6
	살인미수 등	7	10	17
	강도	57	44	101
	강간	14	1,443	1,457
	유사강간	26	192	218
	강제추행	333	3,546	3,879
	기타 강간·강제추행 등	5	149	154
	방화	12	8	20
절도범죄		8,027	3,502	11,529
폭력범죄	소계	16,419	7,247	23,666
	상해	2,287	906	3,193
	폭행	10,173	4,677	14,850
	체포·감금	76	118	194
	협박	467	605	1,072
	약취·유인	5	41	46
	폭력행위 등	1,548	611	2,159
	공갈	1,145	87	1,232
	손괴	718	202	920
지능범죄	소계	13,831	7,486	21,317
	직무유기	3	0	3
	직권남용	2	1	3
	증수뢰	0	0	0
	통화	2	3	5
	문서·인장	173	101	274
	유가증권인지	1	0	1
	사기	10,897	5,123	16,020
	횡령	2,753	2,258	5,011
풍속범죄	배임	0	0	0
	소계	115	1,980	2,095
	성풍속 범죄	115	1,980	2,095
	도박	0	0	0
특별경제범죄		316	298	614
마약범죄		0	0	0
보건범죄		16	9	25
환경범죄		1	0	1

구분(죄종별)	남자(명)	여자(명)	합계(명)
교통범죄	7,795	3,630	11,425
노동범죄	1	1	2
안보범죄	1	1	2
선거범죄	0	0	0
병역범죄	3	0	3
기타범죄	2,031	3,761	5,792

* 1) 출처: 국가통계포털 경찰청범죄통계 피해자특성(성별·연령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에서 2020.09.22.인출.

2) 경찰청범죄통계 피해자특성(성별·연령별) 통계는 연령 구분이 12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등으로 구간별로만 제시되어 있음. 여기에서는 15세 이하(13~15세) 및 20세 이하(16~20세)를 합산한 값을 제시하였으며, 따라서 포함된 범죄피해자 연령은 13세~20세 이하임.

(3) 이주배경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2절에서 실시한 법령 및 정책분석 검토 결과, 이주배경청소년이 관련 유형으로 파악되었기에 가용 범위에서 규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대부분의 행정통계 자료가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보다는 ‘다문화청소년’, ‘다문화학생’, ‘다문화가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용어를 병용하였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청소년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및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12.8.인출). 이 같은 이주배경청소년은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에 따라 포함하는 구체적인 범주에 차이가 발생하며(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19: 28), 그로 인해 집계되는 현황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규정하는 다문화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가운데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부나 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의 자녀로 한정된다(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19: 28). 그에 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정의하는 다문화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자녀로 그 외연을 확장해서 적용 하고 있다(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9). 한편,

다문화청소년의 교육기회를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범위로 북한이탈주민, 중도입국청소년, 재외국민자녀,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다문화가족자녀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양계민, 장운선, 정윤미, 2019: 29).

여기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수집한 자료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수집하는 외국인주민현황 자료를 통해 살펴본 다문화가족 자녀 수 연령별 현황 자료가 아래 제시되어 있다. 만 6세 이하는 제외하고 만 7세부터 18세까지의 연령대 인구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87,827명, 2017년 107,370명, 2018년 123,381명으로 파악된다(여성가족부, 2019a: 177-178).

표 III-37 다문화가족 자녀수 연령별 현황(2016-2018)

(단위: 명, (%))

구분	연령별 현황				
	계	만 6세 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16	201,333 (100.0)	113,506 (56.4)	56,768 (28.2)	17,453 (8.7)	13,606 (6.8)
2017	222,455 (100.0)	115,085 (51.7)	81,826 (36.8)	15,753 (7.1)	9,791 (4.4)
2018	237,705 (100.0)	114,125 (48.1)	92,368 (38.9)	19,164 (8.1)	11,849 (4.9)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9 청소년백서, 177-178쪽, <표 5-1-3>.

다음은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관련 통계자료이다. 가장 최근의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규모는 약 13만 7천여 명으로 파악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9c: 31).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의 연령대는 9~24세이나, 교육부가 수집·발표하는 다문화학생은 초·중·고 취학연령대를 포괄하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청소년 연령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III-38 연도별 유형별 다문화 학생 현황(2012-2019)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국내출생	40,040	57,498	79,134	98,263	108,069
중도입국	4,288	5,602	7,418	8,320	8,697
외국인가정	2,626	4,706	12,634	15,629	20,459
합계	46,954	67,806	99,186	122,212	137,225

* 출처: 1) 2012-2018년 수치는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2019: 33). [그림 II-5]에서 인용.

2) 2019년 수치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c). 2019 간추린 교육통계, 31쪽에서 인용.

* 주: 1) 다문화학생수=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중도입국 자녀)+외국인 가정 자녀

2)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3) 중도입국: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4) 외국인가정: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5.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설계를 위해, 위기청소년의 유형과 범주를 검토하고 가용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대상자의 규모를 추산해보았다. 이를 위해 위기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청소년, 교육, 복지 및 소년사법분야의 법령과 「2020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여성가족부, 2020a)」에 수록된 전 부처의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납적 방법으로 위기청소년의 유형과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범주로는 청소년기 다양한 위기의 기저 요인으로 작용하는 ①가정환경 요인을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빈곤 청소년, 가정폭력·학대·방임 등 가정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출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②교육적 위기다. 여기에는 학업중단(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가피해 청소년 등 ‘학교’를 둘러싼 위기가 해당된다. 세 번째는 각종 중독이나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③개인적 위기 요인을 범주화하였다. 여기에는 약물·알콜·환각물질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등 중독 문제와 심리·정서적 문제, 일상생활

부적응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④사회적 위기 요인에는 (성)범죄 가피해 청소년과 이주배경 청소년 등이 해당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범주와 유형을 분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위기청소년들은 각 범주 및 유형별로 배타적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중첩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의 위기요인을 중복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위기의 상호중첩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위기청소년 범주와 유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III-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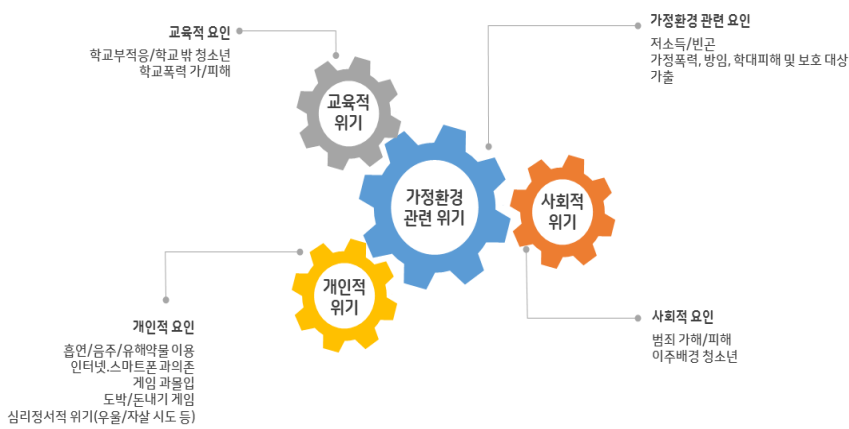


그림 III-4 위기청소년 범주 및 유형 개념도

위기는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하나의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되며, 연속적인 스펙트럼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으로 통칭되는 집단 안에서도 위기의 유형, 경중, 수준에 따라 경험하는 문제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개인 내에서도 시간 혹은 상황 변화에 따라 위기의 단계나 경중이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 이 장에서 기존 자료를 활용해서 검토한 개별 유형별 위기청소년의 규모는 이러한 ‘위기’의 역동(dynamic)을 포착하지는 못하지만, 각 유형의 위기청소년 집단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와 분포에

대한 정보를 통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볼 때, 여기에서 위기청소년 중 주요 유형으로 도출된 집단의 경우에는 그 만큼 정책대상자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조사 설계 시 조사대상이나 내용으로 포섭될 필요가 있다.



제Ⅳ장 위기청소년 실태 조사 설계를 위한 기존 조사 내용 분석

- 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기존 조사 내용 분석의 개요
- 2. 위기청소년에 관한 기존조사
내용분석의 실제
- 3. 소결 및 시사점

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를 위한 기존 조사 내용 분석의 개요

1) 목적 및 분석자료

제Ⅳ장에서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내용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분석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동안 실시된 각종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 제Ⅱ장 4절(기존 실태조사의 성과와 한계)에서 개괄한 바와 같이 그간 위기청소년 혹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상황에 대해 다양한 영역과 규모, 수준에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에 여기에서는 그간 수행된 실태조사 자료는 물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주요 연구과제의 설문조사표를 확보하여, 일관된 분석틀을 적용하여 조사항목을 분류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기존에 수행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내용 측면의 미비점을 확인함으로써, 새롭게 설계되는 실태조사에서 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조사내용 설계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기존 실태조사 내용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우선 일차적으로 ‘위기청소년’을 핵심단어(key word)로 설정하고, 각종 통계

23) 이 장의 1절과 2절은 이정민 부연구위원이 초고를 작성하고 황여정 연구위원이 수정·보완하였고, 3절은 황여정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자료 및 국가승인통계 자료들이 축적된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국내통계 부문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관련 실태조사들을 수집하였다. 또한 정부예산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들이 집약된 정책연구자료 포털사이트인 ‘온나라정책연구(prism.go.kr)’에서 관련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들을 광범하게 수집하고, 마지막으로 학술자료 검색엔진(dbpia, 한국학술정보 등)에서도 누락되는 정보가 없도록 자료 검색을 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제Ⅱ장과 Ⅲ장에서 도출된 위기청소년의 세부 유형들(예: 빈곤, 가정폭력·학대·방임 피해, 가출, 학교부적응,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 가·피해, 약물(흡연·음주유해약물) 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도박, 유해 환경 접촉, 범죄 청소년 등)을 각각 키워드로 설정하여, 위에서 언급한 검색 DB와 포털, 아카이브 등에서 동일한 자료수집 과정을 순차적으로 반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29개의 실태조사 또는 조사표를 포함한 연구과제들이 분석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29개 조사(연구)에 대해 각각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조사영역과 조사항목을 분류·배치한 뒤, 조사대상과 내용의 유사성, 분석의 편의성 및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몇 개의 범주로 다시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석 자료를 ①위기청소년 일반, ②가정환경 관련 위기(가정폭력·학대·방임 피해 및 가출 청소년), ③교육적 위기(학교부적응,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 가·피해), ④중독 및 과의존 관련 위기(약물,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과몰입, 도박 등), ⑤(성)폭력 피해 및 범죄 관련 실태조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⑥기타’의 범주에서는 위기청소년이나 청소년 위기에 관한 조사는 아니지만,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아동·청소년 분야 대표적인 실태조사 자료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자료목록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기존 실태조사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자료 목록

위기 유형	분석 자료	승인 통계 여부	법적 근거 여부	조사(연구) 기관
① 위기 상황 전반	•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2016)」 ¹⁾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서울특별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2015)」 ²⁾	-	-	서울특별시/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부산지역 위기청소년 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2014)」 ³⁾	-	-	부산여성 가족지원원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18): 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⁴⁾	-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키스크리닝 척도」 ⁵⁾	-	-	여성가족부
② 가정환경 관련 위기 (가정폭력,학 대,방임 피해/ 가출 관련)	• 「가정폭력 실태조사(2019)」 ⁶⁾	○	○	여성가족부
	• 「아동학대 실태조사(2011)」 ⁷⁾	-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실태조사:방임아동을 중심으로 (2006)」 ⁸⁾	-	-	국기인권위원회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2018)」 ⁹⁾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가출행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결과보고서(2012)」 ¹⁰⁾	-	-	여성가족부
③ 교육적 위기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관련)	• 「학교폭력 실태조사(2019)」 ¹¹⁾	-	○	교육부, KEDI, KERIS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2018)」 ¹²⁾	-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④ 중독,과의존 및 정신건강 (약물 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도박 등)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2020)」 ¹³⁾	-	○	여성가족부
	• 「인터넷 이용실태조사(2019)」 ¹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진흥원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2019)」 ¹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진흥원
	•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2019)」 ¹⁶⁾	○	○	한국콘텐츠진흥원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2020)」 ¹⁷⁾	-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19)」 ¹⁸⁾	○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2020)」 ¹⁹⁾	-	○	교육부
	• 「전국범죄피해조사(VIII)-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조사(2017)」 ²⁰⁾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⑤ 범죄 및 (성)폭력 가피해	•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 조사(2017)」 ²¹⁾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소년범죄자의 재범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2018)」 ²²⁾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사이버폭력 실태조사(2019)」 ²³⁾	-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진흥원
	•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2019)」 ²⁴⁾	○	○	여성가족부

위기 유형	분석 자료	승인 통계 여부	법적 근거 여부	조사(연구) 기관
	• 「2019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2019) : 청소년용 조사」 ²⁵⁾	-	-	여성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2016)」 ²⁶⁾	-	-	국가인권위원회
	•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2019)」 ²⁷⁾	-	-	교육부
⑥ 기타	•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7)」 ²⁸⁾	○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아동종합실태조사(2018)」 ²⁹⁾	○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 전국범죄피해조사(공식명칭: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제403001호)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장 제11조의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음.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전국범죄피해조사(VIII)-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전영실 외, 2018)은 격년으로 수행하는 만14세 이상 대상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아동·청소년용 실태조사이므로 동일한 법적 근거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함.

** 출처: 1) 황순길 외(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최정인, 장우민, 김연주(2015). 2015 서울특별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서울: 서울특별시·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하정화, 박금식, 김소정(2014). 부산지역 위기청소년 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4) 김지경 외(2018b).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서울: 여성가족부.

5) 김동민 외(2016).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가이드라인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6) 김정혜 외(2019).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7) 안재진 외(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8) 이숙진, 신혜령, 이은주(2006). 아동학대 실태조사: 방임아동을 중심으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9) 김희진 외(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 유서구 외(2012). 가출범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11) 교육부 보도자료(2019.8.27.). 2019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12) 윤철경 외(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1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8.25.). 2020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발표.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9a).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16) 김소아 외(2020). 2019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전남: 한국콘텐츠진흥원.

17)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2020). 청소년 여가문화 실태조사(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의 조사표(안). 발간 전 내부 자료. 서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8)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9). 제15차(2019)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19)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2020.01). 2020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20) 전영실, 유진, 노성훈(2018). 전국범죄피해조사(VIII)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박성훈 외(2017).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Ⅰ), pp.521-528.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22) 최정원 외(2018).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3) 정부안 외(2019).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경기: 방송통신위원회,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4) 장미혜 외(2019).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25) 박준휘 외(2019). 2019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9-36. 서울: 여성가족부.

26) 정현미 외(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7) 김영희, 김수아, 김은경(2019).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28) 박해정 외(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29) 류정희 외(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분석의 틀(frame)

광범위한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분석틀은 김지경 외(2016: 92)의 연구에서 정책자료 용도의 실태조사내용 구성의 기본 방향으로 적용했던 틀을 일부 준용하여 본 연구의 제Ⅱ장에서 도출한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 틀(안)을 적용하였다. 이 분석틀은 ①위기실태 파악(위험요인 및 위기행동), ②기존 정책의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③신규정책 수요 파악, ④보호요인(위기대응능력), 그리고 조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⑤개인별 배경변인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IV-1]에는 여기에서 적용한 기존 실태조사 내용의 분석틀이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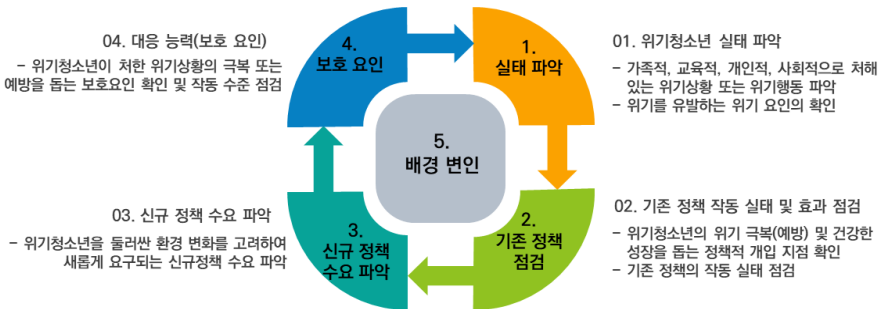


그림 IV-1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틀

구체적으로, ‘①위기실태 파악’에서는 조사항목 가운데 위기청소년이 처한 위기 상황(위험요인)과 위기행동, 위기결과를 묻는 항목들이 배치되었다. ‘②기존 정책의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에는 기 작동 중인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경험여부, 만족도 및 정책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문항들이 주로 분류되었고, ‘③신규정책 수요 파악’은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적 개입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목이나 문항을 배치하였다. 특히 기존 정책 작동 실태와 정책적

개입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6)에 명시된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 및 제2차-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자 하였다. ‘④보호요인(위기대응능력)’은 청소년을 소극적인 정책의 수혜자로 간주하는 기존의 관점을 극복하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는 최근의 청소년 (보호)정책의 관점을 반영하여, 위기청소년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기존 실태조사에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틀의 하나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⑤개인 배경변인’은 응답자의 기본특성과 조사결과의 통계처리에 필요한 문항들을 포함한다.

2. 위기청소년에 관한 기존 조사 내용분석의 실제

아래에는 앞서 설명한 분석틀을 사용하여, 기존 실태조사를 검토한 결과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1) 위기청소년 전반에 관한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

〈표 IV-2〉에는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기에 앞서, 전반적인 위기청소년 혹은 청소년 위기 일반에 관한 기존 실태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가 집약되어 있다. 여기에서 검토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실시한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황순길 외, 2016)」를 비롯하여,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실시한 「2015 서울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최정인 외, 2015)」,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실시한 「부산지역 위기 청소년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하정화 외, 2014)」, 그리고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위기청소년 결과 분석(김지경 외, 2018b)」 등이다.

위기청소년 전반을 다룬 실태조사 항목을 검토한 결과, 장단점이 뚜렷하게 구분

되었다. 먼저 장점은 비교적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해 광범위하고 폭넓게 위험요인과의 접촉경험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위기상황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기능상실(가정폭력·학대·방임), 빈곤, 가출, 학업중단·학교부적응, 학교폭력, 약물중독, 인터넷중독, 도박, 정서·행동 문제/자살·자해, 성적(性的)피해, 비행범죄 등 대부분의 위기상황에 대해 기본적인 실태를 묻는 문항들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다양한 위기상황 전반을 다루다보니 영역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컨대 위기 상황 전반을 다루는 조사들은 가출, 학업중단, 정서·행동 문제 등에 대해 개괄적인 실태는 파악하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는 디지털성범죄,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좀 더 세부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조명하지 못했다. 또한 일부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이 위기청소년이 처한 상황이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기 보다는, 위기 여부를 진단·판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 개입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존정책의 작동 실태 점검의 경우에는 헬프콜 1388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대표적인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여부, 참여 여부, 주관적인 효과성 및 만족도 등을 묻는 문항이 주종을 이루었고, 신규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아울러 보호요인에 대해서도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관계 등을 묻는 문항에 국한되어 있었다.

표 IV-2 위기청소년 전반에 관한 기존 설문내용 분석

구분	실태 파악 (위험요인/위기행동 등)	기존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신규 정책 수요 파악	대응 능력 (보호요인)	배경변인
공통	- 가족구성원의 위험요인(범죄, 약물·알콜 중독, 가출 경험 여부) - 친한 친구의 위험요인(음주, 가출, 비행, 폭력 경험 여부) - 생활환경(집, 학교 근처, 동네)에서 유해환경 노출 수준	- 헬프콜 1388 인지 및 이용 여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지 및 이용 여부 - 지역사회 내 자원기관 작동 수준 - 청소년 보호 및 선도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만족도 - 청소년 보호 및 선도프로그램/효과 교정 프로그램/사회성/사회 기술 증진프로그램 효과 검증 도움 정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서 받고 싶은 서비스 - 현재 가장 필요한 도움 -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 -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자이존증감 - 자기이해(인식) - 목표의식 - 가족과의 관계 - 교사와의 관계 - 친구 관계 - 주변 친구의 긍정적 특성 -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 고민이나 걱정 -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의 유무 - 지역사회의 유용한 환경 요소	- 성별 - 연령 - 학교급/학년 - 가족구조 - 거주 지역 - 출신 국가 - 경제적 수준 - 이웃/친족 관계
가정폭력·학대방임	- 부모의 학대방임 피해 경험 - 부모 간의 다툼, 부부폭력 - 부모님이나 친구와의 갈등 원인	가정폭력학대방임 관련 지원 기관 상담 경험			
빈곤	저소득층 여부	국가나 단체에서 받는 경제적 지원의 종류			
가출	- 현재 가출 여부 - 첫 가출 시기/이유 - 가출 경험(가출패/횟수/기간) - 최근 가출 기간 및 이유 - 가출 후 필요한 돈 해결방안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인지 및 이용 여부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 무단결석 경험 - 첫 학업중단 시기/횟수/이유 - 학업중단 경험(여부/기간, 주로 했던 일/함께한 사람/힘들었던 점) - 학교생활, 교사와 관계, 학교환경	- 학업중단속려제 상담 경험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인지 및 이용 여부		가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	

구분	실태 파악 (위험요인/위기행동 등)	기존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신규 정책 수요 파악	대응 능력 (보호요인)	배경변인
학교폭력	• 학교폭력 경험(가해/피해) • 첫 가해시기/대상/횟수/이유 • 소년보호 처분 경험 • 피해 장소 및 주된 가해자	• 피해 사실 고지 여부와 도움 정도 •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첫 가해시기/대상/횟수 /이유		
악물 중독	• 첫 악물 이용 경험(시기, 종류, 횟수, 이유, 구입경로 등) • 흡연 및 음주 관련 경험 • 주변 친구들의 악물이용 실태 • 유해 악물 이용 경험 • 환각성 물질 경험 여부	• 음주, 흡연, 고카페인, 환각성 물질 관련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담배 구입경로 • 환각성 물질 이용 경로		
인터넷 과의존 /매체 이용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수준 • 사용하는 매체 종류 및 이용 빈도 • 청소년 유희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	•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교육, 성인용 매체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성인용 매체 이용 경험 및 나이확인 여부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경험 • 아르바이트 정보 획득 경로 • 아르바이트 기간, 평균 근로 시간 및 급여 •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고용 방식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형의 여부 및 신고 도움 여부 •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 여부		
도박	• 온라인 도박	•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 경험			
심리·정서문제 (자살·자해 등)	• 자존감 정도, 우울감, 불안 수준 • 자살 충동 관련 경험(계획, 횟수, 방법, 이유, 방법 검색)				

구분	실태 파악 (위험요인/위기행동 등)	기존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신규 정책 수요 파악	대응 능력 (보호요인)	배경변인
성폭력 피해	- 최초 성관계 시기 및 피임 여부 - 원치 않는 임신 경험여부 - 성희롱, 성추행, 성관계, 성매매 여부 및 경험 경험(시기, 횟수, 경로, 목적) - 성폭력 가피해 여부 - 사이버공간에서의 성적 경험(음란물 시청, 성인용품 구매, 음란한 대화 참여 여부 등) - 온라인 그루밍 경험 여부 및 경로 - 피해를 당한 장소와 주된 가해자	-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성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성폭력 피해사실 알린 여부와 도움 정도	- 성매매 경험(시기, 횟수, 경로, 목적) - 조간만남 경험(경로, 이유) 여부		
범죄 가피해	- 절도, 괴롭힘 가피해, 폭력 가해, 방화, 흉기 소지 경험 -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행동(타인의 정보 도용 및 해킹 등) -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				

검토 자료: 1) 황순길 외(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위기·취약청소년용 조사표」,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최장인, 장우민, 김연주(2015), 「2015 서울특별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서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상담복지개발원.
3) 한정화, 박금식, 김소정(2014), 「부산지역 위기 청소년 현황 및 정책 방향 연구」,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4) 김지경 외(2018b),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서울: 여성가족부.
5) 김동민, 김동일, 안지영, 금창민, 김민지(2016),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가이드라인 연구」, 위기 스크리닝 척도, 서울: 여성가족부.

2) 가정환경 관련 위기(가정폭력·학대·방임 및 가출)에 관한 기존 실태조사 내용분석

다음으로 <표 IV-3>에는 가정폭력·학대·방임 및 가출 등 가정 환경 관련 위기에 대한 기존 실태조사 조사항목 검토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가정폭력·학대·방임은 가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환경 관련 위기로 분류하여 함께 검토하였다. 먼저 주목할 부분은 가출청소년이 위기청소년의 주요 유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조사는 부재하다는 점이다. 가출 혹은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가출청소년 관련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실태조사 가운데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 관련 문제를 조명한 실태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가정폭력·학대·방임은 위기의 핵심요인이자 광범하게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가정폭력·학대·방임에 관심을 기울인 실태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기에서 검토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들은 대부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그 자체에 집중한 실태조사들이다. 따라서 학대와 폭력을 일종의 ‘결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로인에 대한 노출-위기 행동-외부의 지원 또는 개입-위기 예방 또는 극복의 일련의 기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상술한 한계점들을 염두에 두고, 제시된 기존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에 집중해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위기 실태파악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위기청소년 일반에 대한 광범한 실태조사에 비해 조사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출팸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그러나 가출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최근

가출청소년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는 위험요인들, 예를 들면 가출청소년이 숙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조건만남 등의 문제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책의 작동실태 및 효과 점검의 경우, 대부분 가출 혹은 학대방임 등과 관련하여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등에 관한 문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신규정책 수요 파악의 경우, 응답자들이 어떠한 정책적 수요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항이 대부분이며, 구체적인 정책적 개입점을 확인하는 문항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가출의 경우,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로로 가출 후 조건만남과 같은 위험상황에 노출되는지를 파악하고, 해당 경로를 차단하거나 개입하는 접근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은 부족하다.

한편, 대응능력(보호요인)과 관련하여,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체계가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 등은 사회심리학에서 중시하는 개념인 주변의 유의미한 타인(significant others)들로, 모두 중요한 지지체계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항들은 새롭게 설계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보호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3 가정폭력·학대·방임 및 가출에 관한 기존 설문내용 분석

구분	실태 파악 (위험요인/위기행동 등)	기존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신규 정책 수요 파악	대응 능력 (보호요인)	배경변인
가출	- 가출 경험(가출 빈도, 최초 가출시기, 기간, 이유, 가출 후 거주 장소 등) - 가출패 관련 경험(가출패 경험 여부, 이용 경로, 주거 형태, 구성원 정보, 생활비, 만족도, 이용 규칙, 애로사항 등) - 가출패 관련 수요(만족도, 이후 가출패에서 생활할 의향 등) - 가출패 관련 부정적 경험(비행범죄 노출 및 학습, 법적조치 당한 경험 등)	- 가출 후 기관이나 서비스 이용경험 및 도움정도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여부 및 필요성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문제점	- 가출 후 진로계획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여부 및 필요성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문제점	- 자립의지 - 자기이해(인식) -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 삶에 대한 만족감 - 사회적 지지 체계(가족 관계, 가족의 지지 정도 등) - 교사/친구와의 관계 - 학교생활 만족도 - 성역할 인식 -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	- 가정의 경제수준 - 월평균 가구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가족 구조 - 주 양육자 - 부모 학력/직업 - 성별 - 나이 - 소속 청소년센터 - 거주 지역 - 학교 재학 여부 - 학업성적 수준
가정폭력·학대·방임	- 아동학대 가해자 및 빈도 - 가정폭력 가해자 및 빈도 - 어른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폭력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 및 빈도 - 주변 다른 부모의 가정폭력 목격 여부 및 빈도, 장소	-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여부 및 경로 - 가정폭력에 대한 법이나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 폭력 및 학대 도움 기관 인지 여부	가정폭력 관련 교육의 필요 여부		
폭력 피해	- 학교 폭력 및 성폭행 경험 여부 및 빈도 - 교사로부터의 폭력 경험 및 빈도 - 성인들로부터의 폭력 경험 및 빈도				
심리·정서문제 (자살지해 등)	- 고민/걱정거리 -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구분	실태 파악 (위험요인/위기행동 등)	기존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신규 정책 수요 파악	대응 능력 (보호요인)	배경변인
범죄 가피해	가출편 이용 중 불법 행위(출연, 음주, 폭주, 불법운전, 불량서클가입, 유해업소출입, 약물이용, 성관계, 성매매, 사기절도·폭행, 흥기소지, 협박, 타인의 정보도용 등)에 대한 가피해				
* 가출 문제 관련 검토 자료: 1) 김희진 외(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가정폭력학대방임 관련 검토 자료: 1) 안재진 외(2012), 「가출편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학대방임 관련 검토 자료: 1) 안재진 외(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2) 이숙진 외(2006), 「아동학대 실태조사: 방임아동을 중심으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3) 김정혜 외(2019), 「2019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3) 교육적 위기(학업중단, 학교폭력 등)에 관한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학교폭력 등 학교교육과 관련한 위기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로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윤철경 외, 2018)」와 「학교폭력 실태조사(교육부 보도자료, 2019.8.27)」를 검토하였다. 먼저, 학업중단 실태와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바, 여타 위기청소년 집단에 비해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초4~고2 재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매년 반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계열 비교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내용이 학교폭력 가피해 실태로만 제한되어 있어 여타 위기요인이나 위기행동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는 어렵고, 재학생 외 학교 밖 청소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항목에 대한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중단의 경우에는 법정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업중단의 요인-학업중단 과정-실태-학업중단 이후의 경험-기존 정책의 작동 실태 점검과 정책적 수요까지 비교적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태 파악 측면에서는 학업중단 전후의 경험과 학업중단 후 일상생활의 측면까지 비교적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신규 정책 수요 파악의 측면에서는 그간 경험한 어려움이나 필요한 지원내용 수준에서 조사항목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특성 상, 여타 조사에 비해 진로 계획 등에 관한 문항을 묻는 문항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또한 조사 대상과 조사 목적이 비교적 좁게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점을 파악하는 데도 좀 더 용이해 보인다.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학업중단숙려제나 꿈드림 등 특화 프로그램 또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은 관련 정책 작동 실태를 점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피해경험,

가해경험, 목격경험 및 예방교육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단순 실태파악에 집중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거나 학교폭력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적 개입점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은 확인하기 어렵다.

향후 새로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내용을 설계할 때는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내용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존의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전수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해당 조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만약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면 기존 조사에서 다루지 못하는 정책 작동실태를 점검하는 문항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표 IV-4 교육적 위기(학업중단, 학교폭력 등)에 관한 기존 설문내용 분석

구분	실태 파악 (위험요인/위기행동 등)	기존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신규 정책 수요 파악	대응 능력 (보호요인)	배경변인
기정폭력· 학대방임	학업을 중단할 시기에 가정 내 폭력·학대방임 발생 여부				
기출	학업중단 후 가출 경험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학교 밖)	- 학업중단 여부 및 중단 시기, 중단 기간, 중단 이유 - 학업중단 관련 고민상담자 유무 - 학업중단 이후 경험 - 학업중단 후 진로결정상태 - 학업중단 후 일상생활(심리, 수면, 운동, 식이) - 학업중단 시 학교 생활 및 학업 성적 - 학업중단 후 친구관계 - 학업중단 후 주거지역 - 학업중단 후 불평등경험 -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 경험(업종, 기간, 부당노동행위 경험 등)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여부 - 학업중단시 받은 정보제공 서비스 - 청소년복지지원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쉼터)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학업중단 후 인터넷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부모동 의서 제출 여부	- 학업중단 후 경험한 어려움 -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 여부 및 그 이유 -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학업, 진로직업, 건강 상담복지, 활동 등)	- 자아존중감 - 자기조절능력 - 학업중단 시, 부모-자녀 관계 - 학교를 그만둘 당시 교사·친구 관계 - 신체 활동(운동) 여부 및 빈도	- 가족 구조 - 가정의 경제수준 - 부모의 직업 유무 - 거주지 규모
학교폭력	- 친구·선후배 폭행 피해 - 피해 유형별 폭력 피해 경험(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신체폭행, 사이버 괴롭힘, 금품갈취, 성추행·성폭행, 강제심부름) - 가해자 유형 - 피해 장소 및 시간 - 피해 사실 신고 여부 및 그 이유 - 가해 경험(가해 이유 및 방법) - 폭력 피해 목격 경험 및 목격 후 행동	- 학교진입경질권에 대한 인지 여부 - Wee 클래스 운영 여부			

구분	실태 파악 (위험요인/위기행동 등)	기존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신규 정책 수요 파악	대응 능력 (보호요인)	배경변인
약물 중독	• 학업중단 후 흡연/음주 경험				
심리·정서문제 (자살·자해 등)	• 학업중단 후,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경험				
성폭력 피해	• 학업중단 후 성폭력 피해(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피해 경험 • 성적 괴롭힘 피해 경험의 시간, 장소, 피해 내용				

검토 자료: 1) 교육부 보도자료(2019.8.27). 「2019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 윤철경 외(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4) 중독·과의존(약물,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도박 등) 및 정신 건강에 관한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

앞서 제Ⅲ장에서 위기청소년 세부유형 분류를 위해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검토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편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여기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비롯해 약물 오남용, 게임 과몰입, 도박 등 각종 중독·과의존 문제와 정신 건강에 관한 기존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8.25.)」, 「인터넷 이용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b)」,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a)」,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김소아 외, 2020)」,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20)」,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실태조사(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2020.01)」의 조사표 내용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상술한 조사들은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진단검사거나 대규모 표본에 대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위기 요인이나 관련 실태 파악에 대부분의 문항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에 비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작동 가능한 기존 정책의 운영 실태 또는 효과를 점검하거나, 신규 정책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개입점을 확인하는 문항들은 미비한 편이다.

구체적으로, 약물의 경우에는 구입경로에 관한 항목이 정책적 개입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정책 수요 파악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게임 과몰입, 도박 등의 경우에는 정책적 개입점 확인에 필요한 문항이 제한적이다. 특히 도박의 경우에는 그 폐해가 무척 크다는 점에서 위기청소년 조사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박의 경우,

어떠한 유형의 도박을 하는지 기본적인 실태 정보도 필요하지만, 도박으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 도박으로 인해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한 항목들이 좀 더 추가될 필요가 있다.

표 IV-5 중독과의존 및 정신건강에 관한 기존 설문내용 분석

구분	실태 파악 (위험요인/위기행동 등)	기존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신규 정책 수요 파악	대응 능력 (보호요인)	배경변인
가정폭력· 학대방임	부모의 보육행동/(언어)폭력				
기출	기출 경험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 학교 재학 여부 - 학교생활 만족도, 부담감,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 무단결석 경험(빈도)			- 기대교육수준 및 진로포부 - 주보호자 및 친구와의 관계 - 타인과의 관계 - 지역사회환경 (우리 동네 환경에 대한 인식, 사회활동 참여의식 등) - 스트레스 수준 - 자기조절능력 - 건강 문제	- 연령 - 성별 - 거주 지역 - 학교 유형 - 가족 구조 - 현재 주거형태 - 부모 학력/국적 - 주관적 학업성적 - 주관적 경제상태 - 결식 여부 - 주관적 웰빙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피해 경험				
악물 이용	- 흡연(첫 흡연 연령, 횟수, 구입경로) - 음주(첫 음주 연령, 횟수, 이유, 구입경로)	금연음주 관련 예방교육 경험 여부	악물(담배, 술) 구입경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실태(빈도, 평균 이용시간, 접속 경로, 장소, 선호순위) - 인터넷 활용 -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조치 여부				
도박	- 돈내기 게임 유형에 따른 빈도 - 돈내기 게임 시작 연령 - 돈내기 게임의 수익 - 돈내기 게임에 지출 금액 및 출처 - 돈내기 게임 경로 및 장소, 이용시간, 이유 - 주변 도박장 분포 현황	- 도박문제 예방교육 경험 여부 - 도박문제 관리센터, 1336, 네티라인 인지 여부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 도움을 받고 싶은 경로		

구분	실태 파악 (위험요인/위험행동 등)	기존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신규 정책 수요 파악	대응 능력 (보호요인)	배경변인
게임 과몰입	• 게임 빈도 및 이용시간, 이용 개수,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임 장르 및 기기 • 부모님의 게임 여부와 자녀의 게임 여부 파악 • 게임 시작 시기 및 이유 • 게임에 소비하는 돈 • 활동형 아이패드 구입 경험 및 빈도, 이유 • 활동형 게임 지출금액 및 출처				
심라정서문제 (자살·자해 등)	• 자살 생각, 이유, 시도 계획 및 시도 경험 •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수준 • 성격 특성(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이해, 사회적 주도성, 공동체 의식 등) • 정서행동 특성(집중력부진, 불안우울, 사회성 부진, 과민성반향성, 자기통제 부진 등)				
범죄 가피해	• 사이버 폭력/가해 • 폭력으로 인한 병원 치료 경험				

검토 자료 : 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8.25),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2019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9a),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4) 김소아 외(2020), 「2019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전남: 한국콘텐츠진흥원
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2020), 청소년 여가문화 실태조사(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의 조사표(안), 발간 전 내부자료.
6)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제15차(2019)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7)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2020.01), 「2020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5) (성)폭력 등 범죄 가피해에 관한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

범죄 가피해에 관한 기존 조사로는 「전국범죄피해조사(VIII)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전영실 외, 2018)」,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박성훈 외, 2017)」,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최정원 외, 2018)」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위기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제고되는 성폭력 피해에 관한 문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정현미 외, 2016)」, 「2019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정부만 외, 2019)」,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김경희 외, 2019)」,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장미혜 외, 2019)」, 「2019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박준휘 외, 2019)」 중 청소년용 조사의 조사표가 검토되었다.

(성)폭력 등 범죄 가피해 관련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을 종합해본 결과, 가정폭력·학대·방임 피해 경험과 가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 가정환경이나 가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 관련해서는 「2019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청소년용 조사」를 비롯한 일부 조사에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조사는 조사대상과 주제가 좁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항목이 성폭력 이슈에 집중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루고 있었다. 또한 기존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관련해서도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체감하는 효과 등이 적절히 포함되었고, 신규 정책 수요의 측면에서도 성매매 관련 2차 피해나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단순 실태파악을 넘어서는 조사 항목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관련 조사들을 종합한 결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조사항목들을 확인되었으나, 최근 이슈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문항들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성범죄는 확산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본 실태파악 뿐만 아니라

신규정책 수요 파악 관련해서도 관련 조사항목들이 발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응 능력(보호요인)의 관점에서는 앞서 살펴본 여타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부모, 친구 등)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항목은 성폭력 피해 관점에서 조사된 ‘조건만남’과 관련하여, ‘조건만남을 스스로 그만두려고 결심했는지’에 관한 문항이 포함된 점이다. 스스로 위험요인을 극복하고자 했는지 여부와 그 동인을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본 연구에서 실시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피해 외에 기타 범죄 가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검토된 기존 조사들은 주로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수용된 소년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저지른 위법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 파악과 재범 방지 관련 요인들, 소년원에서의 경험을 묻는 문항들이 주로 포함되었다. 다만 이들 조사들은 주로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범 외에 다양한 유형의 위기청소년 전반을 대상으로 설계되는 본 연구의 조사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표 IV-6 (성)폭력 등 범죄 가 피해에 관한 기존 설문내용 분석

구분	실태 파악 (위험요인/위기행동 등)	기존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신규 정책 수요 파악	대응 능력 (보호요인)	배경변인	
가정폭력 학대방임	- 부모 사이의 불화 - 부모로부터의 학대 피해 경험(빈도, 시간, 장소, 학대 내용 등) - 부모 이외 가족으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					
기출	- 기출 경험 및 이유 - 기출 후 가장 힘들었던 점 및 도움받은 사람 - 기출 후 돈이 필요했던 이유 및 출처 - 기출 후 아르바이트 경험 - 기출 후 지냈던 곳/놀았던 곳					
악물 중독	흡연/음주 경험				- 학교환경 - 가까운 친구(수) - 부모의 - 정서적지지 - 가족 간 관계 - 자신에 대한 긍정/부정적 인식 - 행동 계획 - 조간만남 - 그만두려고 결심 여부	- 성별 - 연령 - 거주 지역 - 학교급/학년 - 가족 구조 - 부모의 교육적 능력, 직업 - 가정의 경제 적 수준 - 지난 5년간 이사 횟수
인터넷 중독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성)폭력 피해	- 성폭력 가해자 - 성매매 첫 경험 나이 및 이유 - 기출 후 성매매 여부 - 경험한 성매매 유형 및 방식 - 성매매 횟수 및 보상 - 성매매 관련 조사 경험 - 성매매 관련 법원 출석 여부 - 성매매 관련 보호처분 경험 - 오프라인 만남 여부 및 경험 - 성폭력 피해 경험(시기, 가해자, 경로, 정신 및 신체적 고통) - 노출 목적 피해 경험 - 성희롱, 성추행, 강간미수 피해 경험 - 성폭력 피해 당시 대응 여부 - 조간만남 후 도움 요청한 사람(기관)	- 성매매 피해 관련 경험한 지원 서비스 및 도움 정도 -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성폭력방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 성폭력 당시 수사기관의 도움 여부 및 도움 안 받은 이유	- 쉼터 입소 시 부담 대우 경험 여부 - 성매매 관련 언론에 의한 피해 내용 - 성매매 관련 경험 유무와 주관적 인권침해의 심각성 정도 - 성매매 일선자 관련 경험 유무와 주관적 인권침해의 심각성 정도 - 성매매 관련 경찰의 단속 실태 - 성매매 관련 조사과정 경험 (범죄자 취급 여부, 가해자와 분리 조사			

구분	실태 파악 (위험요인/위기행동 등)	기존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신규 정책 수요 파악	대응 능력 (보호요인)	배경변인
사이버 (성)폭력 피해	• 조간만남 제외하고 업소 등에서 일한 경험 • 불법 촬영 관련 피해 경험(사기, 가해자, 장소, 유무 피해)		여부, 태도 등 • 성매매 관련 법원에서의 범죄자 취급 여부 • 성매매 관련 두려움의 종류 및 정도		
	•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피해자, 가해 행동 이유 및 감정)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가해자, 피해를 당한 후 대응 여부 및 그 이유, 이후의 감정 등) •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여부 및 대응 방법) • 인터넷사용 중 위치 없음에도 성에 대해 유인 받은 경험(접촉 경로, 유인한 사람, 대처 방법 및 그로 인한 감정 등)	• 사이버폭력 신고 사이트 및 처벌에 대한 인지 • 사이버폭력 가피해 시 이용 서비스			
기타 범죄 가·피해	• 가해 행동(타인을 괴롭힘, 절도, 사기, 갈취, 가족 외 폭행, 협박 피해 경험의 시간, 장소, 피해 내용) 관련 실태 • 피해 경험(괴롭힘, 절도, 사기, 갈취, 가족 외 폭행, 협박 피해 경험 등) 여부 및 그로 인한 어려움 • 소년법 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 사건 종류, 판결내용 및 공범 여부	• 소년원 내 교육 이수 경험(여부 및 도움 정도) • 수용시설의 도움 정도 및 생활의 어려움 • 수용시설(소년원 등) 출원 후 계획 및 재범 가능성	• 소년원 출원 후 갖추어야 할 조건 • 소년원에서 필요한 교육 • 재범행 가능성 예측		

검토 자료: 1) 전영실 외(2018). 「전국범죄피해조사(VIII)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박성훈 외(2017).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1)」,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최정원 외(2018).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정부안 외(2019).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경기: 방송통신위원회,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5) 정미혜 외(2019).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6) 박준희 외(2019). 2019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9-36. 서울: 여성가족부.
 7) 정현미 외(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8) 김경희·김수아·김은경(2019).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6) 기타 청소년 일반에 관한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 혹은 청소년 위기를 다룬 실태조사는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대표적인 조사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가 <표 IV-7>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여성가족부가 3년 주기로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인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2017년 조사표와 보건복지부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2018년 조사표가 포함되었다. 이들 조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각각 아동·청소년 분야의 대표적인 통계자료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다. 특히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경우, 일부 지표(예: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수준, 가정폭력·학대·방임 피해 경험, 약물(음주·흡연 등) 경험 등)은 위기청소년이 처한 위기 상황을 잘 드러내기 위해 일반청소년과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검토한 자료들은 이 같은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항목 선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검토 결과, 전체적으로 「청소년 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활동·참여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위기청소년 대상 조사와는 조사내용에 거리가 있었다. 그에 비해 「아동종합실태조사」는 가정폭력·학대·방임을 비롯해 다양한 측면의 가정 내 경험과 약물 이용 경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 다양한 심리·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등을 광범하게 조사항목에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준용할 항목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기본 실태파악의 측면에서는 상술한 것처럼 광범한 영역에서 다양한 내용을 아우르고 있으나, 기존 정책 작동실태 및 효과 점검의 관점에서는 예방교육 경험 등을 파악하는 문항이 일부 포함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신규 정책 수요 파악과 관련해서는 눈에 띄는 항목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보호요인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의 관점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각각 보호요인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문항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은 본 연구에서 설계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내용에도 준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7 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설문내용 분석

구분	실태 파악 (위험요인/위기행동 등)	기존 정책 직통 실태 및 효과 점검	신규 정책 수요 파악	대응 능력 (보호요인)	배경변인
가정폭력· 학대방임	가정폭력·학대방임 경험 여부 및 빈도	아동안전 및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			
기출	지난 1년 간 기출 경험(여부 및 빈도)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 학교생활 만족도 - 학교 공부에 대한 부담감 - 학업중단 경험(여부, 시기, 이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센터) 이용 여부		- 신체활동 및 운동 -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	
학교폭력	- 학교폭력(물리적·언어적·놀림따돌림 등) 피해 여부 및 빈도 - 학교폭력(물리적·언어적·놀림따돌림 등) 피해 여부 및 빈도			- 부모와의 관계 - 교사와의 관계 - 친구와의 관계 - 자아존중감 - 아동의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	- 성별 - 연령 - 현재 재학 여부 - 교육 수준 - 학업성적 수준 - 월평균 소득
사이버 폭력	- 사이버폭력 피해 여부 및 빈도 - 사이버폭력 가해 여부 및 빈도				
아동 중독	- 흡연 경험(생애경험, 최근 1년간 경험) - 음주 경험(생애경험, 최근 1년간 경험) - 음주로 인한 부작용	흡연/음주 관련 예방교육 경험 여부	- 담배 구입 경로 - 간접흡연 경험 여부 - 주류 구입 경로	- 지역사회 환경 - 지역사회 구성원 간 관계	
인터넷 과의존 /매체 이용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관련 부작용				
게임	- 게임 과몰입 수준 -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				

구분	실태 파악 (위험요인/위기행동 등)	기본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신규 정책 수요 파악	대응 능력 (보호요인)	배경변인
심라정서문제 (자살자해 등)	• 주관적 안녕감(행복도, 근심걱정, 우울, 삶에 대한 만족, 정서) • 스트레스 인지 수준 • 가정생활 만족도 • 자살 관련 경험생각, 계획 시도, 이유 등)				
성폭력 피해	• 성폭력(성희롱 등) 피해 경험(여부 및 빈도)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업종, 기간, 시간, 임금 수준 등) • 아르바이트 중 부당노동행위 경험				
기타	• 주관적 건강상태 • 청소년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 경험 • 성관계 경험(여부 및 피임 여부)	• 지난 1년간 건강검진 여부 • 지난 1년간 성교육 경험 여부	• 향후 진로 계획		

검토 자료: 1) 백해정 외(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조사표 중 만13-24세 조사표, 서울: 여성가족부.
2) 류정희 외(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용 조사표,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내용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위기청소년 혹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와 관련하여 그 동안 실시된 각종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에 맞춰 조사항목을 배치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및 조사영역 설정 관련

(1) 조사대상 및 조사영역의 범위와 수준 : 일반성과 특수성의 조화

먼저, 여기에서 검토한 29개 실태조사 자료들을 망라해보면, 연구목적에 따라 조사대상과 조사영역 설정의 범위와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은 일반성(generality)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성(specificity)을 추구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즉, 조사대상과 조사영역을 모두 광범하게 설정하여 세부적인 정보는 누락되더라도 일반성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대상과 조사영역을 좁게 집중하여 다양한 정보는 누락되더라도 특수성과 상세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여기에서 검토한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가운데 일반성이 강조된 조사로는 「전국 청소년 위기실태조사(황순길 외, 2016)」,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9)」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전국 청소년 위기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였고, 조사내용도 위기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기의 다양한 내용들을 개괄적으로만 묻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태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특수성이 강조된 실태조사로는 「2019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2019): 청소년용 조사(박준휘 외, 2019)」,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김경희 외,

2019)」의 조사를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전자는 조사대상도 고위기청소년(청소년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소년원 등)으로 제한하고, 조사내용도 성매매 관련 내용에 집중하여 조사하였다(박준휘 외, 2019: 495).

일반성과 특수성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는 조사로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조사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조사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으나, 조사내용은 학업중단 전후에 경험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후자 역시 조사대상을 위기청소년(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조사내용은 유해매체, 유해행위, 유해업소, 유해약물, 근로보호 등 비교적 광범한 영역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목적과 조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의 측면에서는 특수성을, 조사영역의 측면에서는 일반성을 지향하는 조사설계를 채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위기 문제를 조사하였던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설계를 지양하고 여기에서는 조사대상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위기유형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만을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조사영역의 측면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조사의 주요 목적이 위기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기초자료 산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영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위기청소년 관련하여 전반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위기 유발 요인과 주요 위기상황에 대한 경험을 포괄하도록 조사영역을 설계하고자 한다.

(2) 유사 조사와의 중복 방지

다음으로, 유사 조사와의 중복 방지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주기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조사가 이루어지는 국가승인통계 또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들이 고려 대상이 된다. 현재 주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조사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조사가 주요 고려 대상이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집중하여 학업중단 전후의 경험과 정책적 수요를 비교적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이 유사하며 가출, 약물 등의 항목에서 일부 중복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관련 내용은 기존 조사로 충분히 파악 가능하므로, 조사의 효율성과 간명성(parsimony)을 고려하여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영역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편이 타당해보인다. 또한 조사대상과 그에 합당한 조사목적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조사와는 흡수·통합 등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3) 기존에 간과되었던 조사대상 및 조사영역의 수용

기존 조사로 파악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 방지가 필요하지만, 반대로 기존 조사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없으나 정책적 필요가 인정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새로 설계되는 위기청소년 조사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이 기존 실태조사 검토를 통해 도출된 대표적인 영역들이다.

먼저, 가출 청소년은 소관부처의 위기청소년 정책의 주요 정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의 원인, 가출 이후의 경험 및 정책 지원 수요 등에 관해 주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는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가출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등 성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중복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조사에서 쉼터 입소 청소년이 조사대상으로 일부 포함되고, 조사영역에서 가출 경험을 간략히 조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조사영역에서도 가출 관련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가출의 원인, 가출과 관련한 경험, 위기 상황에서의 노출 등 실태파악은 물론, 기존 정책의 작동과 신규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포함하고자 한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도 이와 유사하다. 앞서 III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정책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조사는 부재하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은 게임 과몰입,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사내용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그 심각성이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및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일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부재하므로, 관련 내용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2) ‘위기’의 전반적 기제 파악이 가능한 내용 구성

다음으로, 위기청소년들이 위기적 상황에 노출되는 원인과 배경을 비롯해, 경험하는 실태와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호요인까지, ‘위기’ 경험의 전반적인 기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영역과 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위기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학대·방임 등 원가정에서의 경험’에 관한 내용도 조사영역 구성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 검토한 위기청소년 관련 기존 실태조사들은 가정배경과 관련하여, 대체로 원가정

에서의 폭력·학대·방임 경험을 묻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원가정에서의 경험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위기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정에서의 폭력·학대·방임 피해 경험은 심리·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가출, 학교 부적응과도 광범하게 관련이 있다. 특히 가출의 원인이 원가정에 있는지 여부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서비스를 마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기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조사항목에 일부라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3) 정책활용도 높은 실태조사 설계

기존 실태조사의 조사영역과 조사항목 검토를 통해 도출된 중요한 시사점은 정책활용도 높은 조사설계의 필요성이다. 여기에서 검토한 실태조사들은 대체로 위기청소년 혹은 청소년 위기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비교적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에 비해 신규 정책 수요 확인 등 정책활용도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조사영역의 측면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온라인 도박 등은 확산 가능성이 크며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태조사는 일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사영역 내 조사항목의 측면에서는 가출의 경우 조건만남이나 ‘헬퍼’ 관련 이슈, 약물 이용의 경우에는 전자담배의 확산, 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 등이 정책적 개입을 위한 실태 파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새롭게 설계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정책활용도 높은 조사영역과 항목 구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6)의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나 제3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2019)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능력 함양’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적 지향점을 반영하여 각 위기 항목과 연계된 정책적 접근의 효과를 확인하는 성과지표를 포함한 실태조사의 설계가 요구된다.

4) 위기에 대한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 관련 조사내용 강화

기존 실태조사 내용 검토 결과, 위기청소년 실태파악에 관한 다수의 문항들이 위험요인이나 위기결과를 묻는 항목들에 집중된 반면, 보호요인에 관한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이러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위기청소년의 자율적 보호능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다면, 보호요인을 강화해주는 것이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새롭게 설계될 실태조사에서는 보호요인에 관해서도 좀 더 내용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존 실태조사 내용분석 결과, 보호요인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심리적 측면에서는 자존감, 사회적 측면에서는 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 등에 국한된 양상을 보였다.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는 그간 심리학과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입증된 중요한 보호요인이라는 점에서, 관련 내용은 새롭게 설계되는 본 연구에서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2019)에서 ‘자율적 보호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바, 해당 요인에 관한 문항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자율적 보호능력’이 위기청소년의 자율보호 및 위기극복에 유효한 수단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검토한 「2019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박준휘 외, 2019)」의 청소년용 부가조사에서, ‘조건만남을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해본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결심이나 노력이 가능했는지’에 관한 문항은 자율적

보호능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접근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타 영역에서도 이러한 관점의 문항을 적절히 활용해보고자 한다.

5)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염두에 둔 조사항목 설계

다음으로,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데 있어, 대표적인 일반 지표의 경우에는 그 결과값이 갖는 의미를 현실성 있게 해석하기 위해 일반청소년과의 비교가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학대·방임 피해 경험률, 가출 경험률 등의 결과는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좀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장에서 기존 실태조사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근거를 두고 전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실태조사 또는 국가승인통계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는 모집단 설정 및 표본설계의 용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새롭게 설계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내용 및 항목 설계 시,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실태조사의 문항을 차용함으로써, 일반청소년과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서 언급한 가정폭력·학대·방임 피해 경험률, 가출 경험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음주흡연율, 심리·정서적 특성과 관련한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6) 기존 실태조사 검토를 통해 도출된 조사영역(안)

제Ⅱ장에서 검토한 위기요인 및 보호요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Ⅲ장에서 검토한 위기청소년의 범주 및 유형, 그리고 제Ⅳ장에서 검토한 기존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설계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방향과 포함되어야 할 조사영역(안)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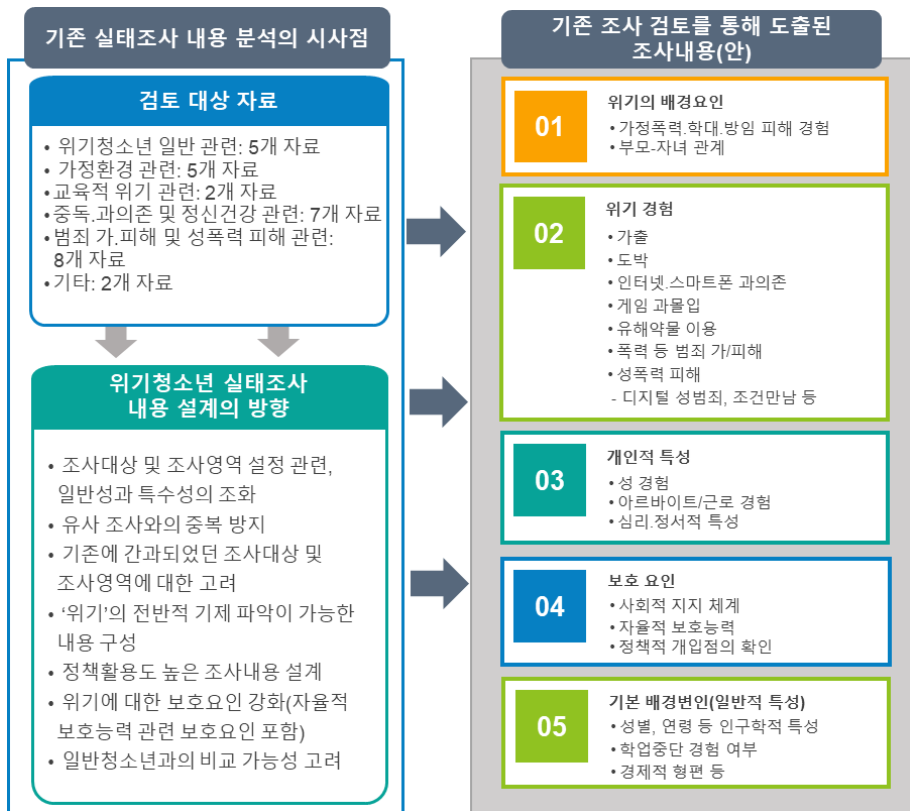


그림 IV-2 기존 실태조사 내용분석의 시사점 및 도출된 조사내용(안)



제 V 장 조사내용 설계

- 1. 조사내용 설계의 개요
- 2. 1단계 전문가 FGI 결과 및 반영 방안
- 3.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안)의 도출
- 4. 2단계 전문가 FGI 결과 및 반영 방안
- 5. 전문가 대상 내용타당도 및 중요도 평가
- 6. 조사전문가 검토
- 7. 기타: 관계부처 및 청소년 당사자 검토
- 8. 조사내용 설계(안)의 도출

1. 조사내용 설계의 개요

이 장에서는 제Ⅱ장에서 실시한 선행연구 검토, 제Ⅲ장에서 실시한 위기청소년 유형 검토 결과, 제Ⅳ장에서 정리한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핵심 내용인 조사도구(안)을 개발하였다. 조사도구 개발의 목적, 개발 과정에서 고려한 쟁점과 기준, 개발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조사내용 설계의 목적

(1) 정책활용도 높은 실태조사 자료의 산출

본 연구에서 설계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는 정책활용도 높은 조사 자료 산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뒷받침할 기초 자료 산출에 일차적인 내용설계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위기청소년이 처한 위기 상황만을 확인하는 단순 실태조사를 지양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정책적

24) 이 장의 1절, 3절, 6절은 황여정 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5절은 이정민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2절, 4절, 7절, 8절은 황여정 연구위원과 이정민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개입점 확인, 신규정책 수요 파악, 보호 요인 확인 등이 가능한 정책 활용도 높은 조사 자료가 산출되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2) 위기청소년의 종합적 실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의 산출

아울러, 위기청소년의 종합적 실태파악이 가능한 자료 산출을 조사 설계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제IV장에서 실시한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 결과, 기존 조사자료 가운데 위기청소년들이 위기적 상황에 노출되는 원인과 배경, 그로 인해 경험하는 주요 위기 상황과 실태,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호 요인, 그리고 정책적 수요를 광범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사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제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2) 조사내용 설계의 쟁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내용 설계 과정에서 고려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성과 특수성의 조화

위기청소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실태조사 자료 산출을 목적으로 조사내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일반성(generality)’과 ‘특수성(specificity)’의 충돌이다. 환언하면, 조사대상과 조사영역을 광범하게 설정하여 세부적인 정보는 다소 누락되더라도 일반성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대상과 조사영역을 좁게 설정하여 다양한 정보는 누락되더라도 특수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V-1>과 같다.

표 V-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 시 일반성과 특수성의 적용

	일반성(generality)	특수성(specificity)
		
조사 대상	• 청소년 전반을 조사대상으로 설정 (일반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포함)	• 다양한 위기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설정 • 위기청소년 중 특정 세부 집단만을 대상으로 설정 (예: 가출청소년, 성매매 피해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정폭력·학대방임 피해 청소년 등)
조사 영역	• 다양한 영역 전반을 포괄	• 주요 영역을 선정하여 해당 영역 중심으로 조사 • 다양한 위기상황 중 특정 주제에 집중하여 세부적인 사항 파악(예: 성매매·성폭력 관련 조사, 가출·패션 경험에 관한 조사 등)
기존 조사 예시	•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2016)」 • 「서울특별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2015)」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조사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2018)」 • 「2019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2019): 청소년용 조사」

* 출처: 연구자 작성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측면에서 위기청소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지향하되, 기존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일반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먼저, 조사 영역의 경우, 위기청소년이 처하는 주요 위기영역을 포괄하는 내용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조사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없으나 정책적 필요가 인정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새로 설계되는 위기청소년 조사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정책적 필요를 고려하여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가출이 대표적인 영역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타 영역에 비해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최근의 실태를 포착하는 데 필요한 신규 문항도 다수 포함하고자 하였다.

(2) 기존 조사와의 중복 방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여타 조사와의 중복 방지 문제를 들 수 있다. 국가승인통계 또는 승인통계는 아니지만 법적 근거를 두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들이 구체적인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주로 고려한 기존 조사로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에서 위기청소년 대상 조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내용에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며,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조사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조사로 기존 조사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3) 조사대상의 연령 범위

마지막 쟁점으로는 조사대상의 연령 범위 설정을 들 수 있다. 제Ⅲ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은 18세 이하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후기청소년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된다.

조사대상 연령의 상한과 관련하여, 후기청소년을 포함할 경우, ‘후기청소년 위기실태 파악’이라는 새로운 발견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전기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의 양상이 크게 다르며, 위기청소년과 관련하여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는 가출, 음주, 흡연, 학업중단, 학대방임 등의 문제가 후기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아울러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성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기청

소년의 연령범위는 성인을 제외한 19세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근거가 각각 19세 미만, 18세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19세 미만을 조사대상 연령의 상한으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연령의 하한과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부정적 경험을 묻는 위기청소년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 청소년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정적 학습효과를 방지하고자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12세부터 조사연령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 대신, 위기 경험의 저연령화 현상 파악이 필요한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경험 시기와 연령을 묻는 등 회고적 질문을 통해 이러한 이슈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3) 조사내용 설계의 기준

상술한 조사목적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사내용 설계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1) 조사의 관점 : 위기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관점 설정

첫째, 명확한 관점의 설정이다.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조사 전반을 관통하는 명확한 관점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이 실태조사의 목적, 조사영역 구성, 조사 항목 및 문항 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설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위기청소년이 처한 ‘위기(risk)’를 청소년기에 수행해야 할 과업의 불이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경의 영향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II장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

로 ‘위기’의 본질은 ‘환경의 영향’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위기청소년을 규정하는 핵심이 ‘과업의 불이행’에 있다고 보는 관점은 위기의 귀인을 개인에게서 찾게 되지만, ‘환경의 영향’에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환경에 개입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하게 하는 개인(청소년)과 환경 간의 접촉 지점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여,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포함 가능한 수많은 조사내용 가운데, 청소년을 위기 상황을 초래한 주체(혹은 가해자/범법자)로 전제하는 관점은 지양하고, (위기적 상황 또는 환경으로부터) 보호·지원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입각하여 조사항목 및 문항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2) ‘핵심(Core)’-‘부가(Add)’ 기준을 적용한 내용 설계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등 조사내용을 설계하는 기준으로, 김지경 외(2016: 110)에서 제안한 방식을 준용하여 핵심(core)-부가(addition)의 틀을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영역별로는 핵심영역 대(對) 부가영역으로 구분하고, 조사항목별로는 핵심항목 대(對) 부가항목으로 조사내용을 분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영역의 경우에는 타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고, 비교적 심각한 위기 상황 및 위기 행동을 반영하는 영역을 핵심영역으로 간주한다. 조사영역 안에서 항목을 구분할 때는 각 영역별로 위기행동 경험률과 같은 핵심 지표 및 지원기관 이용 여부, 관련 교육 경험을 묻는 문항을 핵심문항으로 설정하고, 그 밖에 부가적 사유, 접촉 경로 등을 묻는 문항은 부가문항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3) 내용설계의 기본 틀 설정

본 연구에서는 조사목적이 적절하게 반영된 내용설계의 틀(frame)을 설정하고, 각 조사영역별로 이 틀을 적용하여 조사항목을 구성함으로써, 조사항목들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 틀은 앞서 제Ⅳ장에서 기존 조사 내용분석에 적용했던 틀을 준용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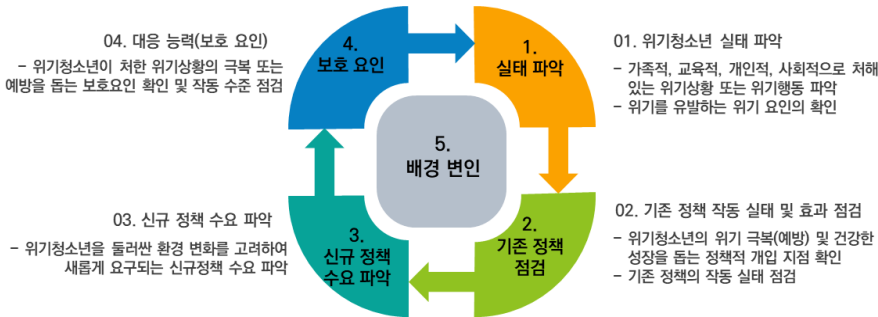


그림 V-1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 틀

(4) 보호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내용 설계

앞서 제시한 기존 조사 내용 검토 결과, 다수의 자료들이 위기청소년이 경험한 위험요인이나 위기실태를 묻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보호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요인을 확인하는 조사내용을 설계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궁극적 목적이 실태파악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의 자율적 보호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성공적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과정을 가능케 하는 보호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5) 조사항목의 정책연계성 강화

조사도구 개발에 적용된 다섯 번째 기준은 ‘조사항목의 정책연계성 강화’이다. ‘정책활용도 높은 실태조사 자료 산출’이라는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 정책의

작동실태를 점검하고, 신규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문항을 개발함으로써 정책 활용도 높은 내용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실태조사 결과가 정부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6)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6)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가능성 고려

제Ⅳ장에서 실시한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 결과,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시 대표적인 일부 지표의 경우에는 그 결과값이 갖는 의미를 현실성 있게 해석하기 위해 일반청소년과의 비교가 요구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별로 핵심(core) 항목(예: 경험률, 교육수혜율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일반청소년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 항목 및 문항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7) 응답자의 특성 고려

다음으로, 조사제목 설정, 조사영역 배치, 조사문항 배열 등 조사내용 설계의 제반 과정에 거쳐 ‘위기청소년’이라는 조사대상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응답자의 응답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는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응답자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조사 명칭이나 조사 영역의 배치를 세심하게 고려하였다. 아울러,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특성 상 조사내용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학습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 학습효과가 발생되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8) 통계품질관리 요건을 고려한 조사 설계

마지막으로, 양질의 조사자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통계품질관리 요건을 고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통계품질진단의 요소로,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timeliness)/정시성(punctuality), 비교성(comparability)/일관성(coherence), 접근성(accessibility)/명확성(clarity)의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통계청, 2020: 9-10).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정확성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조사자료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표 V-2 통계품질진단 기준

기준	내용
관련성(relevance)	• [개념]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둔 지표로서, 통계자료가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에 있어서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 • [관리 방안] 통계 작성 과정에서 통계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용자 파악, 전문가 자문회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
정확성(accuracy)	• [개념]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 • [관리 방안] 표본오차의 크기, 비표본오차의 정도 및 잠정치/확정치 간의 차이를 통해 관리
시의성(timeliness)/정시성(punctuality)	• [개념] 시의성은 통계작성 기준시점과 결과공표 시점 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준수하고 있는가를 의미 • [관리 방안] 통계작성 기준시점과 결과공표 시점이 근접할수록 시의성이 높은 통계이며, 사전공표 일정을 정확히 준수할수록 정시성이 높은 통계
비교성(comparability)/일관성(coherence)	• [개념] 비교성은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하여 개념적으로 상호 비교가 가능한가를 의미/ 일관성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 작성주기에 의해 작성된 통계들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의미 • [관리 방안]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자료와의 기준 및 분류, 평가방법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작성주기가 부정기 또는 장기인 경우는 담당자 변동,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시간적 비교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 일관성은 서로 다른 통계가 유사한 결과를 보이면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기준	내용
접근성(accessibility)/ 명확성(clarity)	• [개념] 접근성은 이용자가 얼마나 쉽게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을 의미 • [관리 방안]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자료(메타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과 명확성 제고 가능

* 출처: 통계청(2020). 2020년 자체통계품질진단 매뉴얼, 9-10쪽 내용을 표로 재구성.

4) 조사내용 설계 절차

상술한 내용설계의 목적과 쟁점, 기준을 고려하여 실제 적용된 조사내용 설계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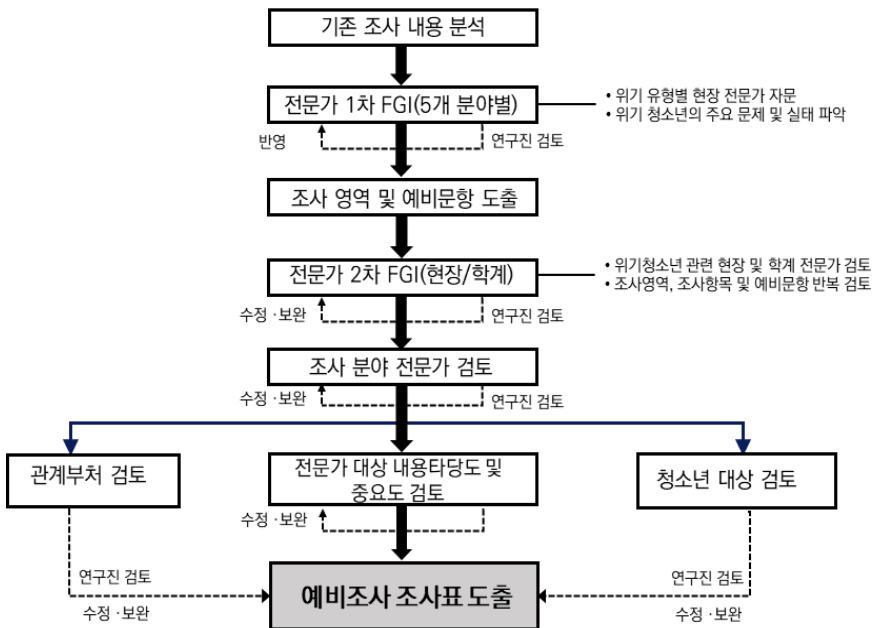


그림 V-2 조사도구 개발 절차

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대상 FGI

조사내용 설계를 위해 조사영역 도출, 조사항목 및 문항 개발과 수정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 FGI(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하였다. 전문가 FGI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단계 전문가 FGI는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초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주요 위기청소년 유형별로 지원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1회씩 5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참여인원은 20명이다. 1단계 FGI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진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영역과 조사항목 초안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2단계 FGI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조사영역 및 예비문항을 주로 검토하였다. 2단계 FGI는 현장 전문가 1회, 실태조사 관련 학계 전문가 1회 등 총 2회 진행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8명이다. 2단계 FGI에서는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의 적절성, 문항의 재구조화 및 재배치, 용어의 적절성, 문항의 난이도 조절을 비롯해 조사표(안) 개선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1단계 FGI(5회) 및 2단계 FGI(2회)의 개요는 <표 V-3>과 같다.

표 V-3 전문가 FGI 운영

구분	전문 분야	시기	인원수	비고
1단계 전문가 FGI	청소년 동반자	2020.6월	4인	• 지역을 고려하여, 서울, 부산, 광주 지역 청소년 동반자 의견수렴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인터넷 중독	2020.7월	3인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해맑음센터 등 위기청소년 전문기관 소속 실무자
	청소년쉼터 (현장 실무자)	2020.7월	3인	• 일시 및 중장기쉼터 실무자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관리자)	2020.7월	6인	• 일시, 단기, 중장기 및 자립지원관 등 가출청소년 지원기관 관리자급

구분	전문 분야	시기	인원수	비고
	Wee클래스, Wee센터	2020.7월	4인	• 학교에 설치된 위(Wee)클래스 담당자 2인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위(Wee)센터 담당자 2인
2단계 전문가 FGI	현장 실무자	2020.7월	5인	• 다양한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청소년동반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Wee클래스, Wee센터 등)
	학계 전문가	2020.8월	3인	• 대학교수 2인(교육학전공, 사회학전공) • 청소년상담복지 전문가관 전문가 1인

(2) 전문가 대상 내용타당도 및 중요도 조사

1단계 및 2단계 FGI를 통해 조사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반복하여,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을 구체화한 후, 내용 구성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대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위기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와 유관 분야 학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웹조사로 실시하였다.

표 V-4 전문가 대상 내용타당도 및 중요도 조사 참가자

(단위: 명, (%))		
구분		인원수(%)
학계 전문가	대학 교수/연구기관 연구원	6(16.7)
현장 전문가	Wee클래스 담당자 및 상담교사	8(22.2)
	청소년쉼터 관계자	8(22.2)
	청소년 동반자	8(2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관계자	4(11.1)
	기타(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2(5.6)
	합 계	36(100.0)

(3) 기타: 관계부처 및 위기청소년 당사자 의견수렴

1-2단계 FGI를 거쳐 도출된 조사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의 검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위기청소년 당사자 대상 검토를 통해 단어나 표현의 적절성과 문항의 난이도, 설문 길이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표 V-5 관계부처 및 위기청소년 당사자 의견수렴 개요

구분	인원수	비고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	조사영역, 항목 및 문항 전반에 걸친 의견수렴
위기청소년 당사자	4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소를 통해 위기청소년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청소년 중 추천받아 섭외 - 문항 난이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 등 문항의 명료성 제고를 위해 전반적 검토

2. 1단계 전문가 FGI 결과 및 반영 방안

1단계 전문가 FGI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및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위기의 개념과 위기청소년 유형 구분 자료를 토대로, 해당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동시에 각 유형의 위기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조사영역과 조사항목 도출을 위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위기 유형과 영역을 제Ⅲ장 및 제Ⅳ장 검토 내용을 토대로 ‘가정환경 관련 위기’, ‘교육적 위기’, ‘개인적 위기(심리정서 및 중독 성향 문제)’, ‘사회적 위기(범죄 가피해 등)’, ‘정책적 수요’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1단계 FGI에서 확인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현장 전문가들은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는 명료하게 개념화하거나 측정·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조사대상의

유형, 연령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다양한 위기가 중복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이를 고려한 조사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1단계 FGI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영역을 확정짓고 대략적인 조사항목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가정환경 관련 위기’는 ‘가정 내 경험’과 ‘가정 밖 경험’으로 구분하고, ‘가정 내 경험’에서는 다수의 위기청소년들에게 위기의 주요 배경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정폭력·학대·방임 경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가정 밖 경험’은 가출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셋째, 그 외에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들을 ‘일상생활 경험’, ‘생활 안전’, ‘심리·정서적 특성’ 영역으로 유목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일상생활 경험’에서는 약물,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경험, 도박, 성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등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생활 안전’ 영역에서는 (성)폭력 피해 등 범죄 피해 경험을 포함하며, ‘심리·정서적 특성’에서는 자존감, 사회성 등 심리·정서적 특성과 우울·자해·자살 관련 경험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넷째, 정책적 수요 파악과 관련해서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지원서비스의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신규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마지막으로, 추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사 추진 과정에서 위기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실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내용 특성을 고려할 때, 솔직하고 신뢰로운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응답자들과 충분한 라포(rapport)가 형성된 상담자나 교사, 실무자의 조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표 V-6〉에는 1단계 FGI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검토 의견과 그에 대한 반영 방안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V-6 1단계전문가 FGI 주요 결과 및 반영 방안

구분	FGI 의견	반영 방안
공통 영역	• [위기 진단의 어려움]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를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위기 상황은 즉시 드러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가시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반에는 포착하거나 진단하기 어려움(예: 처음에는 흔히 경험하는 친구 문제로 촉발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정서문제로 전이되는 경우) • [위기의 자연명화] 최근 위기의 자연명화가 관찰됨. 초기 청소년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바,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포착할 필요가 있음. • [위기의 중복성]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위기 문제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중복 발생하므로, 조사 설계 시 이를 고려해야 함. - 예시1: 부모와의 갈등이나 사회적 관계의 결손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로 전이 - 예시2: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은 우울·불안분노 등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고, 학업중단으로 전이되기도 함. • [사회적 지지체계] 위기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함.	• 조사대상 설계 시, 가능한 범위에서 위기의 다양한 층위를 반영하여 조사대상을 표집하도록 함. • 위기의 자연명화 관련, 조사내용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초기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기는 어렵지만, 회고적 문항을 통해 자연명화 실태를 포착하도록 문항을 개발함. • 위기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위기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영역과 항목, 문항을 개발함. - 이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표집 시 지나치게 구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보다는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조사대상을 중심으로 표집함. • 보호요인 파악의 일환으로, 사회적 지지체계 관련 내용을 조사항목에 포함함.
가정 환경 관련 위기	• [가정 내 경험 관련] 현장에서 관찰된 바에 따르면, 다수의 위기청소년들이 부모(보호자)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부모의 이혼, 빈곤, 방임, 폭력, 학대 등) - 조사내용에 가정폭력·학대·방임 관련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가출 이유] 가출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가정 내에서의 갈등, 부모와의 관계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집 안에 자기 방 등 자신만의 공간이 부재'한 물리적 주거환경이 가출의 사유가 되기도 함. • [가출 실태 파악] 가출 경험 여부뿐만 아니라, 가출 빈도가 파악되어야 함. 가출 이후의 경험은 가출을 얼마나 상습적으로 하는지 그 빈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짐.	• 위기의 종합적 실태 파악의 일환으로, 위기의 배경요인으로서 가정폭력·학대·방임 경험 및 부모와의 관계 관련 문항을 반영함. • 가출 이유를 조사항목으로 반영하고, 사유에 부모-자녀 관계 등 가족구성원과의 갈등 사유를 포함함. • 가출 관련 기본 실태 파악 시, 가출 경험 여부뿐만 아니라 가출 빈도와 가출 기간을 조사 항목에 반영함. •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쉼터 등 지원 기관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구 분	FGI 의견	반영 방안
교육적 위기	• [기출 청소년 지원기관 운영 방식 관련] 쉼터 등 시설에 입소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운영 방침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저하됨. • [기출패의 감소, '헬퍼'의 등장] 최근 기출패는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헬퍼'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체감됨. - '헬퍼'는 SNS를 통해 기출청소년을 유인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무엇이든지 확인하는 문항을 조사내용에 포함함. • 기출패 관련 조사항목은 지양하고,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헬퍼' 관련 항목을 신규 개발함.
심라 정서적 특성 및 중독 성향	☐ 심라·정서적 특성 • [심라·정서적 문제] 위기청소년의 다수는 감정조절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자 기중심적 성향, 좌절 경험의 지속적 누적으로 인한 무기력의 내재화, 낮은 자존감 수준 등) - 성취 경험 또는 자존감 등을 확인하는 문항 포함 필요 • [사회성 부족]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학교폭력, 우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성향 등을 나타내기도 함. -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사회적 관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음.	• 학교폭력(사이버 불링 포함) 관련 내용을 조사항목으로 반영함. • 학업중단의 경우, 기존 조사('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와의 조사대상 및 내용 중복을 고려하여, 조사내용에는 학업중단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 다만, 조사대상에는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하고, 배경 변인으로 학업중단 경험 여부, 학업중단 사유를 포함함. • 경제선지능 장애의 경우, 다양한 위기가 중복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조사대상 표집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함.

구 분	FGI 의견	반영 방안
	• [일상생활 부작용] 위기청소년의 경우, 일상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음. • [자해의 일상화] 자해하는 청소년이 대단히 많음. - [자해 이외] 가정학교사회에 대한 부작용,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 스트레스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등으로 자해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자해가 자살의 전조 증상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하는 비자살성 자해가 일반화 되고 있음. - 시점 도출을 위해, 자해를 그만 둔 시기 및 그만둔 이유 확인이 필요함. □ 중독 성향(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도박 등) • [SNS 과의존] SNS 과의존 현상이 심각함.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SNS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 인터넷이나 SNS 이용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심각함. • [온라인 도박] 최근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가 나타남. - 온라인 도박의 경우, 단순히 도박 경험 여부를 묻기보다는 빈도, 기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서 도박을 하는 경우도 발생함. -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 인터넷 중고장터를 이용한 사기행각 등 후속 범죄로도 연결됨. • [게임 과몰입]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성취감이나 쾌감을 게임에서 얻는 청소년들이 게임 과몰입을 경험함. 특히 위기청소년의 경우, 현실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됨.	• 자해 관련 내용은 여타 실태조사에서도 거의 다루어 지지 않은 바, 자살 시도 외에 자해 관련 내용을 조사 항목에 반영함. - 자해 시도 여부, 자해 이유 뿐만 아니라 정책적 개입점 확인을 위해 자해를 그만두게 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함.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을 조사내용에 반영함. • 온라인 도박을 포함하여, 도박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내용에 반영함. - 도박의 경우,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실태를 묻는 여타 조사가 없으므로, 종류, 빈도,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 등 하위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함. • 게임 과몰입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을 조사내용에 반영함.
생활 안전	• 음주로 인한 폭력 시비 등이 흔히 발생함. • 여자 청소년의 경우, 최근 디지털 성범죄 노출이 증가함.	• 약물 이용 경험과 관련하여, 음주 경험 여부 외에 음주로 인한 후속 문제 발생 경향을 조사항목에 포함함.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조사항목에 포함함.

구 분	FGI 의견	반영 방안
정책적 수요	• [정책 수요 점검]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효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의료지원 필요] 센터에서 간략하게 진행하는 간이 심리검사가 아닌, 종합적인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이 필요함. - 위기청소년의 경우,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도 다수 있는 바, 정신과 진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요구됨. • [쉼터 퇴소 후 자립 지원] 가출청소년의 경우, 쉼터 퇴소 후 주거지원 관련 정책을 비롯해 학업, 취업 등 자립 지원 정책이 요구됨. • [지원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위기청소년 대상 지원 서비스에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는 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청소년에 맞는 지원 서비스 필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취업성공패키지 등 직업훈련서비스의 경우, 청소년이 적응하기에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해 청소년들이 다시 부적응과 좌절, 실패를 경험하게 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함.	• 위기청소년에 대한 핵심 지원 정책/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조사항목에 포함함. • 의료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주거지원, 학업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요구를 묻고, 기출 여부를 배경변인으로 하여 수요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설계함. • 조사대상 설계 시, 표집 고려사항으로 지역 변인을 반영함. • 위기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서비스를 조사항목에 반영함.

3.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안)의 도출

이전 단계에서 실시한 선행연구 고찰,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 총 5차례에 걸쳐 실시한 1단계 전문가 FGI 및 이를 토대로 한 연구진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안)을 도출하였다.

1) 가정 안팎 생활경험 영역 구성

‘가정 안팎의 생활경험’은 크게 ‘가정 내 경험’과 ‘가정 밖(가출) 경험’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가정 내 경험’에는 부모-자녀 관계, 가정 내 분위기(부모 간 불화), 가정폭력·학대·방임 피해 경험 등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항목들이 배치되었다. 이는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가정환경에서 배태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위기의 기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에 기인한다. 특히 가정폭력·학대·방임 피해 경험의 경우, 기존 위기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서 배경요인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의 배경-실태-결과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실태조사 설계의 일환으로, 가정환경 관련 항목을 조사내용에 포함하였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그것이 부정적일 경우 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긍정적일 경우 위기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방향적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가정 밖(가출) 경험은 크게 가출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을 확인하는 항목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위 ‘헬퍼’ 관련 접촉 및 피해 경험에 관한 항목, 그리고 가출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가출에 대한 기본 경험을 묻는 항목에는 가출 여부, 가출 이유 및 가출 빈도, 가출 후 주로 지내는 장소 및 도움을 받은 사람, 가출 후 경험한 어려움 등이 포함되었다. 가출의 경우, 단지 경험 여부뿐만 아니라 가출의 빈도 및 상습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FGI 의견을 반영하여 가출 빈도도 조사항목에 포함하였다.

‘헬퍼’ 접촉 및 피해 경험은 최근 가출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실태 및 신규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포함한 항목이다. 여기에서는 ‘헬퍼’와 접촉한 경험 및 생활한 경험이 있는지, 접촉 경로는 무엇이며 생활하면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정책적 개입점 확인을 위해 가출청소년 지원 기관 이용 실태에 관한 문항도 포함하였다.

표 V-7 가정 안팎의 생활경험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대영역	세부 주제	조사 항목
1.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1-1. 가정 내 경험	• 부모-자녀 관계
		• 가정 내 분위기(가정불화)
		• 가정폭력·학대·방임 경험 - 경험 여부 및 빈도(상습적 경험) - 경험했을 때 대응 방법/ 대응하지 않은 이유 - 대응의 도움 정도
	1-2. 가정 밖 (가출) 경험	• 가출 경험 - 가출 여부(생애 경험/최근 1년 간 경험) 및 최초 가출 연령 - 가출 이유 및 빈도 - 가출 후 주로 지내는 장소 및 도움을 받은 사람 - 가출 시 주된 어려움
		• ‘헬퍼’ 접촉 및 피해 경험 - ‘헬퍼’ 접촉 경험 및 접촉 경로 - ‘헬퍼’와 생활한 경험 및 그 이유, 피해 경험 여부
		• 가출청소년 지원 기관 이용 실태 -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도움 정도, 도움받은 항목 -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2) 일상 생활 경험 영역 구성

앞서 제Ⅳ장에서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을 토해 도출되었던 조사영역(안) 가운데, 유해약물 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도박(돈내기 게임), 아르바이트 경험, 성 경험 등의 세부 주제를 ‘일상 생활 경험’의 대영역으로 분류 배치하였다.

먼저, ‘유해약물 이용 경험’에는 음주, 흡연, 환각물질 이용 경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약물의 종류별로 생애경험과 최근 1개월 간 경험 및 획득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온라인 게임 과몰입 성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항목들은 이 같은 성향이 심리·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책적 개입점 확인을 위해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교육 경험을 묻는 항목도 포함되었다.

기존 실태조사 내용 분석 결과, ‘도박(돈내기 게임)’의 경우, 일반청소년 대상 조사는 격년 주기로 실시되지만 위기청소년 대상 조사는 부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반면, 전문가 FGI에서는 위기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에 빈번하고 흔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현실과 실태조사 간의 간극을 채우고자,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포함하였다. 여기에는 생애경험, 중독 여부, 처음 도박을 하게 된 경로와 도박을 하는 이유, 도박으로 인한 채무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도박 관련 항목은 일반청소년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기존 조사 문항을 준용하였다. 아울러 성 경험은 피임 여부 확인을 위해 포함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그 자체로 위기 요인이나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기존 조사와의 흡수통합을 염두에 두고 조사항목으로 포함하였다. 본 장의 제1절에서 내용 설계의 쟁점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실태조사의 중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조사 가운데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조사는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제안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로 흡수통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조사내용을 설계하였다. 이에 기존 조사의 근로영역 문항 중 위기청소년 조사에 적합한 문항을 선별하여 조사항목으로 포함하였다. 특히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근로 경험이나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배달 아르바이트 관련 문항들은 기존 실태조사에서 포착하지 못했던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표 V-8 일상 생활 경험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대영역	세부 주제	조사 항목
2. 일상 생활 경험	2-1. 유해약물 이용 경험	• 음주 경험 - 생애경험, 최근 1개월 경험 - 획득 경로
		• 흡연 경험 - 생애 경험, 최근 1개월 경험 및 담배 종류(전자담배 관련) - 획득 경로
		• 환각물질 이용 경험 - 환각물질 이용 경험(최근 1개월) 및 획득 경로
		• 약물 유해성 관련 교육 경험
	2-2.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 온라인 게임 과몰입
	2-3. 도박 (돈내기 게임)	•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관련 교육 경험
		• 도박 경험 - 생애경험, 최근 3개월간 경험(여부 및 종류) - 중독 여부(반복성) - 처음 도박을 하게 된 경로 - 도박을 하는 이유 - 도박에 소요된 비용 및 비용 조달 방법 - 도박을 함께 하는 사람 - 도박으로 인한 문제 경험 여부
		• 도박문제 예방 교육 경험
	2-4. 성 경험	• 성관계 경험 - 생애경험 여부, 최초 경험 시기 - 성관계 시 피임 여부
	2-5. 아르바이트 경험	• 아르바이트 경험 -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부당노동행위 경험 여부 - 부모동의서 제출 관련 경험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근로 경험 - 근로 여부, 나이 확인 여부, 고용금지업소에서 일을 한 이유 등
		• 배달 아르바이트 관련 - 배달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및 근로 방식(간접고용) - 배달 아르바이트 관련 안전 문제 경험 여부(산재보험 적용 관련)
		• 근로권익(노동인권)교육 경험

3) (성)폭력 피해 영역 구성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을 둘러싼 위기 상황 가운데 청소년 비행·범죄 실태와 관련하여, 가해자적 관점보다는 피해자적 관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진행되는 조사의 특성 상, 가해자적 관점의 질문을 통해 솔직하고 신뢰할만한 응답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 응답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부과하는 질문으로 인해 여타 영역의 응답도 오염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사결과를 통한 정책적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 실태조사에서는 가해자적 관점의 질문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 영역을 구성하였다. 폭력 피해 영역은 위기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얼마나 안전을 보호받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 조건만남 경험,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먼저, 폭력 피해 경험에는 폭언, 폭행, 따돌림 등을 포함한 피해 경험과 피해 여부, 장소, 주된 가해자 및 대응 방법, 피해 경험 후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포함하였다. 성폭력 피해 경험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여타 조사와 달리 각별히 포함한 세부 주제는 ‘조건만남 경험’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이다. ‘조건만남 경험’에서는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경로, 경험 여부 및 최초 경험 시기, 조건만남 시 경험한 피해와 대응 방법, 조건만남에 대한 자율적 대응 능력 등을 조사항목으로 포함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하여 세부주제로 포함하였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여부와 피해 경로, 주된 가해자, 피해 경험 시 대응 방법 등을 주요 조사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표 V-9 폭력 피해 영역 조사항목 구성(안)

대영역	세부 주제	조사 항목
3. (성)폭력 피해	3-1. 폭력 피해 경험	• 폭력(폭언, 폭행, 따돌림 포함) 피해 경험 - 피해 여부, 피해 장소, 주된 가해자 - 대응 방법(피해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알린 대상, 알리지 않은 이유) - 피해 후 받은 도움(도움을 받았는지, 도움을 준 기관 등)
	3-2. 성폭력 피해 경험	• 성폭력(폭언, 폭행, 따돌림 포함) 피해 경험 - 피해 여부, 피해 장소, 주된 가해자 - 대응 방법(피해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알린 대상, 알리지 않은 이유) - 피해 후 받은 도움(도움을 받았는지, 도움을 준 기관 등)
	3-3. 조건만남 경험	• 조건만남 메신저 또는 랜덤채팅앱 이용 경험 - 이용 여부 및 이용 시 나이 확인 여부 • 조건만남 경험 여부 -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받은 경험 - 조건만남 경험 및 최초 경험 시기 - 조건만남의 주요 경로 - 조건만남 시 경험한 피해(피해의 종류 및 대응 방법) - 조건만남에 대한 자율적 대응 능력 및 주변의 도움
	3-4.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 사이버 성폭력 피해 경험 - 피해 종류, 피해 경로, 주된 가해자 - 대응 방법(피해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알린 대상, 알리지 않은 이유) - 피해 후 받은 도움(도움을 받았는지, 도움을 준 기관 등) • 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경험

4)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조사항목 구성(안)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영역은 심리·정서적 특성, 자해·자살 시도 경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심리·정서적 특성’ 세부 주제의 경우, 1단계 FGI를 통해 위기청소년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하면서도 이들이 특히 취약한 심리·정서적 특성으로 언급된 요인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자존감/자기통제력 등 자아 관련 특징, 타인에 대한 이해/갈등해결역량 등 사회적

관련 요인, 삶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도 추가하였다.

‘자해·자살 시도 경험’은 1단계 FGI에서 다수의 현장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로, 특히 자해의 광범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적 개입점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항목을 포함하였다. 먼저 자해 경험에 대해 자해 여부 및 이유, 자해 후 대응 방법,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을 비롯해 스스로 그만두려고 노력한 경험 등을 파악하였다.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해서도 같은 구조로 조사항목을 배치하였다.

표 V-10 심리·정서적 행동 및 관련 행동 조사항목 구성(안)

대영역	세부 주제	조사 항목
4.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4-1. 심리·정서적 특성	• 자존감/자기통제력 • 타인에 대한 이해/갈등해결역량 • 삶에 대한 인식/주관적 만족도 • 은둔형 외톨이 가능성 여부 • 사회적 지지체계
	4-2. 자해·자살 시도 경험	• 자해 경험 - 자해 여부 및 이유, 자해 시도 방법 - 자해 후 대응 방법(자해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알린 대상, 알리지 않은 이유) -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 스스로 그만두려고 노력한 경험
		• 자살 경험 - 자살 계획 및 시도 여부, 이유 - 자살 시도 후 대응 방법(자살 시도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알린 대상, 알리지 않은 이유) -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 스스로 그만두려고 노력한 경험

5) 정책적 수요 및 일반적 특성 구성

마지막으로 정책적 수요 및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정책적 수요에는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 수요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가족구조 등 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학업중단 경험(여부 및 이유), 다문화가정 여부, 빈곤(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파악하도록 조사항목을 구성하였다.

표 V-11 정책적 수요 및 일반적 특성 조사항목 구성(안)

대영역	조사 항목
5. 정책적 수요	• 위기청소년이 겪는 어려움/문제 •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
6.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가족구조 등 인구학적 배경
	• 학업중단 경험(여부 및 이유)
	• 다문화가정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4. 2단계 전문가 FGI 결과 및 반영 방안

선행연구와 기존 실태조사 자료 검토, 1단계 전문가 FGI 및 지속적인 연구진 협의를 거쳐 조사영역과 조사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설계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예비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2단계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다. 2단계 전문가 FGI는 현장전문가와 학계전문가로 구분하여 각 1회씩 총 2회,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주로 문항의 구성 내용, 추가 혹은 삭제가 필요한 문항, 문항에 포함된 선택지의 적절성 등 조사표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표 V-12〉에는 2단계 전문가 FGI를 통해 도출된 조사표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와 그에 대한 반영 방안이 정리되어 있다.

표 V-12 2단계 전문가 FGI 주요 결과 및 반영 방안

영역	FGI 의견	반영 방안
공동	• 위기청소년 조사의 특성 상 조사대상 섭외가 어려운 바, 조사수행 방법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의 연령범위 관련, 조사표를 연령대별로 구분할 필요성 검토(예: 초기 청소년용(9-12세) 및 중기청소년용(13-18세) 등) • 과거 경험을 묻는 회고적 문항의 경우, 기간을 통일하는 방안 검토 필요(예: 생애 경험, 최근 3년, 최근 1년, 최근 1개월 등) • 전체적인 조사표 길이의 적정성(문항이 많은 편이므로 조사시간이 길어질 우려 제기) • 선택지가 많은 경우 하나만 고르기 어려워 보이는 문항들이 다수 있으므로, 가급적 복수응답 허용 필요	• 위기청소년은 일반청소년과 달리 모집단 특정이 어려움. 따라서 조사대상 설계 시 표집은 위기청소년 유형별 주요 지원기관 서비스 대상을 기준으로 하고, 실사는 지원기관(agency) 중심으로 실시함. • 위기청소년의 목표모집단 연령범위는 9~19세 미만으로 하되, 조사모집단의 연령범위는 12~19세 미만으로 설정함. - 초기 청소년의 경우, 조사로 인한 부정적 학습효과 등을 고려하여 12세부터 조사모집단에 포함하기로 하며, 따라서 조사표는 1종으로 함. • 과거 경험을 묻는 회고적 문항의 기준 시점은 문항 성격 및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조사표 길이를 고려하여 문항을 조정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응답 소요시간을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 복수응답 허용이 적절한 문항은 복수응답 방식으로 수정함.
가정 안팎 생활 경험	가정 내 경험 • 가정폭력·학대에 관한 문항이 지나치게 많고 상세함. • 그에 비해 방임 관련 문항은 부족함. • '가정 내 경험' 세부영역에 사용된 용어가 보호자, 부모, 가족 등으로 다소 혼재되어 있음. • 부모님 간 관계(부모님 간 싸움 등)를 묻는 문항의 경우, 선택지가 배타적이지 않음 - '본적이 없다'는 응답은 싸움이 일어나	• 가정폭력·학대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문항은 삭제하고, 대표적인 문항으로 축약함. • 방임 관련 문항을 폭력·학대와 유사한 비중으로 반영함. • 보호자, 부모 등으로 혼재된 용어를 통일함. • 부모님 간 관계를 묻는 문항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부모님이 같이 살지 않음)'을 추가함.

영역		FGI 의견	반영 방안
		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음. 가정폭력·학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 관련하여, 선택지 '어른이 신고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함.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선택지를 '알리지 말라는 압박을 받아서'로 의미를 명료하게 수정함.
	가정 밖 경험	최근 문제가 되는 '헬퍼' 관련 경험을 포착하기 위해 포함한 문항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낯선 사람'이라는 용어가 모호함. 명료하게 '헬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음.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낯선 사람' 선택지를 제외하고, 문항 의도를 명료화 하여 '헬퍼'로 수정함.
일상 생활 경험	유해 약물 이용 경험	-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술, 담배 구입하는 경우 관련 문항 포함 여부 검토 - 음주는 음주 여부 그 자체보다 음주 이후 폭력, 음주운전 등 후속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임.	- 술/담배 구입경로(타인의 신분증 도용 등) 관련 문항은 타 승인 통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위기 청소년 조사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정책적 시사점이 동일하므로 본 조사에서는 포함하지 않음. - 음주 후 야기되는 후속 문제행동 관련 문항을 추가함.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인터넷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을 구분하여 각각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은 사실상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바, 스마트폰 척도만 반영해도 될 것으로 생각됨	인터넷 과의존 척도를 제외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만 포함함.
	도박 (돈내기 게임) 경험	- 도박에 사용한 금액 관련 질문 필요 - 도박 관련 문항의 경우,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문항 참고 필요	- 도박에 사용한 금액 관련 질문을 추가함 -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실시한 관련 실태조사 문항을 검토하여, 핵심 문항을 반영함.
	성 경험	성관계 최초 경험 시기를 묻는 문항에서, 초기 연령은 일년 단위로 세분하기보다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초등 연령 시기는 학년 단위별로 세분하지 않고 '초등학교 졸업 이전'으로 단순화 함.
	아르바이트 경험	- 위기청소년의 경우, 근로 경험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되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증가함. 근로경험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근로는 주로 단기 근로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	- 아르바이트 자체는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기존 실태조사(「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중 위기청소년 조사)의 흡수통합과 정책적 필요를 고려하여 관련 문항을 포함함. - 산재보험이 특히 문제가 되는

영역		FGI 의견	반영 방안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최근 확대되는 배달 등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배달 아르바이트 관련 문항을 별도로 추가하고, 산재보험 보장 여부 관련 문항을 반영함.
(성) 폭력 피해 경험	폭력 피해 경험	현재 폭력 피해 여부를 묻는 문항만 포함되어 있는데, 가해 여부는 파악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 필요	일관성 있는 조사설계의 기본 관점 유지, 신뢰할만한 응답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실태조사에서는 폭력 가해를 비롯해 범 죄 가해 여부는 포함하지 않음.
	성 폭력 피해 경험	- 조건만남 사유를 묻는 문항에서, '자의'와 '타의'를 구분하여 응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선택지 수정이 필요함. - 선택지 배치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제일 먼저 제시되는 것이 자연스러움. - 전체적으로 '성매매'라는 용어보다 '조건만남'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적절함.	-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를 묻는 문항의 선택지를 보다 명료하게 수정함. -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선택지 위치를 수정함.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경로를 묻는 문항은 단수응답보다 복수응답을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임. 단수응답의 경우, 응답자 개인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매체로 응답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로를 묻는 문항의 응답 방식을 '주된' 경로를 묻는 단수응답에서 '모든' 경로를 택하는 복수응답으로 변경함.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 은둔형 외톨이는 척도 문항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일정 기간 동안 '학교나 일터에 나가지 않는 등 생산적 활동을 하지 않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음. - 심리적 특성을 묻는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핵심 내용 위주로 축약할 필요가 있음.	- 은둔형 외톨이 성향 파악과 관련하여, 척도 문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묻는 문항으로 수정 반영함. - 예비조사 후 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심리적 특성 문항 중 일부 축약하여 설문 의 간명성을 확보할 예정임.
정책적 수요		정책적 수요 관련 선택지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경제적 지원, 학업지원 등)	관련 항목을 추가함.
일반적 특성		- 학업 상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중도입국청소년 등 다문화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에 포함할 것인지 검토가 요구됨.	학업 중단 관련 조사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상세히 포함되어 있는 바, 조사내용 중복을 고려해 조사항목에서는 배제함. 다만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는 배경문항으로 학교 재학 여부 및 학업중단 경험 여부를 포함함.

영역	FGI 의견	반영 방안
		다문화청소년 대상 국가승인통계가 존재하므로, 조사모집단에서 제외함. 다만 부모와 본인의 출생국을 묻는 문항을 일반적 특성에 추가하여, 추후 배경변인으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5. 전문가 대상 내용타당도 및 중요도 평가

1단계 및 2단계 전문가 FGI와 연구진 검토를 거쳐 조사영역과 조사항목(안)을 도출한 뒤, 이를 토대로 유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및 중요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에는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와 관련 분야 연구 경험이 있는 학계 전문가 등 총 36인이 참여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내용타당도 평가

먼저, 도출된 조사영역과 조사항목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내용으로 적합한지 내용타당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제시된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CVI(Content Validity Index)는 0.92로 나타나, Davis(1992)가 제안한 0.80의 기준을 충족하는 높은 값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의 적절성을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는 홀수(5점 또는 7점 등) 척도로 제시되었을 때 ‘보통’에 해당하는 중간값으로 응답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6점 척도에서 ‘매우 적절’에 해당하는 5점 및 6점에 응답한 경우만을 선별하여 “적합 응답”으로 분류한 뒤, 별도로 CVR(Content Validity Ratio)²⁵⁾ 값을 산출해서 분석한 결과, 내용타당도 평가

에 참여한 전문가의 응답 평균은 6점 만점에 5.4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CVR 값은 응답자수에 따라 그 기준치가 달라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Lawshe(1975)는 응답자 수가 35명일 때 수용 가능한 최소허용치를 0.31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CVR값은 0.70이상이므로, 전반적으로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구성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같은 전체적인 검증 결과를 염두에 두고, 각 조사영역 및 항목별로 내용타당도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영역1: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① 가정 내 경험

‘가정 내 경험’은 ‘가정폭력·학대·방임 경험’, ‘부모-자녀 관계’, ‘가정 내 분위기(가정불화)’로 구성된다. ‘가정 내 경험’ 중영역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평가는 6점 만점에 5.42~5.69점이었고, CVR값도 Lawshe(1975)의 기준값보다 훨씬 높은 0.70 이상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가정폭력·학대·방임 경험’의 경우는 모든 전문가가 5~6점으로 평가하여, CVR값이 0.99로 가정 내 경험 중에서 가장 높게 도출되었다. 부모-자녀 관계, 가정 내 분위기(가정불화)의 경우는 그 값이 0.72로 도출되었는데, 응답 사례수와 평균값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보면, 부모-자녀 관계 영역이 가정 내 분위기(가정불화)보다 가정 내 경험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5) $CVR = \{Ne - (n/2)\} / (n/2)$ 을 의미함. 여기에서 Ne : 적합 응답 수, N: 전체 응답 수를 나타냄. Lawshe(1975)의 기준에 따르면, 응답자 수가 35명일 때 CVR 최소허용값은 0.31임.

표 V-13 가정 내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단위: 빈도(%))

구분	사례 수 (N)	빈도(%)						평균 (표준편차)	CVR (5,6)	
		적절하지 못하다	→ → → → → → → →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가정폭력·학대 방 임경험	36	0 (0.0)	0 (0.0)	0 (0.0)	0 (0.0)	11 (30.6)	25 (69.4)	5.69 (0.47)	0.99	
부모-자녀 관계	36	0 (0.0)	0 (0.0)	0 (0.0)	5 (13.9)	5 (13.9)	26 (72.2)	5.58 (0.73)	0.72	
가정 내 분위기 (가정불화)	36	0 (0.0)	0 (0.0)	2 (5.6)	3 (8.3)	9 (25.0)	22 (61.1)	5.42 (0.87)	0.72	

② 가정 밖 경험

‘가정 밖 경험’에 대한 세부영역인 ‘가출 경험’, ‘헬퍼’ 접촉 및 피해 경험, ‘가출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경험 및 필요한 지원 서비스’의 조사항목 구성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세부영역의 내용구성에 대해 타당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적절성 평가 점수는 6점 만점에 5.36~5.78점으로 도출되었고, 이를 토대로 산출한 CVR 값은 ‘가출 경험’ 항목이 모든 응답자들이 ‘적절하다’는 5~6 점으로 평가하여 0.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가출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경험 및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0.83, ‘헬퍼’ 접촉 및 피해 경험’이 0.72로 도출되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속한 세부영역이 모두 조사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14 가정 밖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단위: 빈도(%))

구분	사례 수 (N)	빈도(%)						평균 (표준편차)	CVR (5,6)	
		적절하지 못하다	→ → → → → → → →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가정 밖 경험 (가출 경험)	36	0 (0.0)	0 (0.0)	0 (0.0)	0 (0.0)	8 (22.2)	28 (77.8)	5.78 (0.42)	0.99	
‘헬퍼’ 접촉 및 피해 경험	36	0 (0.0)	0 (0.0)	1 (2.8)	4 (11.1)	12 (33.3)	19 (52.8)	5.36 (0.80)	0.72	
가출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경험 및 필요한 지원 서비스	36	0 (0.0)	0 (0.0)	1 (2.8)	2 (5.6)	9 (25.0)	24 (66.7)	5.56 (0.74)	0.83	

(2) 영역2: 일상생활 경험

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 영역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게임(온라인, 모바일, 비디오 게임 포함) 이용 및 과몰입 수준’, ‘인터넷·스마트폰 관련 교육 경험’의 세부영역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적절성 평가는 6점 만점에 5.42~5.56점을 나타내,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점을 바탕으로 계산한 CVR값도 Lawshe(1975)의 기준값인 0.31보다 훨씬 높은 0.72~0.89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게임(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 이용 및 과몰입 수준’이 0.89로 위기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의 세부주제 및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V-15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단위: 빈도(%))

세부영역	사례수 (N)	빈도(%)						평균 (표준편차)	CVR (5,6)	
		적절하지 못하다	→ → → → → → → →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인터넷·스마트 폰 과의존 수준	36	0 (0.0)	1 (2.8)	0 (0.0)	2 (5.6)	9 (25.0)	24 (66.7)	5.56 (0.74)	0.83	
게임 이용 및 과몰입 수준	36	0 (0.0)	0 (0.0)	0 (0.0)	2 (5.6)	12 (33.3)	22 (61.1)	5.56 (0.61)	0.89	
건강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에 관한 교육 경험	36	0 (0.0)	0 (0.0)	0 (0.0)	5 (13.9)	11 (30.6)	20 (55.6)	5.42 (0.73)	0.72	

② 아르바이트(근로) 경험

아르바이트(근로) 경험과 관련해서는 ‘아르바이트 관련 기본 경험’, ‘청소년고용 금지업소 근로 경험’, ‘배달 아르바이트 경험’, ‘노동인권 교육 경험’ 등이 세부주제로 포함되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에 포함된 세부주제에 대한 적절성 평가는 6점 만점에 5.58~5.81점으로 도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CVR값은 0.89~0.99로 나타나,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하여 포함한 모든 세부주제 및 항목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노동인권 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평가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가 5점~6점으로 평가하여, CVR값이 0.99로 산출되었다. 이는 해당 주제가 위기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세부주제 및 항목으로 가장 적절하게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V-16 아르바이트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단위: 빈도(%))

세부영역	사례 수 (N)	빈도(%)						평균 (표준편차)	CVR (5,6)	
		적절하지 못하다	→ → → → → → → →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아르바이트 관련 기본 경험	36	0 (0.0)	1 (2.8)	0 (0.0)	0 (0.0)	11 (30.6)	24 (66.7)	5.58 (0.77)	0.94	
청소년고용 금지업소 근로 경험	36	0 (0.0)	0 (0.0)	0 (0.0)	2 (5.6)	10 (27.8)	24 (66.7)	5.61 (0.60)	0.89	
배달 아르바이트 경험	36	0 (0.0)	0 (0.0)	1 (2.8)	1 (2.8)	7 (19.4)	27 (75.0)	5.67 (0.68)	0.89	
노동인권 교육 경험	36	0 (0.0)	0 (0.0)	0 (0.0)	0 (0.0)	7 (19.4)	29 (80.6)	5.81 (0.40)	0.99	

③ 유해약물 이용 경험

위기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위기행동 중 하나가 음주, 흡연을 비롯한 각종 유해약물 이용이다. 이에 유해약물 이용 경험을 조사영역의 하나로 설정하고 여기에 ‘음주 경험’, ‘흡연 경험’,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약물의 유해성에 대한 예방 교육 경험’, ‘음주·흡연으로 인한 비행 및 부적절 행동에 관한 경험’ 등을 배치하였다.

유해약물 이용 경험 영역과 여기에 포함된 세부주제 및 조사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6점 만점에 5.61~5.67점이 도출되어 대부분 적절하다고 평가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응답값을 토대로 계산된 CVR값 역시 Lawshe(1975)가 제시한 기준값인 0.31보다 훨씬 높은 0.83~0.94로 나타나, 유해약물 이용 경험에 대한 세부주제 및 항목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음주·흡연으로 인한 비행 및 부적절 행동에 관한 경험’은 CVR값이 0.94로 가장 높게 평가되어, 전문가들은 유해 약물 이용 경험에 대한 세부 주제 및 항목 중에 ‘음주·흡연으로 인한 비행 및 부적절 행동에 관한 경험’이 특히 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17 유해약물 이용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단위: 빈도(%))

세부영역	사례 수 (N)	빈도(%)						평균 (표준편차)	CVR (5,6)	
		적절하지 못하다	→ → → → → → → →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음주 경험	36	0 (0.0)	0 (0.0)	0 (0.0)	3 (8.3)	8 (22.2)	25 (69.4)	5.61 (0.65)	0.83	
흡연 경험	36	0 (0.0)	0 (0.0)	0 (0.0)	2 (5.6)	9 (25.0)	25 (69.4)	5.64 (0.59)	0.89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36	0 (0.0)	0 (0.0)	0 (0.0)	3 (8.3)	6 (16.7)	27 (75.0)	5.67 (0.63)	0.83	
유해 약물 예방 교육 경험	36	0 (0.0)	0 (0.0)	0 (0.0)	2 (5.6)	9 (25.0)	25 (69.4)	5.64 (0.59)	0.89	
음주·흡연으로 인한 비행 및 부적절 행동	36	0 (0.0)	0 (0.0)	0 (0.0)	1 (2.8)	11 (30.6)	24 (66.7)	5.64 (0.54)	0.94	

④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최근 그 심각성이 대두되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고려하여, ‘도박(돈내기 게임)’을 세부 영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영역을 구성하는 조사항목을 제시한 뒤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여기에는 ‘도박(돈내기 게임) 이용 경험’, ‘중독 여부(반복성)’, ‘처음 도박을 하게 된 경로’, ‘도박을 하는 이유’, ‘도박에 소요된 비용 및 비용 조달 방법’, ‘도박을 함께 하는 사람’, ‘도박으로 인한 문제 경험 여부’, ‘도박문제 예방 교육 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 적절성 평가 결과, 6점 만점에 평균 5.56~5.69점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전문가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CVR값 역시 기준값인 0.31보다 훨씬 높은 0.78~0.94로 산출되어, 여기에 포함된 항목 구성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독 여부, 처음 도박을 하게 된 경로, 도박을 하는 이유, 도박에 소요된 비용 및 비용 조달 방법 등에 대한 CVR 값이 높았고, 도박을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표 V-18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단위: 빈도(%))

세부영역	사례 수 (N)	빈도(%)						평균 (표준편차)	CVR (5,6)	
		적절하지 못하다	→ → → → → → → →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생애경험 및 최근 3개월 경험 (경험 여부/종류)	36	0 (0.0)	0 (0.0)	0 (0.0)	2 (5.6)	10 (27.8)	24 (66.7)	5.61 (0.60)	0.89	
중독 여부 (반복성)	36	0 (0.0)	0 (0.0)	0 (0.0)	1 (2.8)	9 (25.0)	26 (72.2)	5.69 (0.53)	0.94	
처음 도박을 하게 된 경로	36	0 (0.0)	0 (0.0)	0 (0.0)	1 (2.8)	9 (25.0)	26 (72.2)	5.69 (0.53)	0.94	
도박을 하는 이유	36	0 (0.0)	0 (0.0)	0 (0.0)	1 (2.8)	9 (25.0)	26 (72.2)	5.69 (0.53)	0.94	
도박 소요비용 및 비용조달 방법	36	0 (0.0)	0 (0.0)	0 (0.0)	1 (2.8)	10 (27.8)	25 (69.4)	5.67 (0.54)	0.94	
도박을 함께 하는 사람	36	0 (0.0)	0 (0.0)	0 (0.0)	4 (11.1)	8 (22.2)	24 (66.7)	5.56 (0.70)	0.78	
도박으로 인한 문제 경험 여부	36	0 (0.0)	0 (0.0)	0 (0.0)	2 (5.6)	8 (22.2)	26 (72.2)	5.67 (0.59)	0.89	
도박문제 예방 교육 경험	36	0 (0.0)	0 (0.0)	0 (0.0)	2 (5.6)	8 (22.2)	26 (72.2)	5.67 (0.59)	0.89	

⑤ 성(性) 경험

성 경험에 대한 조사항목은 ‘성관계 경험 여부 및 최초 경험 시기’, ‘성관계 시 피임 여부’로 구성된다. 조사항목의 적절성 평가 결과, 적절하다는 평가 의견이 6점 만점에 5.64~5.69점으로 도출되었다. CVR값은 0.89~0.94로, 판단 기준치 0.31보다 크게 높았다. 이는 세부주제에 대한 항목 구성이 적절함을 의미한다.

표 V-19 성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단위: 빈도(%))

세부영역	사례 수 (N)	빈도(%)						평균 (표준편차)	CVR (5,6)	
		적절하지 못하다	→ → → → → →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성관계 경험 여부 및 최초 경험 시기	36	0 (0.0)	0 (0.0)	0 (0.0)	2 (5.6)	9 (25.0)	25 (69.4)	5.64 (0.59)	0.89	
성관계 시 피임 여부	36	0 (0.0)	0 (0.0)	0 (0.0)	1 (2.8)	9 (25.0)	26 (72.2)	5.69 (0.53)	0.94	

(3) 조사영역3: (성)폭력 피해 경험

생활 안전 영역에 포함된 세부영역으로는 ‘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조건만남 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각각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폭력 피해 경험

위기청소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폭언, 폭행, 따돌림 등 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폭력 피해 여부 및 피해 내용’, ‘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 ‘폭력 피해 후 지원기관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를 세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전문가 대상 적절성 평가 결과, 6점 만점에 5.78~5.83으로 높은 평점이 도출되었다. CVR값 역시 0.94~0.99로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해당 항목들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폭력 피해 경험 파악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폭력 피해 여부 및 피해 내용’과 ‘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응답자 모두 5~6점으로 평가하여, CVR값이 0.99로 도출되었다.

표 V-20 폭력 피해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단위: 빈도(%))

세부영역	사례 수 (N)	빈도(%)						평균 (표준편차)	CVR (5,6)	
		적절하지 못하다	→ → → → → → → →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폭력 피해 여부 및 피해 내용	36	0 (0.0)	0 (0.0)	0 (0.0)	0 (0.0)	6 (16.7)	30 (83.3)	5.83 (0.38)	0.99	
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	36	0 (0.0)	0 (0.0)	0 (0.0)	0 (0.0)	6 (16.7)	30 (83.3)	5.83 (0.38)	0.99	
폭력 피해 후 지원 기관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36	0 (0.0)	0 (0.0)	0 (0.0)	1 (2.8)	6 (16.7)	29 (80.6)	5.78 (0.49)	0.94	

② 성폭력 피해 경험

다음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 ‘성폭력 피해 후 지원기관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를 조사항목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조사 결과, 적절성 평가 평점은 6점 만점에 5.69점으로 제시한 3가지 항목이 동일하게 평가되었다. 이를 토대로 산출된 CVR값은 0.94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 성폭력 피해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단위: 빈도(%))

세부영역	사례 수 (N)	빈도(%)						평균 (표준편차)	CVR (5,6)	
		적절하지 못하다	→ → → → → → → →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성폭력 피해 경험	36	0 (0.0)	0 (0.0)	0 (0.0)	1 (2.8)	9 (25.0)	26 (72.2)	5.69 (0.53)	0.94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	36	0 (0.0)	0 (0.0)	0 (0.0)	1 (2.8)	9 (25.0)	26 (72.2)	5.69 (0.53)	0.94	
성폭력 피해 후 지원기관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36	0 (0.0)	0 (0.0)	0 (0.0)	1 (2.8)	9 (25.0)	26 (72.2)	5.69 (0.53)	0.94	

③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디지털 성범죄 세부영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 및 도움 정도’가 포함되었다. 해당 내용에 관한 전문가들의 적절성 평가는 6점 만점에 5.64~5.75점으로 나타났다. 평점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한 CVR값은 3개의 세부주제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0.94로 높은 값이 도출되었다. CVR값과 평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보면,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에 포함된 세부주제들이 모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조사내용으로 적합하지만, 그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한 적절성 평가 점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는 3가지 항목 가운데 상대적으로 평점이 낮았다.

표 V-22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단위: 빈도(%))

세부영역	사례 수 (N)	빈도(%)						평균 (표준편차)	CVR (5,6)	
		적절하지 못하다	→ → → → → → → →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36	0 (0.0)	0 (0.0)	0 (0.0)	1 (2.8)	8 (22.2)	27 (75.0)	5.72 (0.51)	0.94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	36	0 (0.0)	0 (0.0)	0 (0.0)	1 (2.8)	7 (19.4)	28 (77.8)	5.75 (0.50)	0.94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36	0 (0.0)	0 (0.0)	0 (0.0)	1 (2.8)	11 (30.6)	24 (66.7)	5.64 (0.54)	0.94	

④ 조건만남 경험

〈표 V-23〉에는 조건만남 경험에 대한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 평가 점수가 제시되어 있다. 평가 결과, 제시된 세부주제가 모두 6점 만점에 5.67~5.81점 사이의 높은 평점을 얻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해당 주제를 적절하다고 평가했음

을 확인하였다. CVR값 역시 Lawshe(1975)가 제시한 기준치인 0.31보다 훨씬 높은 0.89~0.94로 도출되었다. CVR값과 평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건만남을 스스로 그만두기 위한 노력 여부 및 스스로 그만두는 데 도움을 준 요인’ 항목의 CVR값이 0.94로 높았고, 그에 대한 평균값도 5.81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조건만남 항목에서 특히 조건만남을 어떻게 스스로 그만둘 수 있었는지, 보호요인을 확인하는 문항이 특히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시사한다.

표 V-23 조건만남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단위: 빈도(%))

세부영역	사례 수 (N)	빈도(%)						평균 (표준편차)	CVR (5,6)
		적절하지 못하다	→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조건만남 제안을 받은 경험 여부	36	0 (0.0)	0 (0.0)	0 (0.0)	1 (2.8)	10 (27.8)	25 (69.4)	5.67 (0.54)	0.94
조건만남 경험 여부 및 최초 경험 시기	36	0 (0.0)	0 (0.0)	0 (0.0)	2 (5.6)	7 (19.4)	27 (75.0)	5.69 (0.58)	0.89
조건만남의 주요 경로	36	0 (0.0)	0 (0.0)	0 (0.0)	2 (5.6)	7 (19.4)	27 (75.0)	5.69 (0.58)	0.89
조건만남으로 인한 피해 경험 및 대응 방법	36	0 (0.0)	0 (0.0)	0 (0.0)	2 (5.6)	8 (22.2)	26 (72.2)	5.67 (0.59)	0.89
조건만남을 스스로 그만두기 위한 노력 여부 및 도움을 준 요인	36	0 (0.0)	0 (0.0)	0 (0.0)	1 (2.8)	5 (13.9)	30 (83.3)	5.81 (0.47)	0.94

(4) 조사영역4: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① 심리·정서적 특성

심리·정서적 특성 영역은 위기청소년에게 특히 요구되거나 혹은 취약한 심리·정서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FGI, 연구진

협의를 거쳐 도출된 항목으로 ‘자존감/자기통제력’, ‘타인에 대한 이해/갈등해결 역량’, ‘삶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만족도’, ‘은둔형 외톨이 성향’, ‘사회적 지지체계’ 등을 포함하였다. 조사 결과, 적절성 평가 점수는 6점 만점에 평균의 범위가 5.56~5.89점으로 대단히 양호하게 도출되었고, CVR값 역시 0.89~0.99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세부항목 중에서는 ‘자존감/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지지체계’ 항목에 모든 전문가가 5~6점의 높은 평점을 부여하였고, CVR값도 0.99로 대단히 높게 도출되었다.

표 V-24 심리·정서적 특성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단위: 빈도(%))

세부영역	사례 수 (N)	빈도(%)						평균 (표준편차)	CVR (5,6)	
		적절하지 못하다	→ → → → → → → →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자존감/자기통제력	36	0 (0.0)	0 (0.0)	0 (0.0)	0 (0.0)	4 (11.1)	32 (88.9)	5.89 (0.32)	0.99	
타인에 대한 이해/ 갈등해결 역량	36	0 (0.0)	0 (0.0)	0 (0.0)	1 (2.8)	6 (16.7)	29 (80.6)	5.78 (0.49)	0.94	
삶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만족도	36	0 (0.0)	0 (0.0)	0 (0.0)	1 (2.8)	8 (22.2)	27 (75.0)	5.72 (0.52)	0.94	
은둔형 외톨이 성향	36	0 (0.0)	0 (0.0)	0 (0.0)	2 (5.6)	12 (33.3)	22 (61.1)	5.56 (0.61)	0.89	
사회적 지지체계	36	0 (0.0)	0 (0.0)	0 (0.0)	0 (0.0)	7 (19.4)	29 (80.6)	5.81 (0.41)	0.99	

② 자해 경험

다음으로, ‘자해 경험’ 세부주제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결과가 <표 V-25>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 포함된 항목은 ‘자해 시도 경험 및 그 이유’, ‘자해 시도 후 대응 방법’,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스스로 자해를 그만두기 위해 노력한 경험 및 그만둘 수 있었던 보호 요인’이다. 해당 항목에 대한 적절성 평가 결과, 6점 만점에 5.81~5.89점으로 모든 항목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응답

결과와 응답사례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CVR값은 0.99로 대단히 높게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자해 경험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내용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25 자해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단위: 빈도(%))

세부영역	사례 수 (N)	빈도(%)						평균 (표준편차)	CVR (5,6)	
		적절하지 못하다	→ → → → → → → →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자해 시도 경험 및 그 이유	36	0 (0.0)	0 (0.0)	0 (0.0)	0 (0.0)	5 (13.9)	31 (86.1)	5.86 (0.35)	0.99	
자해 시도 후 대응 방법	36	0 (0.0)	0 (0.0)	0 (0.0)	0 (0.0)	7 (19.4)	29 (80.6)	5.81 (0.40)	0.99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36	0 (0.0)	0 (0.0)	0 (0.0)	0 (0.0)	5 (13.9)	31 (86.1)	5.86 (0.35)	0.99	
스스로 자해를 그만두기 위해 노력한 경험 및 보호 요인	36	0 (0.0)	0 (0.0)	0 (0.0)	0 (0.0)	4 (11.1)	32 (88.9)	5.89 (0.32)	0.99	

③ 자살 시도 경험

‘자살 시도 경험’ 역시 ‘자해 경험과 유사하게, ‘자살 시도 경험 및 그 이유’, ‘자살 시도 후 대응 방법’,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스스로 자살 시도를 그만두기 위해 노력한 경험 및 그만둘 수 있었던 보호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적절성 평가 결과, 6점 만점에 5.81~5.89점으로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주종을 이루었다. 응답결과에 대한 CVR값 역시 모든 응답자들이 5~6점에 응답하여 0.99로 대단히 높게 파악되었다. 가장 높은 평균과 CVR값을 나타낸 항목은 ‘스스로 자살 시도를 그만두기 위해 노력한 경험 및 그만둘 수 있었던 보호 요인’이었다. 해당 항목의 경우는 90%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표 V-26 자살 시도 경험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단위: 빈도(%))

세부영역	사례 수 (N)	빈도(%)						평균 (표준편차)	CVR (5,6)	
		적절하지 못하다	→ → → → → → → →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자살 시도 경험 및 그 이유	36	0 (0.0)	0 (0.0)	0 (0.0)	0 (0.0)	6 (16.7)	30 (83.3)	5.83 (0.38)	0.99	
자살 시도 후 대응 방법	36	0 (0.0)	0 (0.0)	0 (0.0)	0 (0.0)	7 (19.4)	29 (80.6)	5.81 (0.40)	0.99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36	0 (0.0)	0 (0.0)	0 (0.0)	0 (0.0)	6 (16.7)	30 (83.3)	5.83 (0.38)	0.99	
스스로 자살 시도를 그만두기 위해 노력한 경험 및 보호 요인	36	0 (0.0)	0 (0.0)	0 (0.0)	0 (0.0)	4 (11.1)	32 (88.9)	5.89 (0.32)	0.99	

(5) 조사영역5: 정책적 수요 파악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내용설계(안)의 다섯 번째 영역은 정책적 수요 파악에 관한 항목이다. 여기에는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 등이 배치되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적절성 평가 결과, 6점 만점에 5.78~5.86점이 도출되어 모든 항목에 대해 적절하다는 평가가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CVR값은 Lawshe(1975)가 제시한 기준값인 0.31보다 훨씬 높은 0.89~0.99로 도출되었다. 이는 정책적 수요 파악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희망하는 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9%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여,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조사항목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7 정책 수요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단위: 빈도(%))

세부영역	사례 수 (N)	빈도(%)						평균 (표준 편차)	CVR (4,5,6)	
		적절하지 못하다	→ → → → → → → →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36	0 (0.0)	0 (0.0)	0 (0.0)	2 (5.6)	4 (11.1)	30 (83.3)	5.78 (0.54)	0.89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	36	0 (0.0)	0 (0.0)	0 (0.0)	0 (0.0)	6 (16.7)	30 (83.3)	5.83 (0.38)	0.99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	36	0 (0.0)	0 (0.0)	0 (0.0)	1 (2.8)	3 (8.3)	32 (88.9)	5.86 (0.43)	0.94	

(6) 조사영역6: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영역은 성별, 연령 및 가족구조 등 ‘인구학적 특성’과 ‘학업중단 경험(여부 및 중단 사유)’, ‘향후 진로 계획’, ‘건강검진 여부’, ‘다문화가정 여부’, ‘빈곤 상태(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구성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결과, 6점 만점에 5.53~5.83점으로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추가적으로 계산된 적절성 판단 지표인 CVR값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Lawshe(1975)가 제시한 기준치 0.31보다 훨씬 높은 0.78~0.99의 값들이 도출되었다. 다만 상대적 순위를 고려해보면, 빈곤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항목이 0.78로 상대적으로 낮은 CVR값을 나타냈고, ‘성별, 연령 및 가족구조’, ‘학업중단 경험(여부 및 중단 사유)’, 그리고 ‘향후 진로 계획’은 0.99로 높은 값을 보였다.

표 V-28 일반적 특성 구성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가

(단위: 빈도(%))

세부영역	사례 수 (N)	빈도(%)						평균 (표준편차)	CVR (5,6)
		적절하 지 못 하다	→ →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성별, 연령 및 가족 구조	36	0 (0.0)	0 (0.0)	0 (0.0)	0 (0.0)	6 (16.7)	30 (83.3)	5.83 (0.38)	0.99
학업중단 경험 (여부 및 중단 사유)	36	0 (0.0)	0 (0.0)	0 (0.0)	0 (0.0)	6 (16.7)	30 (83.3)	5.83 (0.38)	0.99
향후 진로 계획	36	0 (0.0)	0 (0.0)	0 (0.0)	0 (0.0)	7 (19.4)	29 (80.6)	5.81 (0.40)	0.99
건강검진 여부	36	0 (0.0)	0 (0.0)	1 (2.8)	2 (5.6)	9 (25.0)	24 (66.7)	5.56 (0.74)	0.83
다문화가정 여부	36	0 (0.0)	0 (0.0)	0 (0.0)	1 (2.8)	9 (25.0)	26 (72.2)	5.69 (0.53)	0.94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6	0 (0.0)	0 (0.0)	0 (0.0)	4 (11.1)	9 (25.0)	23 (63.9)	5.53 (0.70)	0.78

2) 중요도 및 우선순위 평가: 계층화분석법(AHP)

다음으로,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하여, 위 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장의 제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조사영역과 조사항목 간에 ‘핵심(Core)’-‘부가(Add)’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내용을 설계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핵심 내용과 부가적으로 고려할 내용을 구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중요도 및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하였다.

AHP 분석은 우선 항목별 중요도 산출을 위한 측정치 값을 배정하고([부록2]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표 참조), 각 항목별로 응답자들의 측정값에 대해 기하평균을 산출한 뒤, 이렇게 산출된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상호 비교를 실시하고, 마지막

으로 각 요인을 정규화하여 항목별 중요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추가적으로, 응답자들의 응답 일관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마다 일관성지수(CI: Consistency Index)를 산출하여 응답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평가에서는 모든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일관성 지수(CI)가 0.000~0.002로 나타나, 계층분석 결과의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술한 분석 및 확인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가 아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1) 대분류 영역 간 비교

먼저, 개괄적인 수준에서 대분류 영역 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를 실시해보았다. 중요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가정환경, 가출경험)’의 중요도 지수가 0.270으로 가장 높았고, ‘심리·정서적 특성 및 행동’(0.269), ‘(성)폭력 피해 경험’(0.261), ‘일상 생활 경험’(0.200)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가정환경, 가출경험)’과 ‘심리·정서적 특성 및 행동’은 중요도 지수가 유사한 수준으로 도출되었는데, 이 두 요인이 나머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도출된 쌍대비교의 신뢰성과 응답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산출한 일관성지수(CI)는 0.000으로 나타나, 매우 양호하게 쌍대비교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표 V-29 대분류 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단위: 중요도(순위))

구분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일상생활 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	심리·정서적 특성 및 행동	CI
중요도	0.270 (1)	0.200 (4)	0.261 (3)	0.269 (2)	0.000

(2) 중분류 영역 간 비교

① 가정 내 경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다음으로, 각각의 대분류 영역에 속한 중분류 영역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비교를 실시하였다. 먼저, ‘가정 내 경험’ 영역에 관한 비교 결과, ‘가정폭력·학대·방임 경험’(0.382), ‘가정 내 분위기(가정불화)’(0.317), ‘부모-자녀 관계’(0.301) 순으로 중요도가 산출되었다. 가정 내 경험 영역에서는 ‘가정폭력·학대·방임 경험’이 나머지 두 개의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30 가정 내 경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단위: 중요도(순위))

구분	가정폭력·학대·방임 경험	부모-자녀 관계	가정 내 분위기(가정불화)	CI
중요도 (우선순위)	0.382 (1)	0.301 (3)	0.317 (2)	0.000

② 가정 밖 경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가정 밖 경험’ 영역에 포함된 세부주제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결과, ‘가출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경험 및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0.355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고, ‘가정 밖 경험(가출 경험)’이 0.352로 대동소이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헬퍼’접촉 및 피해 경험’은 0.293으로, 여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 지수를 나타냈다.

표 V-31 가정 밖 경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단위: 중요도(순위))

구분	가정 밖 경험 (가출 경험)	‘헬퍼’ 접촉 및 피해 경험	가출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경험 및 필요한 지원 서비스	CI
중요도 (우선순위)	0.352 (2)	0.293 (3)	0.355 (1)	0.002

③ 일상생활 경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내용에 포함될 다양한 일상생활 관련 주제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성(性) 경험’이 0.220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로 평가되었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유해 약물 이용 경험’이 각각 0.203으로 동일 지수를 나타냈다.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이 0.202로 그 뒤를 이었으며, ‘아르바이트/근로 경험’은 0.172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표 V-32 일상생활 경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단위: 중요도(순위))

구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	아르바이트/근 로 경험	유해 약물 이용 경험	도박 (돈내기 게임) 경험	성 경험	CI
중요도 (우선순위)	0.203 (3)	0.172 (5)	0.203 (2)	0.202 (4)	0.220 (1)	0.000

④ 폭력 피해 경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폭력 피해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 주제의 상대적인 중요도 평가 결과,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이 0.261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 지수를 나타냈고, ‘성폭력 피해 경험(스토킹, 성희롱, 성폭행 포함)’이 0.256, ‘폭력 피해 경험(폭언, 폭행, 따돌림 포함)’이 0.25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건만남 경험’의 중요도 지수는 0.234로 여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33 폭력 피해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단위: 중요도(순위))

구분	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조건만남 경험	CI
중요도 (우선순위)	0.250 (3)	0.256 (2)	0.261 (1)	0.234 (4)	0.000

⑤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표 V-34〉에는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에 포함된 세부주제 및 항목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체계’(0.187)와 ‘자해·자살시도 경험’(0.186)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자존감/자기통제력’(0.169), ‘타인에 대한 이해/갈등해결능력’(0.160), ‘삶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만족도’(0.158), ‘은둔형 외톨이 성향’(0.141)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다.

표 V-34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단위: 중요도(순위))

구분	자존감/ 자기통제력	타인에 대한 이해/ 갈등해결능력	삶에 대한 인식/ 주관적 만족 도	은둔형 외톨이 성향	사회적 지지 체계	자해/자살 시도 경험	CI
중요도 (우선순위)	0.169 (3)	0.160 (4)	0.158 (5)	0.141 (6)	0.187 (1)	0.186 (2)	0.001

⑥ 정책적 수요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마지막으로, 정책적 수요 영역에 포함된 세부주제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에서는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0.346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 지수를 나타냈고,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0.33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이용 시 도움 정도’(0.319) 순으로 파악되었다.

표 V-35 정책적 수요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비교

(단위: 중요도(순위))

구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	CI
중요도 (우선순위)	0.319 (3)	0.346 (1)	0.334 (2)	0.000

(3) 전체 세부주제 간 중요도 및 우선순위 종합

앞서 개별 영역별로 세부주제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평가해보았다. 다만 이처럼 개별 영역별로 실시한 비교 결과는 해당 영역 안에서 어떠한 세부주제가 더 중요한지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전체 조사내용 안에서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앞서 각 영역별로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된 조사영역과 세부주제 전체를 대상으로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가 <표 V-36>에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전체 우선순위를 산출하는 데는 AHP 분석결과를 활용해 복합가중치를 고려하였다. 복합가중치 계산은 대분류 가중치와 중분류 각 항목의 가중치를 곱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산출하는 방식(A)과, 중분류 각 항목의 수가 대분류 영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여 각 중분류 항목의 가중치를 Z점수로 표준화 한 뒤, 여기에 대분류 가중치를 곱해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방식(B)을 모두 적용하였다.

먼저, 중분류 항목의 개수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된 복합가중치(A)를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 결과를 검토해보면, 상위 1~5위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이 0.067로 1순위로 도출되었고, 성폭력 피해 경험(0.067), 폭력 피해 경험(0.065), 조건만남 경험(0.061), 가정폭력·학대·방임 경험(0.052) 각각 2~5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전반적으로 성범죄 피해가 중요 영역으로 고려되었고, 위기의 전조이자 원인이 되는 가정폭력·학대·방임 피해도 중요하게 간주됨을 알 수 있다.

반면 하위에 배치된 주제들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근로 경험이 0.034로 가장 낮은 21위를 차지했고, 은둔형 외톨이 성향(0.038) 20위, ‘헬퍼’접촉 및 피해 경험(0.040) 19위,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0.040)이 18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0.041), 유해 약물 이용 경험(0.041)이 공동 17위로 산출되었다.

B열에는 각 중분류 안에서 평가한 항목의 수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준화 방식을 적용해 별도로 산출한 복합가중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B열에 제시된 결과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주제를 살펴보면, 사회적지지 체계(0.306)가 1위, 자해·자살 시도 경험(0.291) 2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0.239) 3위, 성 경험(0.230) 4위, 가정폭력·학대·방임 경험(0.153)이 5위로 도출되었다. 하위 5개 주제로는 은둔형 외톨이 성향(-0.392)이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조건만남 경험(-0.362), 아르바이트/근로 경험, ‘헬퍼’접촉 및 피해 경험, 삶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후순위를 차지하였다.

표 V-3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

대분류	중분류		중분류 내 비교		대분류 내 비교(A)		대분류 내 비교(B)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0.270)	가정 내 경험 (0.135)	가정폭력·학대· 방임 경험	0.382	1	0.052	5	0.153	5
		부모-자녀 관계	0.301	3	0.041	15	-0.102	15
		가정 내 분위기	0.317	2	0.043	13	-0.051	14
	가정 밖 경험 (0.135)	가정 밖(가출) 경험	0.352	2	0.048	9	0.072	8
		‘헬퍼’ 접촉 및 피해 경험	0.293	3	0.040	19	-0.156	18
		가출 청소년 지원기 관 이용 경험 및 지 원서비스 수요	0.355	1	0.048	8	0.084	7
일상 생활 경험 (0.200)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		0.203	3	0.041	16	0.035	9
	아르바이트/근로 경험		0.172	5	0.034	21	-0.323	19
	유해 약물 이용 경험		0.203	2	0.041	16	0.035	10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0.202	4	0.040	18	0.023	12
	성 경험		0.220	1	0.044	11	0.230	4
폭력 피해 경험 (0.261)	폭력 피해 경험		0.250	3	0.065	3	-0.006	13
	성폭력 피해 경험		0.256	2	0.067	2	0.128	6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0.261	1	0.068	1	0.239	3
	조건만남 경험		0.234	4	0.061	4	-0.362	20
심리· 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0.269)	자존감/자기통제력		0.169	3	0.045	10	0.033	11
	타인에 대한 이해/ 갈등해결 역량		0.160	4	0.043	12	-0.104	16
	삶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만족도		0.158	5	0.043	14	-0.134	17
	은둔형 외톨이 성향		0.141	6	0.038	20	-0.392	21
	사회적지지 체계		0.187	1	0.050	6	0.306	1
	자해자살 시도 경험		0.186	2	0.050	7	0.291	2

6. 조사전문가 검토

다음으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실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영역, 조사항목 및 예비문항에 대한 검토를 거쳤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는 그 특성 상 조사내용에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응답자로부터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 및 조사내용의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 ‘소년원·보호관찰소 수용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수의 실태조사 실사를 경험한 조사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내용에 대한 검토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조사표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응답자의 응답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조사표 전반에 걸친 조사영역 위치의 변경이었다. 기존 내용구성(안)에서는 위기의 발생 순서에 대한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특히 가정환경 및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제시되었고, 다양한 위기 경험에 대한 질문을 순차적으로 제시한 뒤, 심리·정서적 특성을 묻는 문항이 후반부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전문가 검토 결과, 민감한 내용을 묻는 문항이 먼저 제시된 이후 심리·정서적 특성을 묻게 되면 응답이 오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리·정서적 특성을 조사표의 초입에 배치하고, 세부주제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조사표 위치를 재배치하였다. 또한 위기청소년 대상 조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문항의 수가 과다하여 조사집중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특히 음주, 흡연, 유해약물 이용 경험에서 유사한 구조(경험 여부, 획득 경로, 획득 시 나이확인 여부 등)가 반복되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연구진 협의 과정에서 해당 문항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가 다른 조사로 대체불가능한지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득실을 고려한

뒤, 약물 획득 경로, 획득 과정에서의 나이확인 여부 등의 문항은 삭제하였다.

〈표 V-37〉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정한 조사표 영역 재배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V-37 조사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한 조사표 영역 재배치

순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1	가정 내 경험	심리적 특성	• 여타 영역 응답으로 인한 응답 오염 가능성 고려(예: 심리적 특성)
2	가정 밖(가출) 경험	가정 내 경험	
3	유해 약물 이용 경험	가정 밖(가출) 경험	
4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게임 과몰입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게임 과몰입	• 민감한 내용 후반부 배치(예: 성폭력 피해 등)
5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6	아르바이트/근로 경험	아르바이트/근로 경험	
7	성 경험	유해 약물 이용 경험	• 유사 계열은 인접 배치(예: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및 디지털 성범죄 인접 배치 등)
8	폭력 피해 경험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9	성폭력 피해 경험	폭력 피해 경험	
10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	
11	심리적 특성	성 경험	
12	자해/자살 시도 경험	자해/자살 시도 경험	
13	희망하는 지원 방안	희망하는 지원 방안	
14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그리고 〈표 V-38〉에는 조사전문가 검토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검토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방안이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표 V-38 조사전문가 검토 의견 및 반영 방안

영역	검토 의견	반영 방안
공통	• [조사영역 배치 변경] 다른 설문 내용으로 인해 심리적 특성 응답이 오염되지 않도록, 심리적 특성을 앞부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내용 유사성을 고려하여 배치를 조정하고, 민감한 문항을 후반부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응답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당 문항을 앞부분에 배치하고, 내용의 유사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영역을 재배치함.

영역		검토 의견	반영 방안
		• ‘모두’ 선택하는 중복응답의 경우에는 ‘주된’, ‘주요’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응답자 혼란을 줄임.	• 모두 선택하는 중복응답 문항에 대해서는 ‘주된’, ‘주요’, ‘가장’ 등의 표현을 일괄 삭제함.
		• 문항 응답이 단순응답인지 복수응답인지 명료하지 않은 문항에 대해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	• 복수응답을 허용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을 표기하기고, 나머지는 단순응답임을 분명히 표기
		• 전체적으로 설문의 길이가 길고, 일부 영역(폭력 경험, 성폭력 경험, 음주/흡연/약물 이용 경험 등)의 경우, 동일한 질문 형태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질문에 대한 집중도가 저하됨.	• 음주/흡연/약물 이용 경험 중에서 이용 경로, 나이확인 여부 등을 묻는 문항은 삭제하고, 현재 이용 여부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문항을 축소함.
가정 안팎 생활 경험	가정 내 경험	• 가정폭력·학대 피해 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선택지에서, ‘어른이 신고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의 의미가 모호함. •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비롯해 교육 관련 문항이 영역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하나의 문항으로 묶는 방안 고려 필요	• 선택지의 취지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알리지 말라는 압박을 받아서’로 표현을 수정함. • 예방 교육 관련 문항을 모두 하나로 묶는 것은 내용의 흐름 상 어색하기 때문에 해당 영역 말미에 배치하는 것으로 유지함.
	가정 밖 경험	• 가출 생애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지금까지’의 의미를 좀 더 명료히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생애 최초 가출 연령을 묻는 문항의 표현을 좀 더 명료하게 수정할 필요	•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로 표현을 수정함. • ‘집을 처음 나왔을 때’를 ‘처음 가출했을 때’로 수정함.
일상 생활 경험	유해 약물 이용 경험	• 음주, 흡연, 유해약물 이용 관련, 유사 구조가 반복되어 응답 집중도가 저하될 우려	• 획득경로, 구입 시 나이를 확인했는지 여부 문항은 삭제하고, 약물 유형별 이용률만 파악하기로 함.
	게임 과의존	• 게임을 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의 선택지 가운데, ‘게임친구’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냥 ‘친구’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 게임을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게임에서 이기거나 레벨업 할 때의 기분이 좋아서’ 선택지와 ‘경쟁하는 재미가 있어서’ 선택지 상호 배타성 고려	• ‘게임친구와 어울리고 싶어서’를 ‘친구와 어울리고 싶어서’로 수정함. • 양자는 타인과의 경쟁을 전제로 하느냐를 고려하면 상호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도박	• 돈내기 게임을 하는 이유는 ‘모두’선택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지난 3개월 간 돈내기 게임에 사용한 돈의 총액을 기입하는 문항은 현실적으로 정확한 결과값을 얻기 어려워보임.	• ‘모두 선택’으로 응답 방식 변경 • 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을 위해, 3개월 간 돈내기 게임에 사용한 비용 총액 문항은 삭제함.

영역		검토 의견	반영 방안
	아르바이트 경험	•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아르바이트 시점을 고려하여 문항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줄 필요가 있음. •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은 1개만 선택하도록 단순응답을 한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배달 아르바이트 방식 관련하여,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질문 순서 변경 필요(조사표 디자인 작업의 용이성 관련)	•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를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하고 있는 이유’로 표현을 구체화 함. • 주된 아르바이트 업종 1개만 선택하도록 강조하여 표기 • 배달 아르바이트 방식에 대한 선택지 위치 변경
폭력 피해 경험	조건 만남 경험	• 조건만남을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선택지의 배타성 검토 필요 • 조건만남을 하는 방법을 묻는 문항의 선택지에서 ‘거리 등에서 만남’의 표현 모호 • 조건만남을 그만두게 된 보호요인을 묻는 문항의 선택지를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좀 더 명료화할 필요가 있음.	• ‘모두 선택’을 허용하는 중복응답 문항이기 때문에, 다소 배타적이지 않은 선택지도 현행 유지하기로 함. • ‘거리 등에서 만남’을 ‘술집, 거리 등에서 만남’으로 구체화 함. • 조건만남을 그만두게 된 보호요인을 묻는 문항의 선택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 ‘가족의 도움으로’는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으로’로 수정 - ‘친구의 도움으로’는 ‘친구나 선후배의 도움으로’로 수정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묻는 문항의 선택지 중에서 ‘온라인을 통해 아는 사람’, ‘온라인 상 교류가 없었던 모르는 사람’ 의미가 모호함.	• ‘온라인을 통해 아는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 ‘온라인 상 교류가 없었던 사람’은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으로 선택지 표현 수정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 은둔형 외톨이 성향을 묻는 문항에서 ‘학교에 등교하거나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의 의미가 모호함. •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바깥활동이 자제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답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지지체계를 묻는 문항의 선택지에서 ‘친구’ 외에 ‘선후배’ 추가 필요	• 해당 문항을 ‘밖에 나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던 적이 있다’로 문항취지를 살려 변경 • 부연설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자가격리를 위해 집에 머물거나..(하락)” 설명을 추가함. • 해당 선택지를 ‘친구/선후배’로 수정함.
일반적 특성		• 진로계획을 묻는 문항의 선택지에서, 응답자 편의를 위해 예시를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됨. 다만, 기타 항목에서는 예시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진로계획을 묻는 문항의 선택지에 해당 선택지를 설명하는 예시를 추가하고, 기타에서는 예시를 삭제함.

7. 기타: 관계부처 및 청소년 당사자 검토

마지막으로, 조사내용이 반영된 조사표(안)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비조사 실시 전 표현의 난이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당사자의 검토를 거쳤다.

(1) 관계부처 검토 및 의견수렴

먼저, 관계부처 검토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내 위기청소년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사설계 방향과 원칙, 기준을 공유하고, 구체적으로 개발된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 예비문항에 대해 제3차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의견 및 반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V-39 관계부처 검토 의견 및 반영 방안

영역	검토 의견	반영 방안
가정 밖(가출) 경험	가출청소년 경험 관련, ‘헬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등으로 우회적 표현을 하기보다는 해당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명료함.	부정적 학습효과를 우려하여 ‘헬퍼’ 용어를 우회적으로 표현하였으나, 문항의 명료성 확보 및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 해당 용어를 표기함.
성 경험	위기청소년 중에는 피임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됨. 설문 응답 과정의 긍정적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성 경험 영역 중 피임 여부를 묻는 문항 하단에 ‘피임 방법’에 대한 정보를 추가 제공할 필요가 있음.	성 경험 중 피임 여부를 묻는 문항 하단에 부연설명으로 “피임의 정의 및 다양한 피임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성폭력 피해 경험	조건만남은 내용 상 가출 경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정책적 접근을 고려하여 성폭력 피해 경험 영역에 배치를 고정해주기 바람.	조건만남 관련 문항은 ‘성폭력 피해 경험’ 영역 배치를 유지함.
정책적 수요/	위기청소년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영역	검토 의견	반영 방안
지원 방안 관련	포착할 수 있는 문항 및 선택지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문항의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함', '지낼 곳을 찾기가 어려움', '일을 구하기 어려움' 등 구체적 선택지를 포함함. 또한 선택지에 없는 내용은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기타 항목을 포함함.
기타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 관점에 따라 현재 조사항목과 문항에는 범죄 피해 경험에 대한 문항은 거의 부재함. 위기 상황이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 관련 내용 파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범죄 피해 경험을 상세히 묻는 것은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 관점과 부합하지 않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되는 본 조사의 방식을 고려했을 때 솔직한 응답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반면 그로 인해 다른 응답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범죄 피해 경험의 문항을 보강하지는 않기로 함. - 다만 음주로 인한 비행/범죄 연루, 도박으로 인한 비행/범죄 연루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위기경험이 비행/범죄로 이어지는 기제를 파악할 수 있는 하위 문항을 추가함.

(2) 위기청소년 당사자 검토

다음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기청소년 대상 FGI를 통해 문항 및 단어 나 표현의 난이도, 응답 소요 시간, 이동 로직의 이해도, 전반적인 조사에 대한 부담감 등을 사전 점검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주요 의견과 그 반영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40 위기청소년 당사자 검토의견 및 반영 방안

영역	검토 의견	반영 방안
가정 내 경험	가정폭력·학대·방임 피해 경험을 주위에 알리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 관련, 선택지 중에서 '어른이 신고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의미가 모호함.	선택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알리지 말라는 압박을 받아서'로 표현 수정

영역	검토 의견	반영 방안
가정 밖 경험	- 가출 이유를 묻는 질문의 응답 방식 관련, 1-2순위를 선택하기보다는 '모두' 응답하는 방식이 청소년들이 응답하기에 편리할 것 같음. - 가출 이유에 대한 선택지 중에서 4번, 5번은 가출이유라기보다는 학교부적응 이유로 느껴짐.	- 가출 이유를 묻는 문항의 응답 방식을 우선순위에 따라 '모두' 응답하는 방식으로 수정 변경함. - 가출 이유 중 4번, 5번은 학교와 관련한 이유이나, 선행연구에서 학교부적응도 가출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함.
	가출 이후 경험을 묻는 문항 가운데, '헬퍼'의 의미를 모르겠음.	'헬퍼' 관련 문항은 유경험자가 답을 하는 문항으로, 부정적 학습 효과 방지를 위해 부연설명은 추가하지 않기로 함.
	집을 나와서 지내는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점을 묻는 문항의 응답 방식으로 우선순위(1-3순위) 선택은 어려움.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함.	해당 문항의 응답 방식을 '모두' 선택하는 복수응답 방식으로 변경함.
	가출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버스 형태의 이동형 청소년쉼터'가 무엇인지 모르겠음.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거나 이용해본적이 있는 응답자가 답하는 구조이므로, 현행 유지함.
	가출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도움 정도를 묻는 문항의 경우, 직관적으로 이동로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디자인 변경이 요구됨.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답할 수 있도록 조사표 디자인을 변경함.
유해약물 이용 경험	주류 획득경로 선택지 가운데, '성인이 줬다'의 의미가 모호함.	문항의 실익을 고려하여, 해당 문항은 삭제함('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일반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응답값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므로, 위기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할 실익이 크지 않음)
도박 (돈내기 게임) 경험	도박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된 '돈내기 게임'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음. '도박' 용어가 친숙함.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염두에 둔 문항으로, 기존 조사와의 표현 일치를 위해 현행 유지함.
	경험해 본 돈내기 게임의 종류를 묻는 문항에서 선택지가 많아서 답하기 어려움.	'모두 선택'하는 문항이므로 현행 유지하고, 예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본 조사 시 수정여부를 결정함.
	돈내기 게임에 사용한 비용의 총액을 묻는 문항은 솔직하게 응답하기 어려워 보임.	응답의 난이도 및 응답 결과의 신뢰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문항은 삭제함.
아르바이트 경험	배달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위탁계약서, 공유오더수행서약서 등의 용어가 무	해당 문항에 '잘 모르겠다'는 선택지를 반영함.

영역	검토 의견	반영 방안
	손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폭력 피해 경험	•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를 묻는 문항은 우선순위 선택보다는 '모두' 선택하는 방식이 현실적임.	• 조건만남 사유를 묻는 문항의 응답 방식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로를 묻는 문항 관련, 단순응답이 어려움.	• 해당 문항의 응답 방식을 '모두' 선택하는 복수응답으로 변경함.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묻는 문항의 선택지 가운데, '온라인 상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의미가 모호함.	• 해당 선택지를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으로 수정함.
심리· 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 은둔형 외톨이 성향을 묻는 문항에서 '외출하지 않고'의 의미가 모호함.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문항취지에 부합함.	• 해당 문항의 표현을 "밖에 나가거나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로 수정함.
	• 자해/자살 시도 경험 관련, "자해(또는 자살 시도)를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다"에서 '심각하게'의 표현이 모호함. 이 표현으로 인해 응답이 어려워짐.	• '심각하게' 부사를 삭제하고, 자해 혹은 자살 시도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문항을 명료화하여 수정함.
	• 자해 방식을 묻는 문항은 응답자가 심리적으로 응답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큼.	• 응답자의 심리적 부담 감감 및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해 방식에 관한 문항은 삭제함.
일반적 특성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묻는 문항의 경우, 응답자 가정이 수급자에 해당하더라도 청소년 본인은 모를 가능성이 있음.	• 예비조사 조사표에는 현행 유지하고, 예비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문항의 유지 여부를 결정함.

8. 조사내용 설계(안)의 도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설계 목적, 고려해야 할 쟁점, 설계의 기준을 바탕으로, 1단계 및 2단계 전문가 FGI, 조사 분야 전문가 심층 검토, 전문가 대상 내용타당도 및 중요도 우선순위 평가, 관계부처 및 위기청소년 당사자 검토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도출된 조사내용 설계(안)의 구성이 <표 V-41>에 제시되어 있다. 해당 문항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 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조사표(안)]에 제시되어 있다.

표 V-41 조사내용 설계(안)의 구성, 문항번호 및 작성 출처

대영역	세부주제	조사항목	문항번호	출처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가정 내 경험	• 부모-자녀 관계	문4-1)~3)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김지연 외, 2020)」 부모와의 관계 문항 중 일부 문항 발췌
		• 가정 내 분위기(가정불화)	문5-1)~3)	•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9)」 부모-자녀 간 발생 행동에 대한 문항을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 가정폭력·학대 경험 여부 및 빈도	문6-1)~2)	•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9)」 문항을 사용 하되, 선택지 수정·보완
		• 가정폭력·학대 대응 방법	문6-1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김지연 외, 2020)」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 대응하지 않은 이유	문6-2	
		• 대응의 도움 정도	문6-3	
		• 방임 경험	문4-4)~6)	•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9)」
		• 아동학대(가정폭력)에 방 또는 대처 방법에 관한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문7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한 경 실태조사(김지연 외, 2020)」 문항을 참조하여, 아동학대(가정폭력) 내용에 맞게 연구진 작성
	가정 밖(가출) 경험	• 가출 생애경험 및 최근 1년 간 경험 여부 및 빈도	문8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한 경 실태조사(김지연 외, 2020)」. 단, 생애 경험은 연구진 작성
		• 최초 가출 연령	문8-1	• 연구진 작성
		• 가출 이유	문8-2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김희진 외, 2018)」
		• 최장 가출 기간	문8-3	• 연구진 작성
		• 가출 후 주로 지낸 장소	문8-4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김희진 외, 2018)」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 가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문8-5	• 「2019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박준휘 외, 2019)」
		• 가출 시 주된 어려움	문8-6	• 「2019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박준휘 외, 2019)」

대영역	세부주제	조사항목	문항번호	출처
		•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	문8-7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김희진 외, 2018)」 및 전문가 FGI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 ‘헬퍼’ 접촉 경험	문8-8	• 전문가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 ‘헬퍼’ 접촉 경로	문8-8-1	• 전문가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 ‘헬퍼’와 생활한 경험 및 그 이유	문8-9, 문8-9-1	• 전문가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 ‘헬퍼’로 인한 피해 경험	문8-9-2	• 전문가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 가출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문9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김희진 외, 2018)」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
		• 심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문9-1	• 전문가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일상 생활 경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 스마트폰 과의존	문10	•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a)」
		• 게임 이용 여부 및 과몰입 수준	문11 문11-1	• 「2019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 조사(김소아 외, 2020)」
		•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문13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김지연 외, 2020)」
	아르바이트 경험	•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문14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김지연 외, 2020)」
		•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문14-1	
		• 아르바이트 업종	문14-2	
		•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	문14-3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문14-4	
		•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근로 방식	문15	
		•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문15-1	

대영역	세부주제	조사항목	문항번호	출처
		시 관련 서류 작성 여부		
		• 아르바이트 시 경험한 어려움 및 부당행위	문16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김지연 외, 2020)」 중 일부 문항 발췌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근로 경험 여부	문17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김지연 외, 2020)」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을 한 이유	문17-1	• 연구진 작성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근로 시 나이 확인 여부	문17-2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김지연 외, 2020)」
		• 근로권익(노동인권)교육 경험 여부	문18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김지연 외, 2020)」
	유해약물 이용 경험	• 흡연 여부 및 종류	문19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김지연 외, 2020)」
		• 음주 여부	문20	
		• 환각성 물질 이용 여부	문21	
		• 약물 유해성 관련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문22	
		• 유해약물 이용 관련 비행범죄 경험	문23	• 전문가FGI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도박 (돈내기 게임) 경험	• 돈내기 게임 경험(생애경험, 최근 3개월 간 경험)	문24	•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20)」 조사표(안)을 토대로, 일부 문항은 연구진이 수정·보완
		• 최근 3개월 간 이용한 돈내기 게임 종류	문25	
		• 돈내기 게임 접촉 경로	문25-1	
		• 돈내기 게임 빈도	문25-2	
		• 돈내기 게임을 하는 이유	문25-3	
		• 돈내기 게임을 함께하는 사람	문25-4	
		• 돈내기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	문25-5	• 전문가FGI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 돈내기 게임으로 인한 채무 액수	문25-5-1	• 전문가FGI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대영역	세부주제	조사항목	문항번호	출처
(성) 폭력 피해 경험	성 경험	• 도박 문제 예방 교육 경험 여부	문26	• 「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20)」 조사표(안)
		• 성관계 경험 여부	문31	•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 최초 성관계 경험 연령	문31-1	• 연구진 작성
		• 성관계 시 피임 여부	문31-2	•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폭력 피해 경험	•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여부	문27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김지연 외, 2020)」 폭력 피해 영역 문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 - 문27-7)은 전문가 FGI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진 작성
		• 피해를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	문27-1 문27-1-1	
		• 피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그 이유	문27-1-2	
		• 지원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및 도움을 받은 기관	문27-2 문27-2-1	
	성폭력 피해 경험	• 성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여부	문28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성폭력 피해 영역 문항 중, 온라인 성폭력 문항을 제외한 여타 문항을 사용(일부 내용은 위기청소년에 맞게 수정·보완) - 문28-1의 ③은 연구진 추가
		• 성폭력 피해의 가해자	문28-1	
		• 피해를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	문28-2 문28-2-1	
		• 피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그 이유	문28-2-2	
		• 지원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및 도움을 받은 기관	문28-3 문28-3-1	
	조건 만남 경험	• 조건만남 제안을 받은 경험 여부	문29	• 연구진 작성
		• 조건만남 경험 여부	문30	• 「2019 성매매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박준휘 외, 2019)」(일부 문항 및 선택지는 연구진 수정·보완)
		• 조건만남 최초 경험 시기	문30-1	
		•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	문30-2	

대영역	세부주제	조사항목	문항번호	출처
		• 조건만남 경로	문30-3	
		• 채팅앱/랜덤채팅앱 이용 시, 성인인증 여부	문30-3-1	
		• 조건만남으로 인한 피해	문30-4	
		• 피해에 대한 도움 요청 여부 및 그 대상	문30-4-1	
		•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문30-4-2	
		• 조건만남을 스스로 그만두려고 노력한 경험 및 도움을 준 대상	문30-5 문30-5-1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 여부	문12	•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김경희 외, 2019)」 조사표 문항을 사용하되, 일부 문항은 수정·보완
		•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로	문12-1	
		• 디지털 성범죄의 주된 가해자	문12-2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 방법	문12-3	
		•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문12-3-1	
	교육경험	• 학교폭력 예방,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매매 예방 및 성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문32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김지연 외, 2020)」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심리·정서적 특성	• 자존감	문1-1)~4)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지(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 2020.01)」
		• 타인에 대한 이해	문1-5)~8)	
		• 사회적 철회(위축)	문1-9)~12)	•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 개발연구」(양미진 외, 2007)
		• 자기통제력	문1-13)~17)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지(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 2020.01)」

대영역	세부주제	조사항목	문항번호	출처
		• 갈등해결역량	문1-18)~20)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 IEA ICCS 2016(성은모 외, 2014)」
		• 삶에 대한 인식	문1-21)~22)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치유 프로그램 평가 및 성과 지표 개발(신성만 외, 2017)」, 회복탄력성/사회적 기술 문항을 연구진이 수정보완
		• 건강 상태	문1-23)~24)	• 연구진 작성
		• 은둔형 외톨이 성향	문2-1)	• 전문가 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 우울	문2-2)	•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 사회적 지지체계	문3, 문3-1	• 전문가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자해 경험	• 자해 생각 및 시도 경험과 빈도	문33	•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수정·보완
		• 자해를 하게 된 이유	문33-1	• 전문가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 자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	문33-2	• 전문가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	문33-2-1	• 전문가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경험	문33-3	• 전문가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 자해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한 경험	문33-4	• 전문가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 자해를 그만둔 요인	문33-4-1	• 전문가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자살	• 자살 생각 및 시도	문34	•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

대영역	세부주제	조사항목	문항번호	출처
	시도 경험	경험과 빈도		행태조사(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수정·보완
		• 자살 시도를 하게 된 이유	문34-1	• 전문가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 자살 시도 사실을 주변에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	문34-2	• 전문가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	문34-2-1	• 전문가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경험	문34-3	• 전문가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 자살 시도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한 경험	문34-4	• 전문가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 자살시도를 그만둔 요인	문34-4-1	• 전문가FGI내용을 반영하여 연구진 작성
정책적 수요		• 위기청소년 대상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문35	•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된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김지연 외, 2020)」 문항을 위기청소년 전반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
		• 위기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문36	•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윤철경 외, 2018)」를 수정·보완
		•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	문37	•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윤철경 외, 2018)」를 수정·보완
일반적 특성		• 성별	배문1	• 연구진 작성
		• 연령	배문2	• 연구진 작성
		• 학교 재학 여부	배문3	• 연구진 작성
		• 학업중단 경험 여부 및 중단 사유	배문4 배문4-1	•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윤철경 외, 2018)」
		• 향후 진로 계획	배문5	•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

대영역	세부주제	조사항목	문항번호	출처
				사(윤철경 외, 2018)」
		• 지난 1년 간 건강검진 여부	배문6	•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류정희 외, 2019)」
		• 가족구조	배문7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김지연 외, 2020)」
		• 부모님 및 본인의 국적	배문8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김지연 외, 2020)」
		• 빈곤 여부	배문9	• 연구진 작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 틀(frame)로, 실태 파악, 기존 정책 점검, 신규정책 수요 파악, 보호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표 V-42>에는 이 장에서 도출된 조사내용(안)을 제시된 틀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영역과 세부 주제별로 핵심적인 위기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기존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를 점검한 다음, 신규 정책 수요 파악 및 보호요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조사내용이 배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42 조사내용 설계의 기본 틀에 따른 조사항목 분포

대영역	세부 주제	실태 파악 (위기요인/위기행동)	기존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신규정책 수요 파악	보충요인 (대응역량)
가정 인파의 생활 경험	가정 내 경험	- 부모-자녀 관계 - 가정 내 분위기(가정불화) - 방임 경험 - 가정폭력·학대 경험 여부 및 빈도	- 가정폭력·학대 대응 방법 - 가정폭력·학대 대응의 도움 정도	가정폭력·학대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교육 또는 대처방법에 관한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가정 밖 경험	- 가출 생애 경험 및 최근 1년간 경험 여부 및 빈도 - 최초 가출 연령 - 가출 이유/ 최장 가출 기간 - 가출 후 주로 지낸 장소 '헬퍼'로 인한 피해 경험	- 가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 가출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가출 시 주된 어려움 -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 '헬퍼' 접촉 경험 및 접촉 경로 '헬퍼'와 생활한 경험 및 그 이유	
일상 생활 경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 게임 이용 여부 및 과몰입 수준	-	-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아르바이트 경험	-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및 이유 - 아르바이트 업종, 근무 기간 - 아르바이트 시 경험한 어려움 및 부담행위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근로 경험 여부 및 근로 이유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근로 시 나이 확인 여부	-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근로 방식 -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시 관련 서류 작성 여부	근로권익(노동인권) 교육 경험 여부
	유해약물 이용 경험	- 흡연 여부 및 종류 - 음주 여부 - 화각성 물질 이용 여부	-	유해약물 이용 관련 비행/범죄 경험	약물 유해성 관련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대영역	세부 주제	실태 파악 (위기요인/위기행동)	기존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신규정책 수요 파악	보호요인 (대응역량)
(성) 폭력 피해 경험	도박 (돈내기 게임) 경험	-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및 빈도 - 도박(돈내기 게임)을 하는 이유 - 최근 3개월 간 이용한 돈내기 게임 종류	돈내기 게임 접촉 경로	- 돈내기 게임으로 인한 채무 액수 - 돈내기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	도박 문제 예방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성 경험	- 성관계 경험 여부 - 최초 성관계 경험 연령	-	-	- 성관계 시 피임 여부 - 성교육(임신, 피임, 출산, 성병 예방 등에 관한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폭력피해 경험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여부	- 피해를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 - 지원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및 도움을 받은 기관	피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그 이유	학교폭력 예방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성폭력 피해 경험	- 성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여부 - 성폭력 가해자	- 피해를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 - 지원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및 도움을 받은 기관	피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조건만남 경험	- 조건만남 제안을 받은 경험 여부 - 조건만남 경험 여부 - 조건만남 최초 경험 시기 -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 - 조건만남으로 인한 피해	- 채팅앱/랜덤채팅앱 이용 시 성인 인증 여부 - 조건만남 피해에 대한 도움 요청 여부 및 그 대상	- 조건만남 경로 - 조건만남 피해 경험 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 조건만남을 스스로 그만두려고 노력한 경험 및 도움을 준 대상 - 성매매 예방 교육 경험 및 도움 정도
	디지털 성범죄 경험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 여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 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대영역	세부 주제	실태 파악 (위기요인/위기행동)	기존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신규정책 수요 파악	보호요인 (대응역량)
심리 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피해 경험	디지털 성범죄 주된 가해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정도
	심리 정서적 특성	- 사회적 철폐(위축) - 우울 - 타인에 대한 이해 - 자기통제력 - 갈등해결역량	-	은둔형 외톨이 성향	- 자존감 - 삶에 대한 인식 - 건강 상태 - 사회적 지지체계
	자해 경험	- 자해 생각 및 시도 경험/빈도 - 자해를 하게 된 이유	- 자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 -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경험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	- 자해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한 경험 - 자해를 그만두게 된 요인
	자살 경험	- 자살 생각 및 시도 경험/빈도 - 자살 시도를 하게 된 이유	- 자살 시도 사실을 주변에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 -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경험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	- 자살 시도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한 경험 - 자살 시도를 그만두게 된 요인
정책적 수요		-	위기청소년 대상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위기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	-



제Ⅵ장 위기청소년 실태 조사 예비조사 결과분석

- 1. 예비조사의 개요
- 2. 예비조사 설문조사 결과
- 3. 면담조사 결과
- 4. 소결

1. 예비조사의 개요

제V장에서 도출된 조사내용 설계(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설문조사를 주된 방법으로 하되, 면접조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두 가지 방법을 병용하였다.

1) 설문조사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조사표(안)의 타당성과 적절성, 조사가능성, 응답 부담 및 의미 있는 결과 산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도출된 내용설계 및 조사표(안)에 대한 개선사항은 본 장에 정리하였으며, 예비조사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 분석은 별권으로 작성된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1) 조사대상

예비조사는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주로 가출청소년 및 범죄·비행 연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을 주된 대상으로 선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 및 현장전문가 FGI 결과 이들이 공통적으로

26) 이 장의 1절, 2절, 4절은 황여정 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3절은 이정민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단, 1절의 '〈표 VI-1〉 예비조사 표본설계(안)'은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작성하였다.

우선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고위기 청소년이며, 다양한 종류의 위기를 중복 경험하는 복합위기군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주된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현실적인 조사가가능성을 고려하였다. 당초 예비조사 표본 설계 시에는 가출청소년 및 비행·범죄 연루 청소년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되, 이들 외에 가정폭력·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이용 고위기청소년 등을 일부 포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비조사 착수 시기에 COVID-19의 2단계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어(전국 2단계, 수도권 2.5단계 격상), 숙박이 가능한 생활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고, 생활시설의 경우에도 이용인원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조사환경을 고려하여 예비조사 조사대상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원,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치료시설 이용 청소년을 조사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목표 표본크기는 예산 규모와 조사기간을 고려하여 600명으로 설정하였으며, 표본 설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예비조사 표본을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해당 기관에 입소 경험이 있는 연간 실인원의 규모를 고려하되, 예비조사 조사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청소년쉼터 250명(41.7%), 청소년자립지원관 50명(8.3%), 청소년회복지원시설 50명(8.3%), 소년원 75명(12.5%), 보호관찰소 150명(25.0%), 보호치료시설 25명(4.2%) 등으로 표집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안)은 <표 VI-1>과 같다.

표 VI-1 예비조사 표본설계(안)

(단위: 개소, 명)

구분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 지원관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소년원		보호 관찰소		아동보호 치료시설		합계	
	기관 수	인원	기관 수	인원	기관 수	인원	기관 수	인원	기관 수	인원	기관 수	인원	기관 수	인원
서울	7	35	1	10	-	-	-	-	4	40	-	-	12	85
부산	4	20	-	-	-	-	1	15	-	-	-	-	5	35

구분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 지원관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소년원		보호 관찰소		아동보호 치료시설		합계	
	기관 수	인원	기관 수	인원	기관 수	인원	기관 수	인원	기관 수	인원	기관 수	인원	기관 수	인원
대구	2	10	-	-	-	-	1	15	-	-	-	-	3	25
인천	3	15	2	20	-	-	-	-	1	10	-	-	6	45
광주	2	10	-	-	1	10	1	15	-	-	-	-	4	35
대전	4	20	-	-	-	-	-	-	-	-	-	-	4	20
울산	3	15	-	-	1	10	-	-	-	-	-	-	4	25
세종	-	-	-	-	-	-	-	-	-	-	-	-	0	0
경기	12	60	3	20	-	-	1	15	4	40	1	15	21	150
강원	3	15	-	-	-	-	1	15	1	10	-	-	5	40
충북	2	10	-	-	-	-	-	-	-	-	-	-	2	10
충남	3	15	-	-	1	10	-	-	1	10	-	-	5	35
전북	1	5	-	-	-	-	-	-	2	20	-	-	3	25
전남	-	-	-	-	-	-	-	-	-	-	-	-	0	0
경북	1	5	-	-	-	-	-	-	-	-	-	-	1	5
경남	1	5	-	-	2	10	-	-	2	20	1	10	6	45
제주	2	10	-	-	1	10	-	-	-	-	-	-	3	20
합계	50	250	6	50	6	50	5	75	15	150	2	25	84	600

표집 시, 원표본 뿐만 아니라 원표본 거절 시 대체할 예비표본을 함께 선정하였다. 원표본 섭외 과정에서 거절이 발생할 경우, 대체표본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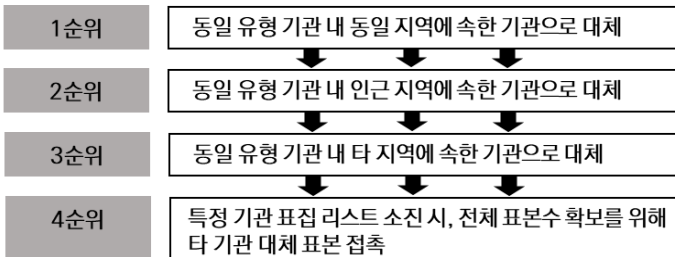


그림 VI-1 대체 표본 선정 기준

(2) 조사방법 및 절차

예비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로 추진되었다. 먼저, 조사방법은 비대면방식(우편조사)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의 특성 상, 조사원 방문을 통한 대면조사가 효과적이거나, 예비조사 기간 동안 COVID-19의 2단계 확산으로 외부인의 기관 방문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연구진은 조사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우편조사를 통한 비대면방식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조사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집기관 가운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이므로, 여성가족부 소관부서의 협조를 얻어, 조사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음으로,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관 시설이므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협조를 얻어,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협조공문 발송 후, 조사대상 기관에서 설문조사 담당자가 지정되면 실사기관에서 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안내한 후, 조사대상 기관의 편의를 고려하여 조사일정을 정한다. 그런 다음 조사지를 우편으로 배송하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회송받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10월 5일~2020년 11월 5일까지 약 5주 동안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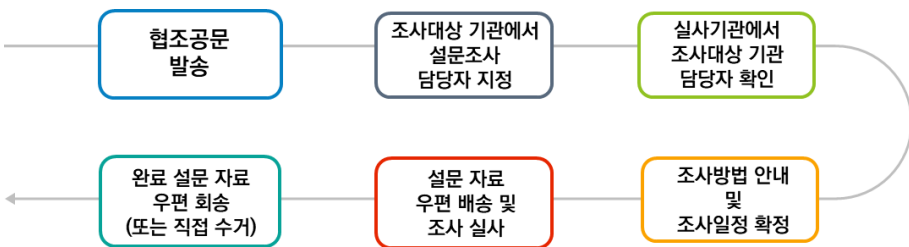


그림 VI-2 예비조사 실사 단계 및 방법

(3) 예비조사 설문지의 구성

예비조사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었다. 먼저, 전문 조사원을 통한 대면조사가 아닌 비대면조사로 진행되는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 조사내용 응답 이전과 이후 단계에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우선, 설문표지에 ‘진행 전 안내사항’으로 ‘연구참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에 대해 안내하였다. ‘연구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설문지에 합본으로 제작하여 응답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분실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표 VI-2 예비조사 설문지의 구성

단계	제시 순서	구분	내용
Ⅰ. 조사 문항 이전	1	• 진행 전 안내사항	• 설문지 표지에 눈에 띄도록 설문 시작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 표기
	2	• 연구 참여 동의서(청소년용)	• 자발적 참여의사를 묻는 ‘연구 참여 동의서’ 수록(2쪽)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성별, 출생연도, 가족구성, 출생국가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안내 및 동의서(2쪽)
	4	• 설문 응답 방법 상세 안내	• 단수응답, 복수응답 및 문항 이동 로직에 대한 설명 및 예시
	5	• 조사 목적 및 취지 안내(조사 Q&A)	• 예비조사의 목적과 취지, 응답 시 유의사항 및 제공 보상에 대한 정보 제공
Ⅱ. 조사 문항	6	• 조사 문항	• 조사내용 설계(안)에 따른 조사영역별 조사문항 - [영역별 제시 순서] 심리적 특성, 가정 내 경험, 가정 밖 경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유해약물 이용 경험, 도박 경험, 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 성 경험, 자해/자살 시도 경험, 정책적 수요 순서로 제시
Ⅲ. 조사 문항 이후	7	• 설문지 평가 문항	• 설문지 응답의 불편도, 난이도, 집중도, 응답 소요시간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객관식 문항 7개, 주관식 응답 2개로 구성된 9개 평가문항 별도 제시

다음으로, 본 조사표에 반영된 응답방법(로직이동 등)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제시하고,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Q&A 방식으로 조사 목적과 취지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1단계 전문가 FGI 결과, 다수의 현장 전문가들은 위기청소년 대상 조사에서 응답의 집중도와 성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사 취지와 목적에 대해 가급적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유효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예비조사 설문지에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조사 목적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청소년용)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설문지(간, 설문지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며, 주위 환경 청소년상담사(연구자)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설문지(간) 및 연구 참여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형태의 설문지(간)도 받을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할 모든 자료는 본인이 제공한 자료로 사용되며, 본인이 제공한 자료는 본인이 제공한 자료로 사용되며, 본인이 제공한 자료는 본인이 제공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3. 본인은 본인이 제공한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며, 본인이 제공한 자료는 본인이 제공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4. 본인은 본인이 제공한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며, 본인이 제공한 자료는 본인이 제공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 동의에 따라 '연구 참여'를 선택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동의합니다. (필수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 위기상황 발생 예방 및 지원 방안 마련 위한 연구 수행을 위한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연령, 성별, 거주지, 연락처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Q & A

Q : 어떤 무슨 조사인가요?

A :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Q : 이 조사는 왜 하는 건가요?

A : 설문지가 어렵지는 않으나, 기억할 수 없어서 대답하기 힘든 문항이 있습니다. 응답하기 불편한 설문지라는 사실도, 본인이 제공한 설문지가 잘 반영되었는지를 청소년 여러분에게 물어보기 위해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Q : 그럼 설문지에 응답한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건가요?

A : 네, 설문 응답도 중요하지만 설문지에 대한 행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설문지 어렵고, 불편한지 등, 설문지의 문제점을 잘 기록하셨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설문 평가'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Q : 이걸 하면 평가 보상이 있죠?

A : 설문지 설문 평가까지 성실하게 응답을 완료해주신다면, 감사의 의미로 문화상품권 5,000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아무거나 응답하거나, 1-2개 반응만 계속 응답하는 등, 설문지에 불응 상태에 해당할 경우, 보상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연구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사목적 및 취지 Q&A

그림 VI-3 예비조사 설문지의 구성 예시: 조사 안내 및 동의서

개발된 조사영역별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 후에는 설문지 전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여기에는 조사의 불편도, 난이도, 집중도, 설문응답을 도와주는 조사원의 필요성을 묻는 척도형 문항과 함께, 개방형 질문으로 응답이 어려웠던 문항, 수정·보완이 필요한 문항,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설문 전반에 관한 의견 등을 응답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 설문에 모두 응답하셨다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설문을 평가해주세요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설문 평가하기

05. 설문지에 문항이 없어서 대답하기 힘들거나 지루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보통이다 > > > > > 매우 그렇다

06. 설문지 구조가 복잡해서 대답하기 어려웠다.

전혀 아니다 < < < < < 보통이다 > > > > > 매우 그렇다

07. 이 설문을 할 때는 양에서 도와주는(담당 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보통이다 > > > > > 매우 필요하다

설문에 응답하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몇 분 정도 소요됐나요? 분

※ 설문에 모두 응답하셨다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설문을 평가해주세요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설문 평가하기

설문과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칸에 적어주세요 ☺
(응답하면서 이해했던 문항,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항, 설문 전반에 관한 의견 등)

※ 의견 작성 예시

문항 번호	수집/방향이 필요한 내용
1번	청소년 센터가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다, 센터가 무엇을 할까가 궁금하다
37번	37번 중립적 응답을 위해서 너무 길고 지루하다
37번	질문에 따라 대답하기가 어렵다

문항 번호 수집/방향이 필요한 내용

문까지 성실하게 응답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설문지 평가 문항 예시: 객관식

설문지 평가 문항 예시: 개방형

그림 VI-4 예비조사 설문지의 구성 예시: 설문지 평가 문항

2) 면담조사

설문조사로 진행되는 예비조사와는 별도로, 10명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표의 타당성과 적절성, 문항내용 등에 대해 별도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비대면조사로 실시되는 예비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면담조사는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위기유형을 고려하여 면담대상자를 선정했는데,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2인, ‘심리·정서 관련 고위기 청소년’ 4인은 FGI 방식으로 그룹으로 지어 함께 실시하였다. ‘가출 청소년’의 경우 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이들은 1:1 개별 심층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대면조사의 경우, 연구진 및 조사대상자 모두 감염예방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였다. 면담조사 개요는 <표 VI-3>에 제시되어 있다.

표 VI-3 위기청소년 대상 FGI

위기유형	참여인원	일시	방식	내용
가출 청소년	4인 (1:1면담으로 총 4회 실시)	2020.10.28.	전화면담	• 예비조사 조사표에 대한 문항 검토 • 문항 개선 의견 수렴
		2020.10.29.	전화면담	
		2020.10.31.	대면	
		2020.11.2	대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2인	2020.10.26	대면	
심리·정서 관련 고위기 청소년	4인	2020.11.1	대면	

3) 기타 : 연구윤리의 준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예비조사는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에 대해서는 기관생명윤리 위원회(IRB)의 심의를 받고, 설문지 및 면담조사 내용에 연구윤리상 문제가 없음을 최종 승인 받았다(IRB 승인번호 202009-HR-고유-018).

2. 예비조사 설문조사 결과

1) 기관 유형별 예비조사 표집 결과

먼저, <표 VI-4>에는 예비조사에 포함된 조사대상 기관 유형별로 표집 정보를 정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확인된 정보들은 본 조사의 조사대상 설계 및 실사 추진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최종적인 목표 표본 크기는 600명으로 삼되, 우편조사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10%를 추가하여 660명을 조사 섭외 목표 표본으로 삼아 섭외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C열에 제시된 원표본 대비 성공율을 살펴보면,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의 소년원, 보호관찰소, 보호치료시설은 당초 할당된 섭외기관수를 100% 달성하였으나,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기관 섭외 성공률은 50%로 낮게 파악되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표본에서 선정되었던 기관(총 6개소) 가운데 4개 기관이 거절하였고, 최종 조사 성공 기관수는 3개로 확인되었다. 원표본에서 2개 기관, 예비표본에서 1개 기관이 조사에 동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본 조사의 조사대상 설계 및 표집기관 선정 시, 예비조사에서 거절율이 높게 나타난 기관에 대해서는 예비표본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원표본 기관 섭외 시 거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표 VI-4 표집기관 유형별 실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표집기관수				표집인원수		
	원표본 기관수 (A)	조사 성공 기관수 (B)	조사 거절 기관수	원표본 대비 성공률 (C=B/A)	목표 표본수 (D)	완료 표본수 (E)	목표 표본 대비 완료 수 (F=E/D)
청소년쉼터	50	63	25	126.0	250	307	122.8
청소년자립지원관	6	3	4	50.0	50	5	10.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6	8	8	133.3	50	70	140
소년원	5	5	0	100.0	75	75	100
보호관찰소	15	15	1	100.0	150	145	96.7
보호치료시설	2	2	7	100.0	25	25	100
합계	84	96	45	114.3	600	627	104.5

한편, F열에 기재된 목표 표본 대비 완료수를 살펴보면,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당초 목표 표본을 초과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목표 대비 완료수가 10%에 불과하고 조사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가출청소년 지원기관인 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추가표집을 실시하게 되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경우, 목표 표본수 대비 최종 완료 표본수가 초과되었는데, 이는 우편조사 진행 과정에서 당초 기관별로 협의하였던 조사 인원수 대비 더 많은 설문지 부수가 회수된 데 따른 것이다.

〈표 VI-5〉에는 회수된 설문지 대비 실제 분석에 포함되지 못한 응답자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627부였으나, 분석에 최종 포함된 응답자는 565명으로 9.9%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분석에 누락된 구체적 사유는 〈표 VI-5〉과 같다. 먼저, ‘연구참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무응답 및 비동의 사유로 39명이 제외되었다. 동의서의 경우, 비동의 비율은 미미했으나 무응답이 일부 발생하였다. 조사 방식이 조사원이 관련 안내를 제공하는 대면조사가 아닌 우편조사로 이루어짐에 따라, 연구참여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조사 추진 시, 소중한 응답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동의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대면 또는 비대면 조사 방식에 맞춰 세심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5 최종 분석 대상 누락 사유

분석 제외 사유 구분		빈도(명)	비율(%)
1. 연구참여 동의 관련	무응답	28	45.2
	연구참여 비동의	3	4.8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무응답	34	54.8
	개인정보 수집·이용 비동의	2	3.2
소계(비동의 및 무응답, 중복 제외)		39	62.9
3. 불성실 응답		23	37.1
합계(동의서 무응답 및 비동의, 불성실 응답)		62	100.0

주: 불성실 응답의 판별 기준은 전체 문항(하위문항 포함) 중 무응답이 100개 이상인 표본으로 설정하였음.

다음으로,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설정한 판단 기준에 미달하는 불성실 응답이 23명으로 확인되었다. 불성실 응답자 23명에 대한 별도 검토 결과, 구체적인 패턴(예: 특정 문항 이후 무응답 증가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23명은 설문지 구조나 문항에 따른 무응답이 아닌, 단순 불성실 응답으로 판단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VI-6〉에는 연구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예비조사 결과 분석에 포함된 565명의 응답자 기본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성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이 60.2%, 여자 청소년이 39.8%로 파악되었고, 조사대상 기관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42.8%, 강원·충청권 19.5%, 경상권 28.0%, 호남·제주권 9.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세 이하 13.4%, 16-18세 51.7%, 19세 이상 34.9%로 파악되었다. 조사내용을 고려했을 때,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연령에는 후기청소년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나, 예비조사에서는 문항의 적절성 및 타당성, 문항 이동 로직의 오류, 표현의 모호성 등 문항 검토 및 수정·보완 의견을 수집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문항 검토 역량을 고려하여 후기 청소년도 포함하였다.

표 VI-6 예비조사 응답자 기본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565	100.0
성별	남자	340	60.2
	여자	225	39.8
연령	15세 이하	75	13.4
	16세-18세	290	51.7
	19세 이상	196	34.9
권역	수도권	242	42.8
	강원·충청권	110	19.5
	경상권	158	28.0
	호남·제주권	55	9.7
위기 유형	가출	294	52.0
	비행·범죄	271	48.0

위기 유형별로는 가출(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소속 응답자)이 52.0%를 차지했고, 비행·범죄(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6호

처분시설) 등 소년법 처분을 받은 응답자가 48.0%를 차지했다.

2) 설문지 전반에 대한 평가

(1) 조사내용에 대한 불편도

개별 문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살펴보기에 앞서, 전반적으로 설문지에 대한 평가 의견을 조사해보았다. 먼저 설문지에 대답하기 불편한(대답하고 싶지 않거나 꺼려지는) 문항이 있었는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동의 의견(④+⑤)은 15.3%로 파악되었다. 성별로는 동의 의견이 남자 청소년 10.2%, 여자 청소년이 22.6%로 여자 청소년에게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조사 내용 가운데 조건만남, 성폭력 피해 등 응답자가 불편 또는 민감하게 느낄 문항의 피해율이 여자 청소년이 더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7 조사내용에 대한 불편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① 전혀 없었다	② →→	③ 보통 이다	④ →→	⑤ 매우 많았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6	41.2	9.0	34.5	9.5	5.8	100.0	2.3(1.3)
성별								
남자	331	48.3	10.9	30.5	6.3	3.9	100.0	2.1(1.2)
여자	225	30.7	6.2	40.4	14.2	8.4	100.0	2.6(1.3)
연령								
15세 이하	74	29.7	9.5	39.2	13.5	8.1	100.0	2.6(1.3)
16-18세	286	42.3	9.1	36.7	8.0	3.8	100.0	2.2(1.2)
19세 이상	194	43.8	8.8	29.4	10.3	7.7	100.0	2.3(1.3)
위기 유형								
가출	291	30.2	10.0	36.4	15.5	7.9	100.0	2.6(1.3)
비행·범죄	265	53.2	7.9	32.5	3.0	3.4	100.0	2.0(1.1)

주: 불편도를 묻는 문항은 “설문지에는 대답하기 불편한(하고 싶지 않은, 꺼려지는) 문항이 있었다”이며, 불편도 측정을 위한 척도는 “①전혀 없었다”~“⑤매우 많았다”의 5점 척도임.

한편, 위기 유형별로는 가출청소년이 비행·범죄 연루 청소년에 비해 조사내용에 대해 좀 더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 2.3점을 나타내, 전반적인 불편도는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다.

(2) 난이도

① 문항 이동 로직의 난이도

〈표 VI-8〉에는 문항 이동 로직에 대한 체감 난이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설문지에 따라가기가 어려운 이동 로직이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13.0%가 그러한 문항이 있었다는 데 동의(④+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10.0%) 보다 여자(17.3%)가 동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15세 이하(20.3%), 16-18세(13.3%), 19세 이상(9.8%) 순으로 나타났다. 15세 이하에서는 응답자 5명 중 1명이 문항 이동 로직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에서는 이동 로직을 수정하거나, 응답자가 이동 로직을 직관적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조사표 디자인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위기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문항 이동 로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가출청소년(17.9%)이 비행·범죄 청소년(7.6%)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가출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항의 로직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8 문항 이동 로직의 난이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① 전혀 없었다	② →→	③ 보통 이다	④ →→	⑤ 매우 많았다	계	평균 (표준 편차)
전체	555	45.0	6.8	35.1	7.4	5.6	100.0	2.2(1.2)
성별								
남자	330	48.8	6.7	34.5	6.1	3.9	100.0	2.1(1.2)
여자	225	39.6	7.1	36.0	9.3	8.0	100.0	2.4(1.3)
연령								
15세 이하	74	28.4	6.8	44.6	10.8	9.5	100.0	2.7(1.3)
16~18세	286	45.1	7.7	33.9	7.7	5.6	100.0	2.2(1.3)
19세 이상	193	51.3	5.7	33.2	5.7	4.1	100.0	2.1(1.2)
위기 유형								
가출	290	37.6	6.6	37.9	11.0	6.9	100.0	2.4(1.3)
비행범죄	265	53.2	7.2	32.1	3.4	4.2	100.0	2.0(1.2)

주: 이동로직의 난이도를 묻는 문항은 “설문지에는 따라가기 어려운 이동 로직(→로 가세요, ~로 이동하세요 등이 있었다”이며, 난이도 측정을 위한 척도는 “①전혀 없었다”~“⑤매우 많았다”의 5점 척도임.

② 문항 표현의 난이도

다음으로, 설문지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 그러한 단어나 문장이 있었다는 동의 비율(④+⑤)은 4.3%로 낮은 편이었다. 연령별로는 15세 이하에서 9.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 1.8점으로, 문항 표현의 난이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I-9 문항표현의 난이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① 전혀 없었다	② →→	③ 보통 이다	④ →→	⑤ 매우 많았다	계	평균 (표준 편차)
전체	556	60.3	8.1	27.3	3.4	0.9	100.0	1.8(1.0)
성별								
남자	331	61.6	8.5	25.4	3.9	0.6	100.0	1.7(1.0)
여자	225	58.2	7.6	30.2	2.7	1.3	100.0	1.8(1.0)

구분	사례수 (명)	① 전혀 없었다	② →→	③ 보통 이다	④ →→	⑤ 매우 많았다	계	평균 (표준 편차)
연령								
15세 이하	74	44.6	10.8	35.1	8.1	1.4	100.0	2.1(1.1)
16~18세	286	59.8	7.0	28.0	4.2	1.0	100.0	1.8(1.1)
19세 이상	194	67.0	8.8	23.2	0.5	0.5	100.0	1.6(0.9)
위기 유형								
가출	291	54.3	8.2	31.3	5.2	1.0	100.0	1.9(1.1)
비행·범죄	265	66.8	7.9	23.0	1.5	0.8	100.0	1.6(0.9)

주: 문항표현의 난이도를 묻는 문항은 “설문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있었다”이며, 난이도 측정을 위한 척도는 “①전혀 없었다”~“⑤매우 많았다”의 5점 척도임.

(3) 설문지 구조의 복잡성

〈표 VI-10〉에는 설문지 구조의 복잡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설문지 구조가 복잡해서 대답하기 어려웠는지를 조사한 결과, 동의하는 응답 비율(④+⑤)이 8.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세 이상(5.7%)에 비해 15세 이하(8.1%) 및 16~18세(11.1%)에서 설문지 구조가 복잡해서 대답하기 어려웠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다. 특히 16~18세에서도 11.1%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 설문지 구조를 가능한 범위에서 좀 더 단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VI-10 설문지 구조의 복잡성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① 전혀 아니다	② →→	③ 보통 이다	④ →→	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 편차)
전체	556	51.1	12.6	27.5	4.5	4.3	100.0	2.0(1.2)
성별								
남자	331	53.5	12.7	26.6	3.9	3.3	100.0	1.9(1.1)
여자	225	47.6	12.4	28.9	5.3	5.8	100.0	2.1(1.2)
연령								
15세 이하	74	37.8	21.6	32.4	2.7	5.4	100.0	2.2(1.1)
16~18세	286	49.7	12.9	26.2	5.9	5.2	100.0	2.0(1.2)
19세 이상	194	58.8	8.8	26.8	3.1	2.6	100.0	1.8(1.1)

구분	사례수 (명)	① 전혀 아니다	② →→	③ 보통 이다	④ →→	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 편차)
위기 유형								
가출	291	43.3	13.1	31.6	6.2	5.8	100.0	2.2(1.2)
비행·범죄	265	59.6	12.1	23.0	2.6	2.6	100.0	1.8(1.1)

주: 설문지 구조의 복잡성을 묻는 문항은 “설문지 구조가 복잡해서 대답하기 어려웠다”이며, 측정 척도는 “①전혀 아니다”~ “⑤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임.

(4) 설문의 길이 및 집중도

① 응답 소요 시간

응답 소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집중도가 저하되어 응답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전체적으로 응답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은 18.7분으로 나타나, 대체로 조사에 응답하는 데 20분 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30분 미만(15분 미만 + 15분 이상-30분 미만)으로 소요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82.6%로 나타났고, 30분 이상-40분 미만 12.1%, 40분 이상 소요되었다는 응답은 5.3%로 파악되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30분 미만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어, 응답 소요 시간은 현실적으로 실시 가능한 길이로 파악되었다.

표 VI-11 설문 응답 소요 시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15분 미 만	15분 이상~ 30분 미만	30분 이상~ 40분 미만	40분 초 과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495	32.1	50.5	12.1	5.3	100.0	18.7(9.5)
성별							
남자	292	37.0	48.3	10.3	4.5	100.0	17.7(8.9)
여자	203	25.1	53.7	14.8	6.4	100.0	20.3(9.9)
연령							
15세 이하	66	33.3	43.9	15.2	7.6	100.0	20.0(10.2)
16-18세	256	31.6	50.0	12.9	5.5	100.0	19.2(9.7)
19세 이상	151	32.2	53.8	9.9	4.1	100.0	17.7(8.7)

구분	사례수 (명)	15분 미 만	15분 이상~ 30분 미만	30분 이상~ 40분 미만	40분 초 과	계	평균 (표준편차)
위기 유형							
가출	260	27.3	50.0	13.5	9.2	100.0	20.7(10.9)
비행·범죄	235	37.4	51.1	10.6	0.9	100.0	16.6(6.9)

주: 설문 응답 소요 시간을 묻는 문항은 “설문에 응답하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몇 분 정도였나요?”이며, 개방형으로 제시된 응답 결과를 토대로 범주화하였음.

② 설문 집중도 및 응답의 곤란도

다음으로, 설문지에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잘 몰라서 대답할 수 없는 문항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검토 결과, 그러한 문항이 있었다는 동의 비율(④+⑤)은 전체 응답자의 7.4%로 파악되었다.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5세 이하 응답자가 10.9%로 나타났고, 16-18세 6.6%, 19세 이상 7.2%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평균은 5점 만점에 2점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I-12 설문 집중도 및 응답의 곤란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① 전혀 없었다	② →→	③ 보통 이다	④ →→	⑤ 매우 많았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6	50.9	10.4	31.3	5.6	1.8	100.0	2.0(1.1)
성별								
남자	331	54.4	10.0	30.8	3.9	0.9	100.0	1.9(1.0)
여자	225	45.8	11.1	32.0	8.0	3.1	100.0	2.1(1.2)
연령								
15세 이하	74	29.7	16.2	43.2	9.5	1.4	100.0	2.4(1.1)
16-18세	286	52.1	8.4	32.9	5.2	1.4	100.0	2.0(1.1)
19세 이상	194	57.2	11.3	24.2	4.6	2.6	100.0	1.8(1.1)
위기 유형								
가출	291	42.3	10.7	36.8	7.6	2.7	100.0	2.2(1.1)
비행·범죄	265	60.4	10.2	25.3	3.4	0.8	100.0	1.7(1.0)

주: 설문 집중도 및 응답 곤란도를 묻는 문항은 “설문지에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잘 몰라서 대답할 수 없는 문항이 있었다”이며, 측정을 위한 척도는 “①전혀 없었다”~“⑤매우 많았다”의 5점 척도임.

③ 문항 과다로 인한 집중도 저하

설문지에 문항이 많아서 대답하기 힘들거나 지루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동의 비율(④+⑤)이 전체 응답자의 18.0%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 약 5명 중 1명 비율로 문항이 많아서 대답하기 힘들거나 지루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는 바, 가능한 범위에서 문항의 수를 일부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위기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가출청소년의 경우 해당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24.0%로 높게 도출되었다.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문항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보인다.

표 VI-13 문항 과다로 인한 집중도 저하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	③ 보통 이다	④ →→	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6	40.5	11.0	30.6	7.7	10.3	100.0	2.4(1.3)
성별								
남자	331	44.7	9.1	29.0	6.6	10.6	100.0	2.3(1.4)
여자	225	34.2	13.8	32.9	9.3	9.8	100.0	2.5(1.3)
연령								
15세 이하	74	29.7	16.2	36.5	5.4	12.2	100.0	2.5(1.3)
16-18세	286	40.2	10.5	29.7	9.4	10.1	100.0	2.4(1.4)
19세 이상	194	44.8	9.8	29.4	6.2	9.8	100.0	2.3(1.3)
위기 유형								
가출	291	30.9	10.0	35.1	9.6	14.4	100.0	2.7(1.4)
비행·범죄	265	50.9	12.1	25.7	5.7	5.7	100.0	2.0(1.2)

주: 문항 과다로 인한 집중도 저하를 묻는 문항은 “설문지에 문항이 많아서 대답하기 힘들거나 지루했다”이며, 집중도 측정을 위한 척도는 “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임.

(5) 조사 지원 인력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설문 조사 응답 시, 지원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는 가급적 해당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을 통한 대면조사가 바람직하나,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대면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응답자들이 조사 지원 인력의 필요성을 크게 느낀다면, 비대면조사 상황에서 조사대상 기관 내 실무자 협조 요청 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설문 응답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는 동의 비율(④+⑤)은 전체 응답자의 5.8%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15세 이하 집단에서 8.2%로 다소 높았고, 위기유형별로는 가출청소년 집단에서 9.0%로 상대적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그러나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에 대해 전체 평균이 1.8점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조사를 도와주며 설명해주는 인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I-14 설문 응답을 도와주는 사람의 필요성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	③ 보통 이다	④ →→	⑤ 매우 필요 하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556	58.8	11.5	23.9	2.7	3.1	100.0	1.8(1.1)
성별								
남자	331	60.4	10.3	22.7	2.7	3.9	100.0	1.8(1.1)
여자	225	56.4	13.3	25.8	2.7	1.8	100.0	1.8(1.0)
연령								
15세 이하	74	48.6	16.2	27.0	6.8	1.4	100.0	2.0(1.1)
16-18세	286	57.7	9.4	25.9	3.1	3.8	100.0	1.9(1.1)
19세 이상	194	64.4	12.9	19.6	0.5	2.6	100.0	1.6(1.0)
위기 유형								
가출	291	52.6	11.3	27.1	4.5	4.5	100.0	2.0(1.2)
비행·범죄	265	65.7	11.7	20.4	0.8	1.5	100.0	1.6(0.9)

주: 설문 응답을 도와주는 사람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은 “이 설문을 할 때는 옆에서 도와주는(설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이며, 측정을 위한 척도는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⑤매우 필요하다”의 5점 척도임.

3) 예비조사 조사표 검토 의견

설문지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 의견과 더불어, 세부 문항별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복수의 응답자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아르바이트 영역의 이동 로직에 관한 것이었다. 예비조사 조사표에서는 문14에서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올해(2020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나요?’가 선별 문항(screening question)으로 제시되어 있고, 여기에서 ‘현재 하고 있지도 않고, 올해(2020년) 한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문16의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14는 최근 1년 간 경험을 묻고, 문16은 지금까지의 생애경험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문항 설계 상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응답자들은 문14에서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문16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부당행위 경험을 묻는 것을 어색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에 응답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문항의 위치를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반복 지적된 오류는 자해 및 자살 시도에 관한 문항에서 발견되었다. 자해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 응답자도 자해를 하게 된 이유를 답하도록 이동 로직이 제시되어 있어서, 자해를 생각해보았지만 시도하지는 않은 경우 응답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오류는 자살 시도 및 그 이유에 관한 문항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이에 각각 자해 또는 자살 시도 사유를 묻는 문항을 관련 시도 뿐만 아니라 동기에 대한 사유를 묻는 문항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표 VI-15〉에는 상술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방형 응답을 통해 수집한 문항 개선 의견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VI-15 예비조사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문항 주요 개선 의견

영역	검토 의견	반영 방안
가정 내 경험	가정폭력·학대 경험 관련, 성폭력이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히 제시될 필요	성폭력 피해도 포함되는 개념이나,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해 성폭력을 별도 문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음.
	가정폭력·학대·방임 피해를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단순응답이 아닌 복수응답으로 응답 방식 변경 필요	여타 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관한 문항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단순응답 방식으로 현행 유지함.
가정 밖 경험	‘헬퍼’의 의미를 모르겠음.	부정적 학습효과 차단을 위해, 별도의 부연 설명은 제시하지 않고 현행 유지함.
유해약물 이용 경험	술이나 담배로 인한 비행범죄 행동 경험 관련 문항(문23)의 경우, 솔직하게 응답하기가 꺼려짐.	예비조사 설문 결과, 일부 응답회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1)~5) 항목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산출됨. 다만 ‘성범죄 시도 경험’에 대해서는 솔직한 응답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문항은 삭제를 검토함.
아르바이트 경험	최근 1년 간 아르바이트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없다’고 답한 이후, 다시 지금까지의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색함.	지금까지 생애경험을 묻는 문항을 아르바이트 영역 전반부로 위치 이동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을 묻는 문항 중, ‘미성년자인데 보호자(부모) 동의서를 낼 수 없어서 일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문항 의미가 이해하기 어려움.	해당 문항의 취지를 살려, 문항 표현을 명료하게 수정함.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사회적 위축(철회)를 측정하는 하위 문항 중, ‘웃을 갈아입지 않는다(문1-11)번)에 대해, 문항 의미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부연 설명이 필요함.	사회적 위축(철회) 관련, 해당 하위문항을 삭제해도 신뢰도 수치에 큰 문제가 없는 바, 해당 문항을 삭제함.
	- 자해 시도 및 자살 시도 관련 문항 이동로직이 어색함. - 자해 및 자살에 대해 생각만해보고 시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사유를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어색함.	자해(또는 자살 시도)를 시행한 사유가 아닌, 생각해 본 사유를 묻는 문항으로 변경하여, 생각만해본 응답자도 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함.
일반적 특성	우리집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예비조사 설문 결과를 검토하여 유지 여부 결정

4) 예비조사 주요 문항 응답 결과 분석

(1) 주요 결과 요약²⁷⁾

이 절에서는 예비조사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가운데, 세부 주제별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 제시하였다.

① 가정 내 경험

먼저, [그림 VI-5]에는 부모 간 관계와 부모로부터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가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부모님이 서로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4.2%, ‘싸우면서 물건을 부수거나 던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48.1%, ‘서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38.9%로 나타나, 위기청소년의 상당수가 부모 간 불화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기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이러한 경험은 비행·범죄 연루 청소년에 비해 가출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로부터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58.4%, ‘부모님(또는 보호자)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57.6%로 나타나, 절반을 넘는 응답자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정폭력 경험을 역시 가출청소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27) 이 절에서 제시한 ‘예비조사 주요 결과 요약’은 별권으로 작성한 [데이터 분석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조사 문항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데이터 분석보고서]에 상세히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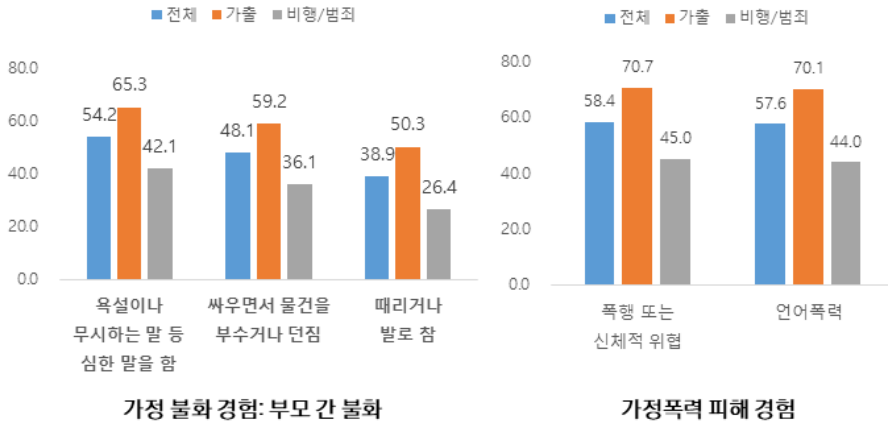


그림 VI-5 가정 불화 및 가정폭력 피해 경험(단위: %)

② 가정 밖(가출) 경험

‘가출’은 청소년들을 다양한 위기상황에 노출시키는 핵심적인 위기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설계하면서 가출청소년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였고, ‘가정 밖(가출) 경험’ 영역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가출 청소년이 처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규 정책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가정 밖(가출) 경험 영역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출 경험에 대해 조사 결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가출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66.3%,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40.7%로 파악되었다. 가출 비율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가출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가정폭력(신체·언어폭력)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져서,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가출 비율이 더 높게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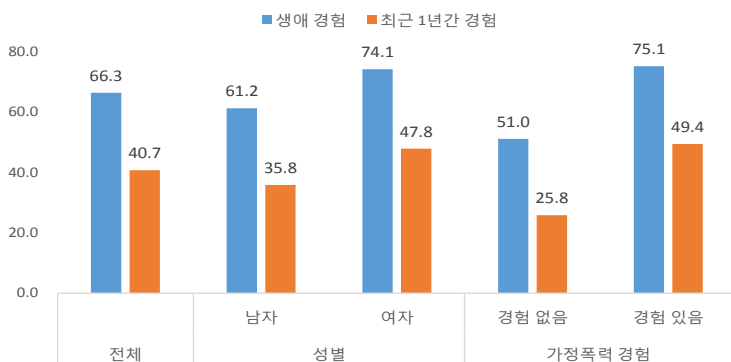


그림 VI-6 가출 생애 경험 및 최근 1년간 경험률(단위: %)

가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부모님, 형제, 자매 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가족들과 싸워서)’라는 응답이 63.0%로 가장 많았고,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44.5%, ‘부모님, 형제, 자매 등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30.8%, ‘친구나 선후배가 집을 나가자고 해서’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가출했다는 응답이 30.8%로 나타나, 가정폭력이 가출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16 집을 나오게 된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족과의 갈등	가족의 폭력을 피하려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학교 폭력 때문에	공부에 대한 부담감	친구나 선후배가 집을 나가자고 해서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기타	
전체	373	63.0	30.8	3.8	9.9	4.6	5.4	10.7	44.5	4.6	
성별	남자	206	58.3	25.7	3.9	6.8	2.4	5.3	8.7	45.1	4.9
	여자	167	68.9	37.1	3.6	13.8	7.2	5.4	13.2	43.7	4.2

구분		사례수	가족과의 갈등	가족의 폭력을 피하려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학교 폭력 때문에	공부에 대한 부담감	친구나 선후배가 집을 나가자고 해서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기타
연령	19세 미만	244	62.3	29.1	2.9	11.9	4.1	5.7	12.7	46.3	4.5
	19세 이상	128	64.8	34.4	5.5	6.3	5.5	4.7	7.0	40.6	4.7
가정 폭력 경험	없음	105	44.8	6.7	1.0	9.5	1.9	1.9	13.3	59.0	7.6
	있음	267	70.0	40.4	4.9	10.1	5.6	6.7	9.7	38.6	3.4

가출 후 지낸 장소에 대한 조사 결과, ‘친구 또는 선·후배 집’이라는 응답이 72.5%로 가장 많았고, ‘여관/모텔/달방/월세방’이 41.2%, ‘청소년쉼터’ 37.7%, ‘찜질방/고시원/PC방’ 32.9% 등으로 파악되었다.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건물 안 계단/지하철역/길거리/놀이터/공원 등)’을 했다는 응답도 23.0%로 나타나, 가출 청소년 4명 중 1명 비율로 노숙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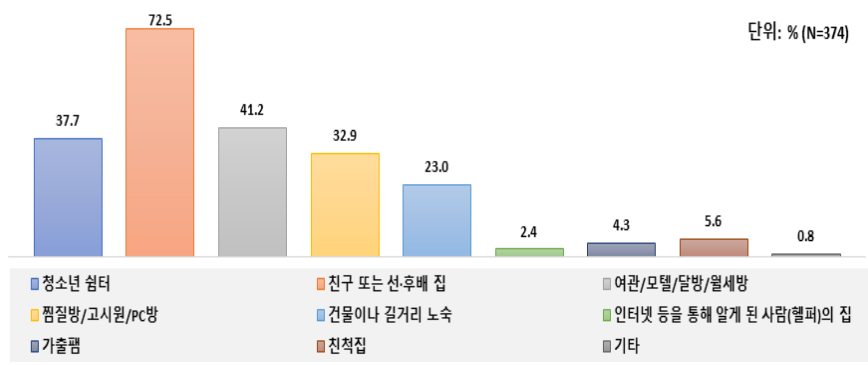


그림 VI-7 가출 후 지낸 장소(중복응답)

가출 후 경험한 애로사항이나 힘들었던 점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생활비 부족’이라는 응답이 62.0%로 가장 많았고, ‘갈 곳이 없음(살 곳이 없음)’ 34.8%, ‘우울/불안/좌절/두려움/외로움’이 27.5%, ‘일자리가 없음’이 26.2% 등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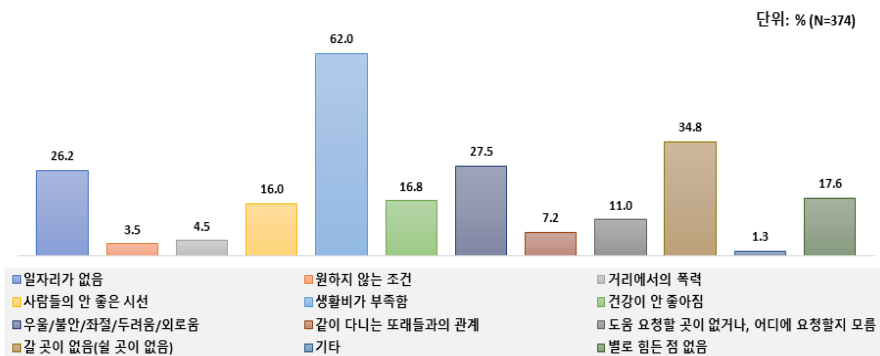


그림 VI-8 가출 중 어렵고 힘들었던 점(중복응답)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 종류에 대한 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1순위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숙식을 제공해주는 생활지원’이라는 응답이 51.4%로 과반을 차지했고, ‘당장 필요한 생필품의 제공’이 23.5%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일할 곳을 구하도록 도와주는 취업 지원’이 14.4%로 3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 청소년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에 요구되는 의식주 및 생필품 해결이 가장 절실함을 시사한다.

단위: % (N=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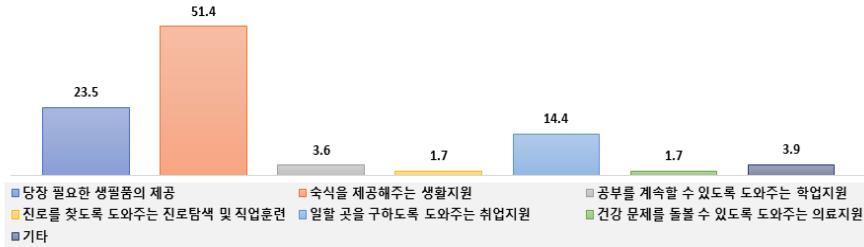


그림 VI-9 가출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

가정 밖(가출) 경험 영역에서는 신규 수요 파악을 위해 소위 ‘헬퍼’에 대한 접촉 경험을 조사해보았다. 먼저,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n=374명) 가운데, ‘집을 나와서 지내는 동안 잘 모르는 사람(헬퍼)으로부터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제안이나 광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0.7%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러한 제안을 받은 경험은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 여자 청소년의 경험률(18.0%)이 남자 청소년(4.8%)에 비해 3.8배 더 높았다. ‘인터넷 등을 통해 숙식을 제공해 줄 사람(헬퍼)’을 구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가출 유경험자의 8.3%를 차지했는데, 이 역시 여자 청소년(13.2%)이 남자 청소년(4.3%)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 VI-17 ‘헬퍼’와의 접촉 경험

(단위: 명, %)

문항	구분		사례수 (명)	경험한 적		계
				있다	없다	
1) ‘헬퍼’로부터 숙식 제공을 제안 받은 경험	전 체		374	10.7	89.3	100.0
	성별	남자	207	4.8	95.2	100.0
		여자	167	18.0	82.0	100.0
	연령	19세미만	245	10.2	89.8	100.0
		19세이상	128	11.7	88.3	100.0

문항	구분		사례수 (명)	경험한 적		계
				있다	없다	
2) 인터넷 등을 통해 ‘헬퍼’를 구해 본 경험	전 체		374	8.3	91.7	100.0
	성별	남자	207	4.3	95.7	100.0
		여자	167	13.2	86.8	100.0
	연령	19세미만	245	8.2	91.8	100.0
		19세이상	128	8.6	91.4	100.0
3) ‘헬퍼’와 생활 해 본 경험	전 체		49	30.6	69.4	100.0
	성별	남자	14	42.9	57.1	100.0
		여자	35	25.7	74.3	100.0
	연령	19세미만	32	25.0	75.0	100.0
		19세이상	17	41.2	58.8	100.0

정책적 개입점 확인을 위해, ‘헬퍼’와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떠한 경로로 접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등)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고, ‘랜덤채팅 앱을 통해’ 접했다는 응답이 21.7%로 그 뒤를 이었다.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15.2%), ‘가출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6.5%)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위 ‘헬퍼’와의 접촉이 메신저나 랜덤채팅 앱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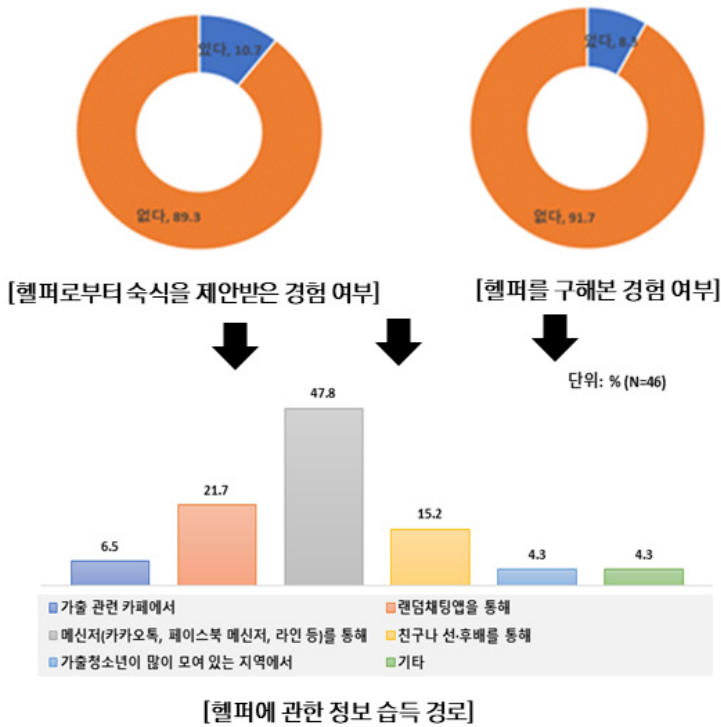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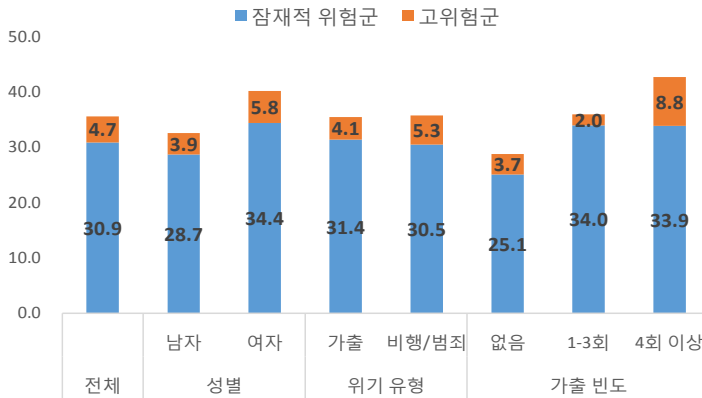


그림 VI-10 ‘헬퍼’ 관련 접촉 경험

③ 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및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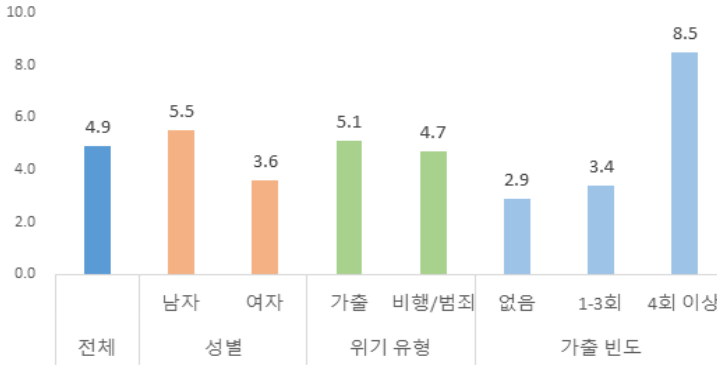
다음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및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등 위기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위기 상황에 대해 점검해보았다. 먼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예비조사 응답자의 35.6%가 위험군(잠재적 위험군 30.9%+고위험군 4.7%)으로 분류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자(32.6%)보다 여자(40.2%)의 비율이 높았고, 위기 유형별로는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지만, 가출 빈도의 경우, ‘가출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의 위험군 비율은 28.8%인 데 비해, ‘1-3회’ 36.0%, ‘4회 이상’ 42.7%로 나타나, 가출 경험이 잦고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성향도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판별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9a)를 준용하여, 4점 척도로 측정된 10개 문항의 응답값을 합산하여, 23-30점은 잠재적 위험군, 31점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함.

그림 VI-11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단위: %)

[그림 VI-12]는 게임 과몰입 수준을 묻는 문항을 토대로, 과몰입 가능성군을 분류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9%가 게임 과몰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5.5%)의 비율이 여자(3.6%)보다 높았다. 게임 과몰입 가능성 역시 가출 빈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 가출 경험이 많을수록 게임 과몰입 가능성군에 속하는 비율도 높게 산출되었다.



주: 게임 과몰입 가능성군 판별 기준은 김소아 외(2020)를 준용하여, 4점 척도 6개 문항 합산점수를 토대로 18점 이상인 집단을 '과몰입 가능성군'으로 분류함.

그림 VI-12 게임 과몰입 가능성군 비율(단위: %)

[그림 VI-13]에는 도박(돈내기 게임) 관련 경험을 묻는 다양한 문항들 가운데,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률 및 경험 빈도에 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24.9%로 나타났고, 지난 3개월 간 돈내기 게임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6.1%로 파악되었다. 지난 3개월 간 돈내기 게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돈내기 게임을 했는지 그 빈도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1-2회 해본 정도'라는 응답은 10.0%에 불과했고, '일주일에 1-2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이 53.3%('일주일에 1-2회' 23.3%+'거의 매일' 30.0%)로 과반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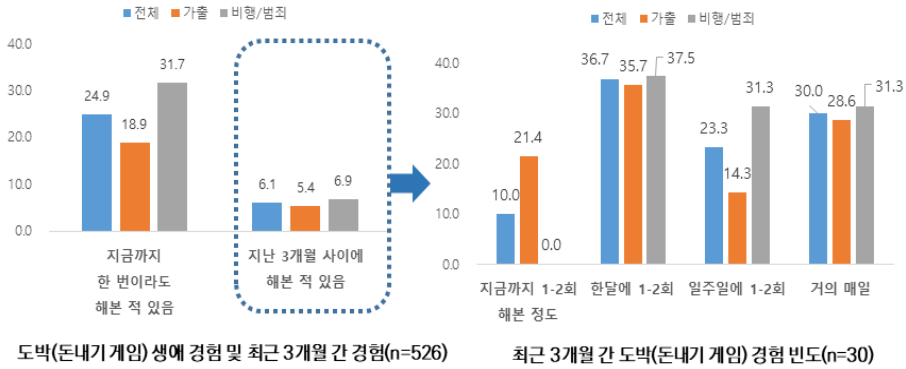


그림 VI-13 도박(돈내기 게임) 관련 경험(단위: %)

④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세부주제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2020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9%가 올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율(35.4%)이 남자 청소년(28.0%) 보다 7.4% 더 높았다. 가출 빈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가출을 해본 적 없다고 답한 청소년(26.7%)에 비해 1~3회(30.2%), 4회 이상(36.5%) 등 가출 빈도가 증가할수록 아르바이트 경험률도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청소년들은 생활비 마련 등의 이유로 근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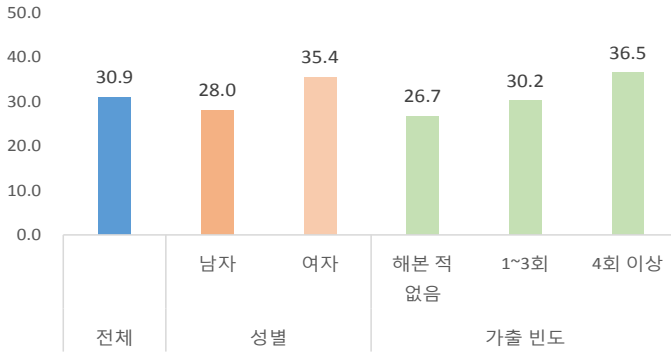


그림 VI-14 올해(2020년) 아르바이트 경험율(단위: %)

⑤ 폭력 피해 경험

최근 1년 동안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친구나 선후배, 아는 사람 등)으로부터 경험한 폭력 피해 경험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음’이 18.8%로 가장 많았고,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9.6%)’,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침(9.2%)’,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5.5%)’, ‘왕따(따돌림)를 당함(5.1%)’, ‘온라인(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3.7%)’, ‘돈을 모아 오라고 강요하거나, 대리입금을 요구 받음(3.0%)’, ‘강제 심부름(빵셔틀, 와이파이/데이터셔틀, 게임셔틀 등)을 당함(2.3%)’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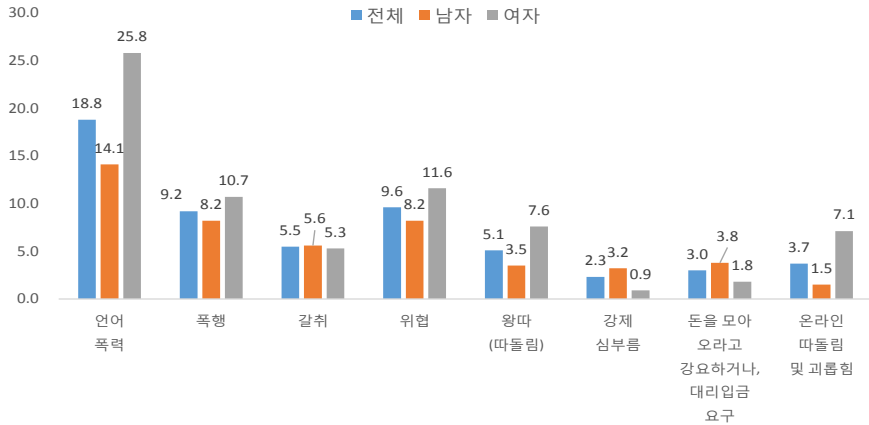


그림 VI-15 폭력 유형별 경험률(단위: %)

⑥ 성폭력 피해 경험 (조건만남 포함)

[그림 VI-16]에는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유형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높았고,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피해’와 ‘강제로 성관계 및 시도나 피해’가 각각 2.0%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피해율이 높았는데,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응답 비율이 여자 청소년은 5.8%로 남자 청소년(1.5%)에 비해 약 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강제로 성관계 시도나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여자 청소년은 4.5%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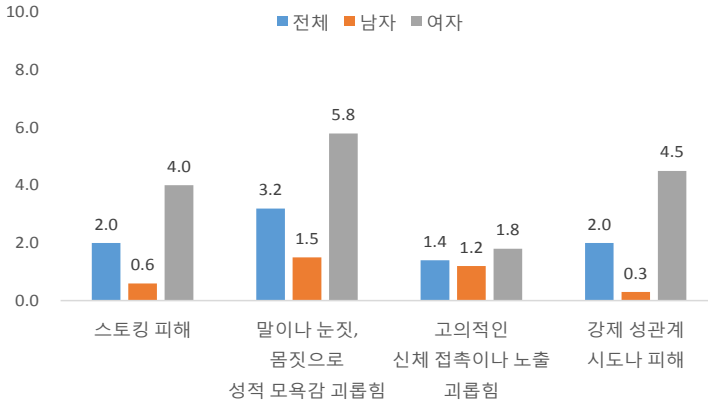


그림 VI-16 성폭력 유형별 경험률(단위: %)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신규 정책 수요 확인을 위해, ‘조건만남’ 관련 문항을 포함하였다. 먼저 <표 VI-18>에는 조건만남에 대한 유인이나 제안을 받은 경험 및 실제 조건만남을 해본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가운데 9.8%가 조건만남에 대한 유인이나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실제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은 6.0%로 파악되었다. 조건만남 경험은 성별에 따라 응답 결과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조건만남에 대한 유인 또는 제안을 받은 경험율은 여자 청소년(21.5%)이 남자 청소년(2.1%) 보다 10배 높게 나타났고, 실제 조건만남을 경험한 비율도 여자 청소년(11.6%)이 남자 청소년(2.5%) 보다 4.6배 높았다.

표 VI-18 조건만남 관련 경험

(단위: 명, %)

구분		조건만남에 대한 유인 또는 제안을 받은 경험		조건만남 경험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 체		562	9.8	530	6.0
성별	남자	339	2.1	323	2.5
	여자	223	21.5	207	11.6
연령	19세미만	363	10.5	338	6.5
	19세이상	195	8.7	189	5.3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갈 곳(잘 곳)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고,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아서’(36.7%), ‘노는 데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33.3%),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33.3),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30.0%), ‘호기심에서’(16.7%), ‘자포자기의 심정으로’(13.3%),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할 수 없이’(10.0%) 순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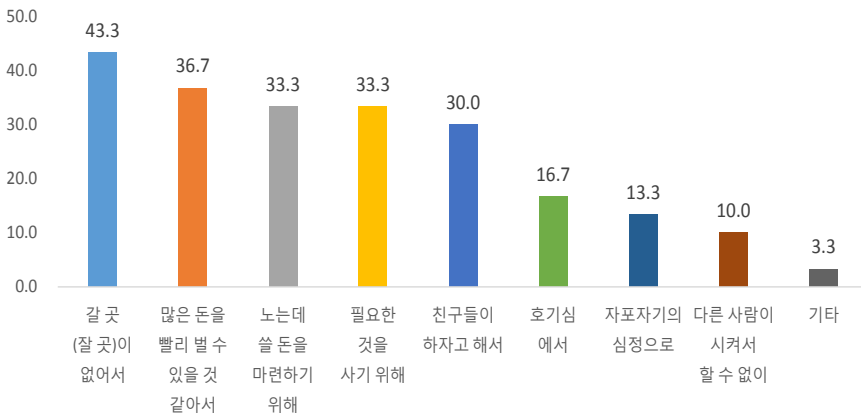


그림 VI-17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 n=30)(단위: %)

정책적 개입점 확인을 위해 조건만남을 주로 어떤 경로로 하는지 조사한 결과, ‘랜덤채팅앱(모르는 사람과 채팅, 쪽지)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채팅 사이트 또는 채팅앱(1:1채팅, 화상채팅 등)을 통해서’ 45.2%, ‘SNS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22.6%, ‘친구, 선후배, 애인 같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12.9% 등으로 파악되었다. ‘술집, 거리 등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의 제안으로’ 하게 되었던 응답은 3.2%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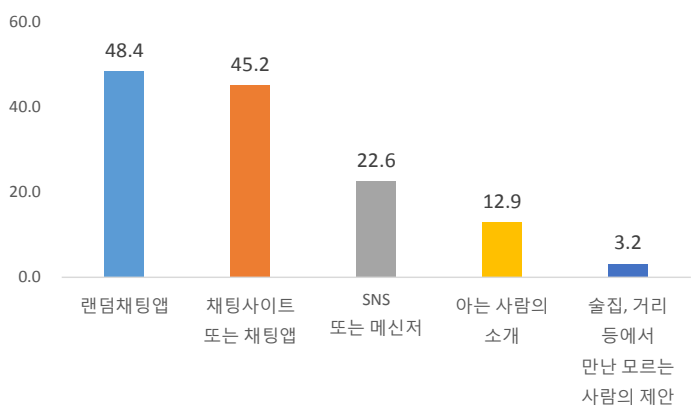


그림 VI-18 조건만남 경로(복수응답, n=31)(단위: %)

조건만남을 그만두는 보호요인에 대해 파악해 본 결과, 조건만남을 그만두는데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68.2%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상담 기관/쉼터선생님의 도움으로’가 40.9%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에 잡혀가거나 처벌을 받아서’ 27.3%, ‘친구/선후배/애인의 도움으로’ 27.2%, ‘가족/친척의 도움으로’ 18.2%, ‘일자리를 구해서’ 4.5% 순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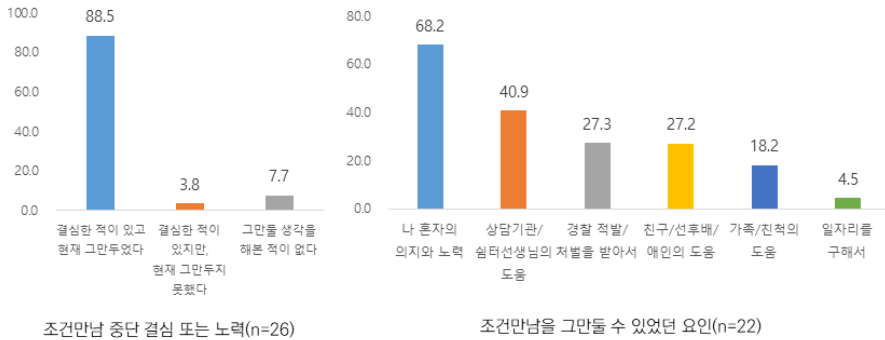


그림 VI-19 조건만남 관련 보호요인(단위: %)

⑦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표 VI-19〉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가운데 제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을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21.7%로 파악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율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 남자 청소년의 피해율(11.8%)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피해율(36.6%)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로 미루어 보면, 여자 청소년은 10명 중 약 4명이 피해를 경험했을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에 광범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피해율을 살펴보면,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2.8%로 가장 높았고, ‘내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9.6%,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 8.2% 등이 비교적 빈번한 피해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표 VI-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율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남자	여자
사례수(명)	562	338	224
하나라도 경험한 응답자 비율	21.7	11.8	36.6
1)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12.8	6.8	21.9
2) 내 동의 없이 알몸 사진이나 음란물을 전송 받은 적이 있다	6.9	2.7	13.4
3)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영상에 내 얼굴 또는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적이 있다	3.6	2.7	4.9
4) 내 동의 없이, 나의 신체 일부(다리, 가슴 등)가 촬영된 적이 있다	3.0	1.5	5.4
5) 내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9.6	2.1	21.0
6) 내 신체 또는 내가 등장하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받아본 적이 있다	4.1	2.1	7.1
7) 불법촬영 된 내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이나 채팅방(단톡방 포함)에서 유포된 적이 있다	1.8	1.2	2.7
8) 돈이나 금품 등 대가를 미끼로 내 사진이나 영상물, 개인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3.6	0.9	7.6
9)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불특정 스팸 제외)	8.2	3.0	16.1
10) 온라인에서 내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5.3	2.1	10.3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개입점 확인을 위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러한 경험을 어디에서 했는지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밴드 등)’라는 응답이 68.4%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라는 응답이 55.3%, 랜덤채팅앱이 11.4%로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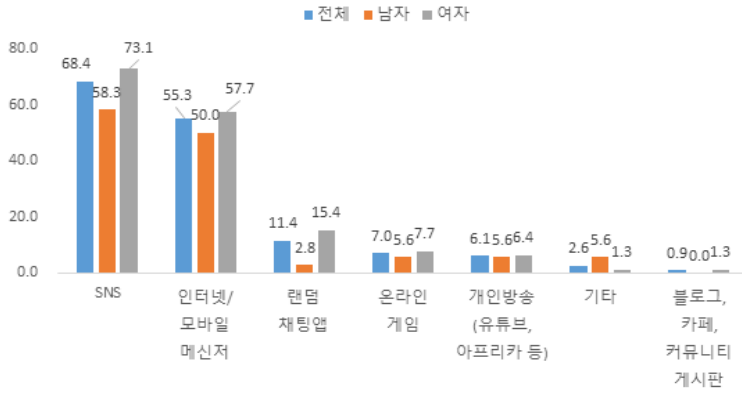


그림 VI-20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경로(복수응답, n=114)(단위: %)

⑧ 심리·정서적 특성 및 자해·자살 시도 경험

다음으로, [그림 VI-21]에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요인에 대한 척도문항의 응답값을 평균 내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4점 만점으로 측정한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존감(3.02점), 타인에 대한 이해(3.18점) 등이 양호하게 도출되었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도 2.98 점, 삶에 대한 인식/태도 2.94점으로 양호하게 도출되었다. 제시한 척도 중에서는 자기통제력이 2.6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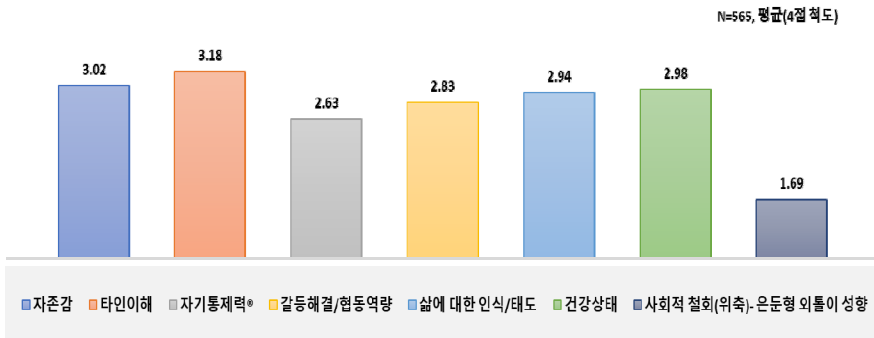


그림 VI-21 심리·정서적 특성

조사내용 설계 시,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에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인 항목은 자해 및 자살 시도 경험이다. 자해 및 자살 시도는 그 자체로 고위기의 징후일 뿐만 아니라, 전문가 FGI를 통해 최근 비자살성 자해가 광범하게 확산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자해 및 자살 시도 관련 문항을 포함하고, 관련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그림 VI-22]에는 자해 시도 경험을 및 빈도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중 30.5%는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해 시도 경험은 성별에 따라 양상이 달리 나타나, 여자 청소년의 자해 시도 경험률(53.3%)이 남자 청소년(15.2%)에 비해 훨씬 높았다. 가출 빈도에 따라 구분해보면, 가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가출을 여러 번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자해 시도율도 높게 파악되었다. 한편,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41.0%)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12.2%)에 비하여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자해를 시도하는 빈도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1.8%가 1달에 1-2번 이상 자해를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일주일에 1-2번’ 7.0%+‘1달에 1-2번’ 4.8%).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5.8%가 ‘1달에 1-2회 이상’ 자해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 청소년 사이에 자해가 광범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방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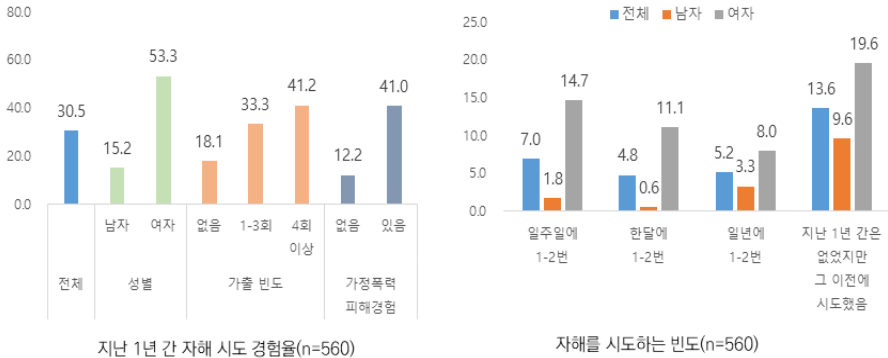


그림 VI-22 자해 시도 경험 및 빈도(단위: %)

[그림 VI-23]에는 지난 1년 간 자살 시도율과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가운데 최근 1년 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를 차지했다. 여자 청소년의 자살 시도율(35.2%)이 남자 청소년(10.2%) 보다 3배 이상 높았고, 가정폭력피해 경험이 없다고 답한 청소년(6.9%)에 비해 가정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자살 시도율(27.6%)이 4배 더 높았다.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된 사유를 조사한 결과, 가족간의 갈등 때문이라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았고, 또래와의 갈등(12.0%), 미래에 대한 불안(10.8%) 등이 수위를 차지했다. 다만 자살을 생각한 사유에 대해 선택지에 없는 ‘기타’ 응답이 14.5%로 높게 나온 점은 해당 문항의 선택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기타’에 대한 주관식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힘들어서’라는 표현이 가장 많았고, ‘살기 싫어서’, ‘무기력’, ‘내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등의 응답이 다수 언급되었다. 주관식 응답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심리적 어려움을 포착하는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문항의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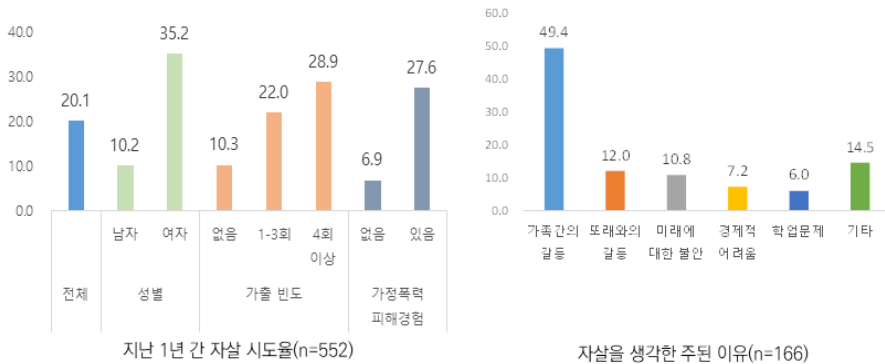


그림 VI-23 자살 시도 경험 및 자살을 생각한 이유(단위: %)

[그림 VI-24]에는 자해 및 자살 시도를 그만두려고 노력했는지, 자해 및 자살 시도를 중단했다면 여기에 도움을 준 요인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자해 및 자살에 대한 자율적 보호요인을 확인해보았다. 조사 결과, 자해 시도에 대해서는 83.3%, 자살 시도의 경우에는 81.5%가 ‘결심한 적이 있고, 현재 그만두었다’고 답했다. ‘결심한 적이 있지만 그만두지 못했다’는 응답은 자해 시도 7.3%, 자살 시도 4.2%로 나타났다. 자해/자살 시도를 그만두었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만두는 데 영향을 준 요인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 지인, 선후배의 도움’과 ‘선생님(학교, 학원, 청소년시설 등)의 도움’이 뒤를 이었다. ‘상담기관/의료기관의 도움’이 ‘가족의 도움’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 눈길을 끈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자해 또는 자살 시도를 그만두는 데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주변의 의미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의 지지와 도움이 유효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다만, 위기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의 지지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아, 친구·지인·선후배를 비롯해, 주변 선생님이나 상담기관/의료기관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보다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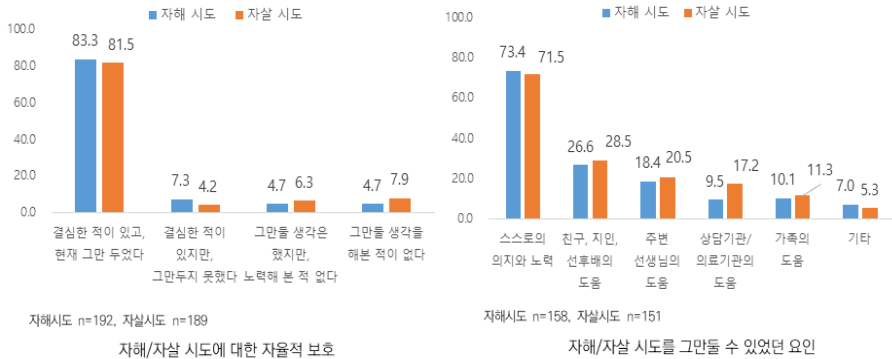


그림 VI-24 자해 시도 및 자살 시도에 대한 보호요인(단위: %)

⑨ 정책적 수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적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사해보았다. 분석 결과,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44.0%로 가장 높았고, ‘가족과의 갈등’(33.0%), ‘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어려움’(31.9%), ‘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함’(26.8%) 등이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일을 구하기 어려움’(17.2%), ‘나를 이해해 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16.7%), ‘할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15.6%), ‘또래(친구 또는 선후배 등)와의 갈등’(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26.4%로 파악되었다.

주요 배경변인별로 눈에 띄는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남자(35.0%)에 비해 여자(13.6%) 청소년이 훨씬 낮았고, 각 선택지에 대한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위기유형별 비교에서는 가출청소년은 ‘가족과의 갈등’, ‘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함’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가정폭력 피해 경험 여부에 따라 비교한 결과,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이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더 높고, 제시된 선택지에 대한 응답 비율도 더 높았다. 이는

가정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애로 사항과 고민을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VI-20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중복응답)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위기 유형		가정폭력 피해경험	
		남	여	가출	비행·범죄	없음	있음
1) 가족과의 갈등	33.0	23.0	48.0	49.8	14.4	10.7	45.4
2) 또래(친구 또는 선후배 등)와의 갈등	13.6	8.2	21.7	16.3	10.6	6.6	17.5
3) 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함	26.8	22.7	33.0	37.4	15.2	10.2	36.1
4)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16.7	10.9	25.3	20.4	12.5	4.6	23.4
5) 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가 어려움	31.9	25.1	42.1	31.8	31.9	30.6	32.4
6)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8.5	4.2	14.9	11.4	5.3	2.6	11.8
7) 지낼 곳을 찾기가 어려움	6.2	3.0	10.9	9.7	2.3	2.6	8.2
8) 일을 구하기 어려움	17.2	16.3	18.6	19.7	14.4	8.7	21.7
9)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	15.6	10.0	24.0	18.3	12.5	9.2	19.2
10)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44.0	33.8	59.3	47.4	40.3	31.6	51.0
11) 건강이 좋지 않음	8.5	3.9	15.4	10.4	6.5	3.6	11.3
12)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각종 비행범죄 등)을 해야 함	1.3	0.3	2.7	1.4	1.1	1.0	1.4
13) 기타	1.8	1.5	2.3	2.1	1.5	2.0	1.7
14) 어려움이 없음	26.4	35.0	13.6	18.7	35.0	42.3	17.7

주: 응답 기준 사례수는 다음과 같음. 전체n=552, 남자n=331, 여자n=221, 가출청소년n=289, 비행·범죄청소년n=263, 가정폭력유경험n=196, 가정폭력무경험n=355.

〈표 VI-21〉에는 앞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4점 만점으로 측정된 값에 대한 평균을 산출해서 비교한 결과, ‘청소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이 3.15점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건강검진 제공’과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가 3.02점, ‘자산

관리(용돈이나 생활비 혹은 알바비 등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와 관련된 정보 제공’ 2.98점, ‘일하면서 겪는 피해(언어 폭력,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보호’ 등이 2.96점으로 비교적 수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VI-21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 수요

(단위: 점)

구분	전체	성별		위기 유형	
		남	여	가출	비행·범죄
1) 학습/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2.74	2.67	2.86	2.90	2.58
2) 진학정보 제공	2.65	2.52	2.84	2.74	2.54
3)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2.73	2.62	2.89	2.89	2.56
4) 직업교육훈련(자격증 취득 등)	2.92	2.81	3.08	2.99	2.84
5) 청소년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3.15	3.02	3.35	3.26	3.04
6) 일하면서 겪는 피해에 대한 보호	2.96	2.84	3.14	3.15	2.74
7) 자산 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	2.98	2.85	3.17	3.14	2.80
8) 건강검진 제공	3.02	2.91	3.18	3.21	2.82
9)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3.02	2.90	3.20	3.23	2.80
10) 성교육 제공	2.73	2.60	2.92	2.92	2.52
11)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제공	2.86	2.70	3.09	3.06	2.64
12) 심리·정서적 상처에 대한 치료나 치유	2.85	2.68	3.09	3.04	2.63
13)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	2.61	2.53	2.73	2.69	2.52
14)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치료 지원	2.48	2.43	2.54	2.57	2.37
15) 다양한 청소년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2.76	2.62	2.96	3.03	2.45
16) 다양한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 제공	2.82	2.70	3.00	3.06	2.55
17)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2.93	2.79	3.15	3.21	2.63

주: 1) 제시된 값은 4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에 대한 평균임.
 2) 사례수는 다음과 같음. 전체n=565, 남자n=339, 여자n=225, 가출청소년n=294, 비행범죄청소년 n=270.

[그림 VI-25]에는 제시된 17개 항목을 영역별로 분류한 뒤, 영역별로 산출한 정책수요도 조사 결과와 17개 항목별로 필요하다고 답한 긍정적 응답(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7개를 선별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및 자립지원’에 대한 요구가 4점 만점에 평균 3.03점으로 가장 높고, ‘건강 관리’ 관련 요구도 2.9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82.6%로 가장 높았고, ‘건강검진 제공’ 78.1%,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77.2%, ‘직업교육 훈련’ 74.4%, ‘일하면서 겪는 피해에 대한 보호’ 74.2%, ‘자산관리 관련 정보 제공’ 74.2% 등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요인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상위 7개 항목 가운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의 경우, 앞서 살펴본 ‘현재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 결과와 연계해서 유추해보면, ‘활동이용 공간’의 의미보다는 ‘마음 편히 머물면서 쉴 곳’에 대한 공간적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 지원 서비스 항목을 일부 수정·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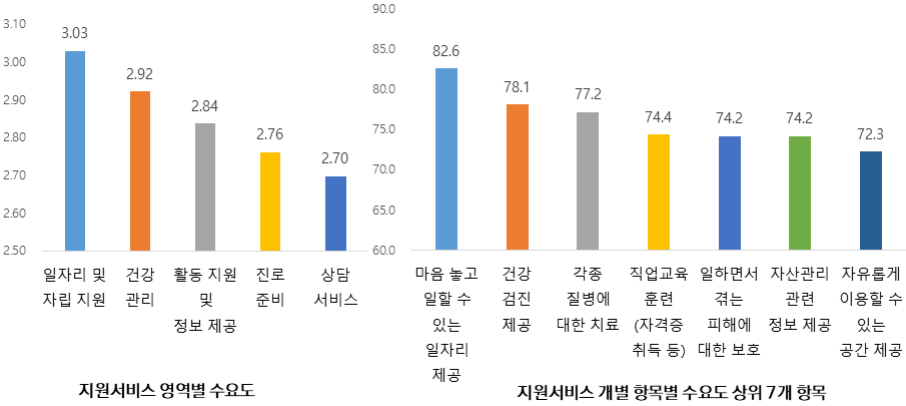


그림 VI-25 지원서비스 수요도: 영역별 및 상위 7개 항목별(단위: 점, %)

⑩ 일반적 특성

마지막으로, 예비조사 내용 가운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점검해보았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예비조사 응답자 가운데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64.7%, 비재학은 35.3%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만둔 적이 있다’ 38.4%, ‘그만둔 적이 없다’

61.6%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사유의 경우, ‘학교 친구들 또는 선생님과 갈 등’(26.3%),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서’(23.2%) 등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다만 이 문항의 경우, ‘기타’ 응답 비율이 18.5%로 높게 나타나, 기타 항목에 대한 주관식 응답 결과를 고려해 선택지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주관식 응답 결과, ‘가출해서’, ‘놀고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거리가 멀어서’, ‘소년원에 오게 되어서’ 등이 복수의 응답으로 제시되었다.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응답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선택지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진로계획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또는 복학’이 31.8%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21.1%로 나타났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26.0%로 높게 파악되었다. 최근 1년 간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에는 ‘받았다’ 56.6%, ‘받지 않았다’ 43.4%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포함한 본인 및 부모님의 출생국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 본인은 99.1%에 달하는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으나, 어머니의 경우에는 5.2%가 외국인으로 파악되었다. 예비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응답 비율로 미루어 볼 때, 본인 및 부모의 출생국가 관련 문항은 현행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빈곤 여부 확인을 위해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 21.6%,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해당’ 5.9%, ‘아니다’ 41.0%, ‘모르겠다’ 31.6%로 파악되었다. ‘모르겠다’는 문항의 응답 비율이 30%를 상회하여, 해당 문항의 실익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VI-22 일반적 특성 문항 응답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응답 비율(%)
학교 재학 여부	다닌다	365	64.7
	다닌지 않는다	199	35.3
학업중단 경험	그만둔 적이 있다	209	38.4
	그만둔 적이 없다	335	61.6

구분		사례수(명)	응답 비율(%)
학업중단 사유	건강상의 이유로	8	4.1
	집안의 경제사정	6	3.1
	가족간의 갈등이나 불화	10	5.2
	학교 친구들 또는 선생님과과의 갈등	51	26.3
	검정고시 또는 해외유학 준비	27	13.9
	특기나 소질을 살리기 위해	11	5.7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서	45	23.2
	기타	36	18.5
향후 진로 계획	상급학교 진학 또는 복학	163	31.8
	취업	108	21.1
	창업	49	9.6
	아르바이트	56	10.9
	진학도 취학도 하지 않음	1	0.2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함	133	26.0
	기타	2	0.4
최근 1년간 건강검진 여부	받았다	316	56.6
	받지 않았다	242	43.4
본인	대한민국	558	99.1
출생국가	대한민국 외 다른 나라	5	0.9
아버지	대한민국	548	98.2
출생국가	대한민국 외 다른 나라	10	1.8
어머니	대한민국	522	94.7
출생국가	대한민국 외 다른 나라	29	5.2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그렇다	121	21.6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해당	33	5.9
	아니다	230	41.0
	모르겠다	177	31.6

(2) 여타 조사와의 비교 가능성 검토

여기에서는 통계품질관리 요건 중 비교성(comparability) 및 일관성(coherence)의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설계한 조사내용(안)을 점검해보고자, 여타 조사와 비교 가능한 주요 문항을 선별하여 비교를 실시하였다. 가용 범위에서 여타 조사와의 비교를 실시하였으나, 각 조사별로 조사대상의 연령, 특성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참고자료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가정 내 언어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2018 아동종합 실태조사」의 경우, 생애경험율이 13.9%로 나타난 데 비해, 본 예비조사의 경험률은 57.6%로 높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위기청소년들이 가정 내 언어폭력에 더 빈번하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두 조사는 조사대상의 모집단, 연령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

표 VI-23 다른 조사와의 비교: 가정 내 언어폭력 피해 경험

항목	본 예비조사(2020)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¹⁾	
	사례수(명)	응답값(%)	사례수(명)	응답값(%)
지금까지 부모님(보호자)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퍼부은 적이 있음	556	57.6	2,510	13.9

* 비교대상: 1)류정희 외(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431쪽, <표 10-45>을 토대로 산출.

다음으로,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율’을 비교해보았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일반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조사 결과(김지경 외, 2018b)다. 2018년 조사에서 위기청소년의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율은 24.7%였으나 2020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예비조사에서는 그 값이 40.7%로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되었다. 조사대상 내 청소년쉼터 소속 청소년의 비중 등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표 VI-24 다른 조사와의 비교: 가출 경험

항목	본 예비조사 (2020)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¹⁾			
	사례수 (명)	응답값 (%)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사례수 (명)	응답값 (%)	사례수 (명)	응답값 (%)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율	511	40.7	15,452	2.6	1,989	24.7

* 비교대상: 1) 김지경 외(2018b).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75쪽, <표 III-43>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위기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율은 일반청소년보다 높다는 점은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다만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아르바이트 경험율(54.1%)에 비해 본 예비조사에서 도출된 경험율(30.9%)은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의 특성에 따른 차이와 더불어, 2020년 COVID-19의 확산으로 전반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이 위축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비해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근로 경험은 본 예비조사에서 크게 낮게 파악되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비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영역에서 문항 이동 로직에 응답자들이 혼란을 느껴, 응답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VI-25 다른 조사와의 비교: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명, %)

항목		본 예비조사 (2020)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¹⁾			
		사례수	응답값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사례수	응답값	사례수	응답값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율		514	30.9	10,870	9.0	2,002	54.1
청소년	경험율	513	5.3	10,878	3.8	1,999	28.8
고용금지업소 근로 경험 ²⁾	나이 확인	25	64.0	413	87.3	575	85.7

* 비교대상: 1) 김지경 외(2018b). 117쪽 <표 III-90>, 125쪽 <표 III-100>.
 * 주: 2) 본 예비조사에 사용된 문항은 “지금까지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에서 일해본 적이 있나요?”이며,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사용된 문항은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나요?”로, 기준 시점 제시 여부가 동일하지 않음.

다음으로, <표 VI-26>에는 유해 약물 이용 경험율에 대한 비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음주 및 흡연율의 경우, 여타 항목에 비해 문항의 표현, 기준 시점 등이 동일하여 안정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비교 결과, ‘최근 1개월 간 음주율’의 경우, 2018년 조사(33.1%)에 비해 다소 높은 값(38.7%)이 도출되었으

나 비교적 근사 범위에 드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흡연율 역시 2018년 조사(52.9%)와 본 예비조사(54.2%)가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다만, 환각성 물질의 경우, 2018년 조사는 ‘최근 1년 간의 경험’을, 2019년 조사는 생애경험을, 본 예비조사는 ‘최근 1달 간 경험’을 조사하고 있어, 직접적 비교가 어렵다.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문항은 조사의 실익을 고려하여 문항 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문항 유지 시에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기준 시점을 생애 경험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표 VI-26 다른 조사와의 비교: 약물 이용 경험

(단위: 명, %)

항목	본 예비조사 (2020)		「2019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¹⁾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²⁾	
	사례수	응답값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사례수	응답값	사례수	응답값
최근 1개월 간 음주율	564	38.7	57,303	15.0	1,998	33.1
최근 1개월 간 흡연율	553	54.2	57,303	6.7	2,001	52.9
최근 1개월/1년 간/지금까지 환각성 물질 경험율 ³⁾	563	0.5	57,303	0.5	2,001	3.7

* 비교대상: 1)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9). 39쪽, 89쪽, 319쪽.
2) 김지경 외(2018b). 89쪽 〈표 III-59〉, 96쪽 〈표 III-67〉, 107쪽 〈표 III-81〉.
* 주: 3) 환각성 물질 이용률의 경우, 본 예비조사에서는 음주, 흡연 등 여타 약물 경험을 묻는 문항과의 기준 기간일치를 위해 “최근 1개월 동안”의 경험율을 조사하였고, 「2019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생애경험을, 「2018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위기청소년 부가조사」에서는 최근 1년 간의 이용 경험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기준 기간이 상이함.

〈표 VI-27〉에는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언어폭력이 나 폭행 등 세부 문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응답률 차이는 0.5~4%p 수준에서 근사값을 나타냈다.

표 VI-27 다른 조사와의 비교: 폭력 피해 경험

(단위: %)

항목	본 예비조사 (2020)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1)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음	18.8	6.9	8.0
2)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침	9.2	2.4	5.1
3)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5.5	1.0	3.4
4)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	9.6	1.6	4.7
5) 왕따(따돌림)를 당함	5.1	1.6	2.9
6) 강제 심부름(쌍서들, 와이파이/데이터서들, 게임서들 등)을 당함	2.3	0.2	1.8
7) 돈을 모아 오라고 강요하거나, 대리입금을 요구받음	3.0	-	-
8) 온라인(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	3.7	0.9	2.5

* 비교대상: 김지경 외(2018b), 55쪽 <표 III-22>.

* 주: 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 본 예비조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친구나 선후배, 아는 사람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로 질문하였고,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로 질문하였음.

<표 VI-28>에는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응답률이 비교 제시되어 있다. 위기청소년은 2018년 조사 및 2020년 본 예비조사에서 모두 일반청소년에 비해 성폭력 피해율이 더 높게 도출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응답율의 경우에도 그 차이가 0.3~1.2%p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표 VI-28 다른 조사와의 비교: 성폭력 피해 경험

(단위: %)

항목	본 예비조사 (2020)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1)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피해를 당함	2.0	0.4	0.8
2)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함	3.2	1.7	2.3

항목	본 예비조사 (2020)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3)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함	1.4	1.0	1.2
4) 강제로 성관계 시도나 피해를 당함	2.0	0.1	1.7

* 비교대상: 김지경 외(2018b). 63쪽 <표 III-30>.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수검율을 비교해보았다.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청소년(9-17세)의 건강검진 수검율은 9-11세 청소년이 44.5%, 12-17세 청소년이 39.6%인데 비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예비조사의 응답자들은 56.6%가 최근 1년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해, 건강검진 수검율에서 더 높은 값을 보였다.

표 VI-29 다른 조사와의 비교: 건강검진 수검율

(단위: 명, %)

항목	본 예비조사(2020)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¹⁾	
	사례수	응답값	사례수	응답값
최근 1년 간 건강검진 수검율	558	56.6	2,510	(9-11세) 44.5 (12-17세) 39.6

* 비교대상: 1)류정희 외(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145쪽 <표 5-35>.

(3) 조사문항 수정·보완 사항의 도출

예비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① 문항 이동 로직의 수정·보완

첫째, 예비조사 결과, 일부 문항의 문항 이동 로직이 응답자들에게 다소 어렵거나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가출 경험 및 아르바이트 경험, 자해 및 자살 시도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이러한 문제가 감지되었으며, 연구진 회의를 통해 수정 방안을 결정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VI-30>과 같다.

표 VI-30 예비조사 검토 결과: 문항 이동 로직의 수정보완

항목	문항 번호	예비조사 결과	반영 방안
• 가출 경험	문8	• 문8에서 ‘가출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문9로 이동하여 가출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여부/상담여부/도움 정도 및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답을 해야 함.	• 문9 및 문9-1은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만 답하도록, 문8의 문항 이동 지시문을 수정함.
• 가출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문9		
•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문9-1		
•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문14	• 문14는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을 묻고 있으며, 문16-문17은 아르바이트 관련 생애 경험을 묻는 문항이므로 논리적 오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응답자들이 문14에서 문16-문17로의 이동을 어색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생애경험을 묻는 문16 및 문17의 위치를 아르바이트 영역 초입부로 위치 이동하고, 선별 문항(screening question)을 통해 응답자들의 부담을 경감함.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생애 경험)	문16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의 근로 경험(생애 경험)	문17		
• 자해를 시도한 이유	문33-1	• 문33에서 자해를 시도하지는 않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문34로 이동하여 자해를 하게 된 이유를 응답하도록 이동 로직이 제시되어 있음. • 동일한 오류가 자살 시도 이유에서도 관찰됨.	• 자해 시도/자살 시도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동기를 갖게 된 이유를 응답할 수 있도록 문33-1 및 문34-1을 수정하기로 함.
• 자살을 생각한 이유	문34-1		

② 응답 방식의 변경

다음으로, ‘게임 과몰입’ 세부주제에서 ‘게임을 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의 경우, 예비조사에서는 ‘가장 큰 이유’ 1개만 선택하는 단순응답으로 묻고 있으나, 예비조사 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이 1개만 선택하는 것에 곤란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모두’ 선택을 허용하는 복수응답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아르바이트 영역에서 배달 아르바이트 방식 및 관련 서류 작성 여부를 묻는 문항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이동 로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복수응답을 단순응답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표 VI-31 예비조사 검토 결과: 응답 방식의 변경

항목	문항 번호	예비조사 결과	반영 방안
• 게임을 하는 이유	문11	• 게임을 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단수응답 방식으로 인해 선택지 선택을 어렵게 느끼는 경향성 파악	• 응답자의 응답 편의를 고려해, 응답방식을 단수응답에서 복수응답으로 변경하기로 함
• 배달 아르바이트 근로 방식	문15	• 문15(배달 아르바이트 근로 방식)에서 '모두' 선택을 허용하기 때문에, ①과 ②를 모두 선택한 경우, 이동이 모호함.	• 문항의 작성 취지를 고려하여, 문15를 복수응답에서 단수응답으로 수정함.
• 배달 아르바이트 관련 서류 작성 여부	문15-1		

③ 비교가능성을 고려한 문항 수정

다음으로, 일부 문항의 경우, 타 조사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항의 표현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환각성 물질 이용 여부'를 묻는 문항과, '폭력 피해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각성 물질 이용 여부'의 경우,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 및 흡연 경험을 묻는 인접 문항들과 기준 시점을 통일하기 위해 '최근 1개월 간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을 묻는 것으로 예비조사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타 조사 결과와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준 시점의 차이로 조사 결과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에 인접 문항과의 기준 시점 통일과 타 조사와의 비교가능성,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해 연구진 검토를 거친 후, 종합적인 득실을 고려하여 타 조사와 기준 시점을 통일하기로 하였다. 이에 일반청소년의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에 대한 대표적인 국가승인통계인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기준 시점을 준용하여, '지금까지'의 생애경험을 묻는 것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표 VI-32 예비조사 검토 결과: 비교가능성을 고려한 문항 수정

항목	문항 번호	예비조사 결과	반영 방안
•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문21	• ‘최근 1개월 간’ 환각성 물 질 이용 경험으로 기준 시점 을 제한하여, 타 조사와 비 교가 어려움.	•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에 대 한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위해, 「청소년건강행태조 사」 문항을 준용하여, ‘지금 까지’의 생애경험을 묻는 것 으로 문항을 수정함.
• 유형별 폭력 피해 경험 여부	문27	• 의미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추후 비교 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항 표현을 비교 대상 문항과 동 일하게 수정함.	• 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문항 표현(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친구나 선후배, 아는 사람 등)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와 동 일하게 수정함.

④ 응답자의 응답 편의 및 현실을 반영한 선택지 수정·보완

예비조사를 결과를 검토하여 문항의 선택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수의 문항에 ‘기타’ 선택지를 제시하고, 개방형 응답으로 응답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문항에서 복수의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기타’ 항목의 경우에는 선택지 포함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일부 선택지의 경우에는 유사 내용의 선택지와 통합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표의 수정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 구체적 내역은 〈표 VI-33〉과 같다.

표 VI-33 예비조사 검토 결과: 응답 편의 제고 및 현실을 반영한 선택지 수정·보완

항목	문항 번호	예비조사 결과	반영 방안
• 가정폭력 피해 사실 을 알린 대상	문6-1	• 기타 항목으로 ‘엄마에게 알렸다’는 내용이 다수 발 견됨.	• 선택지에 ‘가족’을 포함 하도록 수정

항목	문항 번호	예비조사 결과	반영 방안
•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문6-2	• 기타 항목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복수의 응답자로부터 도출됨.	• 대응 방법을 몰라서 주변에 알리지 못했음을 반영하는 선택지 추가
• 가출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서비스	문8-7	• 기타 항목으로 '금전적 지원'에 대한 응답이 다수 도출되었고, 전체 응답자의 3% 수준을 차지함. • 그 밖에 '심리적 지원', '상담'에 대한 수요도 도출됨.	• 금전적 지원, 심리적 지원/상담 내용을 선택지에 추가함.
• 게임을 하는 이유	문11	• 게임을 하는 이유에 대한 기타 항목으로 '그냥 재미 있어서'라는 응답이 복수의 응답자로부터 도출됨.	• 관련 내용을 선택지에 추가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통로	문12-1	• 기타 항목으로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만나서', '직접 만나서' 등의 의견이 복수의 응답자로부터 도출됨.	• 관련 내용을 선택지에 추가함.
•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문12-2	• 기타 항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지인들이 제시됨.	• 기존의 '④친구, 지인/선후배'를 오프라인 지인들을 통칭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보완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 방법	문12-3	• 기타 항목으로 '그 사람을 차단했다'는 응답이 다수 발견됨.	• 해당 항목을 선택지에 추가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문12-4	• 기타 항목으로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등의 내용이 제시됨.	• 타 문항(가정폭력 피해, 폭력 피해, 성폭력 피해 등)과 비교하여, 관련 선택지 반영
• 돈내기 게임을 한 이유	문25-3	• 기타 항목으로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려고', '생계비가 필요해서' 등이 제시됨.	• 돈이 필요해서 도박(돈내기 게임)의 유혹에 빠지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선택지에 추가함.
• 조건만남 피해를 입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문30-4-2	• 기타 항목으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응답이 복수의 응답자로부터 제시됨.	• 해당 내용을 선택지에 추가하되, 기존 내용 중에서 유사한 항목과 통합함.

항목	문항 번호	예비조사 결과	반영 방안
• 조건만남을 그만둘 수 있었던 요인	문30-5-1	• 빈도분석 결과, ④ 및 ⑤를 통합할 필요성 제기	• 기존 선택지 ④와 ⑤를 통합함.
• 자해를 하게 된 이유	문33-1	• 기타 항목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다수 제기되었고, 그 밖에 '살기 싫어서',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등의 항목이 제기됨.	• 기타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선별하여, 일부 내용을 선택지로 추가함.
• 자살을 생각한 이유	문34-1	• 기타 항목으로 '힘들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제시됨.	• 현재 선택지에 개인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선택지가 부재하므로, 관련 내용을 선택지에 추가함.
• 학교를 그만둔 이유	배문4-1	• 기타 항목으로 '가출을 해서', '소년원에 가게 되어서', '비행을 저질러서', '귀찮아서' 등의 사유가 공통적으로 제시됨.	• 기타 항목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여, 기존 선택지를 수정하고, 신규 선택지를 추가함.

⑤ 문항의 의미 명료화 및 세부 문항의 추가

다음으로, 일부 문항의 경우, 응답자가 문항의 취지와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부연 설명이나 지시문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해 세부 문항을 추가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I-34 예비조사 검토 결과: 부연 설명 및 지시문 추가

항목	문항 번호	예비조사 결과	반영 방안
• 부모-자녀 관계 및 방임 경험	문4	•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어디에 응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 현재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응답 가이드라인 추가 제시
• 보호자동의서 제출 요건으로 구직의 어려움 경험 여부	문16-1)	•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문항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복수의 응답자로부터 제시됨.	• 문항의 취지가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문항 표현을 수정함.

항목	문항 번호	예비조사 결과	반영 방안
•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원서비스 수요	문37-17)	• 문37에 제시된 세부 항목에 공간 제공에 대한 내용이 미반영되어 있어, 응답자들이 해당 항목을 '지널 곳'으로 이해하고 응답하는 현상이 관찰됨.	• 공간 제공과 관련하여, 여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고려하면, 위기 청소년에게 활동공간보다 지널 공간에 대한 수요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17)번 문항을 '지널 곳'에 대한 문항으로 수정·변경함.
• 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	문37	• 문38에서 제시된 개방형 응답 결과, '안정적인 거주 공간', '경제적 지원', '가정폭력/가족 간의 갈등 해결' 등에 대한 수요가 다수 관찰됨.	• 문38에서 공통적으로 다수 도출된 항목을 선별하여, 문37의 하위 항목으로 추가함.

⑥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영역 및 문항의 확인

마지막으로,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전반적인 구성과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영역과 문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I-35 예비조사 검토 결과: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영역 및 문항의 확인

항목	문항 번호	예비조사 결과	반영 방안
• 평소 게임 이용 여부 및 이유	문11	• 예비조사 결과, 위기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수준이 여타 위기 영역에 비해 심각하지 않고, 다른 영역 문항과의 인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 핵심(core)-부가(add)의 설계 기준 적용 시, '게임 과몰입' 주제는 부가(add) 항목으로 분류하여 관리함.
• 게임 과몰입 수준	문11-2		
• 아르바이트 관련 부당행위 경험	문16-2)~3)	•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문항 유지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설문지의 간명성 제고 및 응답자 부담 경감을 위해, 문 16-2), 3) 문항의 삭제를 고려함.
• 음주로 인한 성범죄 시도 경험	문23-6)	• 예비조사 결과, 응답자에게 응답부담감 및 불편감을 야기하고, 솔직한 응답을 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조사 결과 활용 가능성, 타 문항 응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문항은 삭제함.

3. 면담조사 결과

앞서 검토한 설문조사 방식의 예비조사와는 별도로, 면담조사 방식의 예비조사를 병행하였다. 면담조사는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대면조사로 진행된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면담조사는 연구참여자의 상황과 요청을 반영하여, FGI 방식의 집단면담과 일대일 면담을 병행하였다. FGI는 총 6명을 각각 2명과 4명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4인의 청소년은 일대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총 10명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내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VI-36〉에는 이 가운데 조사내용(안) 및 조사표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이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주요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예비조사 면담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조사의 길이나 난이도는 크게 부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청소년으로부터 조사의 목적이나 활용도, 의의가 좀 더 분명하게 제시된다면 조사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제5장에서 제시한 1단계 현장 전문가 FGI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던 의견으로,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자신들의 응답 결과가 향후 비슷한 여건에 처한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된다는 의의가 충분히 설명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표 앞부분에 연구의 의의와 활용도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표 VI-36 위기청소년 대상 면담 예비조사 결과: 종합적 의견

구분	면담조사 결과	반영 방안
응답 소요시간 및 집중도	• 전체 설문 응답 시간은 30분 내외로 실사 추진에 크게 무리가 없음.	•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예비조사 결과, 설문의 길이 및 실사 수행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틀을 유지함.
	• 전체 설문의 길이가 길어 보이지만, 실 제 응답 과정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구분	면담조사 결과	반영 방안
	경우 관련 하위문항에도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길거나 응답에 부담이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청소년 의견이 제시됨.	• 다만, 응답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예비조사 결과, 필요성이 낮게 도출된 일부 문항의 경우 삭제 검토함.
문항 이동 로직의 복잡성	• 전체적인 이동 로직의 복잡성이나 특별한 어려움은 느껴지지 않음. 화살표가 제시된 대로 따라가면서 진행하면 어려움이 없음.	• 현재 조사표 디자인의 틀을 유지하되, 설문조사에서 발견된 이동 로직의 오류를 일부 수정함.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구성에 대한 상세 설명	•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면, 설문에 참여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조사 활용 목적이 정확히 전달되면, 좀 더 진지하고 열심히 조사에 참여할 것 같음) • 설문 시작 전에, 설문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가 필요해 보임. 응답 도중에 대답하기 불편한 영역이 나오면 응답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음.	• 조사표 전반부에 조사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추가 • 전체 조사내용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는 것은 민감 문항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시하여, 다른 문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음.
기준 시점 관련	• 회고적 경험을 묻는 문항의 경우 대부분 기준 시점이 '최근 1년 동안'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지난 1년의 경험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기청소년이 경험한 위기를 포착하기에 '최근 1년'의 기간이 짧아 보임. '일생 동안', '평생 동안'으로 기간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일반청소년과의 비교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항의 경우, 기준시점 통일을 위해 현행 기준을 유지함. • 다만 위기청소년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답자들이 응답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가정폭력 피해 등의 경험에서 '평생 경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배치함. • 또한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은 생애 경험으로 선택지를 수정함.

다음으로, <표 VI-37>에는 영역별 검토 의견이 정리되어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설문조사 방식의 예비조사를 통해 도출된 의견과 유사한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가출청소년 지원기관 인지·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문항의 응답 로직 수정, 자해·자살 시도 사유 문항 수정 등이 대표적이다. 면담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은 연구진 협의 과정에서 설문조사 결과와의 상호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반영하고자 한다.

표 VI-37 위기청소년 대상 면담 예비조사 결과: 영역별 의견

구분	면담조사 결과	반영 방안
가정 밖 경험	가출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질문은 가출 경험이 없는 경우, 응답하기 어려움.	지원기관 인지 여부 및 이용 여부 문항은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만 답하도록 수정
	‘헬퍼’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지만, 맥락상 이해할 수 있음. 또한 ‘헬퍼’를 접촉해보지 않은 경우에는 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다만 ‘헬퍼’의 경우, 도움을 주는 긍정적 ‘헬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해당 문항은 ‘헬퍼’로 인해 청소년들이 위기/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바, 부정적 경험 중심의 현행 문항을 유지함.
게임 과몰입	게임을 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제시된 선택지 여러 개에 해당함.	‘게임을 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의 응답 방식을 단수응답에서 복수응답으로 변경함.
도박 (돈내기 게임) 경험	도박(돈내기 게임)에 사용한 액수를 정확히 기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설문조사 결과, 도박에 사용한 액수 기입 과정에 별다른 응답 부담이나 어려움이 제시되지 않은 바, 현행 유지함.
성 경험	성관계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은 성폭력 피해자라면 응답하기 불편할 수 있음.	성관계 경험은 피임 여부를 묻기 위한 문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현행 유지함.
(성)폭력 피해 경험	조건만남에 대해 정직하게 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문항의 특성 상 응답 회피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예비조사 결과 의미있는 결과가 산출되어 현행 유지함.
심리-정서적 특성	은둔형 외톨이 성향 포착을 위해 포함한 ‘사회적 위축’ 척도 문항 가운데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는 내용이 어색하게 느껴짐.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 있어서 주로 집에 머무는 것과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느껴짐.	예비조사 결과, 사회적 위축 요인은 Cronbach’s $\alpha=0.796$으로 양호한 값을 나타냈음. 그러나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 문항에 대한 의견이 다시 제시되어, 해당 문항의 삭제 검토함.
	자기조절력을 측정하는 하위 문항 중 ‘무슨 일이든 갑자기 하는 경우가 많다’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의미가 모호함.	해당 문항의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표현을 수정함.
자해/자살 시도 경험	자해(또는 자살 시도)를 생각해보기만 하고 실제 시도는 하지 않은 응답자의	자해(또는 자살 시도) 이유를 묻는 문항의 경우, 실제 시도하지

구분	면담조사 결과	반영 방안
	경우, 시도한 사유를 묻는 문항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짐.	알고 생각해보기만한 경우에도 사유에 답하도록 문항을 수정함.
	자살을 생각한 이유의 경우, 현재 제시된 선택지는 대부분 외부적 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자신의 내적인 고민이나 심리적 문제(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심리 등)가 주된 사유인 경우, 응답하기가 어려움.	자살을 생각한 이유와 관련하여, 심리적 요인 관련 선택지를 추가함.
정책적 수요	깨끗한 쉼터 등 지낼 곳에 대한 생활 공간 지원이 필요함.	지원서비스 수요 항목에 생활 공간 관련 내용을 추가함.
	진로 탐색 관련 지원이 매우 부족함.	진로 탐색 관련 수요 파악을 통해, 추후 정책대안 마련을 지원함.
	각종 예방 교육이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예를 들어,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수의 예방 교육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음. 일반적이고 평범한 청소년을 가정하고 만든 교육이라서, 심리적으로 취약하거나 실제 위기를 겪는 청소년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음.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정책대안 제시에 반영함.
	상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 되었으면 좋겠음. 현재는 1시간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하고, 일주일에 1회, 짧게 진행됨. 접근성이 개선되고, 동네마다 상담센터가 있어서 자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정책대안 제시에 반영함.

4. 소결

이 장에서는 개발된 조사내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문항 오류 및 개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예비 조사는 설문조사를 주된 방법으로 삼고, 면담조사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의 목표 표본은 600명이었으며, 실제 완료된 표본수는 627명이었고, 이 가운

데 연구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미동의하거나 무응답한 사례 34명과 불성실 응답 23명 등 총 57명을 제외한 565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설문 분석의 일차적 목적은 조사표에 포함된 각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검토하여 조사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조사문항에 대한 시범적 분석을 통해 위기청소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목적을 두었다. 면담조사는 비대면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면담조사 참여자는 총 10명의 위기청소년이었다. [그림 VI-26]에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예비조사의 구성과 목적이 제시되어 있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발견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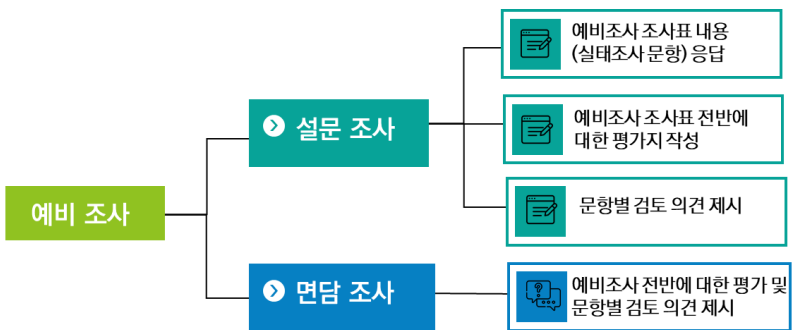


그림 VI-26 예비조사의 구성과 목적

1) 설문지 전반에 대한 주요 평가 결과 요약

먼저, [그림 VI-27]에는 제시된 조사표 전반에 대한 난이도, 불편감 및 곤란도, 조사 소요 시간, 응답 부담감에 대한 분석 결과가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점 미만의 낮은 응답 값을 나타내, 대체로 제시된 조사표가 난이도, 응답의 곤란도 및 불편도, 조사표 길이 등에서 본 조사 추진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선 의견이

제일 높게 나타난 항목은 ‘문항 과다로 인한 집중도 저하’였다. 따라서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집중도 저하로 인한 전반적인 응답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조사에서 도출된 문항별 응답 결과를 검토하여, 변별력이 낮거나 조사의 실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을 일부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내용의 불편도’ 항목이 2.3점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 이 항목의 경우 여자 청소년, 가출청소년에게서 불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되었다. 응답자에게 불필요한 불편감을 야기하는 문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필요성 및 조사의 실익을 고려해 문항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항 이동 로직의 난이도’ 및 ‘설문지 구조의 복잡성’도 평균 2.0점으로 양호하게 평가되었다. 다만 저연령대 청소년에게서 다소 어렵다는 응답 반응이 좀 더 높게 나타난 바, 가능한 범위에서 문항 로직을 수정하거나, 조사표 디자인 변경을 통해 응답자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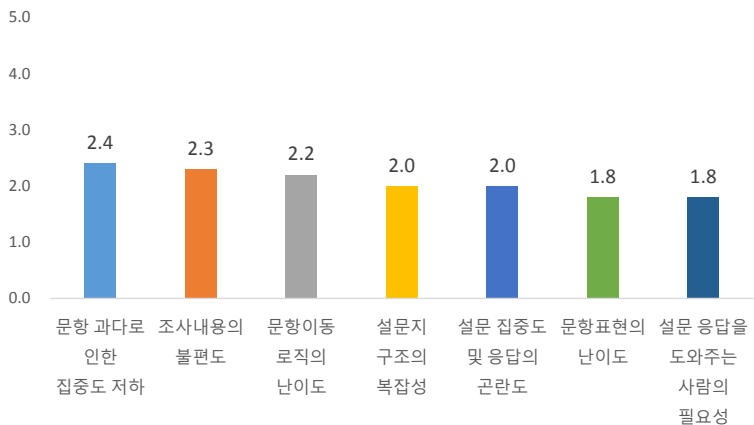


그림 VI-27 설문지 전반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균 점수

2) 예비조사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요약

565명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 문항 분석의 주요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위해 개발된 조사표 내용의 구성과 영역, 문항이 대체로 타당하고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선행연구 검토와 현장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되었던 위기청소년이 직면한 문제점들이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비교가능성 확인을 위해 일부 문항에 대해 실시한 기존 실태조사 결과값과의 비교에서도 음주율, 흡연율 등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 핵심 문항(key-question)에 대해 기존 조사에 상응하는 안정된 값이 도출되었다.

위기청소년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적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에서 추가한 조사항목들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출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은 가출 후 대부분 ‘친구 또는 선·후배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가출 유경험자의 23%는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나와 지내는 동안 ‘잘 모르는 사람(헬퍼)’으로부터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제안이나 광고를 받은 경험은 가출 유경험자의 10.7%를 차지했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은 18.0%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인터넷을 통해 ‘헬퍼’를 구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3%(남자 4.3%, 여자 13.2%)였고, ‘헬퍼’와 접촉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 중에서 실제로 ‘헬퍼’와 생활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0.6%(남자 42.9%, 여자 25.7%)였다. ‘헬퍼’와의 접촉은 주로 인터넷 메신저나 랜덤채팅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중 24.9%는 지금까지 도박(돈내기 게임)을 해본 적이 있고, 최근 3개월 이내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6.1%였다. 최근 3개월 이내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절반이 넘는 53.3%가 일주일

에 1-2회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거의 매일’ 도박(돈내기 게임)을 한다는 응답도 30.0%를 차지했다. 이는 도박(돈내기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상습적 성향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위기청소년의 54.2%는 흡연을 하고, 38.7%는 최근 1개월 간 음주 경험이 있었다. ‘술이나 담배 구입을 위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7.5%, ‘담배를 대리구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2.0%, ‘술을 대리구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3.9%로 나타났다. ‘음주가 시비폭행·절도 등 비행으로 이어졌다’는 응답은 16.7%, ‘술을 마시고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음주운전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5.1%로 나타나, 음주나 흡연은 그 자체로도 위기청소년의 건강에 유해하게 작용하지만, 음주/흡연 과정에서 다양한 범법·위법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폭력 피해 중 조건만남 경험을 조사한 결과, 예비조사에 참여한 위기청소년 중 9.8%(남자 2.1%, 여자 21.5%)가 조건만남에 대한 유인 또는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5명 중 1명 비율로 조건만남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건만남에 대한 노출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조건만남을 해보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6.0%(남자 2.5%, 여자 11.6%)였다. 조건만남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갈 곳(잘 곳)이 없어서’가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기본적인 숙식 해결이 조건만남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주요 경로는 ‘랜덤채팅앱’이 48.4%로 가장 많았고, ‘채팅 사이트 또는 채팅앱(1:1채팅, 화상채팅 등)’이 45.2%, ‘SNS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22.6%로 파악되었다. 조건만남을 그만두는 보호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68.2%로 가장 높았지만, ‘상담기관/쉼터선생님의 도움’도 40.9%로 높게 파악되었다.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위기청소년에게 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방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최근 그 심각성이 심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온라인

성폭력)’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1.7%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은 36.6%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은 경험’(남자 6.8%, 여자 21.9%)였고, 여자 청소년의 16.1%는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자해 시도 경험과 관련하여, 지난 1년 간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0.5%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은 절반이 넘는 53.3%가 자해 시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해 시도가 위기청소년 집단에서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대단히 일반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에 비해 자해 시도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응답은 74.7%에 불과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기관의 상담치료를 받아보았다는 응답은 33.0%에 그쳤다.

3) 조사내용 및 조사표 주요 수정 방향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의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한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내용과 조사표 보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였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연구진의 반복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문항 이동 로직의 수정·보완’, ‘응답 방식(단수/복수 응답)의 변경’, ‘비교가능성 제고’, ‘선택지 수정·보완’, ‘문항의 의미 명료화 및 세부 문항 추가’ 및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영역 및 문항의 확인’ 등 6가지 범주로 수정 방향을 도출하였다. 각 범주별 주요 수정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표 VI-38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사내용 및 조사표 주요 수정 방향

수정 방향	해당 문항
① 문항 이동 로직의 수정·보완	- 가출청소년 지원기관 인지/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청소년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유를 묻는 문항으로의 이동 로직 개선 -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 및 생애 아르바이트 경험으로의 이동 로직 개선 - 자해/자살 시도에 대한 동기 확인 후 시도 사유를 묻는 문항으로의 이동 로직 개선
② 응답 방식의 변경	- 게임을 하는 이유: 단수응답→복수응답으로 변경 - 배달 아르바이트 근로 방식: 복수응답→단수응답으로 변경
③ 비교가능성 제고	-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기준시점 '최근 1개월'→생애경험으로 수정 -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제시문의 표현 수정
④ 선택지 수정·보완	- 예비조사에서 기타 항목으로 제시된 내용 가운데, 연구진 협의를 거쳐 선택지 포함이 필요한 내용은 선택지 추가 - 예비조사 빈도 분석 결과, 일부 문항은 기존 선택지 통합
⑤ 문항 의미 명료화 및 세부 문항 추가	- 응답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일부 문항에 지시문(응답 가이드라인) 추가 - 문항의 의미를 명료하게 수정: 아르바이트 경험 관련, '보호자 동의서 제출 요구로 인한 구직 어려움' 문항 표현 수정 - 지원 서비스 수요 중, 생활 공간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항목을 수정하고 '경제적 지원' 항목을 추가
⑥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영역 및 문항 확인	- 세부주제의 경우, '게임 과몰입'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가 낮음. - 구체적 문항의 경우, '아르바이트 관련 부당행위 경험', '음주로 인한 성범죄 시도 경험' 문항의 조사 실익이 낮음.



제Ⅷ장 위기청소년 실태 조사 최종 설계방안

- 1. 최종 설계방안의 도출 과정
- 2. 조사 대상 설계
- 3. 최종 조사내용의 도출
- 4. 실사 추진 방안
- 5. 소결

1. 최종 설계방안의 도출 과정

제7장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수행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의 최종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 설계방안의 도출 과정을 간략히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 실시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청소년 ‘위기’와 위기 청소년의 개념과 속성을 살펴보고, 기존 실태조사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였다. 제2장의 내용들은 본 연구를 관통하는 조사설계의 관점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토대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유형과 범주를 확인하고,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정책대상으로서의 위기청소년 세부 유형을 귀납적으로 도출하고, 유형별 규모를 추정하였다. 제3장의 내용은 조사대상의 설정과 모집단 정보 확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제4장에서는 조사내용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분석의 측면에서, 기존 실태 조사 자료를 광범하게 수집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효과적인 내용분석을 위해 ‘위기 실태 파악’, ‘기존 정책 작동 실태 및 효과 점검’, ‘신규 정책 수요 파악’, ‘대응 능력(보호요인)’의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 틀을 적용하여 29개의 설문지를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검토한 내용은 조사내용 설계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조사영역 및 항목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28) 이 장의 1절, 3절, 4절, 5절은 황여정 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2절(조사 대상 설계)의 ‘1) 모집단 분석’은 황여정 연구위원이, 2절의 나머지 부분은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하였다.

제5장에서는 실태조사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내용 설계 및 조사도구 개발이 이루어졌다. 제2장~제4장에서 실시한 연구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설계의 목적과 방향,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내용을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광범한 의견수렴을 위해 1단계 현장전문가 FGI(총 5회) 및 2단계 FGI(총 2회)를 실시하였고, 도출된 조사영역 및 조사항목(안)에 대해 전문가 36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및 중요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관계부처 검토 및 청소년 대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반복적인 연구진 검토와 협의를 통해 조사표(안)을 수정·보완하여 예비조사를 위한 조사표를 마련하였다.



그림 Ⅶ-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 방안 도출 과정

제6장에서는 이렇게 작성된 조사표(안)을 토대로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예비조사는 양적 예비조사와 질적 예비조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표(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의견을 수렴하고, 문항별 응답결과 분석 및 수정·보완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설계안을 마련하였다. [그림 VII-1]에는 최종 설계 방안 도출 단계와 각 단계별 성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최종 설계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 대상 설계

1) 모집단 분석

(1) 조사 모집단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제2장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개인적, 가족적, 교육적, 사회적 원인 등 다양한 이유로 위기상황에 있는 자로서, 정상적인 발달과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개입을 요구하는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상정하는 다양한 위기상황에는 빈곤, 가정폭력·학대·방임, 가출, 학업중단, 학교폭력·가피해, 유해 약물 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도박 중독,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 자해·자살 시도, 범죄·가피해(성폭력·성매매 피해 포함)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조사 모집단은 실사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기청소년 대상 주요 지원기관에 입소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각 위기청소년 유형별로 주요 조사 대상 지원을 상응시켜보면 [그림 VII-2]와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조사 모집단은 다음의 기관에 입소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된다: ①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동반자), ②청소년쉼터, ③청소년자립지원관, ④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⑤국립인터넷드림마을, ⑥국립청소년디딤센터, ⑦아동보호치
료시설, ⑧청소년회복지원시설, ⑨소년원, ⑩보호관찰소, ⑪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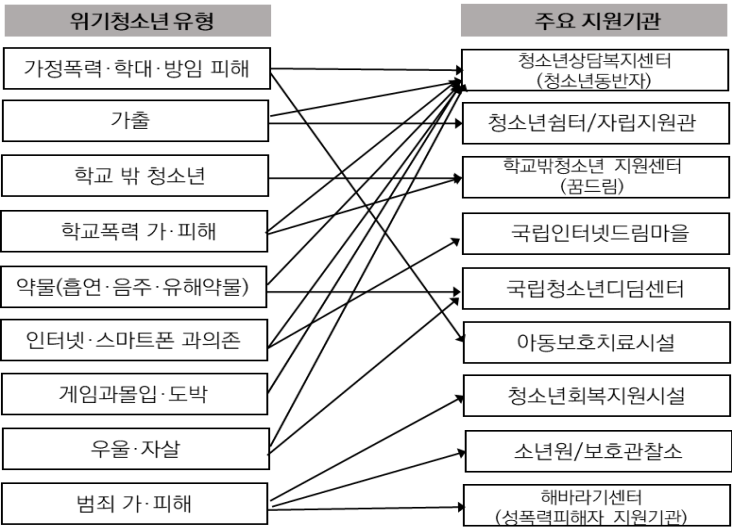


그림 Ⅶ-2 위기청소년 유형별 주요 지원기관

상술한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각각의 위기청소년 유형에 상응하는 주요
기관으로 표집대상에 포함하였다. 먼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에
게 제공되는 전문적인 서비스로,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의료지
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 및 기관 연계를 제공한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2020.12.07. 인출). 현장 전문가 대상 1단계 FGI 과정에서 청소년동반
자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은 대부분 다양한 위기로인을 내포하고 있는 복합위기
를 경험하며, 고위기군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
서 도출된 조사내용을 고려했을 때, 위기의 복합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청소년동반

자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을 조사 모집단에 포함하였다.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주요 위기 유형인 가출청소년 지원기관이므로 조사 모집단에 포함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는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대표적인 지원기관이라는 점에서 조사 모집단에 포함되었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에 대한 집중상담기관이고,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하였다. 아동보호치료시설(6호처 분시설)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는 소년법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수용시설이라는 점에서 표집 대상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자치단체, 경찰청,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여성가족부, 2020c)이라는 점에서 주요 지원기관으로 포함하였다.

(2) 모집단 분포

위기청소년은 그 특성 상, 정확한 행정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모집단 분포를 엄밀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여기에서는 가용 범위에서 최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각 기관에 입소(또는 이용) 경험이 있는 연간 실인원을 파악해 모집단 분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각 기관에 입소(또는 이용) 경험이 있는 연간 실인원은 총 152,190명 정도로 파악된다(〈표 VII-1〉 참조).

표 VII-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별 연간 이용(입소)자수

(단위: 명, %)

지원기관 유형	기관수	이용자수	비율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동반자) ¹⁾	236	43,246	28.3
② 청소년쉼터 ²⁾	134	32,402	21.2

지원기관 유형	기관수	이용자수	비율
③ 청소년자립지원관 ²⁾	6	220	0.1
④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³⁾	214	48,263	31.6
⑤ 국립인터넷드림마을 ⁴⁾	1	576	0.4
⑥ 국립청소년디딤센터 ⁵⁾	1	1,059	0.7
⑦ 아동보호치료시설 ⁶⁾	12	469	0.3
⑧ 청소년회복지원시설 ⁷⁾	19	308	0.2
⑨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포함) ⁸⁾	11	7,032	4.6
⑩ 보호관찰소 ⁸⁾	56	14,439	9.4
⑪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 지원) ⁹⁾	39	4,896	3.2
합계	729	152,910	100.0

주: 기준기간은 2019년 연간 이용(입소)자수임. 단, 아동보호치료시설 기관수 및 이용자수는 2019.12.31.기준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연간 이용(입소)자수를 나타내므로, 산출 기준이 상이함.

출처: 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2020.11.23.).

2)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내부자료(2020.6.24.).

3) 기관수 근거는 '여성가족부(2019a). 2019년 청소년백서'이며, 이용자수 근거는 '여성가족부(2019b). 2019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자료 중 최근 3년 간 매년 학업중단자수를 기준으로 제시한 2019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 목표 인원수임.

4) 국립인터넷드림마을 홈페이지(2020.09.16.인출).

5) 여성가족부(2019b). 2019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6) 보건복지부(2020). 2020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 알림.

7)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내부자료(2020.6.24.).

8)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2020). 2020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9) 여성가족부(2020c). 2020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2) 표본 크기

표본 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 신뢰수준 95% 하에서 $z=1.96$ 이다.

$$n = \frac{N(zs)^2}{Nd^2 + (zs)^2}$$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 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n = \frac{N z^2 p q}{N d^2 + z^2 p q}$$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기관이고 추출된 기관에서 표본 학생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 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 비용과 조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 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5,000명으로 하였다. 이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3\%$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에서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3)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위기청소년 주요 지원기관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단, 모집단 크기가 작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기관을 묶어 8개의 층으로 구성하였다(〈표 VII-3〉 참조). 지역의 경우,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 시도별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도별 구분을 적용한다. 시도별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의 방식으로 6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①서울, ②경기·인천, ③강원, ④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⑤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⑥호남·제주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4) 표본 배분

표본 배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과 과정을 거쳐 실시되었다. 먼저, 조사대상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별 연간 이용자 수를 토대로 지원기관별 표본 크기를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배분하고, 각 지원기관 내에서 시도 또는 권역별 표본 크기를 할당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원기관별 표본할당 비율을 조정한다.

□ 공통 기준

- 조사가가능성을 고려하여 단순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에 가중을 둔다.
- 정책적 목적을 고려해,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핵심 위기 집단인 가출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소년원, 보호관찰소 등)에 가중을 둔다.
- 추후 기관 유형을 배경 변인으로 한 분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관별 최소 표집인원을 고려한다.
- 제시된 이용자 수가 대부분 연간 이용자 수이므로, 조사 기간(약 2개월 예상) 동안 접근 가능한 조사인원수 규모 등을 고려한다.

□ 위기청소년 집단별 기준

- 청소년동반자: 청소년동반자 비율은 약 28.3%를 차지하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7: 12)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청소년동반자 이용 청소년 중 위험군별 인원수 비율이 ‘저위험군’ 45.0%, ‘중위험군’ 22.2%, ‘고위험군’ 32.8%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설문 문항의 특성을 고려해, ‘저위험군’(45%)을 제외한 ‘중위험군+고위험군’(55%)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표본크기를 하향 조정한다.
-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은 위기의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핵심 위기집단이므로, 가출청소년에 가중을 둔다.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이용자

의 위기 수준, 시설 유형(생활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이라는 점), 타 조사(「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대상과의 중복 가능성 및 본 조사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한다.

- 소년원/보호관찰소: 대표적인 고위기 청소년으로, 위기의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핵심 위기집단이므로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조사 대상 위기청소년 지원기관별 연간 이용자 수를 토대로 지원기관별 표본 크기를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배분할 경우, 특히 ‘국립인터넷드림마을/국립청소년디딤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원’ 등에 대하여 과소하게 표본 크기가 할당되며 상대표준오차가 크게 나타난다. 상대표준오차 산출을 위한 문항 A와 B는 예비조사에 포함된 조사 문항 가운데, 응답률과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문항을 선택하였다.

표 VII-2 상대표준오차 산출을 위한 기준 문항

구분	문항유형	문항 내용	변수값
문항A	이분형	• [음주 경험] 최근 1개월 동안,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셔본 적이 있나요?	• 1=‘있다’, 2=‘없다’.
문항B	척도형	• [부모-자녀 관계: 방임]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나를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다	•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

이에 위에서 제시한 지원기관별 표본할당을 위한 공통 기준과 집단별 기준을 고려하고 상대표준오차가 10% 이하가 되도록 표본배분 비율을 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정된 표본 크기를 사용하여 각 기관별·지역(권역)별 표본할당을 수행하였다.

표 Ⅶ-3 위기청소년 지원기관별 조정된 표본 배분

지원기관 유형	이용자 수	표본 크기	비율	문항 A 상대표준오차	문항 B 상대표준오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3,246	700	14.0%	4.7%	1.9%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32,622	1,500	30.0%	3.2%	1.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48,263	1,120	22.4%	3.7%	1.5%
국립인터넷드림마을/ 국립청소년디딤센터	1,635	150	3.0%	9.8%	4.0%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777	150	3.0%	9.2%	3.7%
소년원	7,032	400	8.0%	6.1%	2.5%
보호관찰소	14,439	800	16.0%	4.3%	1.8%
해바라기센터	4,896	180	3.6%	9.2%	3.7%
합계	152,910	5,000	100.0%	1.8%	0.7%

표 Ⅵ-4 지원기관별 표본 배분(안)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동반자)		청소년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립인터넷드림마을/청소년다담센터		아동보호 치료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원		보호관찰소		해바라기센터	
	기관 수	표본 크기	기관 수	표본 크기	기관 수	표본 크기	기관 수	표본 크기	기관 수	표본 크기	기관 수	표본 크기	기관 수	표본 크기	기관 수	표본 크기	기관 수	표본 크기	기관 수	표본 크기
서울	4	80	7	210	1	5	5	100			2	20			1	50	2	121	3	30
부산	3	60	3	90			4	80			1	10	2	20	1	53	1	84	1	10
대구	2	40	2	60			3	60			1	10			1	44	1	50	1	10
인천	2	40	6	180	1	25	3	60									1	43	1	10
광주	1	20	2	60			2	40							1	47	1	21	1	10
대전	1	20	1	30			2	40			2	20	1	10	1	41	1	37	0	0
울산	1	20	2	60			2	40					1	10			1	26	1	10
세종	1	20	-	-			1	20									-	-	0	0
경기	8	160	11	330	1	30	6	120	1	100	1	10			2	92	4	187	2	20
강원	1	20	2	60			3	60							1	30	1	24	1	10
충북	1	20	1	30			3	60							1	11	1	31	1	10
충남	1	20	2	60			4	80					1	10			1	27	1	10
전북	1	20	1	30			3	60	1	50	1	10			1	20	1	34	1	10
전남	2	40	1	30			4	80									1	25	1	10
경북	2	40	1	30			4	80									1	25	1	10
경남	3	60	3	90			5	100					2	20			1	55	1	10
제주	1	20	3	90			2	40							1	12	1	10	1	10
합계	35	700	48	1,440	3	60	56	1,120	2	150	8	80	7	70	11	400	20	800	18	180

5)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기관 유형과 지역 구분을 층으로 간주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기관(개소)은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기관에서 이용자를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조사하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에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기관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기관 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기관의 이용자 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 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한 이용자 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설계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 = \frac{\sum_{i=1}^{N_h} B_{hi}}{n_h n_{hi}}$$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 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최초 목표 표본크기(n_{hi})를 유효 표본크기(r_{hi})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즉, 기본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times \frac{n_{hi}}{r_{hi}} = \frac{\sum_{i=1}^{N_h} B_{hi}}{n_h r_{hi}}$$

여기에서 r_{hi} 는 추출된 표본 기관에서 조사가 완료된 이용자 수를 나타낸다.

6) 모수 추정

(1) 용어 정의

모수 추정을 위한 산식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기관유형×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기관)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 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응답자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 크기

(2)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된다.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_{\dots}$: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_{\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3)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한다.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한다.

(4)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 $n_n > 1$ 일 때,

$$\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cdot}$$

$$\bar{e}_{h\cdot\cdot}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n = 1$ 일 때,

$$\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5)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3. 최종 조사내용의 도출

제V장에서 도출된 조사내용(안) 및 이를 반영하여 작성한 조사표(안)을 토대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여기에서 제시된 수정·보완사항 및 전문가 자문, 연구진 협의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내용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수정·보완은 앞서 설정했던 내용설계의 목적과 방향, 기준을 준거로 삼아 이루어졌다. [그림 VII-3]에는 본 연구에서 조사내용 설계의 준거로 삼은 목적, 방향 및 기준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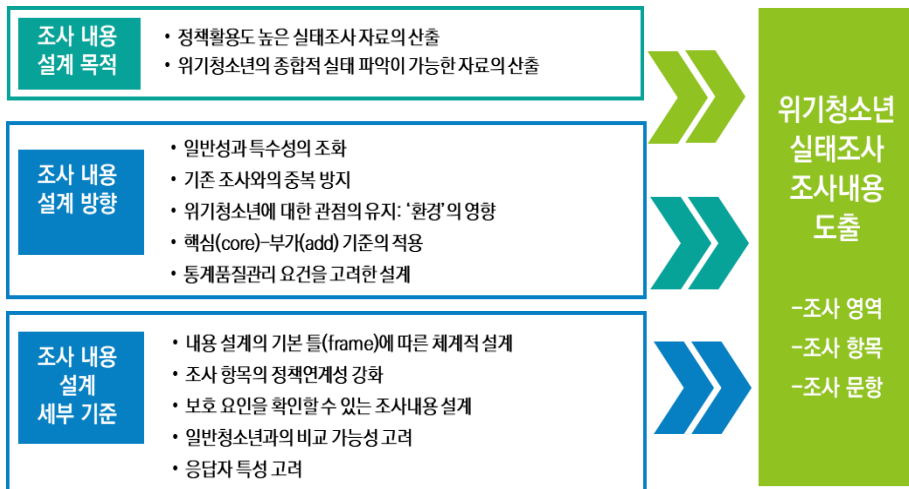


그림 Ⅶ-3 조사내용 설계의 목적, 방향과 기준

1) 조사영역 및 세부주제의 확정

제5장에서 실시한 조사영역 및 세부주제, 조사항목(안)에 대한 전문가 대상 내용타당도 평가 결과와 제6장에서 실시한 위기청소년 대상 예비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한 조사영역과 세부주제가 타당하며,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에 의미 있는 결과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조사영역과 세부주제를 확정하였다.

조사영역과 세부주제는 '위기청소년의 종합적 실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의 산출'이라는 조사내용 설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 개인의 '심리·정서적 상태'부터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일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비롯해 '(성)폭력 피해' 등 사회적 환경의 영향과 정책적 개입점 확인을 위해 '정책적 수요' 파악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영역에는 '심리·정서적 특성'과 '자해/자살 시도 경험' 세부주제가 배치되었고,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영역에는 '가정 내 경험'과 '가정 밖(가출) 경험'이 최종적

으로 유지되었다. ‘일상적 생활 경험’ 영역에는 ‘유해 약물 이용 경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성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등이 배치되었다. ‘(성)폭력 피해 등 사회적 환경’에서의 위기를 진단하는 영역에는 ‘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 ‘조건만남 경험’,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이 최종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 수요’ 영역에는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 진단’이 세부 주제로 포함되었다. 상술한 영역 및 세부주제 구성을 개념적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VII-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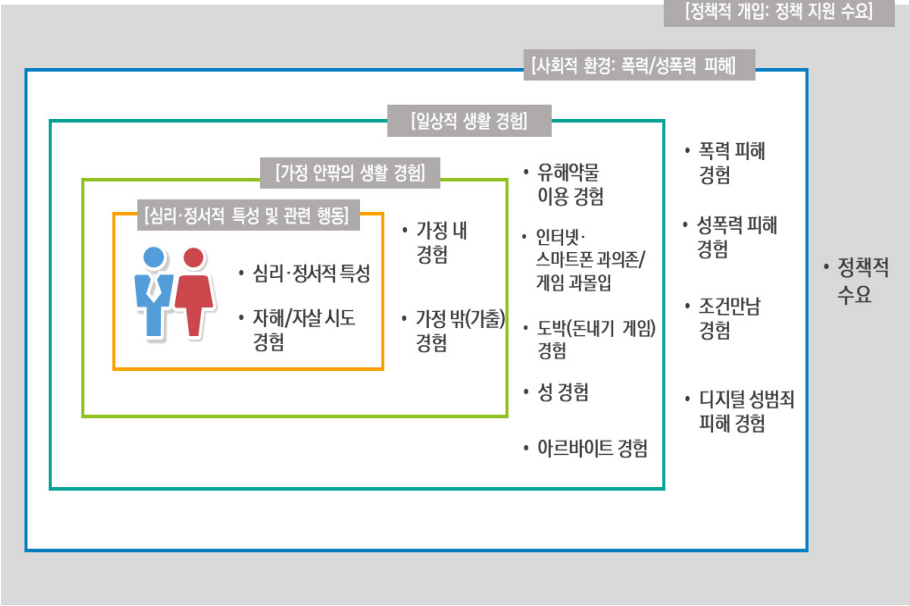


그림 VII-4 최종 조사영역 및 세부주제의 구성과 영역별 배치

2) 최종 조사항목 및 조사문항의 도출

조사항목은 예비조사 조사표(안) 대비 수정 22개, 추가 2개, 삭제(부분삭제 포함) 2개로 총 26개 항목이 변경되었다. 주된 수정 사항은 예비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문항 이동 로직의 오류 수정,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및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개방형 응답 결과를 반영한 선택지 수정, 문항 유지의 실익이 낮은 문항의 삭제 등이다. 아래 표에는 최종 수정·보완을 거친 조사항목과 문항이 반영된 조사표의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표 VII-5 최종 조사표 도출을 위한 문항 수정 방안

문항 번호	조사항목	문항 수정 방향			수정 방안		비고(근거/사유)
		유지	수정	추가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문1-1)~4)	• 자존감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5)~8)	• 타인에 대한 이해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1-9)~12)	• 사회적 철회(위축)			●	• 문1-9), 10), 11), 12)의 4개 하위문항으로 축소	• 문1-9), 10), 12) 유지 • 문1-11) 삭제	• 예비조사 • 예비조사 결과, 청소년 세대와 부합하지 않는 문항으로 판단됨
문1-13)~17)	• 자기통제력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1-18)~20)	• 갈등해결역량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1-21)~22)	• 삶에 대한 인식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1-23)~24)	• 건강 상태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1)	• 은둔형 외톨이 성향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2)	• 우울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3/ 문3-1	• 사회적 지지체계	●	●		• 본격적인 위기 상황(가정 내 경험)을 묻기 전, 설문지 도입 부분에 위치	• 문항내용의 흐름을 고려하여, 설 문지 후반부 자살 시도 경험 관련 문항이 종료된 이후로 이동	• 예비조사 결과 및 연구진 검토 •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문항의 무응 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도출된 • 전체적인 조사내용의 흐름을 고 려하여, 문항 후반부로 위치 이동
문4	• 부모-자녀 관계	●	●		•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지시문 없음	• 문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응답해주세 요.” 지시문 추가	• 예비조사

문항 번호	조사항목	문항 수정 방향		수정 방안		비고(근거/사유)
		유지	수정 추가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문5-1~3)	• 가정 내 분위기 (가정불화)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6-1)~2)	• 가정폭력·학대 경험 여부 및 빈도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6-1	• 가정폭력·학대 대응 방법		●	• ④친척 또는 이웃 어른에게 알렸다	• ④가족, 친척 또는 이웃 어른에게 알렸다	• 예비조사 • 가정폭력·학대 피해 발생 시, 가 해자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에 게 알리는 경우가 존재
문6-2	• 가정폭력·학대에 대응 하지 않은 이유		●	• ①~⑧까지 8개 선택지	• 선택지 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라서' 내용을 추가하고, 이후 번호 순연하여 변경	• 예비조사
문6-3	• 대응의 도움정도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7	• 아동학대(가정폭력)에 방 또는 대처 방법에 관한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8	• 기출 생애 경험 및 최근 1년 간 경험 여부 및 빈도		●	• [지시문] 하나라도 해본 적이 있으면 문8-1로, 둘다 "해본 적 없다"이면 문9로 이동하 세요	• 하나라도 해본 적이 있으면 문8-1 로, 둘다 "해본 적 없다"이면 문10 으로 이동하세요	• 예비조사 • 둘다 "해본 적 없다"를 선택하여 문9로 이동 시, 기출청소년 자원 기관 인지/이용 여부에 답하는 이동 로직 오류 발생
문8-1	• 최초 기출 연령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항 번호	조사항목	문항 수정 방향			수정 방안		비고(근거/사유)	
		유지	수정	추가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문8-2	• 가출 이유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8-3	• 최장 가출 기간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8-4	• 가출 후 주로 자낸 장소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8-5	• 가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8-6	• 가출 시 주된 어려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8-7	•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		●			• ①~⑥까지 6개 선택지	• 선택지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힘든 문제나 고민에 대한 상담/심리지원' 등 2개 선택지를 추가함.	• 예비조사
문8-8	• '헬퍼' 접촉 경험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8-8-1	• '헬퍼' 접촉 경로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8-9, 문8-9-1	• '헬퍼'와 생활한 경험 및 그 이유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8-9-2	• '헬퍼'로 인한 피해 경험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9	• 가출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 문항 내용은 현행 유지하되, 문8→문9의 이동로직을 수정하여, 문8에서 가출을 경험해본 응답자만 문9에 응답하도록 이동 로직 수정	• 예비조사
문9-1	• 컴퓨터 이용하지 않는 이유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문10	• 스마트폰 과의존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항 번호	조사항목	문항 수정 방향			수정 방안		비고(근거/사유)
		유지	수정	추가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문11	• 게임을 하는 이유		●		• ③경쟁하는 재미가 있어서	• ③게임을 그냥 재미 있어서	• 예비조사 및 조사전문가 검토 • 기존 선택지 중 '경쟁하는 재미가 있어서'와 '게임을 하기거나 레벨업 할 때의 기분이 좋아서'가 배타적이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 • 예비조사 결과, '그냥 재미 있어서' 한다는 의견이 다수 도출 • 신규 선택지 추가하며, 기존 선택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
문11-1	• 게임 과몰입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12	•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피해 경험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12-1	•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로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12-2	• 디지털 성범죄의 주된 가해자		●		• ④친구, 지인/선후배 등	• ④친구, 지인/선후배 등 주변의 아는 사람	• 예비조사 결과 • 선택지 외 오프라인 지인이 기타 항목으로 제시됨
문12-3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응 방법		●		• ①~⑨의 9개 선택지	• “그 사람을 차단시켰다” 추가하여 10개 선택지로 변경	• 예비조사 결과, 기타 항목으로 관련 응답 다수 도출
문12-3-1	•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①~⑨의 9개 선택지	• “귀찮고 번거로워서” 추가하여 10개 선택지로 변경	• 예비조사 결과

문항 번호	조사항목	문항 수정 방향			수정 방안		비고(근거/사유)
		유지	수정	추가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문13	• 간단한 인터넷/스마트 폰 이용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14	•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14-1	• 아르바이트 이유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14-2	• 아르바이트 업종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14-3	• 근무 기간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14-4	• 주당 평균 근로일수			●	• 신규 문항	• [문14-4] 그 아르바이트를 일주 일에 평균 며칠 일했나요?	• 연구진 검토 • 위기청소년 근로의 상시화장기 화 실태 파악 및 일반청소년과의 비교가능성 고려
문14-5	• 하루 평균 근로시간			●	• 신규 문항	• [문14-5]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하루에 평균 몇시간 일했나요?	• 연구진 검토 • 위기청소년 근로의 상시화장기 화 실태 파악 및 일반청소년과의 비교가능성 고려
문14-6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문항내용은 현행 유지하되, 문 14-4, 문14-5의 추가로 문항번호를 문14-6으로 변경	
문15	• 배달/온전 아르바이트 근로 방식		●		• “배달 아르바이트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배달 아르바이트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주된 방법을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예비조사 결과 • 문15-1로 연결되는 이동 로직의 혼란 개선

문항 번호	조사항목	문항 수정 방향		수정 방안		비고(근거/사유)
		유지	수정 추가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문15-1	• 배탈/온전 아르바이트 시 관련 서류 작성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16	• 아르바이트 시 경험한 어려움 및 부담행위		●	• 문16-1)~3)의 3개 하위문항	• 문16-1)의 문항표현 명문화(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보호자(부모)동의서를 요구했는데, 서류를 낼 수 없어서 일을 구하기 어려웠다"로 수정) • 문16-2), 3) 삭제	• 예비조사
문17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근로 경험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17-1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에서 일을 한 이유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17-2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근로 시 내이 확인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18	• 근로계약(노동인권)교 육 경험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19	• 휴면 여부 및 종류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0	• 음주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1	• 환각성 물질 이용 여부		●	• "최근 1개월 동안, 환각성 물질을 이용하면 적이 있나요?"	• "지금까지 환각성 물질을 이용하면 적이 있나요?"	• 연구진 검토 • 일반청소년과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준시점 변경
문22	• 약물 유희성 관련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항 번호	조사항목	문항 수정 방향		수정 방안		비고(근거/사유)
		유지	수정 추가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문23	• 유해악물 이용 관련 비 행범죄 경험			• 문23-1)~6)까지 6개 하위문항	• 문23-6)삭제	• 예비조사
문24	• 돈내기 게임 경험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5	• 이용해 본 돈내기 게임 종류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5-1	• 돈내기 게임 접촉 경로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5-2	• 돈내기 게임 빈도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5-3	• 돈내기 게임을 하는 이유		●	• ①~⑧까지 8개 선택지	• “생활비/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를 ⑥에 추가하고, 나머지 선택지 번호는 순연 변경	• 예비조사
문25-4	• 돈내기 게임을 함께하 는 사람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5-5	• 돈내기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5-5-1	• 돈내기 게임으로 인한 채무 액수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6	• 도박 문제 예방 교육 경 험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7	•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여부		●	• “최근 1년 동안,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친구나 선후배, 이는 사람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 연구진 협의 및 조사전문가 검토 • 성폭력 피해 문항과의 통일성 제 고 및 일반청소년과의 비교가능 성 제고

문항 번호	조사항목	문항 수정 방향			수정 방안		비고(근거/사유)
		유지	수정	추가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문27-1 문27-1-1	•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7-1-2	• 피해를 입리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7-2 문27-2-1	• 지원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및 도움을 받은 기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8	• 성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8-1	• 성폭력 피해의 가해자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8-2 문28-2-1	•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8-2-2	• 피해를 입리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8-3 문28-3-1	• 지원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및 도움을 받은 기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29	• 조건만남 제안을 받은 경험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30	• 조건만남 경험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30-1	• 조건만남 최초 경험 시기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항 번호	조사항목	문항 수정 방향		수정 방안		비고(근거/사유)
		유지	수정 추가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문30-2	•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		●	• ①~⑪까지 11개 선택지	• “⑤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⑥시람을 만나고 싶어서” 등 2개 선택지 삭제	• 예비조사
문30-3	• 조건만남 경로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30-3-1	• 채팅앱/랜덤채팅앱 이용 시, 성인인증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30-4	• 조건만남으로 인한 피해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30-4-1	• 피해에 대한 도움 요청 여부 및 그 대상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30-4-2	•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③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 “③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로 표현 수정	• 예비조사
문30-5 문30-5-1	• 조건만남을 스스로 그만두려고 노력한 경험 및 도움을 준 대상		●	• “④친구/선후배의 도움으로”, “⑤애인의 도움으로” 포함 총 8개 선택지	• “④친구, 선후배, 애인의 도움으로”로 기존 ④번 및 ⑤번 선택지 통합	• 예비조사 • 두 선택지에 대한 응답 빈도가 대단히 낮게 도출되었으며, 선택지 성격이 유사함.
문31	• 성관계 경험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31-1	• 최초 성관계 경험 연령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31-2	• 성관계 시 피임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32	• (성)폭력 및 성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정도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33	• 자해 생각 및 시도 경험과 빈도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항 번호	조사항목	문항 수정 방향		수정 방안		비고(근거/사유)
		유지	수정 추가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문33-1	• 지해 이유			• “지해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지해를 생각하거나 시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예비조사 결과
			●	① 스스로에게 벌을 주기 위해, ② 나쁜 기분들을 멈추기 위해, ③스 트레스를 풀고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④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 ⑤혼자 있을 때 어떤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 ⑥부모님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부터 더 많은 관심을 얻기 위해, ⑦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⑧기타	① 스스로에게 벌을 주기 위해, ② 나쁜 기분들을 멈추기 위해, ③스 트레스를 풀고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④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 ⑤혼자 있을 때 어떤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 ⑥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⑦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도움을 얻고 싶어서, ⑧호기심이 들어서, ⑨ 기타	• 예비조사 결과
문33-2	• 지해 시설을 주변에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33-2-1	•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33-3	•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경험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33-4	• 지해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한 경험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33-4-1	• 지해를 그만둔 요인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34	• 자살 생각 및 시도 경험과 빈도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문항 번호	조사항목	문항 수정 방향			수정 방안		비고(근거/사유)
		유지	수정	추가 삭제	수정 전	수정 후	
문34-1	자살을 생각한 이유		●		①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가족 간의 갈등(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③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경제적인 어려움, ⑤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기타	①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가족 간의 갈등(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③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경제적인 어려움, ⑤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기타	예비조사 결과
문34-2	자살 시도 사실을 주변에 알렸는지 여부 및 알린 대상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현행 유지	
문34-2-1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면, 그 이유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현행 유지	
문34-3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경험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현행 유지	
문34-4	자살 시도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한 경험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현행 유지	
문34-4-1	자살시도를 그만둔 요인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현행 유지	
문35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현행 유지	
문36	위기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현행 유지	

문항 번호	조사항목	문항 수정 방향		수정 방안		비고(근거/사유)
		유지	수정	추가	삭제	
문37	•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					• [활동/ 생활 지원]으로 수정 • 연구진 검토
				• [활동 기회/정보 제공]		• 하위항목에 "생활비 지급과 같은 경제적 지원" 추가
				• [상담 서비스] 13가죽관계 개선 프로그램 제공		• "가족 간 갈등해결이나 가정폭력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수정
		●		• "모임, 휴식, 놀이 등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생활 공간 제공"으로 수정 • 예비조사
배문1	• 성별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배문2	• 연령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배문3	• 학교 재학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배문4	• 학업중단 경험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배문4-1	• 학업중단 사유		●	• ①~⑧까지 8개 선택지		• "가치를 하게 되어서" 추가하여 9개 선택지로 수정 • 예비조사
배문5	• 향후 진로 계획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배문6	• 건강검진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배문7	• 가족구조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배문8	• 부모님 및 본인의 국적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배문9	• 빈곤 여부	●		• 예비조사 조사표 문항		• 현행 유지

3) 최종 조사내용 설계안의 특징

최종 제안된 조사내용 설계안의 특징과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타 조사와의 중복 방지

최종 도출된 조사영역과 조사항목은 기존 조사와의 중복 방지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조사대상이 유사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조사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주된 고려 대상이 되었다. 기존 조사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는 조사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관련 우려를 불식하였고,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조사는 기존 조사를 폐지하고,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조사로 통합할 것을 전제하고 조사내용 설계를 확정하였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일반청소년 조사가 중심이며 위기청소년 대상 부가조사가 별도로 실시된다. 이 가운데 일반청소년 대상 조사만 국가승인통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대외적으로 결과가 공표된다. 반면 위기청소년 부가조사는 승인통계 제외 대상으로, 결과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반면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타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김지경 외, 2016: 105; 황여정 외, 2016: 24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부가조사를 본 연구에서 설계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로 흡수·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전제로 조사영역 및 세부주제, 항목을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조사의 조사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조사에서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항목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기청소년 대상 별도 조사가 지속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항목, 또는 위기청소년에게 특히 주요한 문제로 작용하는 영역과 항목을 선별하였고, 해당 내용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조사영역 및 세부주제, 항목에 포함하였다.

표 VII-6 기존 유관 조사와의 조사내용 중복 방지 계획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¹⁾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²⁾
통계작성기관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승인통계 여부	• 승인통계 아님	• 승인통계 아님
조사대상의 유사성	• 청소년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대상자 중복	• 청소년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상자 중복
조사내용의 유사성	• (성)폭력 피해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등 일부 영역 유사	• 낮음
중복 방지 방안 ³⁾	• 기존 부가조사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조사로 흡수·통합	• 조사내용의 유사성을 최소화하여, 중복 문제 방지

* 자료: 1) 김지경, 연보라, 정은진, 유설희, 정윤미, 이민정 (2018b)

2)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김연주 (2018).

3) 연구자 작성.

(2) 핵심(core)-부가(add) 기준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조사 영역 및 조사 항목에 대해 김지경 외(2016: 112)에서 제시한 기준을 차용하여, 핵심(core)-부가(add) 기준을 적용해서 조사내용을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조사항목이나 문항이 지나치게 자주 변경되거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시계열 비교를 통해 위기청소년 집단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읽어 내거나 정책 추진의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심 항목과 문항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안정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 제시한 핵심 세부주제와 핵심 항목은 추후 반복조사가 이루어질 때도 가급적 내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부가 주제와 부가 항목은 제V장에서 검토한 전문가 대상 중요도 평가 결과와 제VI장에서 검토한 예비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하였다. 세부주제별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게임 과몰입 포함)’,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문가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고, 예비조사 결과에서도 여타 영역에 비해 새로운 발견점이 많지 않았다. 이에 해당 세부주제는 부가(add) 주제로 분류하여, 추후 조사예산의 규모, 응답자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세부주제에 포함된 항목의 경우, 위기 상황별로 경험률, 대응 방법, 대응의 효과, 보호요인 확인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핵심(core) 항목’으로 간주하였다. 그 외에 부차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항목 또는 해당 시기의 특정 이슈를 반영하는 내용은 ‘부가(add)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예컨대 ‘가정 밖(가출) 경험’에서 ‘헬퍼’ 관련 접촉 경험을 묻는 문항들은 현시점에서는 신규 정책 수요 발굴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표 VII-7>에는 최종 제안된 조사내용을 핵심-부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VII-7 세부주제별 핵심-부가 구분 및 부가 항목(안)

세부주제	핵심/부가 구분		부가 항목
	핵심	부가	
①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 가정 내 경험	●		• 부모-자녀 관계
• 가정 밖(가출) 경험	●		• ‘헬퍼’ 관련 항목
② 일상 생활 경험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게임 과몰입 포함)		●	• 스마트폰 과의존 • 게임 이용 여부 및 이유, 과몰입수준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아르바이트 경험		●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근로 방식 •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시, 관련 서류 작성 여부

세부주제	핵심/부가 구분		부가 항목
	핵심	부가	
• 유해 약물 이용 경험	●		-
•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		-
• 성 경험	●		-
[3] (성)폭력 피해 경험			
• 폭력 피해 경험	●		-
• 성폭력 피해 경험	●		-
• 조건만남 경험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		-
[4]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 심리·정서적 특성	●		• 갈등해결역량
• 자해 경험	●		-
• 자살 시도 경험	●		-
[5] 정책적 수요	●		-
[6] 일반적 특성	●		• 부모님 및 본인의 국적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주: 각 세부주제에서 부가(add)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조사항목은 핵심(core) 항목으로 간주함.

(3)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본 실태조사는 내용설계의 주요 목적을 ‘정책활용도 높은 실태조사 자료의 산출’로 설정하고, 조사설계의 전반에 걸쳐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종 설계된 조사내용 가운데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6)」 및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2019)」의 주요 내용 반영 내역을 압축적으로 정리하면 <표 VIII-8>과 같다.

표 VII-8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사내용 설계 방안

구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¹⁾ 및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²⁾ 관련 내용	실태조사 반영 내역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방향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및 보호·지원사업의 단계적 확대 추진	성매매 관련 경험을 묻는 문항에 피해자 관점 반영
위기청소년 접촉 및 개입 지점 확인	- 취약위기가족 맞춤형 서비스 확대 - 가출청소년이 일자리, 숙박 등 정보를 얻는 랜덤채팅앱 이용자 대상, 모니터링, 채팅 상담, 쉼터 연계 등 온라인 상의 위기개입 및 긴급구호 강화 -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관련,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 지원체계 확충 및 내실화	- 가정폭력 및 학대 관련 실태 파악 및 이와 관련한 정책적 수요 파악 - 가출청소년 및 조건만남 관련, 랜덤채팅앱 이용 실태 관련 문항 반영 - 조건만남 관련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 반영 - 청소년 자해의 확대 실태를 포착하기 위한 문항 반영
환경의 변화	- 미디어 기술 발달에 따른 스마트 기기 확산 등 매체 환경 변화 (제5차) '4-3-2.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 (제6차) '3-3-3.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로 변경되어, 인터넷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스마트폰 등 미디어 과의존을 포괄적으로 반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항 반영 -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문항 반영 -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습관 형성 지원을 위한 교육 수요 파악
신규 정책 수요 파악	-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청소년쉼터 운영방식 개선으로 길거리 배회 및 성매매 유입 등 유해환경 노출 방지 강조 - 사이버도박 등 불법음란정보 차단 및 유통 사업자 처벌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강화 -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관련, 생애주기별 청소년 국가 건강검진 체계 일원화 검토 - 청소년 근로권의 침해 예방 및 보호 관련, 특수형태 직종(배달대행 등) 근로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검토 - 무업(NEET) 및 은둔형 취약계층 발굴, 지역 사회안전망 연계 강화	- 청소년쉼터 이용 제고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위기청소년의 요구 조사 문항 반영 - 가출청소년 성매매 유입 방지 관련, '헬퍼' 실태에 관한 문항 신규 반영 - 사이버(스마트폰) 도박 관련 문항 반영 - 사이버 성폭력 관련 문항 반영 - 위기청소년의 건강검진 실태파악 문항 반영 - 배달대행 아르바이트 실태파악 문항 반영 - 잠재적 무업(NEET) 및 은둔형 청소년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문항 반영

* 자료: 1) 관계부처합동(2016).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2)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2019).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4) 일반청소년과의 비교가능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조사내용 설계의 세부 기준의 하나로 ‘일반청소년과의 비교가능성’을 설정하였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경우, 결과값이 갖는 의미를 현실성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청소년과의 비교가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문항을 개발하고, 예비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비교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최종 제안된 조사항목 중 타 조사에서 실시된 일반청소년 결과와 비교 가능한 항목을 압축하면 <표 VII-9>와 같다.

표 VII-9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가능 항목

세부 주제	조사항목	비교 가능한 일반청소년 대상 조사
가정 내 경험	• 부모와의 관계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승인통계)
	•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교육 경험	• 「2018 아동·청소년패널 조사」(승인통계)
가정 밖 경험	•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승인통계)
유해 약물 이용 경험	• 알코올(술), 담배, 환각물질 이용 경험(여부)	• 「청소년건강행태조사」(승인통계)
	• 약물 이용 교육 경험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승인통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 스마트폰 과의존준 비율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경험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승인통계)
도박 (돈내기 게임)	•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여부 및 종류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 도박 예방 교육 경험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승인통계)
아르바이트 경험	•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및 배달 아르바이트 경험 •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경험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승인통계)
성 경험	• 성관계 경험, 최초 경험 시기 및 피임 여부	• 「청소년건강행태조사」(승인통계)
폭력 피해	• 폭력 피해 경험 • 학교폭력 예방 교육 경험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승인통계)

세부 주제	조사항목	비교 가능한 일반청소년 대상 조사
성폭력 피해	• 성폭력 피해 경험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경험	
심리·정서적 특성	• 자존감/ 타인 이해/ 자기통제력 • 갈등해결/협동 역량	•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지」 • 「2018 아동·청소년패널 조사」(승인통계)
자해자살 시도 경험	• 자살 시도 경험 여부	• 「청소년건강행태조사」(승인통계)

(5) 부정적 학습효과 방지 및 긍정적 학습효과 기대

다음으로, 조사 참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적 학습효과는 최소화하고, 반대로 긍정적 학습효과가 야기되도록 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가정 밖(가출) 경험’ 세부주제에서 ‘헬퍼’ 접촉 경험을 묻는 경우, 예비조사 과정에서 ‘헬퍼’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으나, 부정적 학습효과 방지를 위해 별도의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반대로 ‘아르바이트 경험’ 세부주제에서 배달 아르바이트 관련 ‘산재보험’ 서류 작성 여부를 묻는 문항과 ‘성 경험’에서 ‘피임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는 산재보험과 피임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 학습효과가 발생되도록 설계하였다.

(6) 응답자의 응답 편의 제고

조사내용 설계 전반에 걸쳐 조사참여에 대한 응답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답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영역 및 조사문항의 배열에도 각별히 유의하였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특성 상, 부정적 경험을 묻는 질문이 주종을 차지하므로, 이러한 문항들이 응답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지 않도록 부정적 내용을 묻는 영역과 긍정적 혹은 중립적 내용을 묻는 문항을 교차 배치하였다. 또한 예비조사 결과, 그 중요성이 다소 낮게 도출된 영역이나 문항(예: 게임 이용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 등)의 경우에도, 해당 영역이 응답자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이며, 지원정책 마련이라는 조사 취지를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4) 조사 명칭

마지막으로, 조사 명칭은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로 설정하였다. ‘위기청소년’의 표현은 조사참여자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사 명칭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들이 처한 생활 전반의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라는 점, 그리고 청소년이 처한 위기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본질이 있다고 간주하는 조사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로 설정하고자 한다. 대안으로는 「청소년 생활환경 실태조사», 「청소년 생활안전 실태조사」등을 검토하였다.

표 Ⅶ-10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 명칭

구분	조사 명칭
1안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2안	「청소년 생활환경 실태조사」
3안	「청소년 생활안전 실태조사」

4. 실사 추진 방안

1) 조사 유형

시간적 관점에서 조사의 유형은 횡단조사로 하고, 특정 주기별로 반복되는 반복 조사로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횡단조사는 조사 시점에서 조사대상자의 특성이나 속성, 실태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며, 여러 범주별 비교 또는 차이 분석에 적합하다.

또한 반복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 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결과값이 축적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른 집단 특성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이 처한 종합적 실태를 파악하고, 위기청소년 유형별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정책 기초자료를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특정 주기별로 실시되는 횡단조사로 설계하였다.

2) 조사 방법 및 조사 관리

조사방법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원을 통한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다수 수행한 실사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통해, 위기청소년 조사는 일반청소년 조사에 비해 조사대상자 섭외, 실사 수행 등 전과정에 걸쳐 조사의 난이도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양질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실사 진행 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을 통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COVID-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대면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하게 비대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우편조사(우편발송을 통한 거치조사)를 대안으로 한다. 조사의 분량과 예비조사 결과 파악된 응답 소요시간 및 조사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조사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다.

3) 조사 주기

조사 주기는 2021년에 제1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조사 주기 판단과 관련하여, <표 VIII-11>에는 아동·청소년 분야 주요 실태조사의 조사주기가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3년 주기,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2년 주기, 그리고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된다.

표 Ⅶ-11 아동·청소년 분야 주요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

구분	조사주기	조사대상
• 「청소년종합실태조사」 ¹⁾	3년	• 전국 5,000여 가구 주양육자 및 9~24세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²⁾	3년	• 전국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2018년 조사인원 약 3,200명)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³⁾	2년	• 전국 초4~고3 청소년 약 15,000명
• 「아동종합실태조사」 ⁴⁾	5년	• 전국 초4~고3 청소년 약 1만여명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⁵⁾	1년	• 전국 초4~고3 청소년 약 1만여명

* 자료: 1) 국가통계포털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메타정보, 2020.12.08. 인출.

2) 윤철경 외(2018: 3).

3) 국가통계포털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메타정보, 2020.12.08. 인출.

4) 국가통계포털 아동종합실태조사 메타정보, 2020.12.08. 인출.

5) 국가통계포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메타정보, 2020.12.08. 인출.

5년 주기 조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정책적 개입점을 확인하는 데 시간적 지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매년 반복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 대비 조사결과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는 2년 또는 3년 주기가 적합하다. 다만, 위기청소년이 처하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시(適時)에 정책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2년 주기로 실시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5.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Ⅶ-1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조사 설계안

구분	내용
조사 명칭	•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조사 목적	• 위기청소년의 종합적 실태 파악 및 정책활용도 높은 기초 자료의 산출
목표 모집단	• 개인적·가족적·교육적·사회적 원인 등 다양한 위기로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
조사 모집단	• 위기청소년 대상 주요 지원기관에 입소 경험이 있는 청소년
조사 대상 연령	• 만 12세 이상~만 19세 미만 (※ 조사내용을 고려해 중학교 취학연령을 조사 대상 연령의 하한으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상한으로 설정)
조사 목표 인원	• 전국 위기청소년 5,000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서비스 이용 청소년 700명 -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 청소년 1,500명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서비스 이용 청소년 1,120명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국립청소년디딤센터 이용 청소년 150명 - 아동보호치료시설(6호처분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150명 - 소년원 입원 청소년 400명/보호관찰소 청소년 800명 - 해바라기센터 지원 대상 청소년 180명
조사 유형	• 횡단조사
조사 방법	• 대면조사 원칙 (※ 비대면 시, 우편조사로 대체하되 온라인조사는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특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양함)
조사 주기	• 2년 주기
조사 내용	• 5개 영역 14개 세부주제 123개 항목 - [가정 안팎의 생활경험] 영역: ‘가정 내 경험’(8개), ‘가정 밖(가출) 경험’(15개) 등 2개 세부주제 총 23개 항목 - [일상생활 경험] 영역: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4개), ‘아르바이트 경험’(12개), ‘유해약물 이용 경험’(5개),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9개), ‘성 경험’(3개) 등 5개 세부주제 총 33개 항목 - [(성)폭력 피해 경험] 영역: ‘폭력 피해 경험’(6개), ‘성폭력 피해 경험’(7개), ‘조간만남 경험’(11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6개) 등 4개 세부주제 총 30개 항목 -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영역: ‘심리정서적 특성’(10개), ‘자해 경험’(7개), ‘자살 시도 경험’(7개) 등 3개 세부주제 총 24개 항목 - [정책적 수요] 영역: 총 3개 항목 - [일반적 특성] 영역 : 총 10개 항목

○ — 제Ⅷ장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정책 활용 방안

- 1. 정책 활용 방안의 개요
-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 3.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정책적
활용 방안
- 4.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1. 정책 활용 방안의 개요

여기에서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 필요한 방안들을 단계별로 논의하였다. 1단계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2단계로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실태조사 추진과 관련한 향후 과제를 제언하였다.

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제언] 1-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타 실태조사와의 법적 근거 정비 1-2. 청소년 분야 주요 정책계획과의 연계 강화 시스템 구축 1-3. 효과적인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조사 거버넌스 구축 1-4. 기존 실태조사와의 중복 방지를 위한 기존 조사 흡수·통합 1-5. 의미 있는 결과 산출을 위한 표본 크기 유지 및 예산 확보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정책적 활용 방안] 2-1. 「(가칭)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의 수립·제정 2-2.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정책 성과 지표로 활용 2-3. 지원기관별·유형별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개발 근거로 활용 2-4.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연계 활용 2-5.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3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3-1. 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에 대한 별도의 조사연구 추진 방안 검토 3-2. 경계선 지능 장애 청소년에 대한 정책연구 필요 3-3.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통계 자료와의 연계 추진

그림 Ⅷ-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정책활용 방안 개요도

29) 이 장은 황여정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1) 제안 배경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계를 위해 기존 조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적정 예산 확보 등 기본적인 조사 환경이 구축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요건들이 있다.

우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타 조사(「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의 법령 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조사 가운데 유사한 조사대상을 표집하여 실시되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조사와의 조정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는 데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제안 내용

(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체계적인 위기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해, 위기청소년 관련 근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수립-시행-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분야의 주요 정부 정책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사환경을 마련한다.

①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법적 체계 정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구축·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적합한 법령은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제2조의2(실태조사)에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위기청소년 대상 조사가 아닌,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조항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의 법적 근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체계는 상당히 복잡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통계포털(Kosis)에 게시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메타정보를 살펴보면 해당 조사의 법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로 명시되어 있다(국가통계포털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메타정보, 2020.12.08. 인출). 그러나 「청소년기본법」 제49조는 제1항에서 국가의 실태조사 실시 의무만을 명시하고, 구체적 사항은 제4항을 통해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위임을 받은 법률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의2(실태조사)인데, 여기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 의식·태도·생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다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표 VIII-1〉 참조).

표 VIII-1 현행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체계

구분	내용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소년복지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

구분	내용
법 제2조의2 (실태조사)	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사회·문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출처: 1)청소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에서 2020.12.08. 인출.
 2)청소년복지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0.12.08. 인출.
 3)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에서 2020.12.08. 인출.

상술한 내용을 도식화해서 제시하면 [그림 VIII-2]의 상단과 같다.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가 「청소년보호법」에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명료한 방식과는 달리, 「청소년종합실태조사」만 「청소년기본법」에 일차적 근거를 두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이차적 근거를 두고 있는 이중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를 둘 경우, 해당 법률은 동일 조항이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으로 구성된 2개의 상이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조항으로 각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청소년분야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VIII-2]의 하단에 있는 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게 되면,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여타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의 법률 위임 없이 「청소년기본법」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게 되며,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를 두게 됨으로써, 실태조사와 법적 근거 간의 관계가

명료하게 정비될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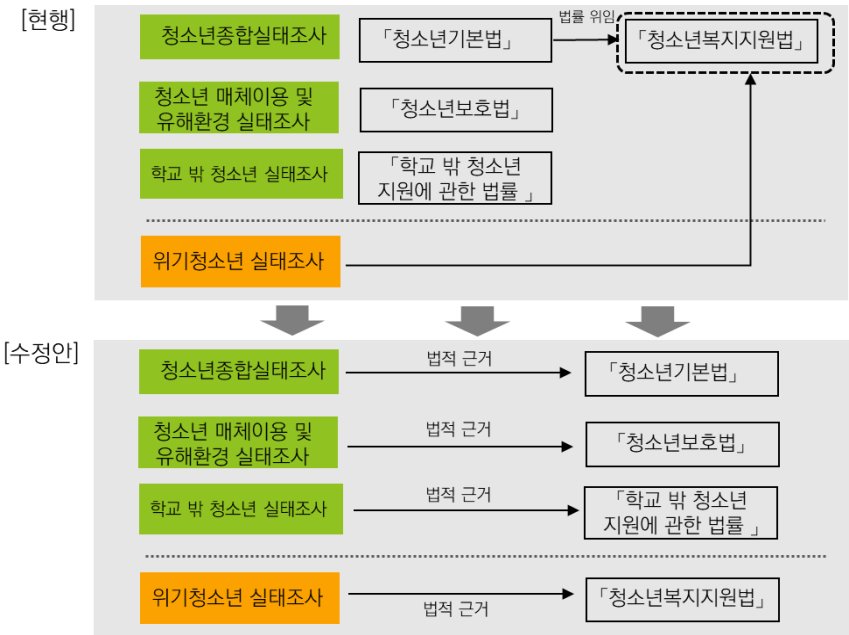


그림 Ⅷ-2 청소년분야 실태조사와 해당 법적 근거 정비 방안

② 「청소년기본법」 개정

먼저, 「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의 위임 없이 「청소년기본법」에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둘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을 개정한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를 두는 현행 방식은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기 때문이다.³⁰⁾ 따라서 「청소년기본

30)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의2(실태조사) 조항 개정안에 명시된 개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나, 법률로 위임한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 및 내용 등 행정조사로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법」에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조사 주기(3년) 및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별도의 입법 위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표 Ⅷ-2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제49조의2(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중장기 청소년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0.12.08.인출.

③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다음으로,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의2(실태조사) 조항이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조항으로 활용되도록, 현행 규정을 일부 수정한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내용에 맞춰 조사내용을 수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2년 주기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한다.

않아 조사 대상자가 그 시기에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도우고자 함”.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014247]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E8MOB7H0A5B1S7G4M6M511L2N2D5 에서 2020.12.08.인출).

표 Ⅷ-3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항~③항. <생략>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청소년의 심리·정서, 생활, 안전, 복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항~③항. <생략>

* 청소년복지지원법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0.12.08.인출.

④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마지막으로, 현재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맞춰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내용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 Ⅷ-4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사회·문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항~⑤항. <생략>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가정 환경 및 생활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안전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위기 경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항~⑤항. <생략>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0.12.08.인출.

(2) 정책계획과의 연계 강화 시스템 구축

다음으로, 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근거 기반 위기청소년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계획에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조사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조사 주기의 설계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지경 외(2016: 19)에서 제시한 틀을 준용하여,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주요 정책계획 수립 간의 시기를 검토해보면 [그림 VIII-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는 2021년 제1차 조사가 시행될 예정인데, 2021년 1차 조사 결과가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에 산출될 경우, 2022년에 추진될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의 기초연구에 반영 가능하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나 ‘청소년 보호종합대책’ 등 정부의 중장기 정책계획은 통상적으로 1년 전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차년에 해당 계획을 발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3년 주기보다 2년 주기 조사가 바람직하며, 조사 결과를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이나 ‘청소년 보호종합대책’ 등 주요 정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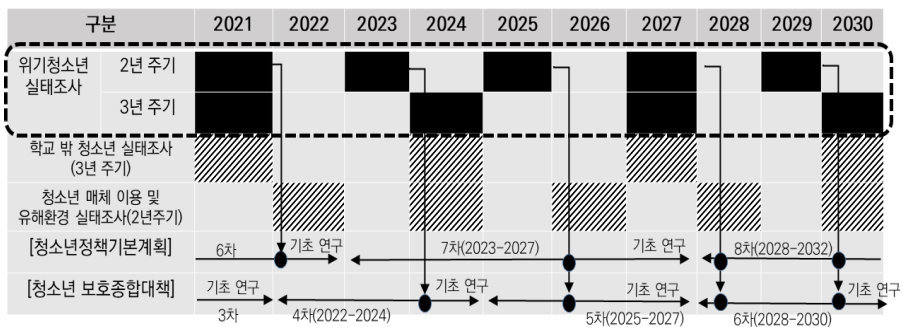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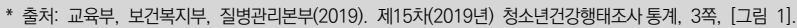


그림 VIII-3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주기와 주요 정책계획 반영 시기(안)

(3) 효과적인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조사 거버넌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중 하나로, 조사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사의 지속성과 대표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총괄기관의 분명한 조사 근거와 권한이 중요하다(박성호 외, 2018: 102). 특히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청소년 조사와는 달리, 조사대상 확보가 쉽지 않고, 조사대상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각 조사대상 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같은 조사의 특수성과 정책활용도 제고라는 조사 설계의 목적을 고려하면 해당 조사는 정부 생산 통계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정책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가 통계작성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주된 통계작성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되, 장기적으로는 법무·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공동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조사 거버넌스를 참고할만하다. 이 조사는 정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7058호)로 관리되며 매년 실시되는 조사인데,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공동 수행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3). 효율적인 조사 수행과 조사 항목 및 결과 검토를 위해 운영위원회, 조정자문위원회, 분과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질병관리청 담당자로 구성되고, 조사 운영, 표본학교 관리를 담당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3). 분과 위원회는 설문 문항, 지표 및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조정자문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자문 및 조정을 수행한다(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3). 요약하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조사기획 및 총괄, 결과분석 및 활용 등 전반을 담당하되, 효과적인 실사 추진을 위해 교육부가 실사 운영 지원을 총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도 장기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조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통계작성기관을, 전문연구기관이 조사수행기관을 맡아 집중 관리하여 조사를 안착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 경우에도 원활한 조사대상 표집확보를 위해서는 유관 부처와의 적극적인 연계협력과 협조가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경우, 조사의 활용도도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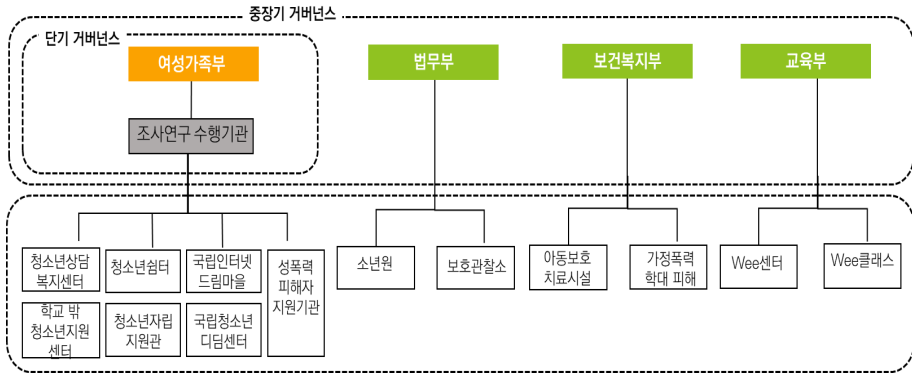


그림 VIII-5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거버넌스 구축(안)

(4) 기존 조사와의 조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 조사와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가 통계작성기관이 될 경우, 동일 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조사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7장에서 기존 조사를 여기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로 흡수통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2022년 실시되는 제4차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승인통계 대상인 일반 청소년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비공표 대상으로 추진되었던 위기청소년 부가조사는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표 VIII-5>에는 상술한 내용을 반영한 기존 조사에 대한 조사 설계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다.

표 VIII-5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조사설계 수정안

현행 ¹⁾	수정안
○ 조사대상 - 일반청소년 :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총 16,000명 내외 - 위기청소년 : 소년원,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총 2,000명 내외	○ 조사대상 - 일반청소년: 〈현행 유지〉 - 위기청소년: 〈삭제〉
○ 조사방법 - 일반청소년 : 학교방문 학급단위 집단 면접조사 (자기기입식 설문) - 위기청소년 : 소년원,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면접조사	○ 조사대상 - 일반청소년: 〈현행 유지〉 - 위기청소년: 〈삭제〉

* 출처: 1) 현행 자료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내부자료(2020.01).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제안요청서(안).

(5) 의미 있는 결과 산출을 위한 표본크기 유지 및 예산 확보

다음으로, 의미 있는 분석결과 산출을 위해 타당한 수준의 표본크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표 VIII-6〉에는 유관 실태조사의 표본크기와 조사 방식, 그리고 예산 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연구 내용과 조사의 난이도가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표본 크기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관련 자료로 참고할만하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 자료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의 유사성이 가장 큰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경우, 약 3,200명 표본에 1억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2019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성인 남녀 1만여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소요 예산은 6억2천여만원이다. 「2019 성매매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는 연구내용에 설문조사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집결지 방문 조사, 랜덤채팅앱 실태 조사, 유튜브 관련 조사 등 다양한 연구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규모만으로 예산액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에 위기청소년 대상 조사가 포함되어 있는 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인 2,3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학생 청소년 6,423명 대상 설문조사, 위기청소년 167명 대상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와 다양한 자체 실태조사 실시에 총 3억 9천여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Ⅷ-6 유관 조사 예산 규모(예시)

구분	표본 규모	조사 방식	예산 규모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2018)」	• 학교 밖 청소년 3,213명	• 자기기입식 대면 대면조사	188,502,000원 ¹⁾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2019)」	• 만19세~64세 이하 성인 남녀 10,000명	• 자기기입식 대면 설문조사	623,127,270원 ²⁾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2019)」	• 일반인 2,300명 • 학생 청소년 6,423명 • 위기청소년 167명 • 설문조사 외에,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집중발생 지역, 랜덤채팅업 실태 등에 대해 별도 자체 조사 내용 포함	• 온라인 조사 • 대면 설문조사 • 설문+면접조사	390,246,720원 ³⁾

* 출처: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계약액은 온나라 정책연구(Prism.go.kr)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pageIndex=1&research_id=1382000-201800033&leftMenuLevel=160&cond_research_name=%ED%95%99%EA%B5%90+%EB%B0%96+%EC%B2%AD%EC%86%8C%EB%85%84&cond_research_start_date=&pageUnit=10&cond_order=3 에서 2020.12.09. 인출.

2)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계약액은 온나라 정책연구(Prism.go.kr)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pageIndex=1&research_id=1382000-202000049&leftMenuLevel=160&cond_research_name=%EC%84%B1%ED%8F%AD%EB%A0%A5&cond_research_start_date=&pageUnit=10&cond_order=3 에서 2020.12.09. 인출.

3)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계약액은 온나라 정책연구(Prism.go.kr)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pageIndex=1&research_id=1382000-202000065&leftMenuLevel=160&cond_research_name=%EC%84%B1%EB%A7%A4%EB%A7%A4&cond_research_start_date=&pageUnit=10&cond_order=3 에서 2020.12.09. 인출.

상술한 예산규모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본크기 5천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사 수행에 약 3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예산 규모가 축소될 경우에는 상대표준오차를 10% 이내로 유지하는 범위에서 기관유형별 할당 인원을 조정하여 전체 표본크기를 축소함으로써, 조사의 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정책적 활용 방안

1) 제안 배경

새롭게 제안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의 종합적 실태 파악을 통한 정책활용도 높은 기초 자료의 산출”을 조사설계의 기본 목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사의 성패는 실제 수집·분석된 자료가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달려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해 과학적·실증적인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실태조사가 정책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 추진 결과가 다시 실태조사에 반영되는 ‘자료’와 ‘정책’의 환류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실태조사 결과의 다양한 활용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아래에 그 내용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2) 제안 내용

(1) 「(가칭)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의 수립·제정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칭)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은 체계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부재한 상황에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그에 비해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는 3년 주기로 「청소년 보호종합대책」이 중기 계획으로 수립·추진되고 있으며, 다문화 분야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5년 주기로 수립되어, 현재 제3차(2018-2022)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3).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정책계획은 아니지만,

지난 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일종의 종합대책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이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 바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1.20.).

그에 비해 위기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계획이 부재하다. 이에 「(가칭)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위기청소년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분석 결과가 산출되면, 자료에 근거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 수립이 가능하다.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중장기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정책의 추진 성과를 다시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하며,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집행에 환류(feed-back)하는 과학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Ⅷ-6]에는 상술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가 개념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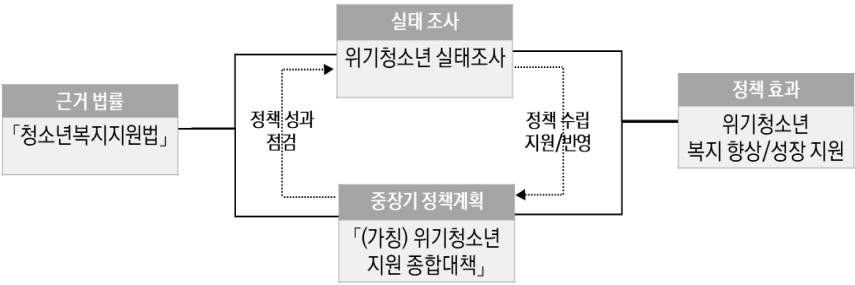


그림 Ⅷ-6 근거에 기반한 위기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안)

위에서 제안한 「(가칭)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의 수립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 시기를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는 2021년 제1차 조사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바, 해당 분석 결과는 2021년 말에 생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상반기 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제1차 종합대책은 2022-2024년까지 적용되는 3년 중기 계획으로 수립한다. 이 같은 시간계획을 적용했을 때, 실태조사 결과가 종합대책 수립에 환류(feedback)되는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예측된다. 아래 [그림 VIII-7]에는 실태조사와 「(가칭)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수립·추진의 시간계획이 도식화하여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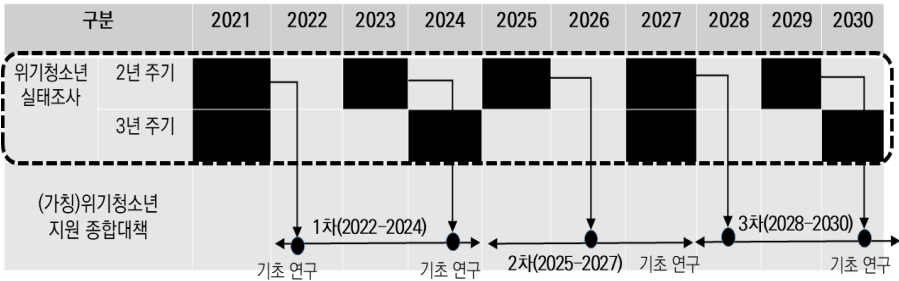


그림 VIII-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가칭)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반영 계획(안)

아울러, 여기에서 제안한 「(가칭)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법제화 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표 VIII-7>에는 「청소년 보호종합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참고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청소년 보호법」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에는 종합대책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표 Ⅷ-7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법적 근거

구분	내용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생략>.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 에서 2020.12.08. 인출.

「(가칭)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도 상기한 사례를 준용하면, 다음과 같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Ⅷ-8 「(가칭)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법제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방안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위기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종합대책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0.12.08. 인출.

(2)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정책 성과지표로 활용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성과지표 활용은 「청소년기본법」 제14조3항 및 4항(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청소년정책 분석·평가」는 청소년정책을 ‘활동·참여 사업’과 ‘보호·복지 사업’, ‘정책추진 체계’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한 뒤, 격년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는 이 가운데 ‘보호·복지 사업’ 평가를 점검하는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평가의 평가지표 내용 가운데 ‘5-1. 정책목표 달성도’ 지표는 정량적·정성적으로 정책목표 달성 정도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20.6). 실태조사 결과는 이 가운데 정량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5-2. 정책효과성’ 지표는 국정과제, 주요시책 및 중장기 청소년 정책의 정책 실현 정도를 평가하는데(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20.6), 해당 내용에 대한 성과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Ⅷ-9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지표 중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지표

평가지표	적용 대상	지표 내용
5-1. 정책목표 달성도	사도 및 사군구 공통 평가지표	○ 해당 과제의 추진계획 상 정책목표를 실제 달성한 정도 - 객관적인 통계·근거자료를 토대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등 선행조건, 달성된 목표의 질적 충실성, 목표달성과 직결된 외생적 변수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정량적 판단) 당초 설정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비율 - (정성적 판단) 계획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 자체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음 의도한 정책목표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5-2. 정책 효과성	사도 및 사군구 공통	○ 예상한 정책효과 구현 정도 - 정책형성 단계에서 원래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실현시켰는지 판단 - 정책기획과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결과(outcome)” 간의 인과성 파악

평가지표	적용 대상	지표 내용
	평가지표	○ 국정과제, 주요시책 및 중장기 청소년정책(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 보호종합대책 등)의 정책 실현에 대한 기여도 - 정책 수혜자 중심의 성과 파악

*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20.6). 2020년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평가위원 가이드라인. 미발간 내부자료.

(3) 지원기관별·유형별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개발 근거로 활용

다음으로, 지원기관별·위기청소년 유형별 지원 서비스/프로그램 개발 시,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태조사는 추후 결과 분석 시, 조사대상자가 속한 기관 유형별로 분석 결과를 산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조사내용에 포함된 다양한 문항에 대해 각 기관 유형별로 응답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은 응답자들이 처한 실태와 상황, 직면한 위기, 가지고 있는 정책적 수요 등에 대해 광범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현장 전문가 대상 FGI에서 각 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은 조사 결과가 산출되면,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청소년들이 어떠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 같은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태조사 자료가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표 VIII-10>에는 실태조사 내용 가운데, 지원기관별·위기유형별 서비스/프로그램 개발 시 참고 가능한 항목들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표 Ⅷ-10 지원기관별 위기유형별 지원 서비스 개발 시 활용 가능 정보(예시)

지원 기관	위기 유형	실태조사를 통해 획득 가능한 정보	프로그램/서비스 반영 방안
청소년 쉼터	가출 청소년	- 가출청소년의 가정폭력·학대 피해 경험 - 가정폭력·학대 피해의 종류 - 피해 시 대응방법 및 대응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피해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가능
청소년 자립 지원관		- 가출 후 주로 지낸 장소 - 가출 시 경험한 주된 어려움 및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 수요	가출청소년 대상 지원 서비스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출 후 경험한 다양한 피해 경험	가출청소년 대상 심리치유·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4)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연계 활용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부터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위기청소년 통합관리 및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총괄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며,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하여 지원한다(여성가족부 공고 제2020-227호). 해당 사업 내용의 일부로 ‘지역 내 위기청소년 현황 조사 및 발굴·연계 강화’가 추진되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지역 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분석 실시’가 포함되어 있다(여성가족부 공고 제2020-227호). 따라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초 지자체들은 지역 내 위기청소년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바, 별도의 사업비를 책정해 설문지 개발, 조사 시행 및 결과 분석 등 일련의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Ⅷ-8]에는 2020년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사업’에 참여한 부산 사하구에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위해 별도 연구를 거쳐 개발한 설문조사표의 일부가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사하구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사하구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는 사하구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과학적인 지원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질문을 읽고 청소년의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응답해주신 소중한 자료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하구청의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로 다른 사람 혹은 학교에 공개되지 않고 비밀은 철저히 보장합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일체의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0년 9월 18일

동아대학교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초빙교수

설문 관련 문의: [전화번호]

[이름] [직책]

1. 다음을 여러분의 친구(친목대 포함)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의 칸에 V로 체크하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할 나을 것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의 뜻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의 대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도움 내 친구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나는 내 친구들을 잘 관리	①	②	③	④
나는 지금의 친구를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①	②	③	④
나는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데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라	①	②	③	④

2. 여러분들 부모님(보호자)과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십니까? 매일과 주말과 구분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평일(하루 평균)		주말(하루 평균)	
시간	분	시간	분
_____	_____	_____	_____

3. 다음을 여러분의 부모님(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의 칸에 V로 체크하십시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내가 할수있는 표현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①	②	③	④
내게서 특징을 잘 봐 주신다	①	②	③	④
내가 할수 있는 것에 대해 가능한 일과 적신다	①	②	③	④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적신다	①	②	③	④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돌아올지 알고 적신다	①	②	③	④

* 출처: 오성배, 김성식, 이윤희(2020). 사하구 위기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144-145쪽.

그림 VIII-8 부산 사하구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문지(예시)

만약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검증된 설문조사 내용이 제공된다면 지자체마다 별도의 조사내용을 개발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동일 혹은 유사한 문항으로 정보가 수집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지자체별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데도 훨씬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내용이 바로 개별 지자체에서 추진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내용의 준거로 기능할 수 있다.

(5)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마지막으로, 각 중앙부처에서 수립하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매년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0.12.08.인출). 실제로 본 연구의 제3장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개별 부처별로 시행 중인 사업의 성과 점검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활용된 대다수의 성과 지표나 기초자료들이 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라는 점에서, 위기청소년 대상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VIII-11>에는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청소년정책 사업과 이와 관련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표 VIII-11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시 실태조사 결과 활용(예시)

소관 부처	위기 유형	추진 사업명	관련 실태조사 항목
여성가족부	폭력 피해	•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 폭력 피해 경험 • 피해 시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및 도움 정도
	성폭력 피해	•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성폭력 피해 경험 • 피해 시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및 도움 정도
보건복지부	유해 약물 이용	•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흡연 및 음주 예방)	• 흡연 및 음주 경험 • 흡연 및 음주로 인한 비행·범죄 경험 여부
법무부	성폭력 피해	•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성폭력 피해 경험 • 피해 시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및 도움 정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 출처: 각 부처별 추진 사업 출처는 여성가족부(2019b). 2019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4.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보다 효과적인 위기청소년 대상 지원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1) 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에 대한 별도의 조사연구 검토

첫째, 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에 대한 별도의 조사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설계하면서 연구대상과 내용의 이질성으로 인해 후기청소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후기청소년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지연 등 10대 청소년과는 상이한 다양한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10대에 경험한 위기 경험이 후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데도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기청소년 대상 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1안은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조사에 조사내용의 일부로 반영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와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 조사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402004)로 관리되고 있다(국가통계포털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메타정보, 2020.12.08. 인출). 이 조사는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가치관, 관계와 참여, 정치·사회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국가통계포털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메타정보, 2020.12.08. 인출), 조사 항목에 후기청소년들이 직면한 위기적 상황에 대한

내용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후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안은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승인통계인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반영하는 방안이 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9~24세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바, 후기청소년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후기청소년용 조사표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마지막 3안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부가조사 형태로 후기청소년 조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주된 조사와 조사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소요가 크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1안 또는 2안을 중심으로, 기존 조사에 조사내용을 일부 추가하는 형태로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경계선 지능 장애 청소년에 대한 정책연구 필요

둘째, 연구 수행 과정에서 경계선 지능 장애 청소년에 대한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복지시설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 대상 FGI 과정에서 최근 증가세가 체감되는 위기청소년의 유형으로 경계선 지능 장애 청소년에 대한 언급이 다수 제기되었다. 경계선 지능 장애 청소년은 폭력·성폭력 피해에 취약하고, 왕따·따돌림에도 쉽게 노출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연유로 본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에 경계선 지능 장애 청소년 포함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양적 설문조사로 실시되는 본 연구의 특성 상 조사대상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표집이 필수적인데, 이들에 대한 모집단 규모 혹은 지원기관 이용자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경계선 지능 장애 청소년의 경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self-report survey) 방식으로 추진되는 본 연구의 조사 방식이 이들이 처한 위기 상황이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조사 설계 과정에서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경계선 지능 장애 청소년의 경우, 조사 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보다는 이들 집단이 처한 특수성을 내밀하게 짚어내는 면담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계선 지능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방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통계 자료와의 연계 추진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자료와 행정통계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태조사 자료는 일종의 연성자료(soft data)로서, 경성자료(hard data)와 결합했을 때 자료로서의 가치와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연성자료 역시 경성자료가 포착하지 못하는 세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경성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자료가 적절히 결합했을 때 상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지에서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태조사 자료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양질의 정책자료 수집·활용을 위해 장기적으로 정부가 생산하는 행정통계 자료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3.).

이전에는 위기청소년 대상 통합관리시스템에 부재한 상황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별로 관리 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여성가족부 정책뉴스, 2019.5.17.). 새롭게 개편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기관별

시스템을 통합하는 한편, 정책 대상자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과 실태조사 자료의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청소년이 받은 서비스 이력에 대한 정보와 실태조사 응답 결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료가 축적되면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는 데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추후 실태조사 자료와의 연계를 염두에 둔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정책추진에 요구되는 윤리적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참여자(대상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 VIII-12〉에는 지금까지 논의한 정책제언 내용을 법률 제·개정 여부와 추진 시기(단기/중장기)를 명시하여 종합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VIII-12 정책활용 방안 종합

정책제언 내용	법령 제·개정		추진 시기	
	필요	불필요	단기	중장기
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제언				
1-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정비	●		●	
1-2) 정책계획과의 연계 강화 시스템 구축	●			●
1-3) 효과적인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조사 거버넌스 구축		●		●
1-4) 기존 실태조사와의 조정을 위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중 위기청소년 조사의 흡수·통합		●	●	
1-5) 의미 있는 결과 산출을 위한 표본 크기 유지 및 예산 확보		●	●	

정책제언 내용	법령 제·개정		추진 시기	
	필요	불필요	단기	중장기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정책적 활용 방안				
2-1) 「(가칭)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의 수립·제정	●			●
2-2)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정책 성과 지표로 활용		●	●	
2-3) 지원기관별·유형별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개발 근거로 활용		●	●	
2-4)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연계 활용		●	●	
2-5) 중앙부처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시행계획」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	
3.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3-1) 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에 대한 별도의 조사연구 추진 검토		●		●
3-2) 경계선 지능 장애 청소년에 대한 정책연구 필요		●		●
3-3)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통계 자료와의 연계 추진	●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9a).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9b).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관계부처합동 (2016).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8-2022).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48 에서 2020.04.17. 인출.
- 교육부 보도자료 (2019.08.27.).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346&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0.04.17. 인출.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9a). **교육통계연보 2019**.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9b). **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유치·초·중등 교육통계편**.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9c). **간추린 교육통계**.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5.16.).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61 에서 2020.11.25. 인출.

- 구본용, 금명자, 김동일, 김동민, 남상인, 안현의 외 (2005). **위기(가능)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 권재환, 이은희 (2006).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325-351.
- 김경희, 김수아, 김은경 (2019).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2019 교육부 정책보고서. 세종: 교육부.
- 김동민, 김동일, 안지영, 금창민, 김민지 (2016).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가이드라인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6-30. 서울: 여성가족부.
- 김소아, 전인식, 장유진, 안우림, 이두리 (2020). **2019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전남: 한국콘텐츠진흥원.
- 김정혜, 주재선, 정수연, 동제연, 김홍미리, 심선희, 최현정, 허민숙 (2019).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지경, 황여정, 유홍식, 정윤미 (2016).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지경, 연보라, 정은진, 유설희, 정윤미, 이민정 (2018a).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지경, 연보라, 정은진, 유설희, 정윤미, 이민정 (2018b).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지연, 김승경, 백혜정, 황여정, 최수정 (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청소년용 조사표(안). (발간 전 연구과정물). 서울: 여성가족부.
- 김춘경, 이수연, 이운주, 정종진, 최웅용 (2016). **상담학사전**. 서울: 학지사.
- 김현진, 김지연, 이승현, 류지웅 (2018).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방안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이미영 (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중, 유민상, 이봉주 (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성호, 김혜자, 남신동, 박근영, 길혜지, 장유진, 황지원 (2018). **고등교육기관 신입생 조사 설계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박성훈, 김지영, 조영오, 김현정, 황여정, 김정숙, 배상균, 고나영 (2017). **소년원 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I)**.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박재연 (2010). 청소년의 자살위기와 레질리언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준휘, 김지선, 홍영오, 장다혜, 라광현, 김도우 외(2019). **2019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9-36. 서울: 여성가족부.

배주미, 김동민,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 (2010).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선애리, 김평화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10. 서울: 여성가족부.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 (2020). 2020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보건복지부 (2020). 2020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 알림(2019.12.31. 기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에서 2020.10.30.인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2020.08.07.).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54749 에서 2020.9.14. 인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서미, 이동혁, 김경희, 유준호, 김지혜 (2018). **표준화된 위기청소년 평가진단**

도구 개발. 서울: 여성가족부.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 (201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 IEA ICCS 2016**. 연구보고 14-R2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성만, 라영안, 박명준, 송용수, 윤지혜 (2017).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치유 프로그램 평가 및 성과지표 개발**. 서울: 여성가족부.

안재진, 강상경, 김혜란, 신혜령, 유조안, 이봉주, 이은주, 황옥경(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19).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미진, 지승희, 김태성, 이자영, 홍지연 (2007).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 개발연구. **아시아교육연구**, 8(2), 119-134.

여성가족부 (2018.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8b0Ufd5zym+htGEmQ0vGDOpc.mogef21?mid=plc503&bbtSn=704771&pageIndex=1&upDispYn=&schBgnDt=&schEndDt=&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 에서 2020.12.10. 인출.

여성가족부 (2019a). **2019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9b). **2019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0a). **2020년도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0b). **2020년 청소년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0c). **2020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공고(제2020-227호). 2021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사업 수행기관 추가공모.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 에서 2020.12.09.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9.11.20.). “학습부터 진로, 건강까지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종합 지원!”.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651 에서 2019.12.09.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12.27.). “2020년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776 에서 2020.11.25.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5.11.). “ ‘육성과 수련’의 대상에서 ‘성장과 체험’의 주체로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007 에서 2020.05.18.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8.25.).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초등4학년 가장 크게 증가: 2020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발표.”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77 에서 2020.9.14.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2.3.). “21년 예산 1조 2,325억.”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393 에서 2020.12.09. 인출.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9.5.17.).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7153 에서 2020.12.9. 인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2019).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2020.02).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계획. <http://school.e-jindan.kr/>에서 2020.04.01. 인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내부자료 (2020.01).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제안요청서(안).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내부자료(2020.06.24.). 위기청소년 모집단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통계.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20.6). 2020년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평가위원 가이드라인. 미발간 내부자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오성배, 김성식, 이유정(2020). **사하구 위기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부산: 사하구청.

유서구, 김용수, 김윤나, 서보람, 강현우 (2012). **가출팜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유영준, 오윤수 (2013). 청소년 위험요인이 위기결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21(4), 125-145.

윤철경, 이해연, 서정아, 윤경원, 김영한, 백혜정, 이봉주, 양미진 (2005).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윤철경, 조흥식, 김향초, 이규미, 우정자 (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김언주 (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이봉주, 김동일, 정익중 (2008). **위기청소년개념정립 및 통계화 방안 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이숙진, 신혜령, 이은주 (2006). **아동학대 실태조사: 방임아동을 중심으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이정민, 이수정 (2019).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 (2007).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의 기본방향. **청소년행동연구**, 12, 1-13.

이창호, 김영란, 김택호, 박재연, 유순덕, 은혁기 외 (2005).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 체제 구축운영방안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 장미혜, 이미정, 김동식, 주재선, 동제연, 고현승 외(2019).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전영실, 유진, 노성훈 (2018). **전국범죄피해조사(VIII)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2017.**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부만, 남팔근, 이주황, 이성준, 박종범, 권연정 (2019).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경기: 방송통신위원회, 대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현미, 장명선, 조진경, 이기연, 박숙란, 김현아 (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2016학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지승희, 양미진, 이자영, 김태성 (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원.
- 최정원, 강경균, 강소영, 김혁, 이미영 (2018).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정인, 장우민, 김연주 (2015). **2015 서울특별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서울: 서울특별시·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통계청 보도자료 (2019. 12. 17).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4/4/index.board?bmode=read&bSeq=&aSeq=37936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0.05.01. 인출.
- 통계청 (2020). 2020년 자체통계품질진단 매뉴얼: 조사통계. 대전: 통계청 품질관리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8/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83900&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0.10.30. 인출.
- 하정화, 박금식, 김소정 (2014). **부산지역 위기청소년 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하형석 (2020.09).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Vol.5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 (2017).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2020.01). **2020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http://schoolhealth.kr>에서 2020.05.17. 인출.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8.12).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서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2020). 청소년 여가문화 실태조사(2020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의 조사표(안). (발간 전 연구과정물). 서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2019). **2019년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7). **2016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보고서**. https://www.kyci.or.kr/userSite/lib/public_read.asp?idx=X454&Page=1&Gubun=T&orderMdate=%EC%A0%95%EB%A0%AC&SearchGubun=bname&SearchText=%EB%8F%99%EB%B0%98%EC%9E%90 에서 2020.11.2.인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2020.11.23.). 청소년동반자 2019년 12월 실적.
- 한상철 (2008).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73-298.
-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 (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황여정, 김지경, 이윤주, 정윤미, 신정민, 전현정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rt, M. R., Resnick, G., & Matheson, N. (1992). *Comprehensive Service Integration Programs for at-Risk Youth*. Final Report.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Davis, L. L. (1992). Instrument review: Getting the most from a panel of experts. *Applied nursing research*, 5(4), 194-197.
- Gilliland, B. E. & James, R. K. (1997). *Crisis Intervention Strategies*. (3rd ed.). Wisconsin: Cole Publishing Company.
- Horowitz, F. D. (1987). *Exploring developmental theories: Toward a structural/behavioral model of development*. Hillsdale, NJ : Erlbaum.
- Johnson, G. M. (1997). Teachers in the Inner City: Experience-Based Ratings of Factors That Place Students at Risk. *Preventing School Failure*, 42(1), 19-26.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McWhirter, J. J., McWhirter, B. T., McWhirter, E. H., & McWhirter, R. J. (2004).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CA: U Brooks, Cole-Thomson Learning.
- OECD(2007). *Education policies for students at risk and those with disabilities in South Eastern Europe*. EDU/EDPC(2007)21. <http://www.oecd.org/education/school/38613229.pdf> 에서 2020.04.11.인출.
- Pollard, J. A., Hawkins, J. D., and Arthur, M. W. (1999). Risk and protection: Are both necessary to understand diverse behavioral outcomes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23(3), 145-158.

[법령 참고자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48호, 2018.3.13. 일부 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 2020.04.21.인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8호, 2019. 12. 24.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에서 2020.05.01. 인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45715&page=1에서 2020.05.01.인출.

소년법 (법률 제15757호, 2018. 9. 18.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소년법> 에서 2020.04.13.인출.

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2020. 4. 7.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 에서 2020.04.13. 인출.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7호, 2019. 3. 19.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시행령> 에서 2020. 04.13. 인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75호, 2019. 1. 15.,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 2020.04.21. 인출.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5986호, 2018.12.18.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에서 2020.04.13. 및 2020.12.08. 각각 인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45호, 2019.6.11.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시행령/\(29845,201](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시행령/(29845,201)

90611)에서 2020.04.13. 인출.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15988호, 2018.12.18.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 2020.04.21. 및 2020.12.08. 각각 인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7.2. 타법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에서 2020.04.21. 인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4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에서 2020.12.08. 인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E8M0B7H0A5B1S7G4M6M511L2N2D5 에서 2020.12.08. 인출.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7091호, 2020.3.24. 타법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 에서 2020.04.21. 및 2020.12.08. 각각 인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7.2. 타법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시행령> 에서 2020.04.21. 인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41호, 2019.8.20.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2020.4.13. 인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54호, 2018.1.16.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에서 2020.4.13. 인출.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5989호, 2018.12.18.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2020.04.21. 인출.

□ 기타 인터넷 자료

국가통계포털 경찰청범죄통계 피해자특성(성별·연령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에서 2020.09.22.인출.

국가통계포털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메타정보.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entrType=btn&outLink=Y&entrType=btn 에서 2020.12.08.인출.

국가통계포털 아동종합실태조사 메타정보.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entrType=btn&outLink=Y&entrType=btn 에서 2020.12.08.인출.

국가통계포털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메타정보.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entrType=btn&outLink=Y&entrType=btn에서 2020.12.08.인출.

국가통계포털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메타정보.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20.12.08. 인출.

국가통계포털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메타정보.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20.12.08. 인출.

국립인터넷드림마을 홈페이지. 국립인터넷드림마을 이용자수. http://nyit.or.kr/user/sub01_4.asp 에서 2020.09.16. 인출.

보건복지부 복지포털(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301>에서 2020.04.13.인출.

성매매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계약액. 온나라 정책연구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pageIndex=1&research_id=1382000-202000065&leftMenuLevel=160&cond_research_name=%EC%84%B1%EB%A7%A4%EB%A7%A4&cond_research_start_date=&pageUnit=10&cond_order=3 에서 2020.12.09. 인출.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계약액. 온나라 정책연구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pageIndex=1&research_id=1382000-202000049&leftMenuLevel=160&cond_research_name=%EC%84%B1%ED%8F%AD%EB%A0%A5&cond_research_start_date=&pageUnit=10&cond_order=3 에서 2020.12.09. 인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계약액. 온나라 정책연구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pageIndex=1&research_id=1382000-201800033&leftMenuLevel=160&cond_research_name=%ED%95%99%EA%B5%90+%EB%B0%96+%EC%B2%AD%EC%86%8C%EB%85%84&cond_research_start_date=&pageUnit=10&cond_order=3 에서 2020.12.09. 인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안내. <https://www.kyci.or.kr/cooperation/cooperation07.asp>에서 2020.12.07.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시스템. 연령별 인구현황. <http://27.101.213.4/>에서 2020.05.03.인출.

□ 데이터 원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2018 각 년도 원자료(raw data).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웹사이트 <https://mdis.kostat.go.kr/index.do>.

가계동향조사 2016-2018 각 년도 원자료(raw data).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웹사이트 <https://mdis.kostat.go.kr/index.do>.

○ — 부 록

- 1. 「위기 청소년 실태조사」
조사표(안)
- 2. 전문가 의견조사표(웹조사)

부록

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조사표(안)

※ ID는 ㈜한국리서치에서 기입하니, 따로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ID				
----	--	--	--	--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인사말씀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생 희망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 여러분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국가 정책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 기관

 Hankook Research

※ 연구 수행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참여정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정민 부연구위원

hyj@nypil.re.kr
jminlee@nypil.re.kr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사업 1본부 박종경 차장 080-674-1000

[진행 전 안내사항]

1. 표지 뒷장에 있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읽고 작성해주세요.
2.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 참여 동의서 다음에 나타나는 “설문 응답 방법”을 읽어주세요.
3. 설문에 대한 궁금증은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Q&A”를 참고해주세요.

연구 참여 동의서(청소년용)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 위기환경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출생연도, 가족구성, 출생국가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

설문 응답 방법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응답하는 방법을 잘 읽고 난 후, 그에 맞게 응답해주세요.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아니다'면 ①에, '조금 그렇다'면 ②에, '그렇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1	다음 문항을 읽고, 최근 자신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이 문항에는 옳거나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u>답해주시면</u>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1)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02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화이트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1	다음 문항을 읽고, 최근 자신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이 문항에는 옳거나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u>답해주시면</u>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1)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03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17	지금까지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만화방, PC방, 노래방, VR체험카페, 비디오/DVD방, 소주방, 호프집 등 술집, 단란주점, 숙박업소 등)에서 일해본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 18로 가세요
17-1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04 응답하기 전 확인사항

질문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질문 아래 당구장 표시(※)가 된 부가설명이 있다면,
응답하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20	<u>최근 1개월 동안</u> <u>한잔 이상의 술을 마셔본 적이</u> 있나요?
	※ 제사, 차례 또는 성찬(세종교의식)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① 있다 ② 없다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Q & A

Q 이걸 무슨 조사인가요?

A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입니다.

Q 이 조사는 왜 하는 건가요?

A 설문지가 어렵지는 않은지, 기억할 수 없어서 대답하기 힘든 문항이 있는지, 응답하기 불편한 문항이 있는지 등, **전체적으로 설문지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청소년 여러분에게 물어보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Q 그럼 설문지에 응답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건가요?

A 네, 설문 응답도 중요하지만 설문에 대한 평가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어떤 설문이 어렵고, 불편한지 등, **설문의 문제점을 잘 기억하셨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설문 평가”에 이를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Q 이걸 하면 뭔가 보상이 있나요?

A 설문과 설문 평가까지 성실히 응답을 완료해주시면, 감사의 의미로 문화상품권 5,000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아무거나 응답하거나, 1~2개 번호만 계속 응답하는 등,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할 경우, 보상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I 여러분의 최근 기분이나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심리적 특성

1

다음 문항을 읽고, 최근 자신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이 문항에는 옳거나 그른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2) 소중한 존재다	①	②	③	④
3) 지금의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5)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6)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다	①	②	③	④
7) 친구들의 감정과 기분에 공감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8)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9)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10) 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11) 웃을 갈아입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2)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3) 무슨 일이든 갑자기 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14) 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15) 뭐든지 내 위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6) 쉽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17)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8) 내가 속한 집단의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19) 내가 속한 집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20) 집단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1) 열심히 일하면 언제나 그에 대한 보답이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22)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3) 전반적으로 신체적 건강이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24) 전반적으로 정서적 건강이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2 여러분은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그렇다	아니다
1) 밖에 나가거나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자가격리를 위해 집에 머물거나, 물건을 사려고 가게에 가는 일과 같은 간단한 외출은 제외하고 답해주세요)	①	②
2)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희망이 없다는 기분을 2주 내내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3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어느 정도 있나요?

① 없다 → **4** 로 가세요

② 1명

③ 2~3명

④ 4명 이상

3-1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부모님 (또는 보호자)
- ② 학교 선생님
- ③ 친구/선후배
- ④ 형제/자매
- ⑤ 이웃/친척
- ⑥ 청소년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 선생님
- ⑦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 ⑧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가정 내 경험

4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또는 보호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주세요.

우리 부모님(또는 보호자)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2)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3)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주고 용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4)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외박이나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나를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어릴 때 부모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문항	본 적이 있다	본 적이 없다	해당사항 없음 (부모님이 같이 살지 않았음)
1)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①	②	③
2) 싸우면서 물건을 부수거나 던졌다	①	②	③
3) 때리거나 발로 찼다	①	②	③

문항	일주일에 한 두 번	한 달에 한 두 번	일 년에 한 두 번	최근 1년 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1)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또는 보호자)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자주의 말을 퍼부었다	①	②	③	④	⑤

↳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으면 6-1 로, 둘 다 "평생 경험한 적 없음"이면 7 로 이동하세요.

6-1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그 사실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알린 적이 있나요?
알렸다면, 어디에 알렸는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② 선생님에게 알렸다

③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

④ 친척 또는 이웃 어른에게 알렸다

⑤ 자원기관에 알렸다
(청소년전화1388, 청소년상담기관, Wee센터 등)

⑥ 경찰(112)에 알렸다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6-2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① 무서워서

② 내가 잘못된 것이므로

③ 가족이기 때문에

④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⑤ 그 순간만 넘기면 되니까

⑥ 신고해봐야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⑦ 알리지 말라는 압박을 받아서

⑧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6-3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①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알리지 않은 것과 차이가 없었다

④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

7

최근 1년 동안,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또는 가정폭력 대처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받아보았다면,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교육 받은 적이		도움이 된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①	②	①	②	③	④



가정 밖에서 지낸 경험

8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가출을 해본 적이 있나요?

※ 가출이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항	해 본 적 없다	한 번	2~3회	4~5회	6~9회	10회 이상
1) 지금까지....	①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1년 동안...	①	①	②	③	④	⑤



하나라도 해본 적이 있으면 8-1 로, 둘 다 “해본 적 없다”이면 9 로 이동하세요.

8-1 처음 가출했을 때 몇 살이었나요?

		살
--	--	---

8-2 집을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부모님, 형제, 자매 등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가족들과 싸워서)
- ② 부모님, 형제, 자매 등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 ③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경제적 어려움)
- ④ 선생님과의 갈등, 학교 규칙 때문에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 ⑤ 왕따 등 학교폭력 때문에
- ⑥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 ⑦ 친구나 선배가 집을 나가자고 해서
- ⑧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 ⑨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 _____)

8-3 집을 나온 기간 중 가장 길었던 적은 어느 정도였나요?

- ① 1개월 미만 ② 1~2개월 ③ 3~5개월
④ 6~11개월 ⑤ 1년 이상

8-4 집을 나와서 어디에서 지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청소년 쉼터 ② 친구 또는 선·후배 집
③ 여관/모텔/달방/월세방 ④ 찜질방/고시원/PC방
⑤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
(건물 안 계단/ 지하철역/길거리/놀이터/공원 등) ⑥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헬퍼)의 집
⑦ 가출캠 ⑧ 친척집
⑨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8-5 집을 나와서 지내는 동안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은 적 없다 ② 친구 또는 선·후배
③ 가족/친척 ④ 학교 선생님
⑤ 상담기관/쉼터/보호시설 선생님 ⑥ 경찰관
⑦ 잘 모르는 사람 ⑧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8-6 집을 나와서 지내는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일자리가 없음 ② 원하지 않는 조건만남/성매매 하기
③ 거리에서의 폭력/범죄 피해 ④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
⑤ 생활비가 부족함 ⑥ 건강이 안 좋아짐
⑦ 우울/불안/좌절/두려움/외로움 ⑧ 같이 다니는 또래들과의 관계
⑨ 도움 요청할 곳이 없거나, 어디에 요청할지 모름 ⑩ 갈 곳이 없음(침 곳이 없음)
⑪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⑫ 별로 힘든 점 없음

**8-7 여러분은 가출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필요한 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네모 칸에 작성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당장 필요한 생필품의 제공 ② 숙식을 제공해주는 생활지원
③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업지원 ④ 진로를 찾도록 도와주는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
⑤ 일할 곳을 구하도록 도와주는 취업지원 ⑥ 건강 문제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지원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8-8 집을 나와서 지내는 동안 다음의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
1) 잘 모르는 사람(헬퍼)으로부터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해준다는 제안이나 광고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인터넷 등을 통해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해줄 사람(헬퍼)을 구해본 적이 있다	①	②

하나라도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8-8-1** 로 이동하세요.

둘 다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9** 로 이동하세요.

8-8-1 헬퍼에 관한 정보는 주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 ① 가솔 관련 카페에서 ② 랜덤채팅 앱을 통해
③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등)를 통해 ④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⑤ 가솔청소년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_____)

8-9 집을 나와서 지내는 동안 헬퍼와 함께 생활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② 없다 → **9** 로 가세요

8-9-1 헬퍼와 함께 생활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 ①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주서 ② 용돈을 줘서
③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해서 ④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⑤ 그 사람의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못 가게 해서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_____)

8-9-2 헬퍼와 지내는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있다	없다
1)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2) 집을 나가지 못하게 가두고, 주변 지인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막은 적이 있다	①	②
3) 대출 사기, 성매매 등 불법적인 일을 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②
4)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①	②

가출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음과 같은 보호/상담기관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면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이용했을 때 도움이 되었는지 각각 응답해주세요.

문항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도움 정도			
	모른다	안다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버스 형태의 이동형 청소년쉼터	①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2) 일정 기간 동안 먹고 자는 것이 가능한 생활형 청소년쉼터	①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3) 청소년자립지원관	①	②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청소년쉼터”를 이용해본 적이 없으면 **9-1** 로, 이용해본 적이 있으면 **10** 으로 이동하세요.

9-1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청소년쉼터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 ②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쉼터가 없어서
- ③ 이성친구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쉼터가 없어서
- ④ 쉼터의 규칙 때문에 (예: 부모님 동의 등)
- ⑤ 쉼터의 프로그램이 나와는 맞지 않아서
- ⑥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스마트폰 이용 경험

10

다음은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답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3)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 게임은 온라인게임, 모바일(스마트폰)게임, 비디오게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① 게임을 하지 않는다 → 12 로 가세요

- ②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③ 경쟁하는 재미가 있어서
 ④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⑤ 남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⑥ 게임 세계에서의 내가 좋아서
 ⑦ 게임에서 이기거나 레벨업 할 때의 기분이 좋아서
 ⑧ 게임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어서
 ⑨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1-1 아래 각 문장을 잘 읽고,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경험과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게임을 하지 않을 때도 자주 게임 생각이 난다	①	②	③	④
2) 게임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게임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3) 불쾌하거나 좋지 않은 감정(예: 우울, 초조, 불안, 무기력감, 죄의식, 스트레스로 지치거나 지겨운 느낌 등)을 잊기 위해 게임을 한다	①	②	③	④
4) 게임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하는 중요한 일(예: 여행, 집안행사 등)에 빠지거나 가더라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5) 게임으로 인해 친구관계가 크게 소홀해졌다	①	②	③	④
6) 게임을 하다가 학교나 학원에 지각하거나 약속에 늦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온라인 인권침해 경험

12 최근 1년 동안, 온라인(인터넷, SNS, 채팅앱 등)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
1) 원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내 동의 없이 알몸 사진이나 음란물을 전송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노출 사진이나 음란물 영상에 내 얼굴 또는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4) 내 동의 없이, 나의 신체 일부(다리, 가슴 등)가 촬영된 적이 있다	①	②
5) 내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①	②
6) 내 신체 또는 내가 등장하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7) 불법촬영 된 내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이나 채팅방(단톡방 포함)에서 유포된 적이 있다	①	②
8) 돈이나 금품 등 대가를 미끼로 내 사진이나 영상물, 개인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①	②
9) 온라인에서 성관계를 제안 받은 적이 있다(스팸 제외)	①	②
10) 온라인에서 내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위 10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2-1 로 이동하세요.

위 10가지 모두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13 으로 이동하세요.

12-1 그와 같은 경험은 주로 어디에서 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 ②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밴드 등)
- ③ 개인방송(유튜브, 아프리카 등)
- ④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게시판
- ⑤ 랜덤채팅앱
- ⑥ 온라인 게임
-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2-2 그와 같은 일은 누구로부터 경험했나요?
여러 번 경험한 경우,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
- ②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
- ③ 유튜브, BJ 등 인터넷방송 진행자
- ④ 친구, 지인/선호배
- ⑤ 현재 또는 과거의 애인
- ⑥ 가족/친척
-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2-3 그와 같은 경험을 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그냥 참고 넘어갔다(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
- ② 해당 온라인 매체를 탈퇴하거나, 새로운 아이디로 다시 가입했다
- ③ 해당 온라인 매체 관리자 및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 ④ 상대방에게 항의하고, 사과와 정정을 요구했다
- ⑤ 경찰(112 또는 117)에 신고했다
- ⑥ 부모님 또는 선생님에게 알렸다
- ⑦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에게 알렸다
- ⑧ 지원기관(Wee센터, 상담기관 등)에 알렸다
- ⑨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 **13** 으로 가세요

12-3-1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대처 방법을 몰라서
- ② 대응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③ 신고나 처벌 절차가 복잡해서
- ④ 대응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 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몰라서
- ⑥ 상대방이 아는 사람이라서
- ⑦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 ⑧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 ⑨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3

**최근 1년 동안,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받아보았다면,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교육 받은 적이		도움이 된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①	②	①	②	③	④

IV 다음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근로 경험

14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올해(2020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나요?

- ① 현재 하고 있다
 ②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2020년) 한 적이 있다
 ③ 현재 하고 있지도 않고, 올해(2020년) 한 적이 없다 → 16 으로 가세요

14-1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기 때문에
 ②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지는 않지만, 부모님(또는 보호자)께 용돈을 받을 형편은 아니어서
 ③ 부모님(또는 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④ 부모님(또는 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스스로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⑤ 경제적 형편과는 상관없이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⑥ 경제적 형편과는 상관없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4-2 올해(2020년) 한 아르바이트 중 일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아르바이트는 무엇인가요? 아래 보기 중 가장 길게 한 아르바이트 1개만 선택해 주세요.

구분	아르바이트 종류
매장관리	① 편의점/소형마트 ② PC방/ DVD방/ 노래방/ 만화방 ③ 대형마트/ 쇼핑몰/ 아울렛/ 백화점 ④ 기타(의류, 잡화/ 가전, 휴대폰/ 화장품, 뷰티용품 등)
서빙, 주방	⑤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 ⑥ 뷔페/웨딩홀/연회장 ⑦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 햄버거) ⑧ 카페/베이커리/아이스크림
기타	⑨ 전단지 배포(스티커 붙이기) ⑩ 배달/운전(오토바이 배달, 배달앱을 통한 배달 알바 등) ⑪ 물류, 창고 관리/ 택배 상하차 ⑫ 행사 도우미(이벤트/ 지역축제/ 놀이공원 등) ⑬ 공장(제조, 가공/ 포장, 조립 등) ⑭ 주차안내 및 관리 ⑮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분야(내용을 써주세요: _____)

14-3 그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① 1일 이상~1주일 미만 ② 1주일 이상~1개월 미만
 ③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④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⑤ 6개월 이상~1년 미만 ⑥ 1년 이상

14-4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업무 내용,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나요?

- ① 작성하지 않았다
 ② 작성했지만,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③ 작성했지만, 그러한 내용이 일부만 포함되었다
 ④ 그러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15

※ 이번 질문은 14-2 에서 “⑩ 배달/운전”을 선택한 사람만 응답합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배달대행업체에서 호출이나 주문을 받아서(개인사업자)
 ② 매장이나 업체에 직접 고용되어서
 ③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 16 으로 가세요

15-1 배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의 서류를 작성했나요?

문항	작성했다	작성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1) 배달 업무 및 수수료와 관련한 계약서 (위탁계약서, 공유오더수행 서약서, 약관 동의서 등)	①	②	③
2) 산재보험 가입 제외 동의서 ※ 산재보험은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일하면서 다치거나 일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경우,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①	②	③

16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문항	있다	없다
1) 미성년자인데 보호자(부모)동의서를 낼 수 없어서 일을 구하기 어려웠다	①	②
2) 고용주나 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또는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3) 손님(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또는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17 지금까지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에서 일해본 적이 있나요?
(만화방, PC방, 노래방, VR체험카페, 비디오/DVD방, 소주방, 호프집 등 술집, 단란주점, 숙박업소 등)

① 있다 →

② 없다 → **18** 로 가세요

17-1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
| ① 그때는 청소년이 일하면 안 되는 곳인지 잘 몰라서 | ②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 못해서 |
| ③ 다른 데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 ④ 다른 곳에서는 부모님 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
| ⑤ 근무 시간이나 날짜 등 조건이 잘 맞아서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

17-2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금지된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나이를 확인했나요?

- | | |
|------------|----------------|
| ① 나이를 확인했다 | ②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
|------------|----------------|

18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의 근로 권익(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받은 적이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교육 받은 적이		도움이 된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①	②	①	②	③	④



① 어떤 종류의 담배도 피운 적 없다 ② 일반 담배(굴런)
③ 액상형 전자담배(쥬스, 몬스터엑스팟, 비엔도 액상 카트리지 등) ④ 굴런형 전자담배(기열담배, 아이코스, 글로, 릴 등)
⑤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교육 종류	교육 받은 적이		얼마나 해로운지 아는 데 도움이 된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1) 음주 예방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2) 흡연 예방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3) 환경성 물질 위험에 관한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문항	있다	없다
1) 술이나 담배를 직접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한 적이 있다	①	②
2)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구매를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3) 술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구매를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4)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과 사이가 벌어지거나, 폭행, 절도 등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①	②
5) 술을 마시고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음주운전 한 적이 있다	①	②
6) 술에 취해서 강제로 성희롱이나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다	①	②



돈 또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걸고 하는 돈내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해본 적이 있다면 몇 살 때 제일 처음 해보았나요?

카드나 화투, (인형 등) 뽑기, 스포츠 경기 내기, 복권/토도 등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돈 또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걸고서 승자일 경우 물건을 가져가고, 패자일 경우에는 잃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각종 내기 성격의 게임을 의미합니다.

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 26 으로 가세요

② 지난 3개월 동안은 없지만, 그 전에는 해본 적이 있다 —————→ 26 으로 가세요

③ 지난 3개월 동안 해본 적이 있다 —————→ 25 로 가세요

지난 3개월 동안, 돈 또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걸고 하는 아래와 같은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구분	돈내기 게임 유형
온라인	① 한게임, 넷마블 등에 있는 카드/화투 게임 ② 온라인용 그 외 내기 게임(온라인 사다리, 다리다리, 빙고, 달팽이, 그래프 게임 등) ③ 인터넷 복권 구입 ④ 인터넷 스포츠 배팅(토트/프로토 '베트맨' 또는 다른 사이트를 이용한 배팅) ⑤ 다른 사람을 통한 대리 배팅(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TV 등) ⑥ 인터넷 카지노 게임(온라인 포커, 바둑이, 블랙잭, 바카라 등)
오프라인	⑦ 카드나 화투를 이용한 게임(홀라, 블랙잭, 바둑이, 유희왕 등) ⑧ 뽑기 게임 (인형뽑기, 경품뽑기 등) ⑨ 스포츠 경기 내기 (축구, 야구, 농구, 볼링 등) ⑩ 그 외 내기 게임 (짬짜이, 사다리타기, 빙고 등) ⑪ 복권 구입(로또, 연금복권 등) ⑫ 스포츠 복권 구입(토트, 프로토) ⑬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투표권 구입

①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 ②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③ TV, 영화, 만화 등을 보고 ④ 전단지, 인쇄광고물 등을 보고
⑤ 대회/축제 등의 행사 참여를 통해 ⑥ 온라인게임/카페 등의 회원 게시물/댓글 등
⑦ 인터넷 사이트 배너광고/팝업광고 등 ⑧ 이메일로 온 광고 메일/쪽지 등
⑨ 스마트폰으로 온 광고문자 ⑩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① 지금까지 1~2회 해본 정도 ② 한 달에 1~2회 ③ 일주일에 1~2회 ④ 거의 매일

25-3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이 돈내기 게임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스릴과 짜릿한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
② 호기심 또는 일시적인 재미로
③ 고민이나 스트레스, 나쁜 기분(우울, 불안, 분노, 짜증 등)을 잊게 위해서
④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⑤ 친구나 선후배가 하라고 시켜서
⑥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⑦ 지금까지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⑧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5-4

지난 3개월 동안 돈내기 게임을 할 때, 주로 누구와 같이 했나요? 1개만 응답해 주세요.

- ① 나 혼자
② 친구나 선후배와
③ 아르바이트나 모임 등에서 알게 된 사람(오프라인)
④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카페, 채팅앱, 게임사이트 회원 등)
⑤ 가족들과(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등)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5-5

돈내기 게임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문항	있다	없다
1) 돈내기 게임 때문에 내 물건 또는 가족의 물건을 팔았던 적이 있다 (중고물품 거래, 아이템 거래 등)	①	②
2) 돈내기 게임 때문에 남의 돈이나 물건을 몰래 가져오거나, 사기(중고거래 사기, 아이템 거래 사기 등)를 친 적이 있다	①	②
3) 돈내기 게임으로 인해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4) 돈내기 게임 때문에 친구나 선후배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①	②
5) 돈내기 게임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	①	②
6) 돈내기 게임을 위해 빌린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①	②

25-5-1

돈내기 게임을 위해 지금까지 빌린 돈은 전부 얼마 정도인가요?

※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면 0만원 이라고 적어주세요.

만원

26

최근 1년 동안, 돈내기 게임의 위험성을 알리는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받아보았다면,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교육 받은 적이		도움이 된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①	②	①	②	③	④

V

다음은 여러분 주변의 생활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폭력 피해 경험

27

최근 1년 동안,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친구나 선후배, 아는 사람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문항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없다
1)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음	①	②
2) 손, 발 또는 물건으로 맞거나 그로 인해 다침	①	②
3)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4) 때리거나 괴롭히려는 위협을 당함	①	②
5) 왕따(따돌림)를 당함	①	②
6) 강제 심부름(방서들, 와이파이/데이터서들, 게임서들 등)을 당함	①	②
7) 돈을 모아 오라고 강요하거나, 대리입금을 요구받음	①	②
8) 온라인(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	①	②



위 8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27-1 로 이동하세요.

위 8가지 모두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28 로 이동하세요.

27-1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적이 있나요?

① 알린 적이 있다

② 알린 적이 없다

27-1-1 누구 또는 어디에 알렸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가족에게 알렸다
- ② 선생님에게 알렸다
- ③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
- ④ 자원기관에 알렸다(상담기관, Wee센터, 학교폭력신고센터(117) 등)
- ⑤ 경찰(112)에 알렸다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7-1-2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 ①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②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 ③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 ④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 ⑤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 ⑥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7-2 피해를 당한 후 자원기관(학교 상담실, 병원, 전문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 **28** 로 가세요

27-2-1 도움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요? 해당하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
- ②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
- ③ 전문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센터 등)
- ④ 학교폭력신고센터(117)
- ⑤ 청소년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성폭력 피해 경험

28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문항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없다
1)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피해를 당함	①	②
2)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함	①	②
3)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노출 등의 괴롭힘을 당함	①	②
4) 강제로 성관계 시도나 피해를 당함	①	②



위 4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28-1 로 이동하세요.

위 4가지 모두 “없다”로 응답한 경우만 29 로 이동하세요.

28-1 주로 피해를 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
- ② 같은 학교에 다니지는 않지만, 같은 동네 사는 사람
- ③ 같은 시설(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
- ④ 온라인(인터넷)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 ⑤ 잘 모르는 사람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8-2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알린 적이 있나요?

① 알린 적이 있다

② 알린 적이 없다

28-2-1 누구 또는 어디에 알렸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가족에게 알렸다
- ② 선생님에게 알렸다
- ③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
- ④ 자원기관에 알렸다(상담기관,
Wee센터, 학교폭력신고센터(117) 등)
- ⑤ 경찰(112)에 알렸다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8-2-2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 ① 알려줘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② 알린 후에 보복 당할 것이 두려워서
- ③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 ④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 ⑤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 ⑥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8-3

피해를 당한 후 지원기관(학교 상담실, 병원, 전문상담센터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 29 로 가세요

28-3-1

도움을 받은 곳은 어디인가요? 다음 중 해당되는 곳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Wee클래스 등 교내 상담실)
- ② 병원/보건소 등 의료기관
- ③ 전문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 ④ 학교폭력신고센터(117)
- ⑤ 청소년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 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및 단체, 기관 등)
-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 다음은 조건만남에 대한 질문입니다.

※ 조건만남은 돈, 음식, 선물, 술, 지낼 곳 등 물질적인 대가를 약속 받고, 이성과 만나거나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29

지금까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유인하거나 제안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30

지금까지 조건만남을 해본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 31 로 가세요

30-1

조건만남을 처음 경험한 나이는 언제였나요?
당시 연령에 해당하는 학년을 선택해 주세요.

- ① 초등학교 졸업 전
- ② 중1
- ③ 중2
- ④ 중3
- ⑤ 고1
- ⑥ 고2
- ⑦ 고3
- ⑧ 고등학교 졸업 후

30-2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 ② 노는 데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 ③ 갈 곳(잘 곳)이 없어서
- ④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할 수 없이
- ⑤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 ⑥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
- ⑦ 호기심에서
- ⑧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 ⑨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 ⑩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 ⑪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30-3 조건만남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채팅 사이트 또는 채팅앱(1:1채팅, 화상채팅 등)을 통해서
 - ② 랜덤채팅앱(모르는 사람과 채팅, 쪽지)을 통해서
 - ③ SNS 또는 메신저(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를 통해서
 - ④ 친구/선, 후배/ 애인 같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 ⑤ 술집, 거리 등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의 제안으로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 30-4 로 가세요

30-3-1 채팅 사이트나 채팅앱/랜덤채팅앱을 이용할 때, 성인인증을 위해 나이를 확인 했나요?

- ① 확인했다
- ② 확인하지 않았다
- ③ 확인하는 곳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30-4

조건만남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피해를 입은 적 없다 → 30-5 로 가세요
- ② 욕설/위협
- ③ 구타
- ④ 감금
- ⑤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함
- ⑥ 콘돔 사용 거부
- ⑦ 약속한 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줌
- ⑧ 내 돈을 빼앗김
- ⑧ 임신/성병
- ⑩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음
- ⑪ 상대방이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해서 협박함
- ⑫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30-4-1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누구에게 요청했는지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 30-5 로 가세요
- ② 친구
- ③ 애인
- ④ 선·후배
- ⑤ 친척
- ⑥ 가족/친척
- ⑦ 경찰
- ⑧ 상담기관/쉼터 선생님
- ⑨ 학교 선생님
- ⑩ 기타
(내용을 써주세요: _____)

30-4-2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 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
- ② 어디에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 ③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 ④ 내가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 ⑤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 ⑥ 도움을 요청할 정도는 아니어서
- ⑦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싫어서
- ⑧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30-5

조건만남을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해본 적이 있나요?

- ① 결심한 적이 있고 현재 그만두었다 → 31 로 가세요
- ② 결심한 적이 있지만 현재 그만두지 못했다
- ③ 그만둘 생각은 했지만 노력해 본 적 없다
- ④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30-5-1

조건만남을 어떻게 그만둘 수 있었나요?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나 혼자 의지와 노력으로
- ② 가족/친척의 도움으로
- ③ 상담기관/쉼터 선생님의 도움으로
- ④ 친구/선후배의 도움으로
- ⑤ 애인의 도움으로
- ⑥ 경찰에 잡혀가서/처벌을 받아서
- ⑦ 일자리를 구해서
- ⑧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31 지금까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나요?

① 해본 적 있다 →

② 해본 적 없다 → 32 로 가세요

31-1 성관계를 처음 해본 것은 언제인가요? 당시 연령에 해당하는 학년을 선택해 주세요.

- ① 초등학교 졸업 전 ② 중1 ③ 중2 ④ 중3
⑤ 고1 ⑥ 고2 ⑦ 고3 ⑧ 고등학교 졸업 후

31-2 성관계 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을 하였나요?

※ 피임이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콘돔 등 피임도구 이용, 먹는 피임약, 월경주기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① 항상 피임을 했다
② 대부분 피임을 했다
③ 가끔 피임을 했다
④ 전혀 하지 않았다

32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받은 적이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각각 응답해주세요.

교육 종류	교육 받은 적이		도움 정도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됨	도움이 안 됨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1) 학교폭력 예방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2)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3) 성매매 예방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4) 성교육(임신, 피임, 출산, 성병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자해 경험

33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 자해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아프게 하는 등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문항	일주일 한 두 번	한 달에 한 두 번	일 년에 한 두 번	지난 1년 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1) 자해를 생각해보는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으면 33-1 로, 둘 다 “평생 경험한 적 없음”이면 34 로 이동하세요.

33-1 자해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스스로에게 벌을 주기 위해
- ② 나쁜 기분들을 잊추기 위해
- ③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 ④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
- ⑤ 혼자 있을 때 어떤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
- ⑥ 부모님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얻기 위해
- ⑦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 ⑧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33-2

**자해를 시도하고 나서 그 사실을 주변에 알렸나요?
알렸다면, 누구 또는 어디에 알렸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알리지 않았다
- ② 가족에게 알렸다
- ③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에게 알렸다
- ④ 선생님(학교, 학원, 청소년시설 등)에게 알렸다
- ⑤ 상담기관(청소년전화 1388,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등)에 알렸다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 **33-3** 으로 가세요

33-2-1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 ① 알려줘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②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 ③ 내 문제는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 ④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 ⑤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33-3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기관의 상담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

- ① 받아본 적 있다
- ② 받아본 적 없다

33-4

자해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해본 적이 있나요?

- ① 결심한 적이 있고 현재 그만두었다
- ② 결심한 적이 있지만 현재 그만두지 못했다
- ③ 그만둘 생각은 했지만 노력해 본 적 없다
- ④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 **34** 로 가세요

33-4-1 자해를 어떻게 그만둘 수 있었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 ① 나 혼자의 의지와 노력으로
- ② 가족의 도움
- ③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의 도움
- ④ 선생님(학교, 학원, 청소년시설 등)의 도움
- ⑤ 상담기관/의료기관(청소년전화 1388,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병원, 보건소 등)의 도움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34

문항	지난 1년 간, 경험한 적 있음	지난 1년 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평생 경험한 적 없음
1)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다	①	②	③
2)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으면 34-1 로, 둘 다 “평생 경험한 적 없음”이면 35 로 이동하세요.

34-1 죽고 싶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 ② 가족 간의 갈등(가정폭력이나 학대 등)
 -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 ④ 경제적인 어려움
 -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_____)

34-2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알린 적이 있나요? 알렸다면, 누구 또는 어디에 알렸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알리지 않았다
- ② 가족에게 알렸다
- ③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에게 알렸다
- ④ 선생님(학교, 학원, 청소년시설 등)에게 알렸다
- ⑤ 상담기관(청소년전화 1388,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등)에 알렸다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 34-3 으로 가세요

34-2-1 알리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 ① 알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②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③ 내 문제는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 ④ 알려지는 게 창피해서
⑤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34-3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기관의 상담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

- ① 받아본 적 있다 ② 받아본 적 없다

34-4 자살 시도를 그만두려고 결심하거나 노력해본 적이 있나요?

- ① 결심한 적이 있고 현재 그만두었다
 - ② 결심한 적이 있지만 현재 그만두지 못했다
 - ③ 그만둘 생각은 했지만 노력해 본 적 없다
 - ④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 **35** 로 가세요

34-4-1 자살 시도를 어떻게 그만둘 수 있었나요? 모두 골라 주세요.

- ① 나 혼자 의지와 노력으로
- ② 가족의 도움
- ③ 친구, 지인 또는 선후배의 도움
- ④ 선생님(학교, 학원, 청소년시설 등)의 도움
- ⑤ 상담기관/의료기관(청소년전화 1388,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병원, 보건소 등)의 도움
- ⑥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VI 다음은 희망하는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35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면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이용했을 때 도움이 되었는지 각각 응답해 주세요.

문항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도움 정도			
	모른다	안다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청소년전화 1388	①	②	→ ①	②	→ ①	②	③	④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②	→ ①	②	→ ①	②	③	④
3) Wee클래스 또는 Wee센터	①	②	→ ①	②	→ ①	②	③	④
4)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①	②	→ ①	②	→ ①	②	③	④
5)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디딤센터)	①	②	→ ①	②	→ ①	②	③	④

36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가족과의 갈등
- ② 또래(친구 또는 선후배 등)와의 갈등
- ③ 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함
- ④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 ⑤ 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가 어려움
- ⑥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 ⑦ 지낼 곳을 찾기가 어려움
- ⑧ 일을 구하기 어려움
- ⑨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 ⑩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 ⑪ 건강이 안 좋음
- ⑫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술, 담배, 폭력, 절도, 성매매 등)이라도 해야 함
- ⑬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 ⑭ 어려움이 없음

앞으로 여러분에게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있나요?
해당하는 항목의 칸에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 진로 준비				
1) 학습,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①	②	③	④
2)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시정보, 대안학교 등)	①	②	③	④
3)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①	②	③	④
4) 직업교육훈련(자격증 취득 등)	①	②	③	④
■ 일자리 및 자립 지원				
5) 청소년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①	②	③	④
6) 일하면서 겪는 피해(언어 폭력,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보호	①	②	③	④
7) 자산 관리(용돈이나 생활비 혹은 알바비 등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법)와 관련된 정보 제공	①	②	③	④
■ 건강 관리				
8) 건강검진 제공	①	②	③	④
9)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①	②	③	④
10) 성교육 제공	①	②	③	④
■ 상담 서비스				
11)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제공	①	②	③	④
12) 심리, 정서적 상처에 대한 치료나 치유	①	②	③	④
13)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가족캠프,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①	②	③	④
14)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치료 지원	①	②	③	④
■ 활동 기회/ 정보 제공				
1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	①	②	③	④
16) 다양한 청소년 활동(문화예술, 체육,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등) 참여 기회	①	②	③	④
17) 모임, 휴식, 놀이 등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①	②	③	④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VII 일반적 특성

배문1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자

② 여자

배문2 여러분이 태어난 해는 몇 년도 인가요?

--	--	--	--	--

년도

배문3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 방학 중이거나, 격주등교, 부분등교인 경우는 '① 다닌다' 로 응답해주세요.

① 다닌다

② 다니지 않는다

배문4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적이 있나요?

① 그만 둔 적이 있다 →

② 그만 둔 적이 없다 → **배문5** 로 가세요

배문4-1 학교를 그만두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1개만 선택해주세요.

①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② 집안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③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화 때문에

④ 학교 친구들 또는 선생님이 싫어서

⑤ 검정고시 또는 해외유학 준비를 위해

⑥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기 위해

⑦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서

⑧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배문5 여러분은 진로에 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①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다시 학교를 다닐 것이다 (복학,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검정고시 등)

② 취업할 것이다 (부모님이 하는 일을 도우며 돈을 받는 것 포함)

③ 창업할 것이다 (사업, 자영업 등)

④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낼 것이다

⑤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을 것이다

⑥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⑦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배문6 지난 1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받았다

② 받지 않았다

배문7 다음 중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직장 및 학교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사는 것은 함께 사는 것에 포함됩니다. 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 또는 자매

④ (외)할아버지

⑤ (외)할머니

⑥ 친척

⑦ 친구나 선후배

⑧ 쉼터, 그룹홈,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의 식구들

⑨ 혼자

⑩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배문8 여러분과 부모님은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구분	대한민국	북한	그 외 다른 나라
1) 나	①	②	③
2) 아버지	①	②	③
3) 어머니	①	②	③

배문9 여러분의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란 주민센터로부터 정기적으로 현금, 생활용품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그렇다

②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적이 있다

③ 아니다

④ 모르겠다

※ 설문에 모두 응답하셨다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설문을 평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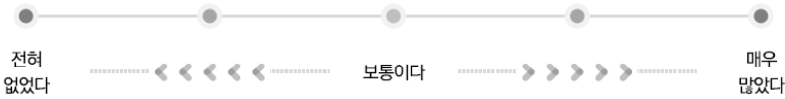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설문 평가하기

01 설문지에는 대답하기 불편한(하고 싶지 않은, 꺼려지는) 문항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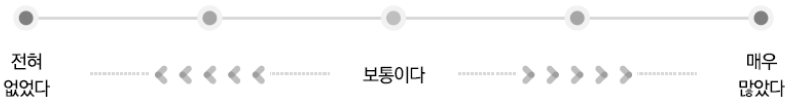
02 설문지에는 따라가기 어려운 이동 로직(~로 가세요, ~로 이동하세요 등)이 있었다.



03 설문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있었다.



04 설문지에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잘 몰라서 대답할 수 없는 문항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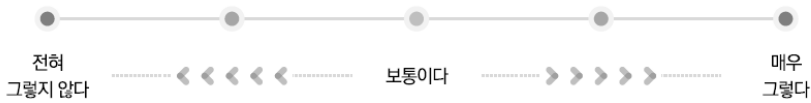


※ 설문에 모두 응답하셨다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설문을 평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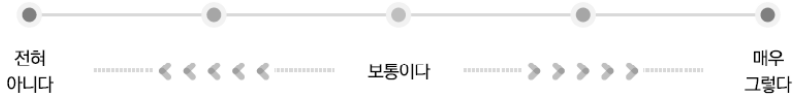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 설문 평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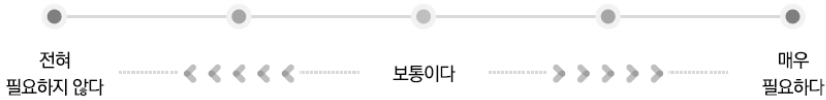
05 설문지에 문항이 많아서 대답하기 힘들거나 지루했다.



06 설문지 구조가 복잡해서 대답하기 어려웠다



07 이 설문을 할 때는 옆에서 도와주는(설명 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설문에 응답하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몇 분 정도였나요?

총 분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예비조사(안) 전문가 의견조사서(웹설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위기청소년 정책이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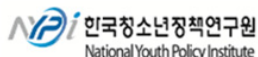
그 일환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설계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 지원 방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선호도를 조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진솔한 평가는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응답 내용은 학술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짧은 연구일정으로 인해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 기관



조사 기관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리서치 박종경 차장 02-3014-0988

■ 연구 수행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여정 연구위원 hyj@nypi.re.kr
이정민 부연구위원 jminlee@nypi.re.kr

개인정보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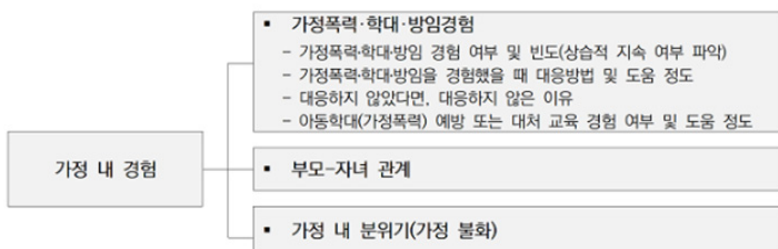
2020년 12월 08일 서명:

Part I. 조사영역 및 세부주제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가정 안팎의 생활경험에 관한 조사의 구성 체계



위 그림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 가정 안팎의 생활경험에 대한 조사의 구성 체계이고, 아래 그림은 구성 체계 중 **가정 내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주제입니다.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1 **가정 내 경험**에 대한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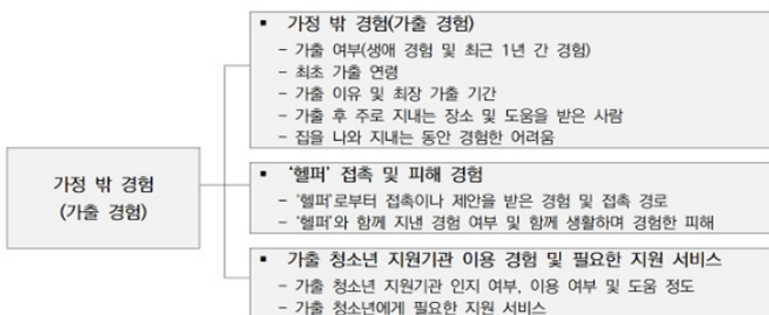
구분	적절하지 못하다	----->					적절하다
		1	2	3	4	5	
가정폭력·학대·방임경험	○	○	○	○	○	○	○
부모-자녀 관계	○	○	○	○	○	○	○
가정 내 분위기(가정 불화)	○	○	○	○	○	○	○

Q1-1 **가정 내 경험**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1. 가정 안팎의 생활경험에 관한 조사의 구성 체계



위 그림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 가정 안팎의 생활경험에 대한 조사의 구성 체계이고, 아래 그림은 구성 체계 중 **가정 밖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주제입니다.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2 **가정 밖 경험**에 대한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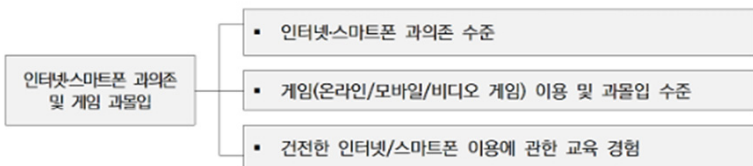
구분	적절하지 못하다 -----> 적절하다					
	1	2	3	4	5	6
가정 밖 경험(가출 경험)	☐	☐	☐	☐	☐	☐
‘헬퍼’ 접촉 및 피해 경험	☐	☐	☐	☐	☐	☐
가출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경험 및 필요한 지원 서비스	☐	☐	☐	☐	☐	☐

Q2-1 **가정 밖 경험**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2. 일상생활 경험에 관한 조사의 구성 체계



위 그림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일상생활경험에 대한 조사의 구성 체계이고, 아래 그림은 구성 체계 중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주제입니다.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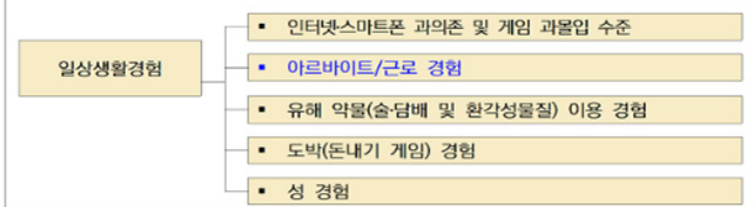


Q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에 대한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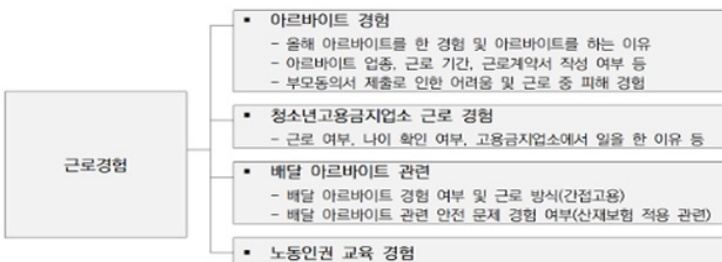
구분	적절하지 못하다	----->					적절하다
		1	2	3	4	5	6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	○	○	○	○	○	○
게임(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 이용 및 과몰입 수준	○	○	○	○	○	○	○

Q3-1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2. 일상생활 경험에 관한 조사의 구성 체계



위 그림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일상생활경험에 대한 조사의 구성 체계이고, 아래 그림은 구성 체계 중 **아르바이트/근로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주제입니다.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4 ▶ **아르바이트/근로경험**에 대한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구분	적절하지 못하다	----->					적절하다
	1	2	3	4	5	6	
아르바이트 경험	○	○	○	○	○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근로 경험	○	○	○	○	○	○	
배달 아르바이트 관련	○	○	○	○	○	○	
노동인권 교육 경험	○	○	○	○	○	○	

Q4-1 ▶ **아르바이트/근로경험**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2. 일상생활 경험에 관한 조사의 구성 체계



위 그림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일상생활경험에 대한 조사의 구성 체계이고, 아래 그림은 구성 체계 중 **술·담배 및 환각성물질 이용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주제입니다.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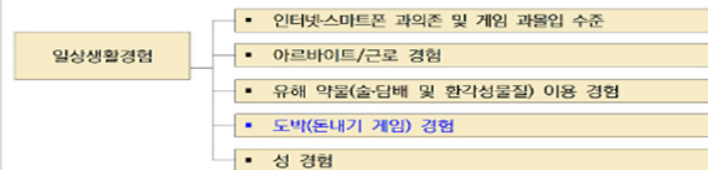


Q5 ▶ **유해약물 이용 경험**에 대한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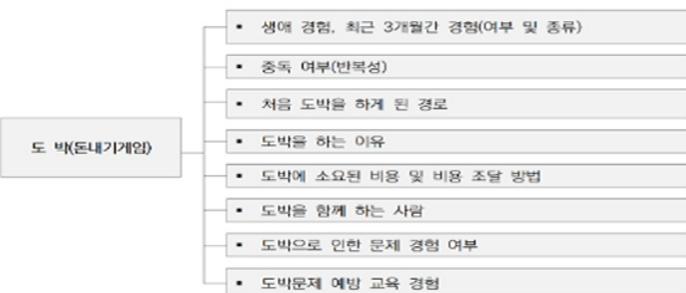
구분	적절하지 못하다	----->					적절하다
	1	2	3	4	5	6	
음주 경험	☐	☐	☐	☐	☐	☐	
흡연 경험	☐	☐	☐	☐	☐	☐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	☐	☐	☐	☐	☐	
약물의 유해성에 대한 예방 교육 경험	☐	☐	☐	☐	☐	☐	
음주·흡연으로 인한 비행 및 부적절 행동에 관한 경험	☐	☐	☐	☐	☐	☐	

Q5-1 ▶ **유해약물 이용 경험**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2. 일상생활 경험에 관한 조사의 구성 체계



위 그림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일상생활경험에 대한 조사의 구성 체계이고, 아래 그림은 구성 체계 중 **도박(돈내기 게임)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세부주제입니다.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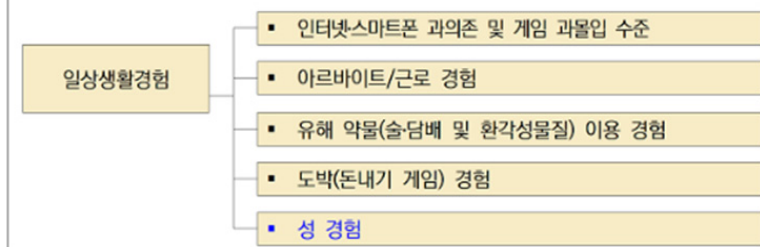


Q6 **도박(돈내기 게임) 이용 실태**에 대한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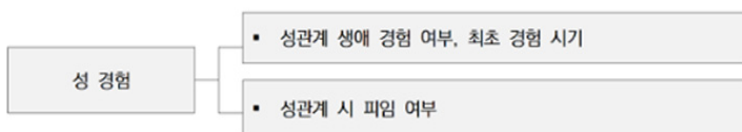
구분	적절하지 못하다	----->					적절하다
		1	2	3	4	5	6
생애 경험, 최근 3개월간 경험(여부 및 종류)	☐	☐	☐	☐	☐	☐	☐
중독 여부(반복성)	☐	☐	☐	☐	☐	☐	☐
처음 도박을 하게 된 경로	☐	☐	☐	☐	☐	☐	☐
도박을 하는 이유	☐	☐	☐	☐	☐	☐	☐
도박에 소요된 비용 및 비용 조달 방법	☐	☐	☐	☐	☐	☐	☐
도박을 함께 하는 사람	☐	☐	☐	☐	☐	☐	☐
도박으로 인한 문제 경험 여부	☐	☐	☐	☐	☐	☐	☐
도박문제 예방 교육 경험	☐	☐	☐	☐	☐	☐	☐

Q6-1 **도박(돈내기 게임) 이용 실태**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2. 일상생활 경험에 관한 조사의 구성 체계



위 그림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일상생활경험에 대한 조사의 구성 체계이고, 아래 그림은 구성 체계 중 **성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주제입니다.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7 **성 경험**에 대한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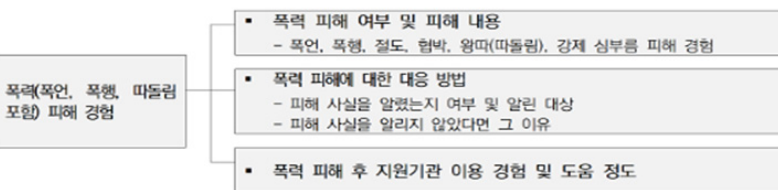
구분	적절하지 못하다	----->					적절하다
		1	2	3	4	5	6
성관계 생애 경험 여부, 최초 경험 시기	○	○	○	○	○	○	○
성관계 시 피임 여부	○	○	○	○	○	○	○

Q7-1 **성 경험**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3. 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의 구성 체계



위 그림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의 구성 체계이고, 아래 그림은 구성 체계 중 **폭력(폭언, 폭행, 따돌림 포함) 피해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주제입니다.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8 **폭력(폭언, 폭행, 따돌림 포함) 피해 경험**에 대한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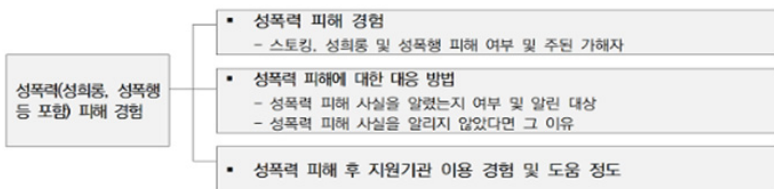
구분	적절하지 못하다	----->					적절하다
	1	2	3	4	5	6	
폭력 피해 여부 및 피해 내용	○	○	○	○	○	○	
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	○	○	○	○	○	○	
폭력 피해 후 지원기관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	○	○	○	○	○	

Q8-1 **폭력(폭언, 폭행, 따돌림 포함) 피해 경험**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3. 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의 구성 체계



위 그림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의 구성 체계이고, 아래 그림은 구성 체계 중 **성폭력(성희롱, 성폭행 등 포함) 피해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주제입니다.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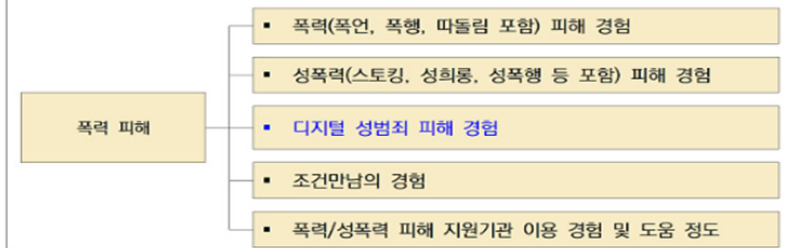


Q9 성폭력(성희롱, 성폭행 등 포함) 피해 경험에 대한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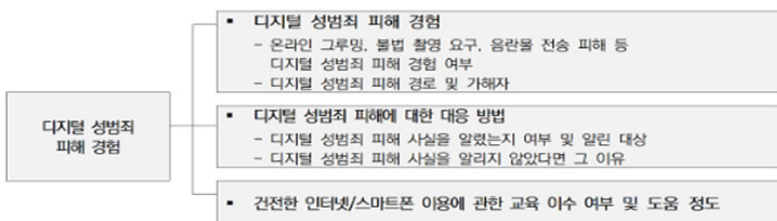
구분	적절하지 못하다	----->					적절하다
	1	2	3	4	5	6	
성폭력 피해 경험	○	○	○	○	○	○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	○	○	○	○	○	○	
성폭력 피해 후 지원기관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	○	○	○	○	○	

Q9-1 성폭력(성희롱, 성폭행 등 포함) 피해 경험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3. 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의 구성 체계



위 그림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의 구성 체계이고, 아래 그림은 구성 체계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세부주제입니다.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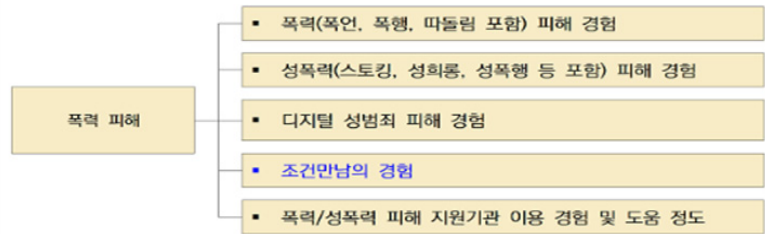


Q10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에 대한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구분	적절하지 못하다	----->					적절하다
		1	2	3	4	5	6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	○	○	○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	○	○	○	○	○	○	○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 및 도움 정도	○	○	○	○	○	○	○

Q10-1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3. 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의 구성 체계



위 그림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의 구성 체계이고, 아래 그림은 구성 체계 중 **조건만남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주제입니다.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11 → **조건만남 경험**에 대한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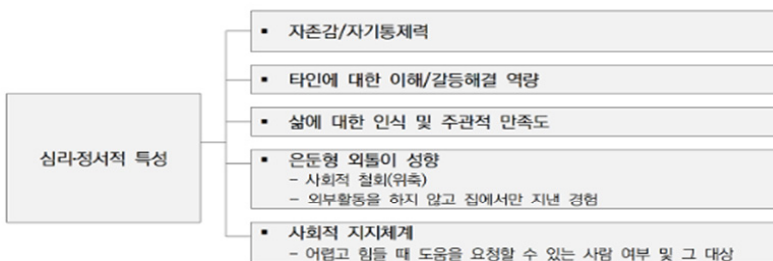
구분	적절하지 못하다	----->					적절하다
	1	2	3	4	5	6	
조건만남 제안을 받은 경험	☐	☐	☐	☐	☐	☐	
조건만남 경험 여부 및 최초 경험 시기	☐	☐	☐	☐	☐	☐	
조건만남의 주요 경로	☐	☐	☐	☐	☐	☐	
조건만남 시 경험한 피해(피해의 종류 및 대응 방법)	☐	☐	☐	☐	☐	☐	
조건만남을 스스로 그만두기 위한 노력 여부 및 스스로 그만두는 데 도움을 준 요인	☐	☐	☐	☐	☐	☐	

Q11-1 → **조건만남 경험**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4.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에 관한 조사의 구성 체계



위 그림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에 대한 조사의 구성 체계이고, 아래 그림은 구성 체계 중 **심리·정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주제입니다.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12 ▶ **심리·정서적 특성**에 대한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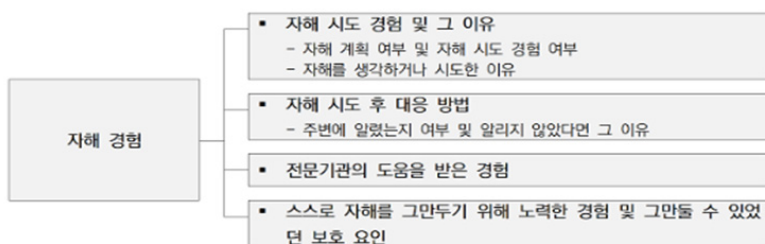
구분	적절하지 못하다	----->					적절하다
	1	2	3	4	5	6	
자존감/자기통제력	○	○	○	○	○	○	
타인에 대한 이해/갈등해결 역량	○	○	○	○	○	○	
삶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만족도	○	○	○	○	○	○	
은둔형 외톨이 성향	○	○	○	○	○	○	
사회적 지지체계	○	○	○	○	○	○	

Q12-1 ▶ **심리·정서적 특성**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4.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에 관한 조사의 구성 체계



위 그림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에 대한 조사의 구성 체계이고, 아래 그림은 구성 체계 중 **자해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주제입니다.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13 **자해 경험**에 대한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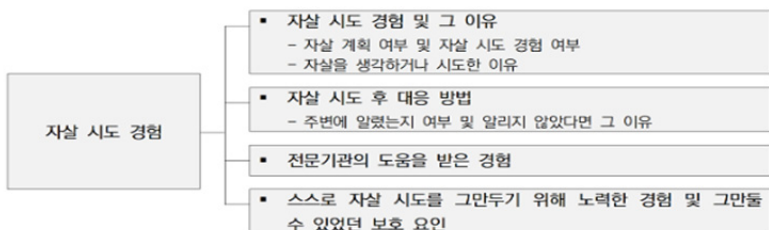
구분	적절하지 못하다	----->					적절하다
		1	2	3	4	5	6
자해 시도 경험 및 그 이유	○	○	○	○	○	○	○
자해 시도 후 대응 방법	○	○	○	○	○	○	○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	○	○	○	○	○	○
스스로 자해를 그만두기 위해 노력한 경험 및 그만둘 수 있었던 보호 요인	○	○	○	○	○	○	○

Q13-1 **자해 경험**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4.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에 관한 조사의 구성 체계



위 그림은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에 대한 조사의 구성 체계이고, 아래 그림은 구성 체계 중 **자살 시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세부주제입니다.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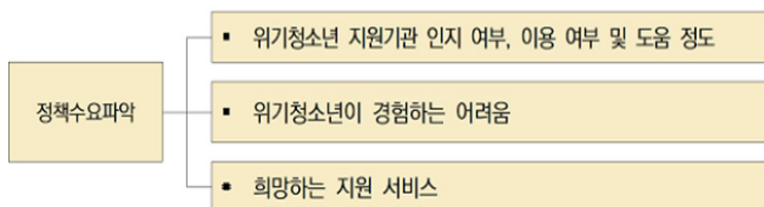


Q14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한 각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구분	적절하지 못하다	----->					적절하다
		1	2	3	4	5	6
자살 시도 경험 및 그 이유	☐	☐	☐	☐	☐	☐	☐
자살 시도 후 대응 방법	☐	☐	☐	☐	☐	☐	☐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	☐	☐	☐	☐	☐	☐
스스로 자살 시도를 그만두기 위해 노력한 경험 및 그만둘 수 있었던 보호 요인	☐	☐	☐	☐	☐	☐	☐

Q14-1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5. 정책 수요/지원 방안에 관한 조사의 구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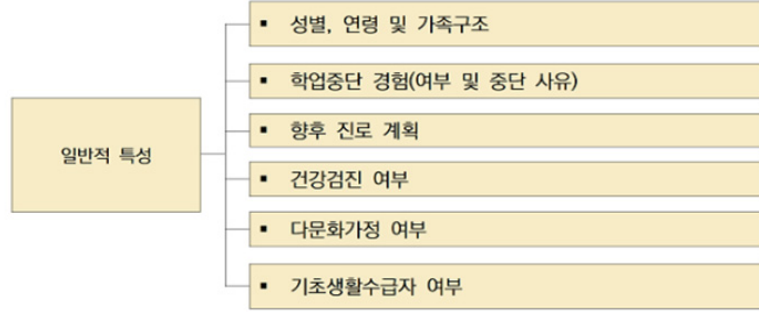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위기청소년의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구성 체계는 위와 같습니다. 각 구성 체계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15 **위기청소년의 정책 수요 파악**에 대한 각 구성 체계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구분	적절하지 못하다	----->					적절하다
		1	2	3	4	5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	☐	☐	☐	☐	☐	☐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	☐	☐	☐	☐	☐	☐	☐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	☐	☐	☐	☐	☐	☐	☐

Q15-1 **위기청소년의 정책 수요 파악**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6. 일반적 특성에 관한 의견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위기청소년에 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구성 체계는 위와 같습니다. 각 구성 체계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16 **위기청소년에 관한 일반적 특성**에 대한 각 구성 체계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십시오.

구분	적절하지 못하다	----->					적절하다
		1	2	3	4	5	6
성별, 연령 및 가족구조	☐	☐	☐	☐	☐	☐	☐
학업중단 경험(여부 및 중단 사유)	☐	☐	☐	☐	☐	☐	☐
향후 진로 계획	☐	☐	☐	☐	☐	☐	☐
건강검진 여부	☐	☐	☐	☐	☐	☐	☐
다문화가정 여부	☐	☐	☐	☐	☐	☐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	☐	☐	☐	☐	☐

Q16-1 **위기청소년에 관한 일반적 특성**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

Q17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내용(안)은 크게 위기 실태를 파악하는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일상 생활 경험, 폭력 피해,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의 4가지 영역과 '정책적 지원' 요구, 일반적 특성의 2가지 영역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기 실태를 파악하는 4가지 영역에 대해 2개의 항목 지어 비교했을 때, 둘 중 상대적으로 어떤 영역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지 **질병 기조가 되는 데 대한 목적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세부주제
1.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가정 내 경험] 가정폭력·학대·방임 경험 및 부모-자녀관계 [가정 밖 경험] 가출 경험
2. 일상 생활 경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 수준 아르바이트/근로 경험 유해 약물(술·담배 및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성 경험
3. 폭력 피해 경험	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조건만남 경험
4. 심리·정서적 특성 및 행동	자존감/자기통제력 타인에 대한 이해/갈등해결 역량 삶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만족도 은둔형 외톨이 성향 사회적 지지 체계 자해·자살 시도 경험

평가항목(A)	A가 절대 중요	A가 매우 중요		A가 중요		A가 약간 중요		비 중 하 게 중요		B가 약간 중요		B가 중요		B가 매우 중요		B가 절대 중요	평가항목(B)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가정환경, 가출경험)	○	○	○	○	○	○	○	○	○	○	○	○	○	○	○	○	일상 생활 경험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가정환경, 가출경험)	○	○	○	○	○	○	○	○	○	○	○	○	○	○	○	○	폭력 피해 경험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가정환경, 가출경험)	○	○	○	○	○	○	○	○	○	○	○	○	○	○	○	○	심리·정서적 특성 및 행동
일상 생활 경험	○	○	○	○	○	○	○	○	○	○	○	○	○	○	○	○	폭력 피해 경험
일상 생활 경험	○	○	○	○	○	○	○	○	○	○	○	○	○	○	○	○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폭력 피해 경험	○	○	○	○	○	○	○	○	○	○	○	○	○	○	○	○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영역 내 상대적 중요도

1)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영역 세부주제의 상대적 중요도

Q18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영역은 위기청소년이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정폭력·학대·방임 경험, 부모-자녀 관계, 가정 내 분위기(가정 불화)와 가정 밖에서 경험한 기술 경험, '별파' 접촉 및 피해 경험, 기술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경험'** 등 각각 3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영역 간 2개씩 짝을 지어 비교했을 때, 둘 중 상대적으로 어떤 영역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지 **강력 기초자료 산출이라는 실태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 내 경험

가정 내 경험

■ 가정폭력·학대·방임경험

- 가정폭력·학대·방임 경험 여부 및 빈도(상습적 지속 여부 파악)
- 가정폭력·학대·방임을 경험했을 때 대응방법 및 도움 정도
- 대응하지 않았다면, 대응하지 않은 이유
-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또는 대처 교육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 부모-자녀 관계

■ 가정 내 분위기(가정 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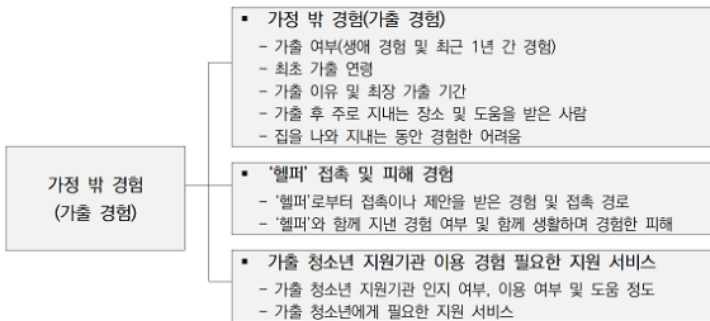
평가항목(A)	A가 매우편다(악어)	A가 편다(악어)	A가 매우중립	A가 중립	A가 악가정 편다(악어)	A가 안가정 편다(악어)	비 중립	비 중립 가정	B가 악가정 편다(악어)	B가 중립	B가 매우중립	B가 편다(악어)	평가항목(B)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가정폭력·학대·방임 경험	○	○	○	○	○	○	○	○	○	○	○	○	○	○	○	○	○	부모-자녀 관계
가정폭력·학대·방임 경험	○	○	○	○	○	○	○	○	○	○	○	○	○	○	○	○	○	가정 내 분위기 (가정불화)
부모-자녀 관계	○	○	○	○	○	○	○	○	○	○	○	○	○	○	○	○	○	가정 내 분위기 (가정불화)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영역 내 상대적 중요도

1)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영역 세부주제의 상대적 중요도

Q18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영역은 위기청소년이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정폭력·학대·발달 경험, 부모·자녀 관계, 가정 내 분위기(가정문화)'와 가정 밖에서 경험한 '가출 경험, '헬퍼' 접촉 및 피해 경험, 가출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경험'** 등 각각 3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영역 간 2개의 항목 지어 비교했을 때, 둘 중 상대적으로 어떤 영역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지 **정책 기조자료 산출이라는 실태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 밖 경험



평가항목(A)	A가 덜 중요함	A가 덜 중요함	A가 중요함	A가 중요함	A가 중요함	A가 중요함	A가 중요함	A가 중요함	비 중 요	비 중 요	B가 중요함	B가 중요함	B가 중요함	B가 중요함	B가 중요함	평가항목(B)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가정 밖 경험 (가출 경험)	○	○	○	○	○	○	○	○	○	○	○	○	○	○	○	○	○	'헬퍼' 접촉 및 피해 경험
가정 밖 경험 (가출 경험)	○	○	○	○	○	○	○	○	○	○	○	○	○	○	○	○	○	가출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경험 및 필요한 지원서비스
'헬퍼' 접촉 및 피해 경험	○	○	○	○	○	○	○	○	○	○	○	○	○	○	○	○	○	가출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경험 및 필요한 지원서비스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영역 내 상대적 중요도

2) 일상생활 경험 영역 세부주제의 상대적 중요도

Q15 [일상생활 경험] 영역은 위기청소년이 평소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 약물(술·담배·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성 경험, 근로 경험,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등 6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영역 간 2개씩 항목을 지어 비교했을 때, 둘 중 상대적으로 어떤 영역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지 **정답기호**로 산출이라는 실태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상생활 경험에 관한 조사의 구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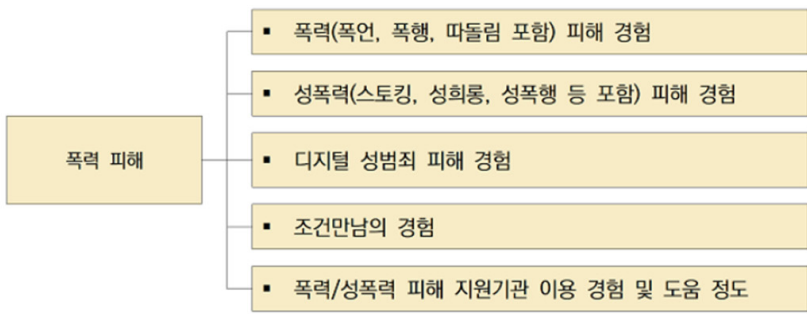
평가항목(A)	A가 덜 중요하다	A가 덜 중요하다	A가 덜 중요하다	A가 덜 중요하다	A가 덜 중요하다	A가 덜 중요하다	A가 덜 중요하다	A가 덜 중요하다	중 요	B가 덜 중요하다	B가 덜 중요하다	B가 덜 중요하다	B가 덜 중요하다	B가 덜 중요하다	B가 덜 중요하다	평가항목(B)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	○	○	○	○	○	○	○	○	○	○	○	○	○	○	○	○	아로바이트/근로 경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	○	○	○	○	○	○	○	○	○	○	○	○	○	○	○	○	유해 약물(술, 담배,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	○	○	○	○	○	○	○	○	○	○	○	○	○	○	○	○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게임 과몰입	○	○	○	○	○	○	○	○	○	○	○	○	○	○	○	○	성 경험
아로바이트/근로 경험	○	○	○	○	○	○	○	○	○	○	○	○	○	○	○	○	유해 약물(술, 담배,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아로바이트/근로 경험	○	○	○	○	○	○	○	○	○	○	○	○	○	○	○	○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아로바이트/근로 경험	○	○	○	○	○	○	○	○	○	○	○	○	○	○	○	○	성 경험
유해 약물(술, 담배,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	○	○	○	○	○	○	○	○	○	○	○	○	○	○	○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유해 약물(술, 담배, 환각성 물질) 이용 경험	○	○	○	○	○	○	○	○	○	○	○	○	○	○	○	○	성 경험
도박(돈내기 게임) 경험	○	○	○	○	○	○	○	○	○	○	○	○	○	○	○	○	성 경험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영역 내 상대적 중요도

3) [폭력 피해] 영역 세부주제의 상대적 중요도

020 [폭력 피해]영역은 '폭력 피해(폭언, 폭행, 따돌림 포함) 경험, 성폭력 피해(스토킹, 성희롱, 성폭행 등 포함) 경험,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조건만남 경험' 등 4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영역 간 2개씩 짝을 지어 비교했을 때, 둘 중 상대적으로 어떤 영역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지 **정답기호자료 산출이라는 실태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의 구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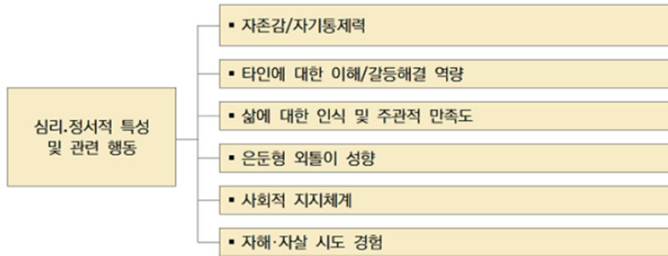


평가항목(A)	A가 조금더중요하다		A가 매우중요하다		A가 중요하다		A가 중요하다		비 중요하게 중요하다		B가 중요하다		B가 중요하다		B가 매우중요하다		B가 조금더중요하다		평가항목(B)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폭력 피해 경험 (폭언, 폭행, 따돌림 등)	○	○	○	○	○	○	○	○	○	○	○	○	○	○	○	○	○	성폭력 피해 경험 (스토킹, 성희롱, 성폭행 등)	
폭력 피해 경험 (폭언, 폭행, 따돌림 등)	○	○	○	○	○	○	○	○	○	○	○	○	○	○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 등)	
폭력 피해 경험 (폭언, 폭행, 따돌림 등)	○	○	○	○	○	○	○	○	○	○	○	○	○	○	○	○	○	조건만남 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 (스토킹, 성희롱, 성폭행 등)	○	○	○	○	○	○	○	○	○	○	○	○	○	○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 등)	
성폭력 피해 경험 (스토킹, 성희롱, 성폭행 등)	○	○	○	○	○	○	○	○	○	○	○	○	○	○	○	○	○	조건만남 경험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 등)	○	○	○	○	○	○	○	○	○	○	○	○	○	○	○	○	○	조건만남 경험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영역 내 상대적 중요도

4)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영역 세부주제의 상대적 중요도

Q2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 및 그와 연계된 행동과 관련하여, **자존감/자기통제력, 타인에 대한 이해/갈등해결 역량, 삶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만족도, 은둔형 외톨이 성향, 사회적 지지체계** 등 6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영역 간 2개씩 짝을 지어 비교했을 때, 둘 중 상대적으로 어떤 영역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지 **겉보기자료 산출이라는 실태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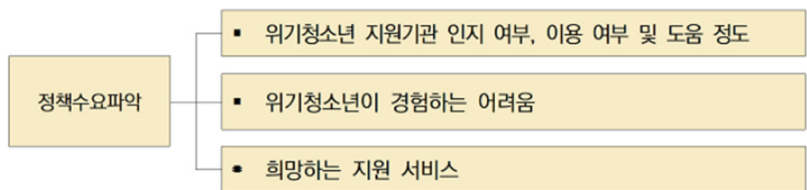
평가항목(A)	A가 덜 중요하다		A가 매우 중요하다		A가 중요하다		A가 양호하다		비 중 요 한 것이다		B가 양호하다		B가 중요하다		B가 매우 중요하다		B가 덜 중요하다	평가항목(B)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자존감/자기통제력	○	○	○	○	○	○	○	○	○	○	○	○	○	○	○	○	○	타인에 대한 이해/ 갈등해결 역량
자존감/자기통제력	○	○	○	○	○	○	○	○	○	○	○	○	○	○	○	○	○	삶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만족도
자존감/자기통제력	○	○	○	○	○	○	○	○	○	○	○	○	○	○	○	○	○	은둔형 외톨이 성향
자존감/자기통제력	○	○	○	○	○	○	○	○	○	○	○	○	○	○	○	○	○	사회적 지지 체계
자존감/자기통제력	○	○	○	○	○	○	○	○	○	○	○	○	○	○	○	○	○	자해·자살 시도 경험
타인에 대한 이해/ 갈등해결 역량	○	○	○	○	○	○	○	○	○	○	○	○	○	○	○	○	○	삶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만족도
타인에 대한 이해/ 갈등해결 역량	○	○	○	○	○	○	○	○	○	○	○	○	○	○	○	○	○	은둔형 외톨이 성향
타인에 대한 이해/ 갈등해결 역량	○	○	○	○	○	○	○	○	○	○	○	○	○	○	○	○	○	사회적 지지 체계
타인에 대한 이해/ 갈등해결 역량	○	○	○	○	○	○	○	○	○	○	○	○	○	○	○	○	○	자해·자살 시도 경험
삶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만족도	○	○	○	○	○	○	○	○	○	○	○	○	○	○	○	○	○	은둔형 외톨이 성향
삶에 대한 인식 및 주관적 만족도	○	○	○	○	○	○	○	○	○	○	○	○	○	○	○	○	○	사회적 지지 체계
은둔형 외톨이 성향	○	○	○	○	○	○	○	○	○	○	○	○	○	○	○	○	○	자해·자살 시도 경험
은둔형 외톨이 성향	○	○	○	○	○	○	○	○	○	○	○	○	○	○	○	○	○	사회적 지지 체계
사회적 지지 체계	○	○	○	○	○	○	○	○	○	○	○	○	○	○	○	○	○	자해·자살 시도 경험

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조사영역 내 상대적 중요도

5) [정책 수요 및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 영역 세부주제의 상대적 중요도

Q22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할과 동시에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적 수요를 확인하고자 위기청소년들이 위기 상황 경험 시 주변에 알렸는지, **위기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지원기관의 인지여부**,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를 묻고자 합니다. 각 영역 간 2개씩 짝을 지어 비교했을 때, 둘 중 상대적으로 어떤 영역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지 **정책기초자료 산출이라는 실태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책 수요/지원 방안에 관한 조사의 구성 체계



평가항목(A)	A가 적당하 다	A가 매우 적당하 다	A가 중요하 다	A가 매우 중요하 다	A가 중요하 다	A가 매우 중요하 다	비 중 요 하 다	중 요 하 다	B가 적당하 다	B가 매우 적당하 다	B가 중요하 다	B가 매우 중요하 다	B가 중요하 다	B가 매우 중요하 다	평가항목(B)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시 도움 정도	○	○	○	○	○	○	○	○	○	○	○	○	○	○	○	○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시 도움 정도	○	○	○	○	○	○	○	○	○	○	○	○	○	○	○	○	희망하는 자원 서비스
위기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	○	○	○	○	○	○	○	○	○	○	○	○	○	○	○	○	희망하는 자원 서비스

준비된 설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sign the “Youth At-risk Survey” for the improvement of the statistical environment concerning youth at-risk, where systematic statistical data were unavailable despite their importance to the youth protection and welfare policy. To effectively achieve the goal of this research, we surveyed previous research, analyzed secondary data, reviewed administrative statistical data, and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FGIs), an online survey of experts, and pilot survey of youth at-risk (including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The design of the “Youth At-Risk Survey” is divided largely into three parts: survey target, survey items, and factual survey methods. For the design of the survey target, we set youth at-risk as the group to be targeted by this policy and inductively based the types and categories of the group on the results of a review of relevant laws and data. We categorized the risk factors into family, education, personal life, and society and included poverty, running away from home, domestic violence, abuse, school adjustment problems, school violence, harmful substances, Internet, cell phone, and game addiction, gambling, crime, psychology, and mental risks in each category.

The survey items consist of 123 items on 14 topics in 6 categories, based on the analysis of 29 surveys conducted by relevant organizations, FGIs by experts, opinions of government offices and youths at-risk themselves, and reviews conducted by researchers.

The appropriateness and validity of the survey items have been assured

by experts. We also conducted a preliminary survey of 627 at-risk young people and analyzed the responses provided by 565 respondent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questionnaire and appropriateness of the survey items have been positively assessed. Also, the questionnaire was revi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survey.

By considering all aspects mentioned above, we proposed the factual survey methods, including the survey name and purpose, number of proposed survey examiners and actual examiners, number of survey respondents, and survey types, methods, and frequency.

Finally, we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factual survey of youth at-risk and ensure that its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olicy making. First, we proposed a method for absorbing and integrating existing investigations to prepare the legal basis for investigations of youth at-risk, improve the legal basis for other investigations, forge connections with major government policy plans, establish effective investigation governance, and prevent duplication with existing investigations. Second, we proposed ways of utilizing the survey results by formulating the “Comprehensive Policies for the Support of Youth At-Risk” in order to use the data of the factual survey of youth at-risk as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areas of youth protection and welfare. Last but not least, we suggested the importance of research on policy related to youth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s a future task for the policy for supporting youth at-risk and ways of incorporating the factual survey data into administrative statistical data from a long-term perspective.

Keyword: youth at-risk, current state of youth at-risk, types of youth at-risk, factual survey, risk and protective factors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 20-R02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유민상·최정원·이수정·장혜림
- 20-R03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오해섭·문호영
-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최용환·성유리·박윤수·김보경
- 20-R05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조방안 연구 II :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이종원·남화성·정지희
- 20-R0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1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2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7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 김경준·김정숙·윤철경
- 20-R08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서정아·성운숙·송태민
- 20-R08-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1_청소년 비만에 대한 비정형 빅데이터 연구 / 송태민
- 20-R08-2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_청소년 행복 결정 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 홍성호
- 20-R09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승경·임세희·최은영
- 20-R1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 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 20-R10-1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심화 분석보고서 / 박환보·주경필
- 20-R10-2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 분석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
-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 최인재·

강경균·송민경·조윤정·김가희

20-R12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황영식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20-R13-1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1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20-R13-2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2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장근영·이동훈·윤철경 (자체번호 20-R1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 오은진·장희영 (자체번호 20-R14-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총괄보고서 / 김기현·신동훈·변금선·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 청년 이직자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신동훈·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백혜정·임희진·송미경·김양희 (자체번호 20-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국내·외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 류정희·이상정·박선영·전민경 (자체번호 20-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백혜정·임희진 (자체번호 20-R1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교 / 배상률·이창호·이정림 (자체번호 20-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교 - 해외사례 조사 / 정현선·심우민·윤지원·김광희·최원석 (자체번호 20-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교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0-R17-2)

연구개발직립금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황여정·이정민

- 20-R24-1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황여정·이정민·김수혜
- 20-R25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모상현
- 20-R26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 김현철

수 시 과 제

- 20-R18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이정민·이종원
-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배정희·김기현
- 20-R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황진구·김지연
- 20-R21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이창호
- 20-R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편 방안 연구 / 김경준·이종원·박정배
-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 김희진·백혜정

수 탁 과 제

- 20-R27 청소년 비즈쿨 활성화를 위한 고교교육 정책 연계방안 연구 / 강경균·안재영·황은희
- 20-R28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29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 김영한
- 20-R29-1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요약본) / 김영한
- 20-R30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양미석
- 20-R3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5종)
- 20-R31-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1~2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3~4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3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5~6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4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중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고등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2 2019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양미석

- 20-R33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적용방안: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 성윤숙·양미석
- 20-R34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 20-R34-1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초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2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중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3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고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5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성윤숙·이윤소
- 20-R36 어울림 자유학기 프로그램(5종)
- 20-R36-1 어울림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놀러와! 어울림 세상)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선보라·이혜옥·이윤소
- 20-R36-2 자유학기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 성윤숙·배은정·이윤소
- 20-R36-3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사회) / 성윤숙·선보라·이윤소
- 20-R36-4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도덕) / 성윤숙·이혜옥·이윤소
- 20-R36-5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국어)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이윤소
- 20-R37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성윤숙
- 20-R3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용역 / 김형주·김혁진·김정주
- 20-R3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40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남화성
- 20-R41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유진
- 20-R41-1 꿈과 친구사이 :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매뉴얼 / 이유진
- 20-R42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연구 / 최창욱·문호영
- 20-R4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사 및 자립업무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 김지연·백혜정·이상정
- 20-R44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20-R45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 김영지·황세영·손진희·박명선·박종원·조기영
- 20-R46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연구 / 최창욱·좌동훈
- 20-R47 농업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농촌 청소년 실태조사 / 오해섭·최홍일
- 20-R48 성남시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 / 황진구·남화성
- 20-R49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 황진구·좌동훈
- 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최창욱

- 20-R51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 최용환·곽창규·이성규
- 20-R52 수원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용환·김보경
- 20-R53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20-R54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 최인재·송원일·박지원
- 20-R55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송원일·배수인
- 20-R5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의 성장관리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 이정민·성유리·김혜원
- 20-R57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방안 연구 - 특성화고 혁신지원 운영모형 개발 / 강경균·김영만·김용성
- 20-R5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 김희진·임희진·정윤미
- 20-R6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 개발 / 연보라·최정원·김성은
- 20-R61 학업중단 현황 및 지원 방안 / 김성은·박하나·김현수
- 20-R62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연구 / 장근영·김기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0-S01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30)
- 20-S0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보고회(1.31)
- 20-S03 2020년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1.22)
- 20-S04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1.31)
- 20-S05 제25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강원국 교수의 매력적인 글쓰기 특강(4.23)
- 20-S06 제26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김병완 작가의 쿼텀 독서법 및 책쓰기 특강(4.21)
- 20-S07 2020년 제29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안(6.19)
- 20-S08 2020년 제30회 청소년정책포럼 :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7.17)

20-S09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실무 역량 강화 연수(초등, 중등, 고등)(7.28)
20-S10	2020년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7.28)
20-S11	제3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묻다 <별점 인생>(8.5)
20-S12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1)
20-S13	제3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Z세대의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스타마켓을 중심으로(8.26)
20-S14	2020년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8.18)
20-S15	청소년 이슈 관련 네트워크 분석(8.25)
20-S16	2020년 제33회 청소년정책포럼 : 학교 안팎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9.23)
20-S17	제3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10.6)
20-S18	2020년 대안학교 관리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10.5)
20-S19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10.5)
20-S20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10.21)
20-S21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11.12~13)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11.13)
20-S23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11.18)
20-S24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 사이버폭력 정책 동향 및 국내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방향 모색)(12.18)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11.28)
20-S26	제9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11.20)
20-S27	제36차 청소년정책포럼: 우리나라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12.1)
20-S28	제37차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체계의 과제와 방향(12.8)
20-S29	제1차 10대청소년목소리포럼: 코로나로 세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이상을 쓰다 - 동고동락, 각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12.5)
20-S30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12.17)
20-S31	제39차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12.22)
20-S32	진로위기학생 유형별 진로교육 실천과제 성과보고회 자료집(11.27)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9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9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99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9호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 학교 졸업 예정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1호 :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2호 :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3호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4호 :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5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6호 : 「청년기본법」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7호 :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8호 :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9호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NYPI Bluenote 통계 49호 :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대학교 실습 학기제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50호 :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1호 :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5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인 쇄 2020년 12월 23일

발 행 2020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05-3 94330

979-11-5654-304-6 (세트)



연구보고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